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야고보 알베리오네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성직자와 여성을 위하여

바오로가족

바오로 영성 센터 엮음

csp@stpaulis.it

© 성바오로수도회 총원, 로마 2001

출판 승인 및 허가, 감수

2000년 11월 26일, 로마

피에트로 캠푸스 신부Sac. Pietro Campus,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로산나 베네데티 수녀님Rosanna Benedetti(SGBP), 엘리사베타 카펠

로 수녀님Elisabetta Capello(FSP), 메르체데스 마스트로스테파노 수녀님

Mercedes Mastrostefano(FSP), 미카엘라 모네티 수녀님Micaela Monetti(PD),

바올라 토니나토 수녀님Paola Toninato(AP)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작품 머리글자: DA

© EDIZIONI SAN PAOLO s.r.l., 2001

Piazza Soncino, 5 - 20092 Cinisello Balsamo (Milano)

www.edizionisanpaolo.it

Distribuzione: Diffusione San Paolo s.r.l.

Corso Regina Margherita, 2 - 10153 Torino

차례

서 문	9
1. 작품의 중요성 2.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이 지닌 역사	
3.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에 나타난 역사 4. 책 내용	
알려두기	20
1915년 출판본 원본 표지	21
현 정	23
저자의 말	25

제 1 부

머리말	30
제1장 사제의 사명	31
제2장 그리스도인 여성과 사도인 여성	38
[참된 덕성의 형성] /38 - [여성을 통하여 남성에게]/40	
제3장 두 종류의 여성주의	47
[사회주의와 프리메이슨 여성주의] /48 -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54	
제4장 과거의 여성 사도직	64
[성경의 세 영웅] /64 -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 /66 - [교회	
역사에서] /68 - [하와와 마리아]/77	
제5장 여성의 능력	80
[마음의 힘]/80 - [가족의 마음속에]/84	
제6장 여성의 소명	88
[남성의 동반자요 영감을 주는 자]/89	

제7장 여성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성직자의 사명 92
 [연결고리] /92 - [공통 성소]/93

제 2 부

머리말 100

제1장 개인 차원에서 본 여성의 열의 101

제1조 : 기도의 사도직/101 - 죽은 이들을 위해/104 -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107 - 기도를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도직/109

제2조: 모범의 사도직/112 - [첫 번째 교육학]/113 - [신심과 감추어진 덕성의 매력]/114 - [사랑의 힘]/116

제3조: 말씀의 사도직/118 - 교정을 통해/120 - 좋은 말/123 - 교리를 통해/124 - 노래/127

제4조 : 활동의 사도직/128 - 출판물 통해/129 -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133 - 교회 사목자들의 열의를 따를 것/134 - 성사에 자주 참여하기 위해/137 - 열의를 다해 협력자들을 양성할 것/139

제2장 가정에서의 여성의 열의 144

제1조 : 어머니/144 - 도움의 필요성/144 - 교육 목적/147 - 교육 수단1/149 - 교육 수단2/156 - 교육 수단3/158 - 교육 수단4/161 - 결론/162

제2조 : 아내/163 -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164 - [남편을 악에서 보호할 것]/166 - [남편을 선으로 이끌 것]/167 - [남편을 교육자로 만들 것]/168

제3조 : 딸 /169

제3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열성 174

제1조 : 일반 원칙/174

제2조 : 조직을 위한 기도/180 - 1. 세상의 구원자 예수께(남성을 위하여)/180 - 2. 세상의 구원자 예수께 (여성을 위하여)/181 - 3.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께 바치는 기도/183 - 4. 선한 출판의 수호자 성 바오로께 바치는 매일의 기도/185 - 5.영성체를 경건하게 자주 하도록 장려하는 기도/186 - 6.사제들을 위한 기도/187

제3조 : 윤리적 종교적 활동/188 - 가톨릭 여성 협회/188 - 그리스도인 윤리를 위하여/192 - 경신례와 신앙을 위하여/194 - 기도 사도직 협회/197 - 예수 성심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들의 협회/198 - 어린이의 영성체를 돕는 경건한 협회/199 - 마리아의 딸회와 그리스도인 어머니회/200 - 영적 우정/201 -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의 경건한 딸회/204 - 학교 문제를 위한 협회 /206 - 오라토리오와 본당 교리학교/209 - 선한 출판을 위하여/212

제4조 : 사회적 특징을 띠는 단체/213 - 어머니들 교육을 위하여/213 - 교양 서클/214 - 삶의 결정적인 시기를 돕기 위한 [방향제시와 보호]/215 - [이주자들을 위한 원조]/217

제5조 : 경제적 특징을 띠는 단체/221 - 전문직 종사자 연합/221 - 사회 원조/223 - 자선단체/226 - 병자들을 위한 주간 및 야간 원조 단체/230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231

제 3 부

머리말 234

제1장 사건과 원인 236

제2장 여성의 영적 지도에 필요한 신심 243

제3장 여성의 영적 지도에 필요한 면학 247

딸의 윤리적 종교적 양성을 위하여/248 - 아내의 윤리적

종교적 양성을 위하여/249 - 어머니의 양성을 위하여/249	
- 여성의 사회적 양성을 위하여/250	
제4장 열의와 신중함	253
제5장 노동 지침의 원칙	260
여성의 지도에 대한 두 가지 목적/ 260	
제6장 여성을 돌보는 열의 있는 본당신부	274
제7장 여성을 돌보는 열의 있는 사제	284
[강론대와 고해소에서]/285	
제8장 여성을 덕으로 이끄는 양성	294
제9장 완전한 절제, 독신, 결혼	306
완전한 절제/306 - 그리스도인의 독신과 결혼/308	
제10장 여성 안에 있는 열의에 대한 양성	311
꿈으로 남을 것인가?/326	
제11장 실행으로 옮기는 열의	329
1. [긍정적인 방법]/329 - 2. [두 가지 주의 사항]/335	
- 3. [한 가지 반론]/338 - 4. [우선사항]/339 - 본당 현황/341	
- 원인/342 - 구제책 계획/343 - 수녀들/347	
마지막 권고	356

서 문

1. 작품의 중요성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이하 DA=「사제적 열의…」)은 바오로 가족이 탄생한 시기인 1912-1915년 사이에 젊은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쓰신 두 번째(처녀작은 「사목신학 개요」 대작이다. 「사제적 열의…」의 초판은 1915년, 알바에서 갓 태어난 ‘작은 노동자 인쇄학교*Scuola tipografica Piccolo operaio*’에서 출간되었다. 마지막 출판은 1940년 알베리오네 신부 생전에 영어로 출간되었는데, 보스턴(미국)의 성바오로딸수도회가 번역했고, 창립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수정했다.¹

비록 「사제적 열의…」 안에는 ‘사도의모후수녀회’뿐 아니라, ‘성바오로수도회’도 ‘성바오로딸수도회’도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도 ‘선한목자예수수녀회’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남녀 바오로인 독자들은 창립 계획² 또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단지 생각뿐 아니라 실

1. 이 번역본은 당시 관구장이던 콘체타 벨레지아(Concetta Belleggia)의 노력으로, *International Survey*(1965), *The Priest*(1965년 8월),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Social Justice e Today's Family*에 짧은 서평이 실리는 영예를 얻었다.

2.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남긴 수많은 유산에 관하여 주목해야 한다. 모든 여성 수도회가 이 책에 관해 각 수도회의 특수 사명과 연관되는 명확한 언급을 문서로 보존하고 있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에 대한 부분: “1908년부터 저는 성체 흡수와 사제적 사도직과 전례 사도직에 헌신하며, 은둔의 삶을 살아가는 수도 가족이 탄생하도록 기도했고 또 기도하도록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을 집필했고, 그 책에는 당시 가능했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Alle Pie Discepole* [APD])

제로 이미 실현에 옮긴(1914-1915년) ‘가족’ 수도회 창립계획의 기초가 되는 ‘이론’ 또는 ‘전망’이 이 책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가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쇠신코스에서 결실을 맺은 창립자의 영적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t perfectus sit homo Dei*」(1, 376)에서 창립자는 남자 수도회의 시작을 「사목신학 개요」와 관련시키셨고, 여성 수도회 줄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녀님들은 일반적으로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대표하는데³ 이것은 1914년 이전에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⁴ 그 해에 성바오로수도회의 첫 지원자들을 모아 첫 번째 작은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목신학 개요」와 함께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을 읽을 때 ‘바오로 가족’의 카리스마를 재발견하게 되고, 책

1946-1947, n.22 참조) 1947년 6월에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 하신 대피정 목상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의 성소와 성소자들에 관해 빛을 비추며 준비하기 위하여, 1911년에 저는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을 쓰기 시작하여 1913년에 집필을 끝냈습니다.”(APD 1946-1947, n.504) 요셉 오베르토(Joseph Oberto, PD) 수녀님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사제적 열의…」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도 여섯 대목 발췌했다.(APD 1957, n.105; APD 1958, n.214; APD 1963, nn.320, 443; APD 1964, nn.22-28 참조)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 대해 언급하신 여러 말씀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회현을 지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신 마리아의 사명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Prediche alle Suore Pastorelle 1950*, vol. V, p.88) 사도의모후수녀회 수녀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1961년 8월 7일) “따라서 사명은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입니다. 바오로 가족의 모든 수녀를 위해 집필한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는 책에 그 토대가 있습니다. 첫 분원을 개원하기도 전에 쓴 것입니다…”

3. 다음에 나오는 각주 6을 보라.

4.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사제적 열의…」 작성시기를 1915년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언급한 것은 아마도 자료 수집과 책의 준비 작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제목 자체가 제시하는, 사제와 함께하는 여성의 협력 또는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제적 열의…」은 ‘설립정신을 담은’ 작품이며, 따라서 ‘카리스마적’ 작품이다. 9판까지 나온 이 책은 — 「바오로 가족 기도서」와 「마조리노 비고룬고」⁵ 다음으로 —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유일한 저서였음에도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 중요한 저서다.

2. 「사제적 열의…」이 지닌 역사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Abundantes diviriae gratiae suae*」⁶에는 「사제적 열의…」의 “편집을 1911년부터 이미 시작했다.”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증언이 실려있다.

제9판을 준비하면서, 성바오로딸수도회 체칠리아 칼라브레시 Cecilia Calabresi 수녀님은 발표되지 않은 소개말에서 다른 몇 가지 정보를 찾았다.⁷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에 있는 ‘성 바오로’라고 분류된 서고에 보

5. T. Alberione, 「마조리노 비고룬고, 선한 출판 사도직의 지원자」, Alba, Scuola Tipografica editrice, 1919. 이 책은 여러 차례 인쇄를 거듭하여 11쇄에 이르렀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6. 109항에서 바오로 가족의 창립 준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다. “수녀들을 위하여, 이미 1911년부터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은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으로서, 사제에게 협력할 때 여성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7. 1961년 6월 5일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아리차에서 대피정 중이던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도회를 창립하기 전에, 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2월 13일에 로마에서 행한 목상 중에 그 개념(앞선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기 녹음테이프에 녹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셨다. “여러분이 탄생하기 이전에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그 책을 1909년에 생각했고, 1912년에 작성했다고 털어놓으셨다.

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필체로 쓴) R[oma] 1-VIII-1966이라는 날짜가 기입된 달력 한 쪽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다.

“이 보잘 것 없는 책 『사제적 열의...』은 1912년에 그 시대를 고찰하며 쓴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았다. 뒤이은 출판본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여러 부분을 손질했는데, 그 중에는 유익한 부분과 덜 유익한 부분이 있다. 현시대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SAC. G. A.”⁸⁾(역주: 사제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약호)

창립자의 이러한 말씀은 당신 작품을 읽을 때에는 ‘역사적 맥락’을 참고하여 읽도록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알베리오네 신부님 스스로 소중히 여기셨던, 계속적인 ‘쇄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⁹⁾

8. 이러한 메모는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Carissimi in San Paolo*, p.1284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상시킨다. “원칙은 항상 성경과 성전입니다. 그 대신 현 시대에 대한 적용은 시대, 장소, 사회 조건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MM)

9. 이를 확인하려면, 제2판 끝부분에 저자가 쓴 ‘주의사항’을 읽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여성 가톨릭 액션이 아직 팔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저자가 가톨릭 여성 활동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1914년의 이탈리아 상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 내용의 통합작업을 기다려야 했다. 1928년에 제5판 부록 앞에 기재된 각주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5판에서는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 연합회’를 부록으로 첨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는다.

아주 고무적인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황 비오 11세의 초대와 부드럽지만 강력한 주장을 배경으로, 이 조직은 필요한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사실 이 책의 대다수 여성 독자는 가톨릭 “여성 연합회 *Azione Cattolica Femminile*”의 운영자들 또는 가입자들입니다.

저자는 “부록인 ‘이탈리아 가톨릭 연합회 안내서 *Prontuario dell’Azione Cattolica Italiana*”를 책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아주 열성적이고 매우 유능하신 마로타(P. Marotta O.D.I.) 신부님이 작성한 것이었습

그렇지만 이 책은 창립자의 생각과 활동에 연관된 책이기 때문에 특히 바오로가족 특유의 기술적 독서와 심화작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창립자의 카리스마를 충실히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독서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독서방법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진정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9판¹⁰⁾까지 출간되었는데, 1937년의 제7판까지는 거의 변화 없이 원본을 유지했다.

다미노 Damino 신부님에 따르면 여덟 번째 출판본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책임을 맡기신 성바오로팔수도회 수녀님 한 두 사람의 작업으로 수정 및 첨삭을 감행했다. 또한 29개 장¹¹⁾의 각 시작부분에 성경구절을 도입했으며, 끝부분에는 ‘모범이 되는 성녀의 전기’를 실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1954년) 제9판 준비를 체칠리아 칼라브레시 수녀님에게 맡기셨다.¹¹⁾ 이 때 가장 많이 개정되었으며, 알베리오네

니다. 신부님께 저와 독자들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성 바오로 회심축일, 1928년. 저자.”(MM)

10. 1915년의 초판 다음에, 1925년 2판을 발간했고, 3판과 4판 후에 1928년 5판, 1932년에 6판, 1937년 7판을 발간했다. 8판은 1940년에 같은 장소인 알바에서 발간했지만, 9판은 알바노에서 발간했다. 5판은 2판과 같은 표지, 같은 종이, 광고, 서체를 사용했으며, 가격도 5리라로 동일했다. 재판은 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5판은 사실상 3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적 열의...」은 9판이 아니라 7판까지 나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2판과 5판 사이에 두 번 (또는 몇 번 더) 재판했다. — 조사 결과, 아주 많았던 초판 부수를 포함하여, 총 25,000부에서 30,000부 이상이라고 본다.(MM)

11. 체칠리아 칼라브레시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정확하게 말해 1953-1954년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책 개정의 과제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1953년 3월 10일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선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수녀님이 믿는 대로 개정하고 첨삭하십시오!’ 이어서 10월 17일에는

신부님의 요청에 따라 여성에 관한 많은 구절을 도입했는데, 교황 비오 11세와 특히 교황 비오 12세의 글과 말씀을 인용했다.

‘바로로 여성 센터’는 이제 그 진정성과 권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초판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3. 「사제적 열의…」에 나타난 역사

「사제적 열의…」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쓰신 것처럼 ‘당대’, 곧 1912–1915년과 그 주변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작품의 배경으로 반영하고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그 몇 년 동안 ‘당대의 조류’로서, ‘자코뱅 활동’(역주: 프랑스 혁명 당시에 파리의 자코뱅 수도원을 본부로 한 정치 결사. 당통, 마라,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1793년 독재체제의 급진적 개혁을 단행하여 공포 정치를 펼침), ‘혁명주의자’와 ‘사회주의자’[「사제적 열의…」³⁶]에 대해 말씀하셨고, ‘대중적인 프리메이슨’[「사제적 열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최근 연설에서 여러 분야에 여성의 활동을 한층 더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또 다른 출판본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954년 4월 15일에 개정된 책을 받아보신 후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주의 깊은 관찰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이 책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실천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두 달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훌륭한 작업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개정판은 최상의 것입니다.’(54년 6월 7일) 뒤이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던 코스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의 깊은 검토 작업을 마치신 다음, 저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훌륭한 개정 작업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단지 여기저기에 작은 첨가부분(교황 비오 12세)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직자에 관한 내용을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첨가가 끝나면 곧바로 알바노의 수련자들이 이 책을 인쇄하게 될 것입니다.’(54년 7월 12일)

개정한 책과 첨가부분을 받으신 다음,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그것을 인쇄소로 넘기셨고, 성녀 체칠리아 축일인 1954년 11월 22일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의…」³³]과 ‘사회주의’와 ‘프리메이슨’[「사제적 열의…」³¹ 참조] 등을 언급하셨다.

‘집단주의’, ‘공정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반성직주의’, ‘세속주의’, ‘출판의 막강한 권력’, ‘여성에게 주어진 투표권’, ‘노동조합’, ‘서클’, ‘연맹’, ‘신용조합’, ‘이민’ 등과 같은 용어는 저자가 잘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중요한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현상 중 많은 분야는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대항하여 투쟁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사제적 열의…」을 쓰실 당시 그분은 만 28세가 채 안 되었다. 젊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쁜 출판’에 ‘좋은 출판’으로 대항한다는 원칙을 수용하면서, 비폭력적 무기로 자신의 글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

당시 그분이 활동하시던 시대적 배경은 교회와 국가 간에 냉전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그분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셨다. 당연히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교회와 함께하셨고, 정교분리를 주장하던 국가에 반대하셨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이같은 종교적 투쟁이 이 책에서 잘 드러나지만, 그분은 사회에서도 앞장서서 이 임무를 이행하셨고, 정치분야에서도 적극적이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역주: 1874년에 창설된 가톨릭교회의 조직.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고수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반성직주의적 법률제정과 이혼을 반대함. AD 60 각주 32 참조: “이탈리아 가톨릭 위원회와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 e dei Comitati Cattolici in Italia”는 사회문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의 주요 조직이었다. 1874년에 설립되었다가, 1904년 7월 30일 비오 10세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해산된 시기에 가톨릭 연맹을

지지하게 된다.

가톨릭 세계에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처럼, 교회와 국가 사이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베리오네 신부님도 그 대화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확신하지 않으셨다. 당대는 자기 지지하는 정당에 충성하든지, 교계제도에 충성하든지, 충성이 우선시되던 시기였다.

반근대주의 투쟁의 시기였다. 그렇지만 「사제적 열의…」에는 ‘근대주의’ 또는 ‘근대주의자’의 흔적이 없다. 피에몬테 지방 성직자들 사이에서 봄을 일으켰던 그 사조가 유명세를 타던 것을 감안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조에 대해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자 하셨다. 그렇지만 ‘근대주의’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것, ‘새로운 것’ 또는 ‘현대적’ 요소를 찾아내셨다.

“이는 새로운 것입니다. 곧 몇몇 ‘현대적’ 수단이 인간 영혼을 구원한다는 숙원, 곧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합니다. 적들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 1세가 고안해낸 대포 크룹(Krupp, 역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대포)과 맞설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사제적 열의…」 39]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쇠신을 향해 열려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 당시의 여성운동, 가톨릭 운동과 프리메이슨 운동이라는 큰 조류에 대해서도, 악과 싸우기 위하여 성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롭고 동시에 자연적인 중성 매체는 바로 ‘남성-여성’의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세계대전(1915-1918년)의 전조가 일던 1914년에 젊은 알베리오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교황 비오 10세가 돌아가셨다. 교황

비오 10세에 이어 베네딕토 15세(자코모 벨라 키에사)가 선출되었다.

같은 해인 1914년,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30세의 나이로 ‘성바로수도회’를 시작하셨다. 1년 후, 「사목신학 개요」 2판 출간에 맞추어 ‘성바로수도회’(1915년 6월 15일)를 창립하셨다.

「사제적 열의…」이 인쇄중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작품의 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4. 책 내용

「사제적 열의…」이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너무 많아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주장은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 ‘남성-여성’의 관계는 단지 결혼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사제들 사이의 사도적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 사목은 인간 구원을 위해 으뜸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성’의 협력을 채택하고 쇠신되어야 한다.

- 영혼을 돌보는 일은 갈수록 교회에서 더 적대적으로 멀어져가는 ‘오늘’의 사회 전체에 도달하기 위하여 ‘출판’처럼 사목활동에서 새롭고도 효과적인 도구의 총체로 이해하는 ‘현대성’을 수용하면서 쇠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은 이 책의 독해를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제생활을 미사와 성무일도로 축소시키는 사람, 또는 자신의 깃발에 ‘나-하느님’이라 쓰고, 그 말만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은 사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사제적 열의…」16]

“나-하느님-영혼-대중을 표어로 삼아야 합니다.”[「사제적 열의…」17]

“사제는, 여성 없이는 사회에 끼치는 자기 영향력의 4분의 3을 잃을 것이고, 여성은, 사제 없이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가 있는 것처럼, 사제와 인간 사이에 연결고리인 여성이 있습니다.”[「사제적 열의…」66]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부도덕이 존재하는 것은 악이 문명의 모든 결실을 이용하는 것만 아니라, 조직화되면서 오늘의 연합정신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한탄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선을 위하여 모든 현대적 발전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연합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사제적 열의…」171-172]

“열의에 넘치는 어느 본당신부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필요에 따라 옛 연맹의 목적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항해, 출판, 군사전략 등의 분야에서 초기 조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종교, 교의,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고 적용하는 교회의 방식은 발전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완전무결하고, 복음 말씀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겠지만, 교회와 복음은 시대와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쉽게 적응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사제적 열의…」318-319]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시대의 필요성에 더 잘 응답하기 위해 사목적 직무의 수단과 형태를 쇄신하려고 시도하셨다. 그 자신도

어제의 새것이 오늘의 현것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쇄신은 그분에게 도전이었고, 이 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또한 그러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을 잘 보존하면서도 끊임 없이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바로 오늘날에 맞는 수단과 형식을 찾는 일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사상처럼, 오직 남성만의 일이거나 여성과 경쟁 상대 (또는 오직 여성만의 일이거나 남성과 경쟁 상대)로 이해하고 실현하는 모든 사목적 또는 사도적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바탕에는 창립자가 제시한 협동이나 협력, 결속, 또는 연합을 다지는 제안이 깊이 담겨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양성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사명을 가족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변모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 사명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이 비록 ‘오래된’ 작품이긴 하나 카리스마적 가치로서는 늘 새로운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에 견주어 볼 때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은 뿌리가 아닌가? 집이 튼튼하게 지탱되는 것도 그 집의 기초에 달려 있지 않는가?

로마,

2000년 11월 20일

안젤로 콜라크라이 Angelo Colacrai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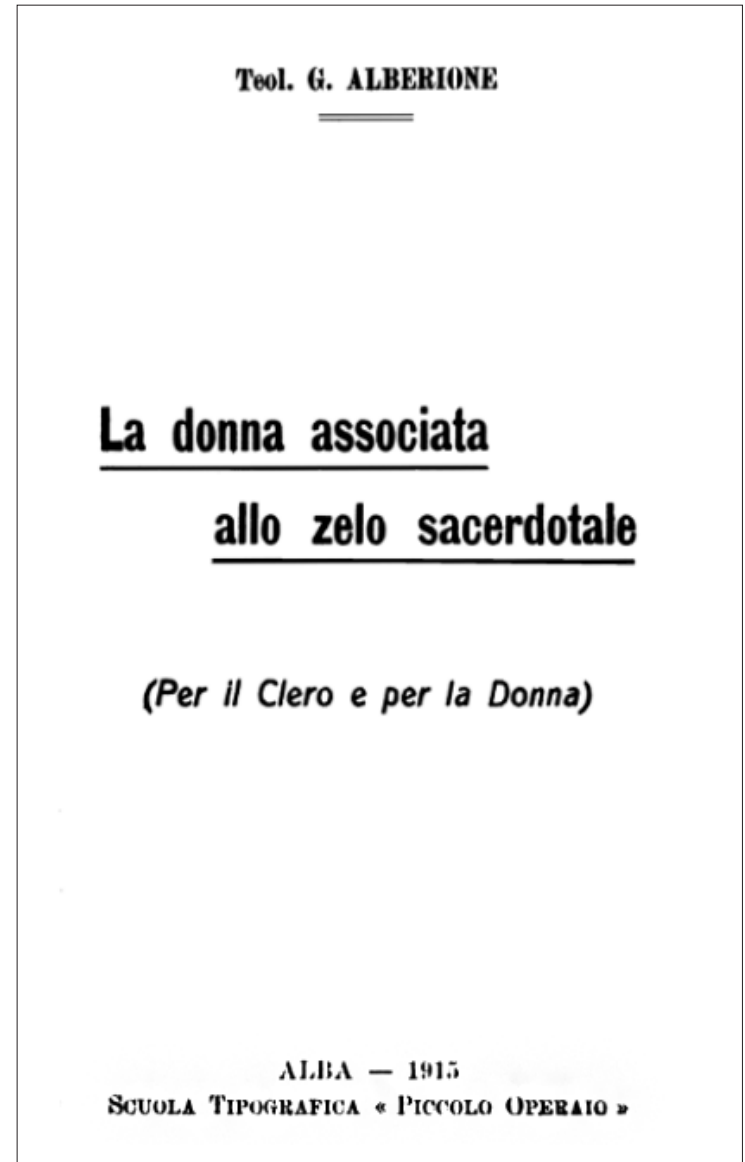
1. 이 책의 본문은 우리가 ‘원본’으로 여기는 초판(1915년)에서 충실하게 옮긴 것이다. 시대적 배경이 강하게 반영되는 다양한 용어나 어휘를 변경하지 않았다. 분명한 오류에 대한 수정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휘나 표현의 의미는 각주에 표기했다.

2. 구두점에 관해서는 철자법과 의례적인 표기 변경(어떤 표기가 도입되거나 명확성이 떨어지거나 문맥상 불필요할 때에는 제거함), 일부 단어의 머리 글자(대문자 표기는 필수적인 것만으로 축소), 또는 점을 찍은 축약어(‘santo’, ‘santa’는 S.로, ‘don’은 D.로),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우는 가능한 한 통일된 방법으로 표기했다.

3.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같은 장^章에 실린 여러 주제를 구별하려는 목적에서 소제목을 도입하여 꺾쇠괄호()안에 넣었다.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체와 그래픽 위치선정을 단일화시키면서, 각 장^章의 제목과 원래의 부제목을 해당 순서에 따라 규칙에 맞게 일치시켰다.

4. 본문 하단 각주는 MM(Mercedes Mastrostefano, FSP ‘메르체데스 마스트로스스테파노 수녀)이라는 표기로 기재된 내용 외에는 이 책의 편집자가 작성한 것이다.

5. 본문 가장자리 여백에 표기된 볼드체의 숫자는 원본의 쪽수를 나타내며(번역본의 각주에서는 ‘항’으로 표기함), 그 쪽수가 문단이나 문장 중간에서 시작될 때에는 세로획 ‘|’으로 표시했다. 그와 같은 숫자는 본문의 모든 인용에 적용되고, 모든 외국어 번역에도 표기했다. 또한 이러한 규범은 “알베리오네 전집Opera Omnia” 모두에 해당된다.



열정으로 불타는
여성의 이상형이요
사도적 열성의 조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마리아께

저작권 소유

주교 대리 검열: 출판 허가, 알바, 1915년 8월 18일

대리 검열관: 카노니코 키에사 프란치스코 Can. Chiesa Francesco

검열: 출판 승인. 알바, 1915년 8월 19일

부총장, 아빠스 몰리노 Ab. Molino, Vic. Gen.

1. 메르밀로 몬시뇰¹이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은 저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건설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위로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성 사도들²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를 사제와 여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지면을 빌려 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 이 책에는 두 가지 생각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성은 실제적인 도움³뿐 아니라, 특히 남성을 윤리적으로 돕기 위해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여성은 진정으로 신앙이 두텁고 일상의 덕을 갖출 때 비로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은 자신의 고귀한 사명으로 사제에게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성직자의 아주 중요하고 매우 분명한 의무가 드러납니다. 곧 오늘의 필요에 상응한, 열의에 넘치는 드높은 덕에 이를 수 있는 여성을 교육하고, 가정과 사회의 윤리-종교적 선을 지향

1. 메르밀로 가스파르(Mermillod Gaspard)는 스위스 추기경으로, 제네바 교구의 카루지(Carouge)에서 1824년 9월 22일 탄생하여, 1892년 2월 23일 로마에서 선종했다. 사회문제의 중대성을 자각하여, 종교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과 글로 주장했다.

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postoli’로 나온다.

3. 남성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주 말했다. 참조:「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9-10; 24; 32; 40; 45; 47; 61; 64; 68; 97; 98; 118; 160; 192; 194; 198; 289; 339. 그가 자신의 환경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통상적인 표현 방식이다.

하여 빛을 받으며, 지혜롭고 항구하게 일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10 3.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저는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가) 여성은 남성을 윤리적 종교적으로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합니다. 이는 시대, 상황, 자신의 성별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여성은 사명을 수행하는 사제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라씨네티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혼여성들은 하느님 섭리에 따라 거의 사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참된 사도직에 부르심 받았습시다...”

나) 여성의 활동 분야. 여기서 저는 여성의 섬세하고 풍요로운, 열의가 필요한 많은 활동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곧 집안에서 또 밖에서, 사적 공적으로,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여성으로서 그리고 단체에 속한 여성 활동에 대하여.

다) 마지막으로 성직자의 의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사명을 위하여 여성을 양성하고, 그를 지혜롭게 인도하며 사도로 만드는 일입니다.

4. 참조:『사제적 열의...』 70; 91; 110; 184; 187; 216; 225; 228; 287; 323. 제노바 출신인 이 사제는 본당신부의 사목과 영성에 대해서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영향을 끼쳤다. 1804년 12월 1일 제노바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1868년 1월 2일 선종했다. 주세페 프라씨네티는 ‘성녀 도로테아 수녀회’ 창설자 복녀 바올라 프라씨네티(제노바, 1809년 3월 3일 - 로마, 1882년 6월 11일)의 오빠다. 그는 1827년 사제로 수품되어 1839년 제노바에 산타 사비나의 수석-본당신부로 임명된 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의 아들회(Pia unione dei Figli di Santa Maria Immacolata)’를 창립했다.(1849년에 브레시아에서 루도비코 파보니에 의해 시작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아들i Figli di Maria Immacolata’과는 다름) 사도직활동을 열망하지만 수도회에 속할 수 없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백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 그는 이들에게 본당 안에서, 본당신부와 협력하여 사도직에 헌신하기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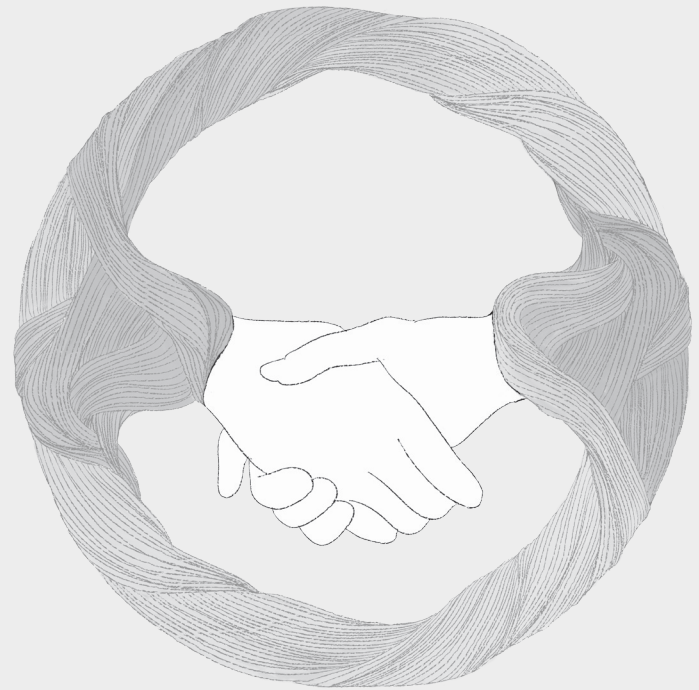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른 뛰어난 분들이 완수할 중대한 연구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뿐 이고, 주님이 하루빨리 그 일을 행할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큰 영광과 많은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4. 저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자 했고, 이미 잘 알려지고 실현된 내용은 간단히 언급했으며, 오늘날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해서는 폭넓게 전개했습니다. |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을 11 더 잘 전달하도록, 일부 반복되는 부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문체와 언어 분야를 조금밖에 연구하지 않았지만, 참조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인용했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직자들이 창의적인 열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성직자는 영혼에게 필요한 ‘실천적 수단’을 찾기 위해 황무지 같은 조건에서도 깊이 꿰뚫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5. 이 책을 사제들의 귀감이요 스승이신 예수님과, 여성 사명의 가장 높은 이상이요 사도적 열성의 조연자,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존경하는 독자, 저를 수호하는 천사들과 아량이 넓고 관대하고 선한 형제들에게 맡깁니다. 저는 이 형제들의 그 어떠한 논평도 깊은 감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알바, 1914년,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에
저자

여성은 사제적 열의의
협력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머리말

제1장 사제의 사명

14

열정 없는 진정한 사제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우 큰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온갖 수단으로 열정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가장 막강한 수단입니다.¹ 그리고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훌륭한 여성 운동이 눈에 띄게 점차 확산되고 강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명은 교회의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성 활동은 본성 자체로 요구되고, 역사의 매 순간마다 되풀이되었으며, 현 시대에도 아주 적합한 활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부에서 전개할 내용입니다.

사제의 지상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입니까? 너무 소박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황 비오 10세¹는 1908년에 반포하신 「성직자에게 하신 권고*sortazione al clero*」에서 사제가 자신의 성화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금하십니다. 사제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부르신 일꾼입니다. 잡초를 뿌리째 뽑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원수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것이 그의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강론대, 고해성사, 병자, 어린이, 슬퍼하는 사람, 죄인을 잇은 채 개인 성화에 치중하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 게 선을 베풀고, 억압받는 이를 악마에게서 해방시키며,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 사제는 ‘모든 이를 위한 사람’입니다. — 사제직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인간 혈육의 후손을 위해 혼인성사를 제정하신 것처럼, 은총에 따른 후손을 위해 신품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 “그리스도 15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

1. ‘ve ne è (vi è) 대신에 ‘Ve ne ha’로 표기함. (다른 곳에서는 ‘vi ha’라고도 표기됨)

1. 참조:「사제적 열의…」 14; 30; 34; 79; 108; 110; 166; 168; 178; 180; 192; 223; 286; 335. 알베리오네 신부는 비오 10세 교황 재위기간에 사제직에 관한 양성을 마쳤으며, 첫 번째 저술을 출간했다.

습니다.”(성 바오로)²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직의 가장 드높은 이 목적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³ 그리고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⁴

사제의 어깨 위에는 막중한 책임이 얹혀 있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하느님의 법정에서 자녀들에 대해 답변해야 했던 것처럼,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사제는 그가 구원할 수 있었던 영혼들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 바오로는 이와 같은 무거운 책임에 대해 전율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⁵ 다른 한편, 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주님의 훌륭한 사목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지도자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원로들은 이중으로 존경 받음이 당연합니다.”⁶ 그리고 두 가지 영예가 주어집니다.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⁷ 현세의 삶에서 우리의 이 가장 감미로운 의무를 수행할 때 위안을 백배로 받게 되고 하늘에서 특별한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인^{聖人}이

2. 1코린 4,15 참조: “Per evangelium ego vos genui.”

3. 참조: 마태 4,19; 마르 1,17: “Faciám vos fieri piscatores hominum.”

4. 요한 15,16 참조: “Posui vos ut eatís et fructum afferatis, et fructus vester maneat.”

5. 1코린 9,16 참조: “Vae autem mihi si non evangelizavero!”

6. 1티모 5,17 참조: “Qui bene praesunt presbyteri duplici honore digni habentur.”

7. 마태 19,29 참조: “Centuplum accipietis et vitam aeternam possidebitis.” 백배에 대해서는 창세 26,12; 1역대 21,3 참조.

아닌 사도, 영혼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학식과 성성을 갖춘 학자-성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신의 성소를 배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 어느 사제가 음악, 문학, 예술, 정치, 의학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전념하거나 직업으로 삼고 싶을 때, | 그 자체가 사람들을 위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구원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교수, 재정담당 등과 같은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제에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제-스승은 수업을 잘 하는 것, 읽기, 쓰기, 수학, 지리를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나 첫 번째 목표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린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2. 자신의 사제생활을 미사와 성무일도로 축소시키는 사람, 또는 삶의 원칙을 단지 ‘나-하느님’에게만 두고 이것을 자신의 표어로 삼는 사람은 사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봉쇄수도원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에서 사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극기하는 것, 은둔의 삶을 사는 것, 자기 개인의 죄를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혼들에 대해 물어볼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사회는 그에게서 ‘사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⁸ 그리고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제는 개인적인 성성으로 충분하지 않고, | 주님의 포도 17

8. 마태 28,19 참조: “Euntes docete...”

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하느님-영혼-대중’을 좌우 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활동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제 직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곧 영혼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직무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⁹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당신의 직무를 이어받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¹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 과학, 철학 등이 그리스도교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곧 인간의 마음, 애정, 의지, 말,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들어 높이고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를 하늘나라에 마련된 각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¹¹ 여기서 사목활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정신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론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¹²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식, 외적 행위, 무릎을 꿇는 경배행위 등… 외적 형식이 아닙니다. 혼인예식, 세례식, 장례식 같은 특별 장엄 예절을 하기 위해 입는 옷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

9. 요한 10,10 참조: “Veni ut vitam habeant et abundantius habeant.”

10. 요한 20,21 (그리고 요한 5,30; 6,58) 참조: “Sicut misit me Pater et ego mitto vos…”

11. 요한 14,2: “Vado parare vobis locum.”

1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patria’(조국)이라고 되어있다.

간을 완성시키고 축성합니다. 사제는 결코 | 성당에서 화려한 전례예식, 훌륭한 성가, 수천 가지 신심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흡족할 수 없습니다. 사제는 연례적인 영성체, 혼인성사, 교회예절에 따른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흡족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가 성지순례, 행렬, 강연¹³에 참여하고, 많은 신자가 감상적인 태도와 영적 관념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단’일뿐,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인간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인 생각으로 바꾸고, 인간적인 애정에서 그리스도인 애정으로 변화하고, 인간적인 활동에서 그리스도인 활동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세례성사를 받아서가 아니고, 본당신부에게 인사치레를 할 줄 알아서도 아니며, 가끔 미사에 참례하는 것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고, 창조되지 않은 지혜 자체이신 하느님이 가르치신 가장 숭고한 종교를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어떤 장엄예식에 음악 밴드를 부르는 것처럼 종교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영혼 돌봄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모든 이,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로 | 파견된 모든 이,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을 향하는 것입니다 **19**

13. 세계 공의회와 지역 공의회 외에도, 이른바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공적이고 공식적인 회합, 그리고 감목대리(foraniali o vicariali, 역주: 한국어 교회법에 의하며, Vicari Fornei를 감목대리, 지구수석 또는 대탁덕이라고 부름.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foraniali를 교구장대리, 총대리, vicariali는 지구장으로 보면 될 듯함)의 강연과 주교의 강연 같은 전문적 혼화와 자문회의(consultativo)를 목적으로 하는, 비교적 덜 장엄하고 대중적인, 다른 회합들을 마련해 주는 교회 규정.

다. 여기서는 계층, 나이, 조건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제는 성 바오로와 함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빛진 자입니다.”¹⁴ 만일 아무런 구별 없이 모든 영혼의 영적 선익을 위한 의무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제에게 주어졌다면, 특별한 방식으로 본당신부에게도 지워져 있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제가 성품성사에서 자신의 힘, 자신의 지성,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을 위해 쏟는다는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본당신부는 당연히 *ex justitia* 이러한 의무를 수용하겠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당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신자를 위해 그 의무를 수락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별 없이 그를 아버지, 친구, 스승, 열성에 넘친 목자로 모실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곧 이미 회심한 사람들, 신심 깊은 영혼들, ‘작은 양떼’¹⁵뿐 아니라, 공장과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사람들과 과격분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람들, 종교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식 있는 계층의 사람들도 있지만,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더질 대로 무더진 ‘저주받은 무리’의 죄인들, 비참할 정도로 처참하고 가난하여 다가가기조차 거북스러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적으로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상인들, 정치가들, 학생들, 소위 지체 높은 사람 등...

20 | 그 모든 사람이 본당신부를 목자로 모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본당신부가 우선권을 두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놓아둔 채¹⁶ 달려가 돌보아주어야 할 사람들, 이들은 가장 위중한

병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와도¹⁷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¹⁸ 본당신부는 죄인과 노동자 계층, 냉담자에게 우선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고, 삶을 ‘차별 없이’¹⁹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 이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결론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돌보는 일, 곧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들에게 전념하는 일로, 그들이 진정 덕성스런 사람이 되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14. ‘omnibus debitor sum.’ 로마 1,14 참조: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빛을 지고 있습니다.”

15. 루카 12,32 참조: “PUSILLUS GREX.”

16. 참조: 마태 18,12,13; 루카 15,4,7.

17. 참조: 마태 9,12; 루카 5,31.

1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Venit 대신 ‘veni’라고 되어있다. 루카 19,10 참조: “Venit saluum facere quod perierat.”

19. ceteris paribus.

21 제2장 그리스도인 여성과 사도인 여성

이제 두 가지 결론, 곧 해독(解讀)의 열쇠와 앞으로 전개할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결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된 덕성의 형성]

한 가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곧 '여성들에게 전념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덕스런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제들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에 끌리는 본성적인 경향,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안일함의 추구, 사제에게 친절하게 다가서는 사람 외에는 반기지 않으려는 묵은 습성, 때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욕정 등... 어떻든 몇 가지 경우에는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신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일하고 있어!' 하며 애써 양심의 가책을 누르면서 할 만큼 충분히 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대가 보살피고 있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그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집안에 머무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합니다. 지체롭게 말하고, 절

제된 눈길로 사람을 대하고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멀리합
22
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인내심이 많고 자비로우며, 겸손합니다.
그대가 보살피는 여성들이 이러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여성은 가정을 위로하는 천사요, 집안에 가득 풍기는 향기요, 가족의 다양한 성격이나 결점에 의해 일어나는 불화를 없애거나 줄여주는 윤회유입입니다. 소녀가 부모에게 순종적이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친절하다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진정한 애정으로 남편을 대하며 주의 깊게 돌보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세하고 충실하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여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살고, 마음을 기울여 그들을 종교적 윤리적 원칙 안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생생한 덕의 모범이 되고, 그들을 계속 깨어 보살피고 지켜줍니다. 그 여성들이 성당에 자주 가고,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강론을 열심히 듣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신심을 우스꽝스러운 신심주의로 변질시키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사제는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제는 고해소와 강론대에서, 어디서든 주의사항과 강론, 권고와 충고를 통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성 안에 그리스도인 삶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제의 삶은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을 강인한 영웅이 되게 하고, 지극히 온순한 피조물을 인내의 영웅이 되게 하며, 지극히 소심한 피조물을 | 사
23
랑의 영웅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러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데면데면하게 지나쳐버립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들의 공덕을 헤아려 주시고, 이를 심판 날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들은 대체로 덕스러우며, 덕을 닦게 하는 사제들의 인도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여성을 통하여 남성에게]

또 다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여성을 돌보는 그만큼, '사목적 돌봄에서 남성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주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직접 다룬 내용을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콘티에르 P. Contier(Gibier)¹ 신부의 「인간 사이의 사도직 *L'apostolat entre des hommes*」(Charles Amat - Rue Cassette, 11 - Paris)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영적 돌봄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성을 위해 일하고, 남성을 성화시키는 숭고한 직무에 여성을 참여시켜야² 하기 때문입니다.

1. 오늘날 '과거를 추종하는 사람들 *laudatores temporis antea*³ 뿐 아니라, 세속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교 종교와 윤리 수준이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

24 람을 유혹하는 쾌락의 욕망을 알아차릴 때, | 믿음을 경시하며 부

1. 지비에르 샤를레-앙리-세레스탱(Gibier Charles-Henri-Célestin)은 1849년 12월 25일, 프랑스의 아르트네이(Artenay)에서 출생하여, 1931년 4월 3일 주교로 있던 베르사이유에서 선종한 것으로 본다. 여러 권의 시리즈로 간행된 「인간에 대한 강연 *Conférences aux hommes*」(16권, 파리 1907-1911년)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정, 사회 등의 기본 주제를 다루었다. 가톨릭 액션의 선구자로 여긴다.(MM)
2. 1코린 7,14 참조: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sanc-tificatus est vir infidelis per mulierem fidelem*."
3. '지나간 시간의 예찬가들': 기도(《*Arte poetica*》, 173)는 과거를 드높이기 위하여 현재를 과소평가하는 습성을 암시한다.

끄러움을 모르는 출판물이 유포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규율을 견디지 못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확인하게 될 때, 무지와 많은 오류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단자들 *sette*의 활동이 무섭게 확산되는 것을 피부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회 계층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전반적인 악입니다. 이는 선의의 사람들 안에 불안을 조장하고,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르침 없는 스승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⁴ 그러나 저승의 세력이 이 본당 또는 저 본당, 이 지역 또는 저 지역, 이 나라 또는 저 나라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혼 또는 저 영혼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경험과 유구한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은 항상 있게 마련이며, 지평선 위에 이는 검은 구름처럼 더 위험한 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은 우리 편이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벤투라 신부⁵는 현 시대를 묘사한 다음, 교회가 가톨릭 여성에

4. 마태 16,18 참조.

5. 1792년 12월 8일 팔레르모에서 태어난 조아키노 벤투라 디 라울리카(Gioacchino Ventura di Raulica)는 테아티노 수도회 소속의 설교가, 학자, 광고학자다. 예수회의 학생이었다가 1818년에 테아티노 수도회에 입회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국가보다 우위에 두는 프랑스인들(*ultramontanisti francesi*), 특히 라므네(Lamennais)를 추종하여 그들의 작품을 이탈리아어로 번역·출간했다. 아일랜드 정치인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 1775-1847)의 장례식에서 한 그의 연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아키노 벤투라(P. Ventura)는 종교와 자유가 실제로 반대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비엔나 포위 당시에 죽은 이들에 관한 그의 또 다른 연설(1848년 11월 27일)은 교회와 민주주의 사이의 협약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연설은 *Indice*(?)에 실리기도 했다. 벤투라는 민주주의 안에서 모

게 사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 사명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녀 세베리나 Santa Severina 본당의 수석사제 푸지아 Pujia 몬시
25 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탄할 만한 | 종교, 윤리, 사회의 재건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가톨릭 여성의 사도직으로 대두되었는데 먼저 가정에서 발전하고, 그 다음 여러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악을 개선하고, 사람들 안에 많은 선을 전파하기 위해 여성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2. 더 나아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을 먼저 정복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남성에게 더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교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단순하고 고결하게 종교를 제시하려면 남성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인 가정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종교적 가르침과 모범을 가족구성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경우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제에게 용기가 부족하고, 어쩌면 사람들을 향한

든 사람의 유산이며, 복음에 보장된 자연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혁명 자체가 그에게는 “그리스도교가 한 국가에 설정한 한계에 권력을 다시 획득하게 하는 그리스도교 국가의 맹목적이고도 절망적인 노력”처럼 보였다.(비엔나에서 사망한 이들을 위한 연설, 1848년 로마, 11쪽) 어떤 사람은 벤투라를 “단 한 가지 생각, 곧 그리스도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단 한 권의 책, 곧 성경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일로 값을 치러야 했던 망명 기간에도 여전히 친구로 남았던 비오 9세 교황의 축복으로 위로를 받던 그는 1861년 8월 2일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는 알베리오네가 벤투라를 언급하면서 그의 책 「가톨릭 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책은 세 권으로 된 「복음의 여성들」 후속편으로 1855년에 밀라노의 카를로 투라티와 제노바의 다리오 주세페 로씨가 공동 편집했다.)

6.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mali’가 생략되어 있다.

7. 참조: 에페 5,23: “vir caput est mulieris.”; 1코린 11,3.

현신의 성향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이 마리아의 딸회,⁸ 또는 그리스도인 어머니회를 최대한 관리할 수 있겠지만, 남성을 돌보는 일은 감당할 수 없어 싫어하는 사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의 고해성사 직무만을 수행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고해소에는 | 여성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 사제들은 인류의 숨 **26**겨진 참된 은인으로서, 여성을 그리스도교적 삶과 기도, 모범, 활동의 사도직으로 확고하게 이끌어주고, 수많은 남성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제의 활동이 어떠한 여성이 본성상 신심에 이끌리는 경향이 더 많으며, 여성이 자신의 약함을 사제에게서 위로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여성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고, 그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의 선익을 위해 여성을 활용할 것입니다.

3. 그 반대의 생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성은 선하거나 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여성은 악마의 손에 들려있는 뛰어난 힘ियो, 부패의 중심이며, 전염병의 세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성적인 사제의 인내롭고 지속적인 활동조차 파멸시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성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 오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를 귀감으로 삼아 그분을 닮게 하지 않는다면, 인

8. 참조: 「사제적 열의…」 25; 27; 170; 180 이하; 198; 201; 235; 255; 307; 309; 318; 333. 알베리오네 신부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딸회 Figlie di Maria Immacolata”의 편람과 「사제적 열의…」 181과 111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마리아의 경건한 딸회 Pia Unione delle Figlie di Santa Maria Immacolata”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제적 열의…」 184이하, 이 회의 몇 가지 규칙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마리아의 경건한 아들회 Pia unione dei Figli di Santa Maria Immacolata” 창립자 주세페 프라씨네티(Giuseppe Grassinetti)의 소책자에서 인용했다. 「사제적 열의…」 186-187 참조

간의 파멸을 위해 온 하와를 귀감으로 삼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성녀 헬레나⁹를 닮게 하지 않는다면 에우도씨아Eudossie¹⁰와 영국의 엘리자베스,¹¹ 그리고 러시아의 카타리나¹²를 닮게 될 것이며, 카노사Canossa의 마틸다¹³와 시에나의 카타리나¹⁴를 닮게 하지 않는다면 27 | 마로치아Marozie와 테오도라Teodore¹⁵를 닮게 될 것입니다. 만일

9. 성녀 헬레나(267-328)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신생 그리스도 교회를 돌보는 일과 성지순례에 전념했다.
10. 에우도씨아라는 인물은 적어도 2명이 존재한다. 첫째는 비잔틴의 황후로서, 아르카디오의 아내이자(395년 4월 27일부터) 테오도시오 2세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사치와 당시 주교였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그 대신 테오도시오 2세의 딸 에우도씨아 리치니아(Eudossia Licinia)는 439년 라벤나에서 아우구스타(augusta, 역주: 황후 칭호를 말함)로 명명되었고, 같은 해 로마로 건너가 빈클리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사슬 성당을 건립했다.
11. 엘리자베스 1세(Greenwich 1533년 - Richmond 1603년)는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딸(각주 18을 보라)로 1558년 25세에 여왕이 되었다. 45년의 통치기간 동안 영국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12. 카타리나 1세(1682/1683년-1727년)와 카타리나 2세(Settino 1729년 - Pietroburgo 1796년)는 둘 다 모험적인 삶과 공명정대한 삶으로 유명하다.
13. 레지오 에밀리아에 있는 카노사의 오래된 성에서 토스카나의 공작부인은 황제를 포함하여, 지상의 권력보다 교황력의 우위를 선포했기 때문에 독일의 하인리히 4세에게 박해를 받던 “그레고리안 개혁”의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피신을 도왔다.(MM)
14. 카타리나는 1347년 시에나에서 출생하여 1380년 4월 29일 로마에서 선종했다. 깊은 관상적 삶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적 삶을 일치시켰다. 폭력으로 전복된 사회에서 평화의 전달자인 성녀는 아비뇽에서 교황의 귀환을 도왔고, 서양의 분리된 그리스도교의 재건과 로마 교황청의 개혁, 관습의 향상, 병자와 수감자들의 원조를 위해 활동했다. 성녀의 글은 지혜와 사랑의 열정과 언어에서 우수성을 드러냈다. 1939년 6월 18일에 이탈리아의 주보성인으로 선포되었으며, 1970년 10월 4일 교회박사로 선포되었다.(MM)
15. 테오도라는 적어도 3명의 비잔틴 제국 황후 이름이다.(첫 번째 테오도라[527-548년]는 유스티아노의 부인이다. 두 번째 테오도라는 황제 테오필로[829-84년]의 부인이고, 세 번째 테오도라[995-1056년]는 마케도니아 왕조의 대를 끊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아마도 9-10세기의 귀부인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테오도라를 암시했을 것인데, 그녀는 로마의 원로였다가 나중에 총사령관이 된 테오필라토(Teofilatto)의 부인이다. 그녀의 딸 마로치아(Marozia)는 가문의 권

여성이 검소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유행에 앞장 설 것이고, 박식한 여성에게 건전한 독서를 권장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것과 포르노그래프의 제작물을 읽게 될 것입니다.¹⁶ 만일 여성이 선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치와 악한 행실에 기멸 것입니다. 만일 열성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소심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프랑스의 왕 클로도베오Clodoveo의 구원자이자 갈리아의 여사도인 클로틸다¹⁷를 닮게 하지 않는다면 앤 볼린Anne Bolena¹⁸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헨리 8세¹⁹를 파멸시키고 영국

력으로 교황권(암흑기)과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6. 예를 들어 1903년 6월 23일자 모나코(역주: 이탈리아 원본에는 Monaco라고 되어있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뮌헨으로 되어있다)의 독일 일간지 *Allgemeine Zeitung*에 기재된 포르노그래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염려를 읽어보라. “최근 20년 동안 대중의 품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빠르게 전락했는지 보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서적, 그림, 콘서트-카페, 그림엽서, 광고, 해학적인 신문, 대중가요, 오페레타(경가극), 여럿광대극, 모임과 저녁 공연에서, 진열장에서 그리고 법정 토론으로 꾸며지고 확산된 보고서에서, 개방적이고 거짓 확산적인 포르노그래프는 공포스러운 만큼 일종의 도덕적 매독을 퍼뜨리고, 퇴폐는 갈수록 심해지며, 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까지 짓밟을 기세인데 그 어떤 계층도, 그 어떤 연령층도 예외가 없다. [...] 이러한 빛 앞에서는 모든 정치적 분쟁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가톨릭 신자나 프로테스탄트 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무신론자나,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각자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곧 가정생활의 순결, 여성의 정결, 남성의 충실이다. 온전한 젊은이, 후손들의 건강과 미풍양속, 이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가톨릭 문화La Civiltà Cattolica』 2 [1909] 439-454 참조)
17. 부르군디(Burgundi)의 왕 힐페리코(hilperico)의 딸 클로틸다(Clotild e Liòne 475년 - Tours 545년)는 부모의 사망 후에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았으며, 492년 경 프랑스 왕 클로도베오와 결혼하여 왕을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큰 영향을 끼쳤다.(MM)
18. 앤(1504년 출생?)은 새로운 귀족 가문인 토마스 볼레인(Tommaso Boleyn)의 딸이다. 그녀는 프랑스의 프란치스코 1세 궁정에서 귀족의 딸로 등장했다. 영국으로 돌아가(1526년) 궁정에 드나들며 헨리 8세의 눈에 들었다. 이 사랑이 영국이 교회에서 분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헨리는 이미 아라곤(Aragon)의 카타리나(가톨릭 신자인 페르디난도의 딸)와 결혼한 사이였고, 그

까지 파멸의 길로 이끈 인물입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은 넓은 안목으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여성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의 딸회가 잘 이끌어가는 본당에서는 젊은이들도 잘 통제되는 것처럼, 타락하고 뻔뻔스러운 소녀들^{figlie}²⁰은 꽃을 활짝 피운 성 루이지회 의 우수한 젊은이들까지 추락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할 여성, 아니면 우리를 반대하는 여성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신앙과 정숙함을 잃을 때, 더 나아가 여성이 과격과 정당의 뒷에 걸릴 때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고, 반 성직주의가 되고, 남성을 겨냥하는 열성적인 악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제3장 두 종류의 여성주의

28

몇 해 전부터 우리는 여성운동¹을 지원해왔는데, 여성운동은 갈수록 더욱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강화하려 합니다. 여성운동의 출현을 많은 사람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였고, 모두 의심을 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동정어린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소수만이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인류를 위해 어떤 수단으로 전개되며, 어떤 희망을 품고 있고,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교회 편에서는 이를 간과해도 좋을 유토피아로 여기거나, 불합리한 주장을 하는 큰 규모의 단순한 집단이라고 여깁니다. 모두가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주의자들은 진지한 사람들과 성직자의 이러한 평가를 시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상하고, 원칙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논리는 경박하고, 행동으로 옮긴 대부분

녀의 딸인 마리아는 왕좌에 오를 합법적인 계승자였다. 헨리는 결혼 무효의 승인을 청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를 거부했다. 헨리는 이에 반항하여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Tommaso Cranmer)로 하여금 그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하게 했다.

1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아리고(Arrigo) 8세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20. '소녀들', '젊은 여성들'을 나타내는 피에몬테 지방의 표현.

1. 그 시기에 '여성주의'와 '퇴폐주의'(decadenza,역주: 일명 '데카당스'로, 19세기 말 절망 끝에 관능적인 자극이나 퇴폐, 탐미를 추구하던 예술 학파)를 결부시켜 타락한 여성주의와 퇴폐조장자에서 좋은 여성주의를 구별하려고 시도한, 「가톨릭 문화」에 기고된 내용을 읽어보라. “잘 알려진 격언에 의하면, 남성은 법을 만들고 여성은 관습을 만든다. 그 누구도 공적·사적인 도덕성에 여성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 결과 남성과 가정, 사회에 대한 여성의 도덕적 사명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전한 여성주의의 주 목적은 도덕성을 조장하는 여성의 사명이 수월하도록 그들의 도덕성을 지키고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어떠한 명예회복이나 법률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권리회복이 여성과 가정, 사회의 도덕적 이익에 상응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한, 여성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의 수단은 불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모든 사건은 가장 불행한 사건조차도 그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많은 악과 과장 속에는 어떤 선과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악은 사회적 환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부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 악은 폭력적이고 가장 소란스러운 반면, 선은 보통 저변에 숨겨 있고, 침묵 가운데 생겨나며, 조용하지만 항구한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고 허영심이 강한 여성운동은 교황의 축복을 받고, 종교에서 영감을 받으며, 사랑에 의해 자라나고, 어디에서든 선을 행하는 다른 운동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회주의적 여성주의,² 혁명적 여성주의, 반그리스도교적, 반종교적 부도덕한 여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여성주의는 도덕적 여성주의,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로서, 한마디로 선한 여성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프리메이슨 여성주의]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근본적으로 구별해 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혁명적 여성주의 등은 무종파적^{無宗派的} 신앙을 고백하고 반가톨릭주의로 빠지는 반면, 그리스도교 여성주의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진지한 신앙고백에 바탕을 둡니다. 볼로Bolo³ 박사는 「여성과 사제」라는 그의 저서에서 4가지 입장을 증

2. 교회의 적(참조: 「사제적 열의…」 33; 35; 157; 172; 269)으로, 그와 같은 여성주의에 관해서는 그밖에도 「사제적 열의…」 40; 203 참조하고, 사회혁명에 관해서는 「사제적 열의…」 32 참조한다.

3. Bolo E., 「여성과 사제 *La donna e il clero*」, 카를로 네그로(P. Carlo Negro B.) 신부 번역, Napoli, Rondinella e Loffredo, Librai-Editori, 1913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 자주 인용했다. 비록 이 출판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사제적 열의…」 230 참조) 토리노에서 인쇄하고 보급한 그 이전 출

명하는데, 여기서는 다음의 내용만 인용합니다. “1) 여성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본질적인 모든 것은 가톨릭 성직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초안이 그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여성주의는 교회를 위한 것일 때에만 존재 가능하다. 3) 이성적으로 볼 때, 여성주의라는 명칭 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 4) 오늘날 여성주의가 여성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로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복음을 외면한다면 여성은 노예, 쾌락의 도구, 생산 수단 30으로 전락할 것이며, 더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 이교도들의 고증 자료가 이를 입증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성이 사망한 후에도 그 시신을 쾌락의 도구로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되기 시작할 때 방부제를 바르거나 매장하도록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⁴

최근에 읽은 어떤 글이 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여러분의 사형집행인, 여러분의 악독한 적들,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원수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보호자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 여러분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여러분을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리기 위해 드높은 자리로 올리려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여성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열광자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배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교황 비오 10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여러분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모

판본을 언급했다.

4. Bolo E., 같은 책, p.144 참조.

든 권리와 권한과 더불어 여성을 위해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보십시오. 공적인 삶의 잡음들, 동요와 욕망에 빠진 여성들을 상상해보십시오. 남성과 같은 수준에 놓인 독립적이고 해방된 여성이 사회생활과 법정과 국회에서 토론하고, 법률 제정의 명령과 공모 또는 반대하며 바리게이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십니까? … 여성의 사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성주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잘못

31 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 그런 사람은 마치 천체의 움직임을 수정하고, 혁신을 주장하는 기술자들처럼 하느님의 활동을 수정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유토피아-여성주의의 목적은 그 최고 대표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1900년 파리에서 전체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정당에서 우수한 여성 회원들뿐 아니라 우수한 남성 회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그들이 설명한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의 가장 큰 파괴자다.” “고해소와 다른 그리스도교 교육도 철폐해야 한다.”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소녀들과, 남성에게 풀려날 수 없이 매여 있는 아내는 비참한 노예들처럼 갇혀 사는 사람들이다. 동정녀의 인격을 통해 종교에 의해 하늘로 인도된 이 운리는 매 순간 천천히 진행되는 위선적인 살인행위다.” “미신과 오류의 적인 프리메이슨은 교회의 본성을 거부하는 반대자다. 여성은 프리메이슨 비밀결사 집회에 참여하고, 그 정신을 취하여 가정에 전달해야 한다. 프리메이슨에 여성을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교회의 지배권과 성직자의 권위를 연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도에 넘친⁵ 그들의 모든 천박

5.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trascorsero’로 되어있다.

한 언어와 사상을 옮겨 쓰지 않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려 합니다. 그들은 매춘, 이혼, 자유연애, | 간통의 권리, 사회혁명, 그리스도교 학교,⁶ 모든 고용직과 직무 …

6. 로마 탈환 후 9일째인, 1870년 9월 29일(역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간섭 아래 있던 이탈리아가 빅토리오 임마누엘 2세와 가리발디 장군에 의해 통일을 이룬 해), 이미 정부는 이탈리아 왕국의 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선택과목으로 규정했다.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채택할 수 있었다. 1873년에는 이탈리아 왕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신학과목이 폐지되었다.(Ferrari B., 『이탈리아 국립대학 내 신학과목 폐지』*La soppressione delle facoltà di teologia nelle università di Stato in Italia*, Morcelliana, Brescia 1968 참조) 1877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기술학교에서 영적 지도 신부의 직위가 박탈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영적 지도 신부에게 맡겼던 중학교(medio)의 종교수업에 관한 법이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1883년(6월 21일 규정, n.1590)에는 모든 사범학교 과정에서 종교수업이 확정적으로 폐지되었고, 초등학교에서도 그 과목을 폐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으며, 해당 교사들을 해고했다. 이 모든 규정은 당시 효력을 발휘했고, 자유를 존중하던 1859년의 교육법(legge Casati)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법률을 통하여 법령의 모순을 변명하기 위해 시대가 변했다고 했으나 1848년의 헌법정신은 새로운 정신이 아니었다. (카사티 법도 이 헌법에 기초했음) 학교는 사상의 자유 등에 따른, 비(非)도그마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식의 핑계를 댔다. 1877년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diritti e doveri dell'uomo e del cittadino’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이 권리에 대한 과목이 종교수업을 대체했다. 토리노에서는 <국민일보Gazzetta del Popolo>가 1877년 11월 11일과 14일자 신문에서 교구 교리교육의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린이들을 바로로 만드는 행동을 하고, 시민 세계에서 배척된 교의를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고발했다. 평신도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리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입헌정치주의의 절대적 보편적 최상의 원칙은 법률, 권리, 권력, 모든 것을 만들고 유지하는 대다수 국민의 통치권, 권한, 숭배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망각한 일이었다. 이탈리아 국민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교리교육을 고수하기 위한 내용처럼,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1901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36,092명이 종교가 없다고 밝혔고, 15세 이상 138,818명은 자기 종교에 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으며, 3100만 명이 가톨릭에 속한다고 대답했다. 학교 내 교리교육에 관해 가정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베네치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만 명 중 196명이, 토리노에서는 26,000명 중 31명이, 제노바에서는 18,000명 중 208명이, 피렌체에서는 18,000명 중 562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반대자들 대부분이 히브리인들과 ‘비정통파heterodoxies’들이었고,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리교육의 유지를 분명하게 요구했으며, ‘on’(역주: onorevole의 약자로 추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위를 위해 서약을 하게 했다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보다시피 이 모두가 프리메이슨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프리메이슨이 여성을 자기 수레에 묶어놓으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잡지와 회람지들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회원인 르빌롱⁷은 1900년 파리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 때마다 기존의 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항상 천을 짜고 풀던, 페넬로페(Penelope, 역주: 오디세우스의 아내, 남편의 실종 후 많은 구혼자의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라이르테스의 수의를 다 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3년 동안 낮에 짠 천을 밤이면 풀어서 결국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구원된다는 내용)처럼 천을 새롭

게 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 도움 없이는 많은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898년 이탈리아 프리메이슨의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이 토리노에서 개최되었을 때, 나탄⁸도 그와 같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프리메이슨 활동이, 타고난 교육자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재능으로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여성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활동을 아무리 열렬하게 한다 해도 절대로 효과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진전시킵니다. 여성을 종교에서 해방시키고, ‘자기 양심의 지배자들’, 곧 사제에게서 여성을 격리시키고, 프리메이슨 조직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메이슨의 교활한 술책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여성 33
은 이단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최근 로마에서 개최된 한 모임에서는 여성을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게 하여 자기 종교를 점차적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여성에게 ‘세속적 또는 중립적’ 자선단체를 제안하면서, 프리메이슨이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자들,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 위험에 처한 소녀들, 타락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 단체를 만들게 합니다. 악마의 오래된 술책입니다! 추종자들을 자기 편으로

정. 찬성을 의미)으로 결론을 내려야 했다. 밀라노의 회합에서 그레피(Greppi)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아버지들 뜻에 대한 그와 같은 의결투표에 반대하는 것은 대중의 권리를 짓밟는 일입니다. 만일 대다수가 소수를 결코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면, 소수에 의해 독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요, 모든 정치체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La Civiltà Cattolica* 4 [1907] 644이하에 게재된 “교리교육에 대한 전쟁” 참조) 피에몬테 지방에서는 이미 수년 전, 가스탈디(Gastaldi) 몬시뇰이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글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가톨릭학교의 설립을 지지했으며, 토리노에서는 (1877년에) 종교수업을 반대하는 397명을 거슬러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요청한 11,487명 소년들의 부모들을 칭송했다.(19세기 중엽 피에몬테 내 교회와 사회 *Chiesa e Società nella II metà del XIX secolo in Piemonte*, a cura di Filippo Natale Appendino, Istituto regionale piemontese di pastorale, Edozioni Pietro Marietti 1982, p.339 참조) “평신도 학교는 전형적인 프리메이슨 사상을 표방하고 있으며, 교황 레오 13세가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반포한 1890년 10월 15일자 회칙에 놀랄 만한 요점으로 정리한 내용에, 프리메이슨 이단들의 가장 권위 있는 회합에서 선택한 결정사항과 선서에 기초를 둔 요약처럼, 이탈리아의 반-그리스도교회의 방대한 계획의 본질적 부분에 속한다.”(*La Civiltà Cattolica* 4 [1907] 405) 알베리오네 신부가 특히 학교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7. 프리메이슨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프랑스 저널리스트들 중 한 명.(MM)

8. Ernesto Nathan(런던, 1845년 10월 5일 - 로마, 1921년 4월 9일)은 정치가로, 런던에서 그의 유배 중에 알게 된 주세페 마치니(Giuseppe Mazzini, 1805-1872)의 친구요 협력자였던, 페사로 지방 출신 히브리 여성 사라 나탄 레비(Sara Nathan Levi)의 아들이다. 로마 행정관으로 활약했던 그는 1907년부터 1913년까지는 시장, 평신도 민주주의 연합 내각의 수장이었다. 시장으로서, 건축 사업을 선호했고, 공립학교 건설에 주의를 기울였다. 공공 서비스를 시 차원에서 실현시킨 것도 그의 덕택이었다. 나탄은 이탈리아의 언어와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889년에 창설된 ‘단테 알리기에리회’(Società)의 초기 회원 중 한 사람이다.

끌어들이기 위해 하느님의 활동으로 위장합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업적을 모방하거나 기적을 흉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여성이 불명예스러운 뒷에 걸려 쓰러졌습니까! 그것은 순진함과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프리메이슨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 총연맹⁹은 1912년, 노동 회의소를 통해 이탈리아 내 사회주의 여성조직에 대한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비록 파괴분자들의 조직을 본성적으로 거부하지만, 사회주의는 비교적 긴 여정을 이미 걸었습니다. 거의 10만 명의 여성이 사회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합니다!

그와 같은 여성주의는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34의 여성은 이미 반론을 제기했으며, | 무관심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

여성주의는 새 이름을 가졌을 뿐, 새로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류가 길어진만큼 악한 삶을 오랫동안 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주의 명칭은 실속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선한' 여성주의의 본질은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교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주의는 '여성의 연약성과 존엄성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모든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9. 「사제적 열의…」 203 각주 41을 보라.

세부적으로 보면 1909년 4월 21일, 교황 비오 10세가 축복하고 설명하신 좋은 여성주의 프로그램은 두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의 여성주의는 다음 사항을 반대합니다.

1. 여성을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경찰관, 군인 등 '모든' 직책에 앉히기 위해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어머니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친자녀 관계일 때에는 몸으로는 출산을 통한 어머니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도 영혼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친자녀가 아닐 때 사랑과 자선행위를 통해 육신의 어머니, 교육을 통해 영혼의 어머니가 됩니다.

2.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해체와 붕괴, 곧 이혼, 자유연애, 모든 형태의 현대적 부도덕성, |무엇보다도 자유분방한 사회의 흐름, 35 부도덕한 쾌락, 비윤리적인 온갖 퇴폐 수단을 반대합니다.

3.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는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운동을 반대합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운동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야망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확산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전국 이탈리아 여성 협의회' (국제 여성 연합의 창립¹⁰)과 '여성을 위한 연맹'이라는 두 개의 전국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반종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비정치적 비종교적(제2조)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반가톨릭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1908년 로마에서 초등학교 내 교리교육¹¹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그들

10.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반작용-reazione'으로 되어있다.

11.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주 교리교육을 언급했다. 참조:「사제적 열의…」 127; 169;

187, 189, 190-192; 221; 250; 255; 259; 275; 324-325. 19세기 후반 30년 동안과 20세기 초 10년간 프랑스의 수장이던 오를레앙(Orléans)의 주교 뒤팡루(Dupanloup) 몬시뇰이 피에몬테에서 교리교육 방법에 관해 연구했는데, 그의 전기를 저술한 샤르트르의 주교 라그랑지(Lagrangé)에 따르면 피아첸자 회합에 발송한 그의 편지에서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교리”라고 일컫는다. 라그랑지 몬시뇰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분[뒤팡루]의 교리에 대한 근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곧 교리는 교육만 아니라, 무엇보다 종교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교리는 하나의 가르침, 종교수업일뿐 아니라 하나의 직무, 사도직이다”. 뒤팡루에게 있어, “교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다.”(Dupanloup, 「최상의 결작: 교리에 대한 유지 *L'Œuvre par excellence. Entretiens sur le catéchisme*», 1870년에 이탈리아어로 번역됨)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 소생된 교리 부흥은 이탈리아에서 1889년의 “피아첸자 전국 교리 대회 *congresso catechistico nazionale di Piacenza*”에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대회에는 이탈리아 전국에서 모여든 400여 명의 사제들이 참가했는데,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평신도들은 제외되었다. 대회 개최사에서 카페체라트로(Capecciatro) 추가경은 두 가지 근본 텍스트를 지지했다. 1)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모든 종교교육의 통합, 2) 교리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교 사건’을 가르쳐야 하고 ‘그 사건들의 역사적 의의’를 따라야 한다. 교리는 “사건들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사건 자체에 통일성, 열기와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1889년 9월 24일, 25일, 26일에 피아첸자에서 개최된 제1차 교리 대회의 「회의록과 문헌집 *Atti e Documenti*», Piacenza, Tedeschi 1890, p.59 참조) 대회에서는 이탈리아 가톨릭신자들 사이에 종교교육과 수업의 쇠퇴에 대해 염려했다. 스칼라브리니(Scalabrini) 몬시뇰은 처음부터 주목하기를, “좋은 시절에는 신학이 교회의 학문일뿐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문이었고, 어린아이 때부터 본당 주일학교에서 사랑을 통해 깨우친 것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깊이 있게 연구했다.”(pp.60-61) 이제 교리는 ‘소홀히 취급되고, 멸시당하고, 반대 받고, 학교에서 제외되고 또한 본당에서조차 점차 횡수가 줄어들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존경하던 보노멜리(Bonomelli) 몬시뇰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수업은 구두로 할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해야 한다.”(p.228) 이 점에 관해서는 제네바 교구의 스위스 사제 히폴리트 뒤셀리에(Hippolyte Ducellier)도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는 가시적이고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에게서 달아나는 젊은층 때문에 새로운 실행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질문과 대답을 통한 구두 방법, 곧 기존의 교리교육 방법이 더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pp.329-330)라고 주장했다. 교리 대회는 교리서와 교리서 통합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당연히 그 대회의 영향으로 롬바르디아 주교단, 피에몬테 주교단(여러 위원들은 피아첸차에서 이탈리아를 위한 단일 교리서에 대하여 표현했다)이 동일한 교리서를 채택하기로 1896년에 동의했는데, 그 교리서가 바로 미켈레 카사

의 모든 활동이 자코뱅, 혁명주의, 사회주의 등의 활동임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이 두 단체에 가입한 여성의 숫자는 이탈리아에서 거의 16,000여 명에 달합니다. 사회주의는 여성에 관해 그 특권을 상실했으며, 경제적 목적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죽지 않았으며, 프리메이슨도 죽지 않았고 또 쉽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프리메이슨은 위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여성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신앙의 진리를 거슬러, 신앙을 거슬러, 주교들을 거슬러, 종교를 거슬러 싸우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 여성주의에 대항하여 오늘날 선한 여성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마침내 여성주의의 긍정적 차원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여성주의가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여성이 가정에서 최고의 선을 완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의 첫째가는 큰 의무요, 효과적이고 쉬운 일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종교와 사제의 적이 광적 쾌락을 추구하며 ‘형이상학적’ 존재라 말하면서 성 토마스¹²와 학자들을 우

티(Michele Casati) 몬시뇰(Mondovi의 주교, 1765)의 교리서다. 이 교리서는 연이어 리구리아와 에밀리아 교구에서도 수용했고, 1903년에는 토스카나에서도 채택했다. 1905년 교황 비오 10세는 이 교리서를 채택했고, 가벼운 손질을 통해 로마 관구에 속하는 교구를 위한 교리서로 채택했다. 이 교리서 본문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과 간추린 작업으로, 1912년에는 비오 10세 교리서로 알려진 교리서에 이르게 되었다.(19세기 하반기 중엽 피에몬테의 교회와 사회 *Chiesa e Società nella II metà del XIX secolo in Piemonte*], o.c. [「사제적 열의…」 32, 각주 6]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리교사 문제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다.

12.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이탈리아 프로시노네(Frosinone)의 로카세카(Roccasecca)출신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중세 철학자로 알려진 그의 철학은, 수세기를 거쳐 교회의 공식적인 사상이 되었고(토미즘), 그리스도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화를 이루었다.

롱할 때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했다고 믿지만,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원하기만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직적으로’ 여성을 가정에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붕 위에 기초를 놓으려 하고, 포도주 저장창고를 다락방에 두려는 것은 저 유명한 시인의 다음과 같은 표현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아랫녘 세상이

자연이 닦아 놓은 본바탕에 마음을 쓰면서

그를 따랐다면, 선량한 사람을 가졌을 것이요.¹³

37 하느님이 성경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여성은 타고난 기질과 | 적성과 일상생활의 필요에 따라 자기 노고의 고유한 영역으로 제일 먼저 자기 가정을 꼽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가정 밖의 일을 으뜸가는 일로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성의 취향을 짓밟는 것이고, 하느님의 섭리로 안배된 계획에 반대될뿐 아니라 남성과 사회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사회의 낙오자들, 불행한 자들, 불필요한 자들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는 혁명당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은 집안에서 여왕입니다. 여성이 자기 위치를 자각하여 불평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성이 그렇게 되고자 할 때, 사회

13.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천국』, VIII, 142-144. (역주: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142-143이 없고, 141이 본문 내용에 해당하기에 그대로 인용했다.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세상이 정신을 저 아래로 내려놓고/ 본성이 만든 기초에 입각해서/ 그를 따라 살면, 좋은 백성을 얻으리라.”)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기획자가 국가의 기초를 가정에 두지 않고 그릇된 집단주의에 두면서 개인에게까지 그 꿈을 펼치려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 상식은 가정이야말로 국가의 기초요 세포로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국가의 기초가 가정기에, 국가는 대다수의 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이 향상된다면 국가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라고 불리는 여성은 가정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힘과 번영과 발전에 드러나지 않는 참된 공헌자가 됩니다. 사건마다 “여성을 찾아라.”¹⁴라는 격언이 있듯이 | 국민과 국가가 처한 상황 앞에서 ‘여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주시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한 여성주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향합니다. 곧 소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어린 동생들을 자식처럼 여겨 돌보는 어린 엄마가 되도록 양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의 친구가 되어 그를 신앙, 신심, 덕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양성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교적으로 빚어내는 틀이 되도록 양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강론 때 늘 이야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명제와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선한 여성주의의 본질은 우리 종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종교는 그 자체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상 삶을 잘 살게 하고, 가능한 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세기가 지나도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원칙은 바뀌지도 추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제시하려는 것은, 오늘날의 여성은 오늘

14. “cherchez la femme”라는 말은 알렉산드르 뒤마(Alexandre Dumas padre, 1803-1870)의 연극(1864년에 처음으로 공연됨) 〈파리의 모히칸족〉(Les Mohicans de Paris 3막 5장 7장)에 나오는 파리 경찰관의 대사다.

의 남성을 만들어야 하고, 오늘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오늘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여성은 과거의 여성과는 달리 신앙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성은 세상에서 자녀들이 대면하게 되는 신앙의 난관과 이견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나운 이리떼 가운데¹⁵ 무방비 상태에 놓인 어린 양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 더 완전한 교육으로 자녀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성가실 정도로 이를 되풀이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12세, 또는 14세까지 교회에 나가고 영성제도 하지만 ... 그 후에는 교회에서 그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도 알지 못하기에 폭넓은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수천 가지 유혹 앞에서 강인한 사람으로 가르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점이 있는데, 일부 현대적 수단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적들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 1세가 고안해낸 대포 크룹¹⁶(Krupp, 역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대포)에 대항할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여성이 오늘의 남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의 의미와 그 수단을 앞으로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2. 여성의 우선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은 가사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를 보완하는 것으로, 가사일 외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은 아주 대단한 여성활동에 도움을 줄 수

15. 루카 10, 3 참조.

16.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Kroup’으로 표기되어 있다. 크룹(Krupp)은 유럽에서 강철과 무기를 생산하는 가장 거대한 공장을 소유한 독일가문의 성(姓, cognome)이다.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연맹에 가입하면서 선교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 빈첸소 부인회 Dame di San Vincenzo, 자비의 부인회 Dame di Misericordia, 본당 교리교육, 종교교육, 마리아 수도회 Congregazioni mariane, 그리스도인 어머니 연합회 Pia unione delle Madri cristiane, 노동자 피정 Ritiri operai,¹⁷ 젊은 여성의 수호 Protezione della giovane,¹⁸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 Santa | Infanzia, 교황청 전교회 40 Propaganda della fede, 축일 휴식을 위한 동맹 Lega pel riposo festivo, 신성모독 반대 동맹, 선한 출판 동맹 등.

여성은 사회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여성 노동자

17.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지도하며, 지정된 피정 집에서 피정자들을 모아 며칠 동안의 피정을 하게 한다. “프랑스인들이 ‘데 르트레트 페르메 des retraites fermées’라고 부르던 회의 명칭에서 ‘데 르트레트 페르메 우브리에르 des retraites fermées ouvrières’, 곧 “노동자 피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키에리(Chieri)에서는 ...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노동자 피정] 마침내 1907년에 시도하게 되었다. 그후 1908년에 계속 되풀이하면서 매번 향상해나갔다. 들판의 언덕, 인근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그리고 삶의 소란한 상태를 벗어난 아주 적합한 피정 집에 처음에는 30여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는 50여 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3일 동안 침묵 속에서 성 이냐시오의 방법에 따라 영신수련에 적합한 묵상과 다른 신심실천을 계속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금년에도 토리노에서 그리고 토리노와 가까운 다른 작은 도시 아빌리아나에서 실행했다. 21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피정이 계속 이어질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내었는데, 비록 침묵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의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이 아닌 지적 작업,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규칙적인 생활과 규율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끝까지 해냈다.”(La Civiltà Cattolica 4 [1908] 61-69 참조) 「사제적 열의…」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노동자 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사제적 열의…」 197 참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 피정 방법은 프랑스에서 바트리강(Watrigant) 신부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급속도로 전파되어 피에몬테에 도달한 것이다.(1907년과 1908년 키에리에서 열린 노동자 피정 - 1908년 토리노에서 열린 노동자 피정’ 개요[여성 피정의 성과 appunto ‘I ritiri operai in Chieri nel 1907 e 1908 - I ritiri operai in Torino nel 1908’[Opera degli Esercizi spirituali], Torino, Tipografia Artigianelli 1908 참조)

18. 창립자는 스위스 국회의원의 아내인 몬테나크(Montenach) 남작 부인이다.

들을 위한 보호와 상호원조Patrono e Mutuo soccorso per le operaie, 명예회복 협회Opera di riabilitazione, 해외 여성 수호, 결투 반대 동맹Leghe contro il duello, 경제적인 요리법, 가족 연금, 혼수 기금, 출산 기금, 사회보장, 작업실, 여성 노동조합 등.

여성은 종교·사회 문제, 도덕적인 부분, 위생, 가정관리에서 자신의 교양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 학습이나 교양강좌에서, 사회학 수업에서, 적합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여성에게 제공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녀들과 교사들에게 맡겨진 여성의 두 가지 활동분야를 기억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몬시뇰 보노멜리¹⁹에 따르면, 진정한 여성 분야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활동으로 사제직과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곧 여성의 참정권과 투

19. Geremia Bonomelli는 1831년 9월 22일 브레샤의 니골리네(Nigoline)에서 출생했다. 브레샤 신학교에서 1855년 6월 2일 사제로 수품되었으며,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파살리아(Passaglia), 슈라더(Schrader), 파트리치(Patrizi)를 스승으로 모셨다. 2년 후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자신의 교구 신학교에서 처음에는 종교철학 교수로, 후에는 1866년 7월 8일 로베레(Lovere)의 본당신부로 가기 전까지 해석학과 교의신학을 가르쳤다. 1871년 11월 26일 크레모나의 주교로 서품되었다. (그 당시 크레모나 교구는 본당 222개, 사제 650명, 신자 350,000명이었다.) 보노멜리는 규율과 교육의 개혁을 활발히 전개했다. 대중을 위한 무상 학교를 열었고, 노동자 서클과 청년 서클을 지원했으며, 수도공동체 증대에 기여했고, 개인적으로 교리활동에 헌신했다. 그의 사목방문 동안 하루에 여덟 번까지 강론을 했다. 광범위한 선교 활동으로 교리와 호교론을 확장시켰다. 크레모나에서 여러 일간지 창간을 촉진시켰는데, 그중에는 *Il messaggero*(1880-1894)와 *Il cittadino*(1898-1905) 같은 일간지가 있다. 전 생애를 통해 이탈리아인과 외국인을 막론한 저명 인사들과 긴밀한 서신왕래로 그 당시의 시급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표권과 같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는 직접 그 문제를 다 41
루지 않지만, 정치적 열정의 소용돌이는 결코 여성의 활동을 위해 좋은 장소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와 같은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권리를 활용해야 할 의무도 인정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진 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그리스도교 원칙을 거슬러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는 온 힘을 기울여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와 대항하는 한편,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와 투쟁한다는 것은 교회에 해를 끼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는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 정신을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제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은 교회의 정신을 따르고, 선의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여성이 이와 같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러한 사명을 완수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그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절한 답변을 주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제 4 장 과거의 여성 사도직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많은 사건 중에서 몇 가지 특별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칠까 합니다.

[성경의 세 영웅]

첫 번째 그룹은 구약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여성은 세상 극변에서 가져온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하다...”¹라는 진리의 말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여성을 이끌었던 완덕의 법은 여성을 존엄한 경지에게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실행했으므로 에스테르, 드보라, 유딧²과 같은 전형적 모범인 이 세 명을 따르는 수많은 이에게도 영예의 관이 씌워졌습니다. 에스테르는 그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덕성 때문에 사랑받았고,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임금의 재상인 하만은 잔인한 사람으로 유다인의 원수였기에 통치자에게서 유다인 몰살 법령을 받아냈습니다.

1.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잠언 31,10)

2. 에스테르기와 유딧기 참조. 드보라에 대해서는 창세 35,8; 판관 4-5장; 토빗 1,8을 참조한다.

모르도카이에게서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테르는 모든 유다인에게 단식과 기도를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 앞으로 나아가 | 임금의 마음을 얻어내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해냈을 43
뿐 아니라, 적대자 하만을 자기가 준비한 기둥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죄를 지었고, 하느님은 그들을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넘기심으로써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억압과 박해는 혹독했습니다. 당시에 드보라라는 여예언자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관을 받으려 그녀에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는 바락에게 1만 명의 병사를 모으라는 영을 내린 다음, 그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적의 숫자가 월등했으며, 그들은 모두 무기로 무장했음에도 완전히 패했습니다. 적의 장수 시스라는 야엘³의 손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보라에 의해 해방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시대에 시리아의 장수 홀로페르네스가 배틀리아를 포위하고 물길을 끊은 다음, 모든 주민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읍의 원로인 우찌야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적에게 항복하고 성읍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므나쎄의 과부 유딧이 나서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꾸짖으며 모두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유딧은 적진으로 나아가 전초병을 통해 홀로페르네스 앞으로 인도받아 계획대로 그의 신임과 마음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날 밤에 그가 포도주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다음날 장군을 잃은 홀로페르네스의 군대는 모두 달아났고, 배틀리아는 해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유딧을 반기며 다

3. 판관 4,18-23 참조.

44 음과 같은 노래로 칭송했습니다. |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요,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겨레의 큰 자랑이오.’⁴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는,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있지는 않지만, 20세기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여성주의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셨을 때 시메온 곁에 있던 한 여인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⁵ 그 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⁶을 회개시키셨는데, 죄인에서 사도로 변화된 이 여인은 자기 고을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실 때 신심 깊은 여인들⁷이 그분을 환대했고 시중들었으며,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일 먼저 경건한 여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어 그들이 큰 사건의 선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4. 유딧 15,9 참조.

5. 루카 2,25-38 참조.

6. 요한 4,7 이하 참조.

7. 예수님을 따른 여성들: 마태 27,55; 28,5; 마르 15,40-41; 루카 8,2; 23,27,49,55; 24,10,22,24; 사도 1,14.

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⁸

사도들의 선포가 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여성은 가정생활에 충실한 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교로 이끌었고, 황제의 궁전이나 어디에든 예외 없이, 개별적 전교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 신앙 45을 전파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많은 도움을 준 여러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여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이며 쾅크레에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⁹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퀼라¹⁰(부부)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그들의 집에서 빵을 쪄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남녀 모든 이)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복음을 위한 노고를 나타내는 표현)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시오. 주님 안에서 애쓴 트리패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시오. 주님 안에서 애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시오.”(로마16, 1-13) 성 바오로가 콜로사이서, 필리피서, 티모테오 후서 등에서 여러 다른 여인에게 보낸 안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사도들¹¹과 함께 협력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 예언자들과 여성 부제들입니다.¹² 첫째 부류

8. 마르 16,7.

9. 로마 16,1.

10. 참조: 로마 16,3 이하; 1코린 16,19; 2티모 4,19.

1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gli(사도들에게)’라고 되어있다.

는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주님께에서 예언의 영을 받아(넓은 의미에서) 백성에게 성경, 특히 예언서의 감추어진 의미와 신앙의 신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여러 서간과 사도행전에 46 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부제들은 I 교회 안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16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덕이 입증된 동정녀들이나 과부들로서, 주교에 의해 선택되고, 특별한 축복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직무로는 여성의 세례성사를 보조하는 일, 여성 예비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 여성 병자들을 방문하고 특히 성사를 받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 여성의 성당 출입을 통제하는 일 등입니다. 테르툴리아노¹³와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¹⁴는 교회와 신앙을 위한 그들의 공덕을 증언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톨릭교회 안에 드러난 여성의 역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기에, 이 주제에 관해 글을 쓰는 작가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모두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교회에 자유를 가져왔고 이교異教에 승리한 콘스탄티누스 대

12. 여예언자의 칭호에 대해서는 탈출 15,20; 판관 4,4; 2열왕 22,14; 2역대 34,22; 느헤 6,14; 이사 8,3과 신약성경의 루카 2,6; 묵시 2,20 참조. 여부제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자매' 포이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로마 16,1 참조.
13. Quinto Settimio Fiorenzo Tertulliano(160-250년경)는 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호한 호교론자이다.(MM)
14. Clemente Alessandrino(150-212)는 그리스 교부 중 한 분으로서,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를 화해시키려 노력했다.(MM)

제의 아내와 어머니,¹⁵ 제노베파Genoveffa,¹⁶ 남편과 왕국의 개종을 가능하게 한 프랑크족 왕 클로도베오Clodoveo의 아내 클로틸데 Clotilde, 영국 대부분 지역에 신앙을 전파한 베르타Berta,¹⁷ 슬라브족, 게르만족, 헝가리 민족 사이에서 선교사로 추앙되는 아리슬라우Iarislav와 리오바Lioba¹⁸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세기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미개척 지역에 신앙과 문명을 가져가기 위해 선교사와 함께 길을 떠난 큰 무리의 여성 영웅¹⁹은 흡족할 만한 결실입니다.

세 사건과 연관된 세 여인은 I 교회사에서 각별히 중요합니다. 47 교회에 끝없는 재난을 일으켰던 소위 아버지들의 유배 또는 유수幽囚라고 하는 그 사건을 끝낸 것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탁월

15. Elena Flavia Giulia(250-330)는 코스탄조 1세 클로로(Cloro)의 첫 번째 아내이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로서 313년 칙령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지지했고, 로마와 예루살렘 성지에 성전을 건립하는 공헌을 했다. Fausta Flavia Massima(298-326)는 막시미아노 황제의 딸이요 마첸치오(Massenzio)의 누이로, 307년 아직 어렸을 때 갈리아에서 콘스탄티누스를 남편으로 맞았다. 생전에 가족의 비극에 휘말렸고 죽은 후에도 그랬다.
16. Bolo, 「여성과 성직자*La donna e il clero*」, 상동, pp.16-17 참조.
17. 켄트(Kent)의 왕과 결혼한 이 성녀는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신앙 교육에 철저했다. 과부가 되자 자신이 창립한 수도원의 원장수녀로 있다가 725년에 선종했다.(MM) 베르타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라. Ventura G., 「가톨릭 여성 *La donna cattolica*」, II, Milano-Genova 1855, p.304: “영국의 군주제와 민족주의는 프랑크 파리의 왕 카리베르토(Cariberto)의 딸 성녀 베르타의 작품이다.”
18. 「사제적 열의…」 초판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알베리오네 신부는 아마 Bolo, 「여성과 성직자*La donna e il clero*」, 상동, p.16이하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리오바(또는 Leoba, Leobgytha, Truthgeba)는 베네딕토회 수도자 성녀로서, 745년경 바덴(Baden)의 타우버비슈샤임(Tauberbischofsheim)에 수도원을 창설했다. 성 보니파시오와 모계 쪽 인척관계였으므로 그와 함께 독일의 그리스도교화 운동에 참여했다. 782년(또는 779/780년) 9월 28일 마곤자 근처, 쉐샤임에서 선종했다.(MM) 아리슬라우에 대해서는 키에프의 왕자 그리고 다른 슬라브 지역의 왕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eroi'로 되어있다.

한 공로였습니다. 이 성녀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고개를 숙입니다. 신심이 깊고 뛰어난 문학가로서²⁰ 정치에 유능했던 성녀는 이 모든 것을 고행과 기도에서 길어냈습니다. 교황의 세속적 권력은 비록 악의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교회에 큰 이익을 가져왔는데, 교황을 도와 황제의 야심에 결연히 대항한, 유명한 카노사의 마틸다Matilde di Canossa를 곧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젊은 여성으로 미혼인 자리코Jaricot²¹가 있습니다. 그는 ‘교황청 선교회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를 만들어 미래 교회의 영광의 기초를 다졌고,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²²

20. 성녀는 문맹인(illetterata, 역주: 성녀가 글을 배운 것은 선종 3년 전이며 「대화」와 40여 편의 서한은 구술한 것을 성 라이몬도가 기록했다)으로 알려져 있다.

2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Jaricot’로 되어있음. Bolo, 「여성과 성직자La donna e il clero」, 상동, p.17 참조. 폴린느-마리 자리코(Pauline-Marie Jarico)는 교황청 선교회의 설립자다. 1799년 7월 22일 리옹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1862년 1월 9일 선종했다. 공장을 운영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분별한 젊은 시기를 보내다가 중병을 앓은 후 삶이 바뀌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된 오빠 필레아(Philéas)에게서 빛을 받은 폴린느-마리는 젊은 직공들과 일부 영향력 있는 가톨릭 평신도 회원들 사이에서 기도와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1822년 5월 3일 가톨릭 선교활동을 위한 거대한 후원 단체가 되었다. 보속에 대한 열망과 선한 출판 보급에 대한 열망에 고무되어, 자리코는 1826년 생명의 목주 기도회를 설립했다.(「사제적 열의…」 115; 306 참조) 비참한 삶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반그리스도교화하는지 깨달은 그는 그리스도인 공장을 만들려는 과감한 계획을 시도했다. 이런 목적으로 ‘알프스 남단’에 있는 루스트렐(Rustrel) 공장을 협력형태로 운영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여 사업에 실패했다. 그의 시복절차가 1930년에 시작되었다.

22. 이러한 조직 형태는, 예를 들어, “교황청 어린이 선교회Opera della Santa Infanzia”, “동방 학파회Scuole d’Oriente”, “성 베드로 클라베회san Pietro Claver”, “사도회Euvres apostoliques”, “보니파시오회Bonifaciusverein”, “루드비크회Ludwigsverein”, “선교사 후원회Euvre des partans”와 유사 조직들은 모두 지역 단체나 세상의 사도적 단체들에 재정적 도움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주 인용하던 “선교사회opera missionaria”는 아마도 미스 폴린느 자리코의 생각에 의해 설립된 “교황청 선교회Propagazione della

우리는 영웅적 검덕을 타고난 많은 여성을 성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성과 소녀들을 열성적으로 복돋아주었을 뿐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의 직무자들, 영혼의 목자들, 주교들과 교황들을 고무하지 않았습니까! 성녀 브리짓다Brigida,²³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 파지Pazzi,²⁴ 성녀 테레사,²⁵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²⁶ 등 셀 수 없이 많은 성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하느님의 영광

fede”(1822년 5월 3일부터 존재)일 것이다.

23. 브리짓다(1303년에 출생)는 스웨덴 귀족 출신이었다.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결혼을 하게 되어 일 년 동안 동정을 지키다가 8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그중 한 명이 스웨덴의 성녀 카타리나였다. “브리짓다회Brigidine(Ordine del Santissimo Salvatore: 지극히 거룩하신 구속주회)”를 설립했다. 우르바노 5세와 그레고리오 11세 등 여러 교황의 조언자였다. 로마에서 1373년에 선종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가족이 이사한 곳인 케라스코 평야의 카시나 아그리콜라 근처 성녀에게 봉헌된 작은 성당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이 성녀에게 애정을 가졌다. 어린 알베리오네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그 작은 성당에서 그의 어머니가 기다리곤 했다.

24. 가르멜 수녀회 성녀(1566-1607)로서, 피렌체 귀족 출신으로 성 후레디아노(Frediano) 수도원 소속이었다.

25. 테레사 데 세페다 이 아우마다(Teresa de Cepeda y Ahumada)는 스페인의 아빌라에서 1515년 3월 29일 출생하여 1582년 10월 4일 알바 데 토르메스에서 선종했다. 열정에 넘친 어린 시절과 방탕한 사춘기를 지냈다. 첫서원을 하던 해에 병에 걸렸고, 기도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병에서 회복한 다음, 다시금 세속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다. 아버지의 죽음(1543년)은 테레사로 하여금 기도생활을 다시 시작하여 계속 충실할 것을 결심하도록 부추겼다. 트레트 공의회(1545-1563)가 절정이었던 1560년에, 테레사는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열성적으로 착수하여, 초기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맨발의) 가르멜회의 재건을 이루어냈다. 실천적인 여성의 모습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수도회의 사소한 일까지 모두 책임졌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주 이 성녀를 언급했다.(「사제적 열의…」 47; 182; 225; 244; 246; 335 참조)

26. Francesca Frémyot(1572-1641)는 프랑스 디종의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남편 바롱 드 샹탈이 사고로 죽은 후, 성녀는 프랑스 전역에 루터주의와 칼뱅주의가 퍼지던 시대에 가톨릭 사도직에 전념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인도 아래 1610년 방문수도회를 창립했다.(MM)

48 과 인간 구원을 촉진하는 가운데 | 기도뿐 아니라 교회의 고위층에 대한 경고와 권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 열성을 칭송했고 소중하게 활용했습니다. 성녀 요안나 드 샤탈은 그의 사후에 발견된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도시의 서민들이 아침에 경건한 마음과 깊은 신심으로 미사성제에 참례하고, 하루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봉헌하도록 교육시켜 주시길 지네브라Ginevra의 몬시뇰²⁷께 부탁드릴 것을 기억하자.”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이 당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충고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녀는 그러한 조언이 유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성 프란치스코는 그 조언을 곧바로 활용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 파시에 관한 글도 읽어보십시오. “성녀는 영혼을 위한 불타는 열정으로, 자신의 성^性과 수녀라는 신분도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평소 성녀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피렌체의 대주교(교황 레오 10세) 조반니 데 메디치Giovanni²⁸ de’ Medici의 지

27. 지네브라의 주교 프란치스코(1567-1622)는 교회박사, 저널리스트의 주보성인이다. 1567년 8월 21일 사부아의 살레 성에서 출생하여 1622년 12월 28일 리옹에서 선종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자주 인용했다. 『사제적 열의...』 67; 239; 244; 247; 248; 345 「신에론Filateo」은 신학생들에게 목상자료로 자주 활용되었다.

2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lessandro’라고 되어있다. 교황 레오 10세(1513-1521)는 피렌체 공화국의 통치자인 피렌체 메디치가(家)의 ‘위대한 로렌조(Magnifico)’라고 불리던 로렌조 데 메디치의 아들 조반니 데 메디치(1475-1521)이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어(1513) 프랑스 독립교회(Chiesa gallica)를 인정했다(1516). 평화주의자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휘청대기도 했지만 급기야 프랑스의 왕 발로아 프란치스코 1세에 대항하여 아우스부르크(스페인과 아우스트리아, 역주: 신성로마제국을 말함)의 가를로 5세와 연합했다. 예술 애호가요 사치로 인해 교회의 재정을 어렵게 했지만 문학, 과학, 예술 분야를 발전시켰다. 루터의 개혁 시작일(1517년 비텐베르크 주교좌성당에 92조항의 반박문을 부착)은 교황의 재임 4주년이 되는 날과 일치한다. 만일 저자가 조반니 데 메디치가 아니라 알렉산드로를 의도했다면, 언급하고 있는 교황은, 민

지를 받아 수도원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악습을 개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녀는 당시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아 데 메디치Maria de’ Medici²⁹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프랑스에서 추방된 영광스러운 종교(가톨릭)가 재개되도록 왕에게 부탁함으로써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열정으로 | 성녀는 이단을 근절시키고, 신심이 절정을 이루었던 로 49
도비코Lodovico³⁰ 왕 시대의 신심으로 되돌아가도록 왕비에게 권고했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전기에는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의 신비적 혼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성녀에게 내리신 명령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네 영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도 너의 덕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고리를 통하여 너와 일치하기를 원한다. 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두 계명은 걷기 위한 두 개의 발처럼 그리고 날기 위한 날개처럼 너를 도와주어야 하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야 한다’ ...”

성녀 제르마나 쿠쟁Germana Cousin³¹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으며,

을 수 없는 것이지만, 1605년 4월 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5일 동안 교황직을 유지했던 알렉산드로 11세를 언급하는 것이 된다.(MM)

29. 마리아 데 메디치(1573-1642)는 토스카나의 프란치스코 2세의 딸로 프랑스의 앙리 4세와 결혼했다(1600). 아들 루이 13세를 대신하여 섭정했지만(1610-1615), 피렌체 출신 콘치노 콘치니(Concino Concini)를 궁정에 들여 그와 결합한 것 때문에 백성과 귀족들의 반감을 샀다. 마리아는 아들에 의해 영국으로 유배되었으며, 나중에 독일의 쾰른으로 보내졌다.

30. 아마도 가를로 대제(샤를마뉴)의 막내 아들, 소위 비오(778-840)라고 불리던 로도비코(역주: 루드비히)를 암시하는 것 같다. 비앙카 디 카스틸리아(Bianca di Castiglia)의 아들, 성 루이 9세(1214-1270)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계모에게 학대받아 연주창^{連珠瘡}³²에 걸린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성녀의 마음속에는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비탈에서 양을 치거나 우리에게 가두어 두어 틈이 날 때면 소년 소녀들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착하게 살고 죄를 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역사가 팔라디오³³는 우리에게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³⁴에 의해 여성 부제로 선택된 성녀 올림피아데의 놀라운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녀는 20세에 과부가 되었으나 재혼을 하지 않고, 그의 막
50 대한 재산, 숭고한 열정, 학식을 교회를 위해 바쳤습니다. | 성녀는 병자들을 도와주고, 교육시키고, 임종을 준비시켰습니다. 유배자들, 죄수들, 동정녀들을 보호하고 위로했습니다. 성녀는 정통 신앙을 수호하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여러 교회를 돕고 봉사하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막강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교부가 유배된 뒤 성녀는 이단과 싸웠고, 대중에게 주교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으며, 이단의 술책에 대항해

31. 가톨릭 신자들과 프랑스의 신교 위그노 교도들 사이에 분쟁이 심하던 프랑스 툴루즈 근처에서 1579년에 출생했다. 병약한 어린 아기는 오른손을 쓸 수 없었고 심한 피부병에 걸려 가족 안에서도 조롱 대상이었다. 9살 때부터 격리된 채 양떼를 돌보며 지냈다. 저녁 때 양을 치고 돌아오면, 외양간에서 자야 했다. 살아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없었다. 1601년 어느 여름 날 아침, 22살의 나이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1644년 그녀의 시신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으므로 본당신자들의 태도가 변했다. 성녀는 단지 신심 깊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고, 많은 이가 ‘광신자’라 불렀지만, “그리스도인 젊은 여성의 농촌 운동 *Mouvement rural de la jeunesse chrétienne féminine*”의 주보성인이 되었다.

32. 연주창은 목 부분의 입파선이 붓는 병이며, 자주 결핵성으로 나타난다.

33. Blosio Palladio(1508-1580)는 교황 클레멘스 7세와 교황 바오로 3세의 비서였는데, 교황은 그를 1540년에 폴리뇨(Foligno)의 주교로 임명했다.(MM)

3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여기서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셔도 ‘Grisostomo’라고 표기했다.

싸우도록 성직자의 열정을 고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성 크리소스토모가 여성은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도 이 성녀 덕택일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참된 승리가 드러나는 장엄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제정은 복녀 리에지의 줄리아나 *Giuliana di Liegi*³⁵ 덕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곱 분의 교회박사를 기억합시다.³⁶ 성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 예로니모, 성 암브로시오와 성 아우구스티노 등은 자신들의 확신, 성격, 성소가 결정적으로 그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를 기억합시다. 가장 궤변적인 이교도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을 설득하고, 개종시키고, 순교자가 되게 한³⁷ 이 젊은 여성은 성 아타나시오의 책으로 성 예로니모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가 성녀에게 자문을 구했고, 성녀는 신앙으로 로마에서 위대한 선을 행했습니다. 펠라지오 *Pelagio*와 논쟁했던 멜라니

35. 줄리아나 디 리에지 또는 코르닐롱(*Cornillon*)의 줄리아나는 1191년 리에지 근처의 레틴느(*Retinnes*)에서 출생했다. 고아가 된 그는 1207년경 수녀가 되었다. 1209년에 첫 환시를 보았고, 이어서 다른 많은 환시를 보았다. 1230년경 몽-코르닐롱(*Mont-Cornillon*; 코르닐롱 산)의 수도원장이 되어 축일을 만들려는 활동을 시작했다. 1248년 5월 2일 원장직에서 해임되어 뫼세(*Fosses*)로 몰려나 1258년 4월 5일 선종했다.

36. ‘일곱’이지만, 사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섯 명을 열거했다. 일곱 번째 교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오일 수 있다.(「사제적 열의…」 139 각주 14 참조) 그들의 거룩한 어머니들 곧 성 바실리오의 어머니는 성녀 에멜리아, 성 그레고리오의 어머니는 성녀 논나(*Nonna*),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어머니는 성녀 안투사(*Antusa*),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는 성녀 모니카다.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37.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과거 여성 학자들”에 관한 볼로(*Bolo*)의 「여성과 성직자 *La donna e il clero*」, 상동, p.153을 요약했다.

51 아³⁸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 스토아학과³⁹와 논쟁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논리 앞에서도 완강했던 발루시아노Valusiano를 개종시켰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거행되고 있는 성체대회가 탁월하게 중요한 행사라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개최해온 성체대회는 큰 위로를 주는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성체대회의 기원은 하느님의 겸손한 여종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녀는 침묵과 기도 안에서 이를 생각해냈습니다.⁴⁰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대한 신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퍼져나가 효과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모든 이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방문수녀회의 겸손한 수녀인 여성 사도를 선택하셨으니, 곧 복녀 마르가리타 알라코크입니다.⁴¹

루르드에서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나간 유물론적 합리

38. 짧은 멜라니아(Melania la Giovane, 383-439)는 로마 출신의 귀부인, 놀라의 성 바울리노의 친족 멜라니아(Melania l'Anziana)의 조카로서, 자녀들이 죽은 후 로마를 떠나 시칠리아로 건너갔으며, 그후 예루살렘에 가서 올리브 동산에 수도원을 세웠다. 바울리노,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와 교류했고, 아우구스티노에게 거부당한 브라타뉴 출신 수도자 펠라지오(354-427)와 논쟁을 벌였다.

3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역사가들(storici)이라고 되어있다.

40. 마리아 마르타 에밀리아 타미시에르(Maria Marta Emilia Tamisier Tours, 1884-1910)를 말한다. 피에르 줄리아노 에이마르(Pier Giuliano Eymard)에게서 영감을 받아 성당 순례에서 얻어진 마리아 신심을 본받아, 대중 사이에 성체성사에 대한 공경을 보급하기로 결심했다. 성체성사 또는 성체성사의 기적과 결부된 성당 순례 방식을 활성화하고 조직했다. 첫 번째 순례는, 아비뇽(Penitenti Grigi) 성당에서 행한 것으로 18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파리의 대주교 몬시뇰 L. G. de Ségur 주교가 교황 레오 13세에게서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1881)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가톨릭 문화」 4 [1910] 80 참조.

41. 방문수녀회의 수녀로서, 1647년 7월 22일 프랑스 오통(Autun) 교구에 있는, 파레르 모니알(Paray-le-Monial) 근교에서 출생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잃자 고아가 되어 일찍부터 고통을 겪었다. 24세가 되던 1671년 5월 25일, 파레이 방문수녀회에 입회했다. 도처에 안세니즘이 확산될 때 그녀의 활동으로 예수 성심께 대한 공경이 시작되었다.

주의, 프랑스 귀변철학filosofismo, 유행처럼 밀려온 불신앙과 싸워 격파시키는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순진무구하고 소박한 소녀를 당신의 신뢰할 만한 친구요 사도로 선택하셨으니, 곧 베르나데트 수비루Bernadette Soubirous입니다.⁴²

[하와와 마리아]

“인간을 망치고 인류 전체를 파멸시킨 것은 하와⁴³라는 여성이 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위대한 힘을 입증합니다. 여성은 급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급류를 방지하면 파괴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성이 그것을 이용하여 운하를 만든다면, | 거기서 빛과 에너지를 운반하는 놀랄 만한 전력을 이끌어냅니다. 여성의 에너지를 사제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둘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우리를 ‘가장 위대한 여인’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어, 본성과 은총의 활동에서 여성 사명의 모든 위대함을 알려 주십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육화의 신비를 통하여 여성을 신

4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Bernardetta Soubiroux’로 표기되어 있다. 베르나데트 또는 마리아 베르나르다 수비루는 1884년 1월 7일 루르드에서 출생했다. 그곳에서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께서 그녀에게 발현하셨다. 1867년 10월 30일 느베르(Nevers)의 수녀회에서 서원을 했다. 당시의 총원장 수녀는 “전혀 좋은 수녀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몬시뇰 휘르카드(Forcade)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나의 딸이여, 나는 그대에게 기도의 숙제를 주노라.”

43. 하와에 관해서는 창세 3,20; 4,1; 토비 8,6; 2코린 11,3; 1티모 2,13 참조.

적 존엄성에 이르는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사업 안에서, 지상천국에서 공동구속자로 예언되었고, 예언자들이 예고하고 선조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바치는 다음의 찬가보다 이 여인의 영광스러운 역할에 대해 그 누구도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찬가는 매년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교회가 신자들을 준비시키려 마련한 기도로서, 신학적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⁴⁴ “주님의 천사 예고를 통해 복되신 여인이여, 성령으로 인해 더 풍요로워 지셨으니, 당신에게서 백성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오 마리아, 경애하올 당신 아드님 안에서 하와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지상의 유배를 사는 가난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천국문을 여십니다! 당신은 저 높은 곳의 임금께 가기 위한 길이십니다! … 오, 노예살이에서 풀려난 모든 백성아, 동정녀가 가져다주신 생명을 환호하라!”

53 하신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성인들의 여왕, | 비천한 이들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인류의 온갖 은총과 온갖 위로의 중개자가 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축복된 지팡이인 마리아에게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지팡이에서 예수 그

44. 성모 축일 공통 아침기도의 찬미가로서, 토요일 성모신심과 교회 봉헌 기도에서도 사용되었다.(MM)(역주: 현재 한국어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서 본문에서는 원문 텍스트를 직역했고, 여기에 현행 찬미가를 참조로 실는다. “드높이 영광된 어머니시여/ 창공의 별보다 높으신 여인/ 당신을 내신 주 당신이 낳아/ 기꺼이 젖먹여 키우셨도다/ 하와가 죄 지어 잃어버린 것/ 성자와 당신이 회복하시고/ 고통에 우는 이 천국 들도록/ 좁은 길 자애로 열어주셨네/ 높으신 임금님 궁궐 문이요/ 눈부신 천국의 대문이시여/ 당신이 낳으신 영원한 생명/ 구원된 백성이 찬미하도다/ 성모께 특은을 베풀 하느님/ 성부와 성령과 독생 성자께/ 온 세상 사람들 영광드려라/ 우리도 끝없이 영광 드리세. 아멘.”)

리스도라는 복된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 죽음을 가져온 바로 그 성녀에게서 하느님은 생명이 움터 나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위대하심 앞에서 남성은 하느님을 떠나 품위를 잃은 동반자인 여성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여성은 자기 본성과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갈 자기 성소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교회는 바랍니다!⁴⁵

교회 안에서 여성이 가르치고 통치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성은 항상 부차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느님은 지혜로운 이들⁴⁶과 교만한 이들을 흠으시기 위해 무지한 이들과 겸손한 이들을 당신 기적의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은 강한 이들을 흠으시기 위해 약한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권능을 더 잘 드러내시기 위해 무가치해 보이는 수단을 선택하십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여성은 자신 안에 잠재적인 에너지, 아주 소중한 급류 같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는 인정받지 못했고, 헛된 수단나 악에 사용되거나 쇠퇴되곤 합니다. 그러나 잘 인도한다면 남성이 결코 해내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45. 마리아 공경에 대해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제생활 시작부터 다음과 같은 소책자를 쓰면서 자신만의 기여를 하고 싶어했다. 「케라스코에서 은총의 동정 마리아, 기억-존경 *La B. Vergine delle Grazie in Cherasco (La Madonnina), Memorie-ossequi*, Alba 1912, p.136, 8 ill.

46. 참조: 1코린 1,25-27; 4,10; 2코린 12,9-10.

제5장 여성의 능력

여성은 역사 안에서 참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도직 결과는 토론의 여지 없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자문을 해봅시다. ‘연약하게’ 보이는 여성의 엄청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두 가지 근본 원인이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성의 마음은 강합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 때문에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

여성의 힘은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어느 현대 작가의 말을 빌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정신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의 봉사를 합니다.’

마음은 남성에게는 자기 존재의 절반이지만 여성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드 보날드¹⁾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이 다른 것에

1. 루이-자크-모리스 드 보날드(Louis-Jacques-Maurice de Bonald)는 1787년 10월 30일 프랑스 아베이롱(Aveyron)의 밀라우(Millau)에서 출생하여 1870년 2월 25일 리옹에서 선종했다. 1811년부터 사제로서 프랑스 텔피노, 샤를르 10세의 궁정사제로 얼마 동안 재직했고, 1852년에는 상원의원이 되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프랑스 국수주의(gallicanesimo: 국가를 교회 위에 두고 프랑스 주교와

는 표면적이지만, 사랑에서는 더 심오합니다.” 스탈 홀스타인²⁾은 “사랑은 남성의 삶에서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여성의 삶에서는 전 생애의 역사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서, 마음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은 확실한데, 여성의 온화함, 부드러움, 희생정신, 섬세함, 통찰에서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딸의 애정, 비록 신랑이 성의 없고 무례 55 하더라도 그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애정, 무시하는 남자 형제들에 대한 자매의 애정, 은혜를 저버리는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을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성의 위대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힘은 힘으로 맞서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승리합니다. 지성의 논리 앞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더 나은 주제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 사이에서 승리하는 것은 더 큰 마음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의 마음이 더 우세합니다. 여성은 자기 이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존재를 통하여 이를 사랑하고 자신의 온 힘을 기울이며 열정적으로³⁾ 이

사제 및 신자들에게 권위가 나누어짐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에 대한 투쟁의 선봉자였으며, 안센니스트의 침투 근절을 위하여 프랑스 전례 예식서의 개혁을 추진했다. 학교에 대한 국가의 독점에 대하여 교사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데 힘썼다.

2. 스탈-홀스타인(Stael-Holstein)의 여남작 안느 루이스 제르멘 네케르(Anne Louise Germaine Necker, 1766-1817)는 1766년 4월 22일 파리에서 출생했다. 젊은 시절부터 무절제한 생활과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힌 ‘요염한 여자’였다. 1817년 7월 14일 파리에서 사망했다. 그의 17권으로 된 ‘전집’은 그의 아들 오귀스트 드 스탈(Auguste de Staël)에 의해 1820-1821년에 출판되었다.(역주: 스위스계 프랑스 작가요, 정치가로 살롱을 운영하며 사교계를 주름잡는 낭만주의 이론가였다. 남편인 스탈 홀스타인 남작은 파리 주재 스웨덴 대사였다.)

3.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passionatemente’로 되어있다.

를 주장합니다.

여성은 약함을 통하여 남성을 지탱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한 존재가 더 연약한 만큼, 그의 기도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부자 앞에서 궁핍한 사람은 궁핍할수록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아무리 잔인한 괴물이라도 쉽게 무장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힘입니다. 여성이 남성 앞에 숙이고 들어갈 때 그의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숙이는 방법을 남성에게 사용할 뿐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도 사용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성은 가난한 이의 겸손을 가지고 56 기도합니다. 여성은 | 자주 순교자의 항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성은 기도하고,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힘을 지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느님은 기도를 잘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성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느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성은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을 통하여 자신의 제국을 지탱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덕성에서, 겸손에서, 품위에서 성장합니다. 집회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몸매 예쁜 여자에게서 눈을 돌리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유심히 바라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홀려 그에 대한 욕정을 불처럼 태운다.”⁴ 한편, 덕성을 지닌 아름다움은 남성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에게 오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주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정신으로 남성을 지탱해 줍니다. 남성은 사물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지만, 여성은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성은 하느님을, 덕을, 주어진 아름답고 좋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성은 느끼는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설득력있게 전달하는데 자기 마음의 아주 특별한 감동까지 전달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게 지배당합니다. 말하자면 자주 매혹당합니다.

여성은 희생을 통해 남성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아주 작고 세세한 것에서 이루어지기에 남성은 자주 이를 경시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봉사를 위해, 사랑에 찬 관심, | 강하고 온화한 격려, 감미롭고 부드러운 57 질책, 뜨거운 눈물로 바치는 기도, 무엇인가 암시하는 눈길, 영감, 직관, 조언과 매혹적인 미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다함께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실패를 예방하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선으로 격려합니다!

여성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는지, 어떻게 해서 여성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지, 어떻게 여성이 모든 것을 예시하고 배려하는지를 주시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여성 고유의 모습임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매의 부드러움, 아내의 섬세하고도 세심한 눈길, 어머니의 꾸준하고도 자상한 배려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밤을 새우는 희생과 피땀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즐겨 고통을 겪으며, 죽기까지 자신을 기꺼이 소모합니다. 남성은 겉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결국 여성의 발치에 쓰러져,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청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4. 참조: 집회 9,8; 25,21; 36,22; 42,12; 잠언 11,22; 31,30.

[가족의 마음속에]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우수한 사령관의 전략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여성은 가정에서 딸, 아내, 어머니로서 남성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딸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딸이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 보통 훌륭한 딸이 부모와 형제들의 많은 필요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채워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훌륭한 딸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자연스럽게도 섬세하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가정의 견고한 신심을 지닌 딸은 온 집안에 향기를 풍깁니다. 이 향기는 친지들을 교회와 하느님 말씀과 거룩한 성사생활로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관대하게 대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사랑으로 일하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언젠가 명성이 자자한 미혼 변호사와 남매간인 귀족 미혼 여성에게 왜 훌륭하고 돈 많고 존경할 만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청혼을 거절했는지 물었습니다 ... 그 미혼 여성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 다음 얼굴에 가볍게 홍조를 띠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 내 오빠의 영혼! ...” 그녀는 형제를 구원하고 곁에 머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애정이 넘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의 동반자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여성의 도움으로 혼배성사를 받았으며, 집에서 기도하게 되고, 미사와 성사생활에 충실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제의 목소리가 더는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머릿속에 일과

돈벌 생각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 쾌락과 정욕만을 추구하는 부 59
정직한 사람에게도, 명예욕과 복수심에 불타 괴로워하는 불행한 사람에게도 천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미로운 천사의 목소리란, 바로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남편을 사제이신 예수께 이끈 성녀 체칠리아⁵의 모습이 여성을 통해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얼마나 자주 에밀 리트레⁶Maximilien-Paul-Emile Littré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됩니까! 실증주의 철학자, 혁명적 역사가, 인생에 대한 원로, 열성적인 프리메이슨인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거룩한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 개종의 공로는 아내와 딸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를 통해, 부드러운 말을 통해, 동정녀의 메달을 통해 남편의 회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지성의 논리로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 얼마나 많은 남편이 천국에서 자기네 은인인 아내에게 ‘당신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소’라고 말해야 합니까!

끝으로 여성은 어머니의 존엄성으로 들어 올려질 때 여성이 지닌 힘이 절정에 달합니다. 사랑의 힘,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자유, 자녀에게 행하는 신적 권위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형성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5. 「사제적 열의...」 140의 각주 17을 보라.

6. 막시밀리앙-폴-에밀 리트레는 의사, 철학자, 언어학자일뿐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다재다능한 작가였다. 1801년 2월 1일 파리에서 출생하여 1881년 6월 2일에 파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1867년부터 실증주의 철학 잡지(Revue de philosophie positiviste)를 운영했다. 리트레에 의해서 무신론, 유물론, 사회주의도 그가 겸손과 극도로 순수하게 헌신한 대가로 신앙 행위로 바뀌었다. 그는 이탈리아어에도 능숙했으므로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지옥」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지시를 내리지만, 어머니는 행동에 대한 의식을 형성시킵니다. 아버지는 교육⁷의 뼈대를 만들어 주지만, 어머니는 그 뼈대를 완성하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아들을 위해 행동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눈길에서 벗어난 아들에게 |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자식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몽테뉴⁸와 스마일스⁹는 “가정¹⁰은 여성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 가정의 행복이나 불행은 여성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드 매스트르¹¹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형성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매우 분명한 사실로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험입니다. 어머니 앞에 굴복한 코리올라노Coriolano¹²의 사건은 사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예피

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di educazione’로 되어있다.

8. 미켈르 에이퀼 드 몽테뉴(Michele Eyquem de Montaigne, 1533-1592)는 프랑스 도덕주의자다. 그는 회의론을 주장했는데 분별력과 관용에서 영감을 받아서였다. 분별력과 관용은 인간적 본성과 사물의 상대성과 모순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9. 사무엘 스마일스(Samuel Smiles, 1812-1904)는 스코틀랜드 작가로서, 아버지의 사망 후 생계수단이 없는 홀어머니에게 맡겨진 11명의 자녀 중 맏이었다. 스마일스에게 큰 인기를 안겨준 열중, 신뢰와 자기-양성(auto-formazione, 역주: 영어로는 ‘self-study’로서, 1859년에 발표된 스마일스의 교훈적 작품인 Self-Help’와 관련이 있어 보임)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훌륭한 모범에서 얻은 것이다.

10.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원인causa’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11. 조셉 드 매스트르(Joseph de Maistre)는 정치가, 작가, 철학자, 엄격한 가톨릭 신자로서 프리메이슨이었다. 1753년 4월 1일, 사부아(현재 프랑스 남동부의 이탈리아 국경지역과 스위스 국경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의 상베리에서 출생하여 1821년 2월 26일 토리노에서 세상을 떠났다.(역주: 백과사전에 의하면 간혹 현대적 영향으로 ‘매트르’라고 읽히지기도 하지만 ‘매스트르’가 전통적인 발음이다. 그는 변호사요 외교관이었다. 그가 프리메이슨이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 서는 찾아볼 수 없다.)

12. 카이오(Caio) 또는 크네오 마르치오 다 코리올리(Cneo Marcio da Corioli)는 볼스키(Volsci)족에 대한 승리 후에(493년경) 전제정치를 바란다고 부당하게 고발

소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 암브로시오가 성녀 모니카에게 “많은 눈물로 키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한 말은 얼마나 깊이 되새겨봐야 하는지요!

이제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남아 있지만, 조금 전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더 많은 것을 제2부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민족에게로 가 그들과 함께 로마에 대항하는 행군을 했다. 그러나 두 여인, 곧 그의 아내 볼룸니아(Volumnia)와 어머니 베트루리아(Vetruria)의 기도에 의해 전쟁을 포기했다.

제6장 여성의 소명

부고¹는 여성의 이러한 힘을 숙고한 다음 “모든 위대한 일의 처음과 끝에 여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Initium et finis mulier.”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타치토²는 “여성은 자신 안에 하느님 권능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In esse in eis quid divinum.”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하느님이, 당신의 지고한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그 비중과 척도에 맞도록 올바르게 배치하는 분이신 하느님이 여성에게 왜 그토록 후하셨을까요? 여성에게 가장 고귀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곧 여성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물은 그의 사명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봅시다. 거기서 이러한 주장의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남

1. 루이-빅토르-에밀르 부고(Louis-Victor-Émile Bougaud)는 1824년 2월 26일 프랑스 디종에서 출생했다. 오랜 신학교에 입학한 후 생 쉴피스로 갔다가 1846년 파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디종 대신학교에서 교의신학과 종교역사 교수로 재직했으며, 1852-1861년 디종의 방문수녀회 담당사제였다. 1888년 11월 7일 선종했다. 작가인 부고는 사회를 그리스도께 다시 인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교론자로서 개인의 열망과 필요한 사항에, 가족과 사회의 열망과 필요한 사항에 그리스도교적 응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 푸블리오 카이오 코르넬리오 타치토(Publio Caio Cornelio Tacito, 54-120년경)는 오늘날 움브리아 지방의 테르니에 해당하는 인테람나(Interamna, 역주: 두강 사이라는 뜻) 출신으로, 플라비우스와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기원후 97년)와 동시대 인물이다. 은(銀) 시대 라틴 역사의 대부로 여겨진다.

자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고독한 모습에 연민의 정으로 어루만지며³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⁴ 그래서 남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의 노동과 근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 **62**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기쁨과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또한 사람은 지상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은 인간 안에 천상에 대한 희망, 숭고한 도전의식과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유배지요, 하늘은 고향이기 때문에 이 여정에서 남성을 지명하고, 그를 영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여성의 최고 사명입니다. 곧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⁵입니다.

남자는 허리를 굽혀 땅을 일구어야 했기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에게 천사요 사도로 하늘의 빛과 맛을 보존해 주는 친밀하고 설득력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를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남성의 동반자요 영감(靈感)을 주는 자]

하와가 자신과 아담을 죄에 빠지게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담을 처벌하시면서 여성의 사명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남자는 여자를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불신으로 이교도의 지배 아

3. ‘toccato’, ‘colpito’ 대신에 사용됨(‘만지셨다’).

4. 창세 2,18.

5. 창세 2,18 참조: “adiutorium simile sibi.”

래 놓았다면, 노예의 처지가 된 여성은 남성에게서 더욱 심한 억압을 받거나 멀리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성은 이러한 사명을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 여성의 드높은 전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성을 높이 들어 올려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당신 직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한 구원사업을 통하여 능력이 회복된 여성은 자기 본연의 위치로 복귀되었습니다.

63 19세기 이후 그리스도인 여성은 | 자신의 사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룩하고도 보편적인 존중, 종교적인 부드러운 사랑, 섬세한 관심과 명예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있었지만, 중세를 지배하던 기사도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력과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여성에 관해 가르친 정신이며 결실⁶⁾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성 안에서 남성의 마음을 하늘로 고양시키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성의 순수함, 겸손의 후광, 진중한 아름다움, 사랑스러운 자유, 관대한 덕과 강렬한 열망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자매, 아내, 어머니, 딸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소용돌이에서 하느님을, 영혼을, 영원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영원에 이르러서만 우리에게 드러날 신비입니다.

더 많은 특혜를 받고, 더 많이 공부한 남성은 현재와 지나가는 순간에 대한 일과 걱정거리로 인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쉽게 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를 숨 막히게 만들어버려 그의 얼굴은 더욱 아래로 숙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누구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또 여성에 비해 남성을 열등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지능을 발휘하여 여성을 앞지르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이 망각하는 것을 아주 쉽게 | 기억합니다. 여성은 그것을 늘 생생하게 느끼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논리적인 것에 많은 힘을 쏟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더 잘 직관하고, 더 잘 맞들이며, 더 쉽게 몰입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남성을 제외시키는 의미에서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천성적으로 더 종교적이라는 의미에서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교황님은 가톨릭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신심 깊은 성^性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영예를 부여하는 것은 신앙을 통하여, 신앙을 위하여 남성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사명을 도외시하는 사람은 여성을 그의 소명에서 빛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곧 여성의 위치를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행하지 않는 여성은 해로운 존재,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만하는 여성에게 또는 남편의 개종을 위해 일하는 것을 불평하는 여성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6. ‘Prodotto결과, frutto산물.’

65 제 7 장 여성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성직자의 사명

이러한 것이 여성의 사명이라면, 사제와 여성이 같은 소명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이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규칙을 정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성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면 사제를 대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제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과 함께 그 일을 하느님께 결산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사제의 몫입니다. 참을성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제의 몫이요, 과감함을 자제하고, 소심함을 격려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며, 탈영병을 소환하고, 낙오된 병사를 재편성해야 하는 것도, 모두를 전투로 이끌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연결고리]

오늘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이러한 원칙의 가치가 보편적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곧 사제, 특히 본당신부는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람을 다 참여시킬' 의무를 지닙니다. 사제는 그 어떤 수단과 그 어떤 협조자를 한쪽으로 밀쳐둘 수 없습

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ricominciato'로 되어있다.

니다. 곧 성가, 교양서클, 강연회, 공지사항, 세밀한 전략 등과 같은 수단과 보좌신부, 은인, | 가톨릭 연맹 회원, 수도자 등의 협 66
조자들을 밀쳐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모든 수단과 협조자 가운데 여성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참여시켜야 하고, 여성을 지도해야 하고, 모든 기회에 여성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지혜롭게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신체적인 면에서도 여성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남성이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 지성이 우세하다면 여성에게는 감성이 우세합니다. 이 두 존재가 일치할 때 완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래의 모습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제의 사명과 여성의 사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제는 가르치고, 은총의 카리스마를 전달하고, 성전에서 성화하는 일을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이러한 신적 영향력을 가정에까지 연장시키고, 남성을 사제에게 이끌어줍니다. 여성 없이는 사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4분의 3을 잃을 것이고, 사제 없이는 여성은 모든 영향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가 있는 것처럼, 사제와 인간 사이에 연결고리인 여성이 있습니다.

[공통 성소]

사제와 여성을 일치시키는 가장 긴밀한 연결고리는 공통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수단을 선택할 때 사제는 주의 깊고² 현명한 지침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성은 사제의

2. 「사제적 열의…」 초판에서는 'occulto'라고 되어있다.

조언에 겸손하게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67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의혹이 있다면 역사를 바라봅시다. 인류의 위대한 공로자 곁에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성인 곁에는 언제나 그 활동을 완성시키는 부드러운 여성과 성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방 수도생활의 위대한 선조 성 베네딕토³ 곁에는 그의 여동생 성녀 스콜라스티카⁴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⁵ 곁에는 그의 동향인인 성녀 클라라⁶가, 도미니칸 신부님들 곁에는 도미니칸 수녀님이,⁷ 성

3. Benedetto(480-543/547)는 서방 수도생활의 아버지다. 로마 귀족 가문으로 움브리아 지방의 노르치아에서 출생했다. 13개의 수도회를 창립했으며, 보수에(Bossuet)가 “모든 복음의 가르침, 성인들의 모든 가르침, 모든 완덕의 권고에 대한 학문적이고 신비로운 해설서요, 그리스도교의 요약이다.”라고 정의한 규칙서를 통하여 이상적인 수도생활을 실현했다. 구체성과 명확성을 사랑한 베네딕토 성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도하고 일하라.”는 모토로 요약했다. 알베리오네 신부 또한 이 말씀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4. 성 베네딕토의 여동생인 성녀의 삶에 관한 유일한 역사적인 원천은 성 대 그레고리오의 대화록 제2권 33과 34장이다. 쌍둥이로 태어난 베네딕토와 스콜라스티카는 같은 해에 선종했다고 한다(480-547). 스콜라스티카는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수비아코와 몬테카씨노에서 오빠를 따랐다. 그들의 유해는 몬테카씨노 대 수도원 성당에 함께 모셔졌다.
5. Francesco d'Assisi(1182-1226)는 24세 되던 해 “청빈이라는 부인(Madonna Povertà/Lady Poverty)”과 결혼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기쁨, 겸손, 청빈과 정결의 복음적 이상을 재현하기 위해 옷, 부(富), 야망, 교만을 모두 벗어 버렸다.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일치는 1224년 9월 14일 라 베르나 산에서 받은 오상을 통하여 신체적으로도 나타났다.
6. Chiara(1193/1194-1253)는 아시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212년 3월 18일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 위해 대담하게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 수사들을 찾아갔다. 절대적인 청빈의 규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원생활을 통하여 실천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여성 계층으로 확장시켰다.
7. 두 수도회 모두, 1170년과 1175년 사이에 에스파냐의 부르고스 칼라루에가(Calaruega)에서 출생하여 1221년 8월 6일 볼로냐에서 선종한 구즈만(Guzmán)의 성 도미니코에게서 명칭과 정신을 취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곁에는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상탈⁸이 계셨습니다. 성 빈첸시오 드 폴⁹은 ‘사랑의 딸회’를 세워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선교 수도회의 가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가정자 코톨렌고¹⁰는 마리안나 마시¹¹의 도움을, 가정자 돈 보스코¹²는 자신의 어머니 마르가리타 보스코

8.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상탈에 관해서는 「사제적 열의…」 47-48에 나오는 각주 26과 27을 보라.
9. Vincent de Paul(1581-1660)은 튀니지에서 노예생활을 체험한 후, 1617년 가장 가난한 농부들 사이에서 사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1617년 8월 23일,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귀족 부인들을 모아 “사랑의 동지회Compagnia della Carità”(나중에는 “에덕 부인회Dame della Carità”라고 불림)를 시작했다. 1618년부터 1621년까지 다른 열성적인 사제들과 함께 프랑스의 많은 교구에서 강론을 하며 사명을 수행했다. 대중 선교를 위하여 “선교 수도회Congregazione della Missione”, “라자로 사제회PP. Lazaristi”를 창립했다(1625).
10. Giuseppe Cottolengo는 1786년 쿠네오 주의 브라에서 출생했다. 12명의 아들 중 맏이었고, 처음에는 브라에서, 나중에는 아스티에서 공부하는 혜택을 누렸다. 1811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알바 코르넬리아노의 보좌신부로 임명되자 농부들이 밭에 나가기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벽 3시에 미사를 드렸다. 자아 양성을 완성하기 위해 1816년 토리노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828년 1월 17일 구(舊) 토리노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하자 중풍을 앓던 할머니를 비롯하여 환자가 금세 40명이 되었다. 1831년의 콜레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 권위기관이 그에게 집을 닫으라고 명령하자(그 집을 교황 비오 9세는 “기적의 집”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약간의 집을 당나귀에 싣고 2명의 수녀와 함께 발도코 지역에 있는 농장으로 갔다. 그곳 입구의 팻말에는 “포도주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는 팻말을 뒤집어 “하느님 섭리의 작은 집”이라고 썼다. 그때가 1832년 4월 27일이었다. 1830년경 과부 마리안나 마시(Marianna Masi)와 함께 “코톨렌고 수녀회Suore del Cottolengo”의 전신 “빈첸시오 수녀회congregazione delle Suore Vincenzine”를 창립했다. 그러한 활동의 수단은 전적으로 항구한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였다. 그는 1842년 4월 30일 선종했다.
11. 1830년 11월에 코톨렌고는 위대한 신앙을 지닌 젊은 과부를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그가 창립한 수녀회의 어머니로 삼았다.(MM)
12. 요한 보스코는 1815년 8월 16일 피에몬테의 카스텔누오보 다스티의 베키에서 출생하여 1888년 토리노에서 선종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그에게 교리의 기본을 가르쳤다. 요한은 1841년 토리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사제수품 후 곧바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

Margherita Bosco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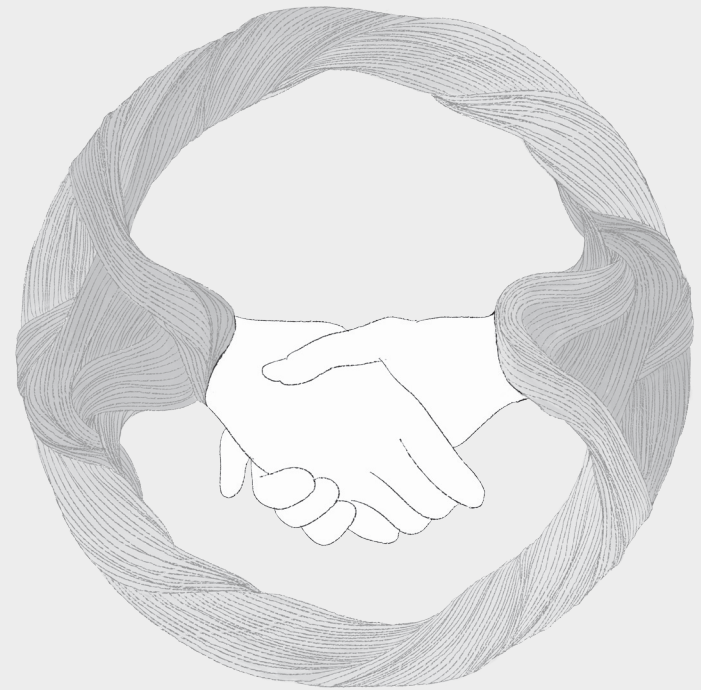
이것은 세상 섭리의 질서로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에 대항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귀한 직무를 불모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수고를 통하여 백 배의 선을 일구어 낼 것입니다.

결론: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으로 미루어, 어떤 이들은 제가 여성이 사제에게 협력하는 것 외에 다른 일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 여성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자기 사명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각자는 얼마나 방대한 분야가 자신의 활동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표를 벗어나면서까지 이것에 대해 세밀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윤리적 종교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사제가 여성에게 준 ‘활동의 지침에 따라’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사제적 사명의 ‘정신에서’만 개

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이 부분도 매우 귀중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특히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에 언급되어 있고, 그중 일부 저서는 많이 읽힌 저명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했으며, 발도코에 첫 “오라토리오”를 설립하여(1842년) 20여 명의 소년들을 모았다. 1846년에 소년들은 이미 3백 명에 이르렀다. 루아(Rua) 신부, 칼리에로(Cagliari) 신부와 함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수도회의 기초를 놓은 그는 1859년에 첫 총회를 열었다. 살레시오 수도회 옆에 “살레시오 수녀회Suore Salesiane”(도움이신 마리아의 딸회Figlie di Maria Ausiliatrice)를 창립했고(1872년), 마지막으로 “살레시오 협력자회Pia unione dei cooperatori salesiani”를 설립했다.

오늘날 여성은 어떤 활동으로
사회적 열의에 협력할 수 있는가



머리말

여성은 자신의 지극히 높고 매우 섬세한 사명에서 우선 개인적으로 사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여성-사도의 영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세 가지 주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개인 차원에서 본 여성의 열의

70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은 위대한 선을 행하는 사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항목에서 여성이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도직을 잘 숙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곧 기도의 사도직, 모범의 사도직, 말씀의 사도직, 활동의 사도직, 열정적인 협력자를 위한 양성 사도직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최상의 작품인, 프라씨네티Frassinetti의 소책자 「영적 창안*Industrie spirituali*」, (Genova, Tipografia della gioventù, L. 0,20)을 추천합니다.

제1조: 기도의 사도직

여러 사도직 가운데 기도의 사도직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사도직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더듬거리는 어린아이부터 더는 목소리도 낼 수 없이 죽어가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떤 기도든 바칠 수 있습니다. 미사성제, 영성체, 거룩한 묵주기도, 19일기도, 성체방문 등의 기도는 아주 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어떤 여성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집

71

안일을 하는 중에, 일하러 가거나 돌아올 때에, 고막이 찢어질 듯한 기계 소음 사이에서, 작열하는 태양 아래 밭일을 할 때에, 달리 기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화살기도를 자주 바치는 거룩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양떼를 몰고 가면서 기도서를 읽고, 묵주알을 굴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는 착한 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면한 일이 다급하고 까다롭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고 올바른 지향으로 성화시키며,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을 과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은 지속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의 진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도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겪고 있는 고통, 십자가, 희생, 적대 행위에 의한 고뇌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길어내는 데 매우 값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최상의 일입니다.”

72 가장 효과적인 사도직, 곧 영혼의 회개와 성화는 | 인간적 노력에 의한 노력이기보다 은총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성경, 전승, 신학, 성인들의 실천적 삶이 탁월하게 입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² 성 바오로는 이러한 신적 약속에 바탕을 둔 가장 고귀한 기도의 사도직을 모든 이가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³ 그 어떤 것도 기도의 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죄인의 회개도, 미지근한 이의 열정도, 이단자와 이교도의 회개도, 의로운 이의 항구함도, 믿지 않는 이에게 하는 설교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의 선종도, 교회의 성장과 번영도, 성좌의 승리도, 성직자의 완덕도, 수도회의 성화도, 연옥영혼의 위로도 기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인류의 숨은 은인들은 기도의 여성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여러 세기 전부터 감실 안으로 이끄시는 신적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고독한 시간에, 밤의 고요한 시간에, 거룩한 미사성제의 희생 중에 그 성합 안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죄인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가라앉히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영혼 위에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도록 간청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사도직을 계속하십니다. 언젠가 팔레스티나의 길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사도직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73**은 박수갈채를 받거나 기념비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최후의 심판날에는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신비가 밝혀져 겸손한 여성 사도들을 현양할 것입니다.

그날에 은인들과 은덕의 수혜자들은 처음으로 만나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인들의 영광은 뒤늦은 그만큼 더 클

1. 「사제적 열의…」 초판은 여기서 세미콜론을 추가했기에(연이은 출판본에는 없음), ‘detto’(말씀)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역주: 곧 “기도하는 것, 고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것은 더 나은 일, 최상의 일입니다.”)

2. 참조: 요한 16,23; 14,13; 15,16; 16,6.

3. 참조: 1티모 2,1; 에페 6,18; 필리 1,4; 1테살 1,2.

것입니다.

가련한 인류의 은인인 영혼들! 여러분은 적어도 지상에서 이러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청원을 들어주십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성심의 불타는 열망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 이냐시오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해도 몇 명의 영혼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태도를 경솔하다고 질책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느님께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는 저를 보셨으면서도 저를 지옥에 보내실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도직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어서 기도의 사도직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실행되는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 죽은 이들을 위해

사랑의 영웅적 행위: 그것은 ‘속죄’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기도와 행동과 고통의 봉헌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받게 될 속죄행위의 봉헌이며, 연옥영혼들을 위해 영원하신 성부께 바치신

4. 알베리오네 신부는 오직 여기서만 이 성인에 대해 언급했다. 1491년 에스파냐 귀푸즈코아(Guipúzcoa)의 로올라에서 출생하여 1556년 7월 31일 로마에서 선종한 예수회 창립자 이냐시오 성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공덕의 봉헌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와 행동과 고통의 세 가지 ‘대속soddisfattorio’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는 ‘공덕이 있는 가치’, 연옥영혼이나 살아 있는 이를 위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대속의 가치’, 사람들 중 누구에게나 나누어줄 수 있는 ‘청원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죽은 이들에 대하여 베풀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랑의 표명입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1. 전대사를 청하는 미사를 매일 드릴 수 있도록 사제에게 주어지는 특전⁵

2. 죽은 이를 위한 전대사는 죽은 이를 위하여 영성체할 때, 매 월요일 미사에 참례할 때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 이 두 가지는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얻는다.

3. 월요일 미사성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주일의 의무 미사를 이러한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교황은, 영성체를 할 수 없는 이를 위해, 영성체 대신 다른 신심행위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고해사제에게 부여하였다.

5. 모든 이에게 주어진 대사 또는 주어질 대사는 죽은 신자에 75
게 모두 양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영웅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했거나 실행할 선행의 보상행위를 포기하

5. 특전 제대(Altare privilegiato)는 다음과 같다.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거행할 때 그 죽은 이에게 적용되는 전면 대사의 허용을 누린다. 영속적인 특전이나 일시적인 특전, 매일의 특전이 아닌 것이다[교회법 918조 참조].”(『가톨릭 백과사전Enciclopedia cattolica』, vol. I, col. 925)

고, 하느님의 사랑에 찬 섭리에 전적으로 내어맡기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연옥 보속에 관련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죽은 이를 위한 대리기도에 요구되는 행위를 할 힘이 부족한 사람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하루를 연옥영혼을 위해 봉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이를 위해 매주 영성체 한 번, 미사 한 대, 묵주기도 한 번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달 첫 화요일로 만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1년에 11월 한 달을 택하기도 하고, 죽은 모든 신자를 함께 기억하는 날로 지정된 11월 2일에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잘 아는 분의 죽음을 계기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자 한다면, 상가에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돌아가신 분의 시신 앞에서 기도를 바치며 ‘밤샘’을 하는 것, 장례미사와 마지막으로 안장될 장지에 동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정해진 거룩한 날에 묘지를 방문하는 것, | 사후 30일째 되는 날과 장엄하게 지내는 기일에 돌아가신 분의 유물과 영정을 모셔놓고 미사를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심 깊은 여성은 단순히 외적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문상을 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묘지에서 경건한 자세를 지닐 뿐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고, 다른 이들도 기도하도록 독려하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활용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위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여러 범주의 사람을 적어놓은 목록이 있습니다. 곧 사제, 수도자, 기억에서 잊혀진 영혼, 성체신심에 열렬했던 영혼 등입니다. 그래서 신심 깊은

사람은 그 중에서 매일 한 사람씩 택하여 그를 위한 지향을 넣어 기도하곤 합니다. 이는 아주 유익한 행위입니다. 하루 중에⁶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바치고, 저녁마다 묘지를 바라보면서 시편 129편⁷을 바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 죽은 이들을 위한 영웅적 사랑의 행위가 숭고한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아직 지상에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희생을 바치는 사람 또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속죄양처럼 모든 이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보상하기 위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되도록 모든 시련, 고통, 적대 행위를 수용할 자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고, 임종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의 존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⁸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적인 모든 분야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칭송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의로 지식이나 악에 사용되었고, 발전이 죄에 빠지게 하는 새로운 수단과

6. ‘하루 동안’ 대신 사용한 표현.

7. De profundis, 불가타에서는 시편 129편(현재는 130편) 참조.

8. 요한 15,13 참조.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명예onore’로 되어있다.

길을 가져다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영혼들은 선을 행하는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숭고한 영혼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오히려 멸시받으면서도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용기있게 자신을 봉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수녀들, 초등학교의 여교사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겸손한 하녀들 *umili serve*, 독신녀들 *zitelle*(사제를 도와주는 식복사들도 포함됨)입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연맹 *Associazione delle anime vittime*’ 78 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만 | 개인적인 활동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다루겠습니다.

관대한 봉헌: 이는 우리의 기도와 생업, 고통을 통한 모든 ‘탄원’의 가치를 우리 주님의 성심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향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은 가능성은 없으니 그와 같은 가치를 활용하는 더 좋은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좁은 인식 범주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뜻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전세계 5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이[와] 각 영혼에게까지 확장되고 사제, 가톨릭 신자, 이단자, 불신자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헌을 통한 우리 사도직도 아주 쉽게 세상 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이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내밀한 고통을 견디어 내는 동안 아주 먼 지역까지 크나큰 선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열정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봉헌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바탕을 두

면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항상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지향을 매일 79 되풀이하며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그 지향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지향을 한 번 바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봉헌한 후 우리의 특별한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시리라는 큰 신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도직

일반 관심사

ㄱ)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그리고 교황님을 위해 매주 한 번 영성체를 하는 신심실천이 많은 공동체에 퍼져있습니다. 교회의 일반 필요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오, 복되신 성 요셉”

ㄴ) “교황청 전교회 *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를 위해 매일 화살기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Sancte Franciscus Zaveri*”와 함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 번씩 바치고,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 *Opera della Santa Infanzia*”를 위해 ‘성모송’을 한 번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ㄷ) 매주 토요일에 거룩한 성체를 영하고 적어도 죄인의 회개를 위해 성모 성심께 특별 기도를 바치는 신심도 최상의 것입니다.

ㄹ) 교황 비오 10세는 아주 아름다운 두 가지 기도를 대사로 허락하시면서, ‘경건한 성체를 받아모시는 습관을 장려하며’⁹ 성직자의

9. 「매일 영성체에 관한 교령 “트리엔트 공의회 *Decretum de quotidiana Ss. Eucharistiae sumptione Sacra Tridentina Synodus*”, 1905년 12월 20일, 비오 10세의 권위로 공의회

성화를 위한' 지향으로 신자들이 이 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ㄷ) 신심 깊은 많은 사람이 다음의 화살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영원하신 성부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혈을 당
80 신께 바치오니, | 저의 죄의 보속과 성교회의 필요를 위해 받아주소서.”

ㄴ) 신성을 모독하는 악습에 대항하는 기도, 어린이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 종교교육의 보급을 위한 기도, 선한 출판의 증가를 위한 기도, 사제의 열의를 위한 기도 등 많은 기도를 신심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미혼 여성의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의 선행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결실을 얻도록 협조하고, 설교와 교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당신의 신적 힘을 설교가에게 부어주시어 당신 은총의 효력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주님께 자주 화살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대피정을 지도하기 위해 본당에 도착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본당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본당에 자주 영성체하고 묵주기도를 잘 바칠 줄 아는 훌륭한 신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주 신심 깊고, 인내심이 많은 여성인데 걸인입니다.” 선교사는 그 사람을 부르게 하여, 묵상을 지도하는 대피정 동안 그에게 매일 영성체를 하고,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당부했습니다. 걸인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했으므로 대피정이 최상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본당을 떠나면서 선교사는 본당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걸인에게 감사하십시오.”

성(Sacra Congregazione del Concilio)이 반포한 교령 참조.

구체적인 관심사

81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촉진해야 할 수단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ㄱ) 영원히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목표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척, 친구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을 위해 자주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작은 희생과 몇 번의 단식도 할 수 있습니다.

ㄴ) 임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가난한 이들,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보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기도, 3일 기도, 9일 기도, 성당 방문, 성지 순례 등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ㄷ) 모든 사람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 은총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적대자들 간의 화해, 신심 단체의 설립,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ㄴ) 행동이나 말로 행할 수 없는 선행을 기도를 통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시거나 직접 행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조항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한 사제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젊은이에게 마지막 병자성사를 주고자 하는데, 이 불행한 학생은 신앙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병자와 친분이 있던 열심한 사제는 | 그를 자주 방문했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82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심 깊은 젊은 여성이 빵과 물만 먹으며 영성체, 묵주기도, 9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일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병자는 자발적으로 성사를 청하여, 깊은 통회를 보이며 성사를 받았고, 더 자주 영성체

할 수 있도록 사제에게 청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 마음의 주인이시고, 은총의 기적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2조: 모범의 사도직

모범의 사도직은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사도직입니다! 모든 이에게 가능한 사도직이고 특히 여성에게 더 적합한 사도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¹⁰ “공적으로 드러나는 표양과 그리스도인 신앙고백의 빛은 바로 이방인 세계에서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이끌어주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만일 사도, 성직자, 남성, 여성, 소녀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신앙의 확신을 입증한다면, 그들 안에 이같이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빛을 가정에서, 이웃 주변에서, 사회 안에서 발산하게 만들고,

83 | 법정과 순교를 당하는 곳에서 빛을 발하고 ... 마지막에는 승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독일, 영국,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가톨릭 신자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증가하고, 이단자들은 회개하고, 적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이 글은 몬도비의 레시아^{Russia} 주교가 쓰신 것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신앙과 행동으로 용기 있게 드러낸 이들이 대중 사이에서 참된 선교사요 복음 선포자들이다.”라고 덧붙입니다.

10. 마태 5,16; 참조: 에페 5,9; 1베드 2,12.

[첫 번째 교육학]

“모범의 사도직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빈정거리고 조롱거리기 되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가지처럼 박혀 그들을 꾸짖으며 도리를 일깨워줍니다. 천사처럼 기도하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결국에는 반역자의 마음을 바꾸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좋은 모범이 효과가 있다는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교육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환경의 힘이 교육의 으뜸가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의 힘은 구체적인 예증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분명한, 바꿀 수 없는 요인입니다. 한 어린이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준다 해도 부도덕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좋은 모범을 따르라는 모든 권고를 금세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84**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인과 함께 지내면 성인이 되고, 악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이 주는 본보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수만이 계속 저항하지만, [대다수는 그 본보기를] 거의 완전하게 따릅니다!” 천상 스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보다 먼저 모범으로 가르치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 가장 인정받고 칭송받는 힘은 바로 모범이라는 강력한 힘입니다!¹¹ 천상 스승은 누추한 작업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30년을 보내셨고, 당신 생애의 10분의 1의 기간을 설교하며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모범이 말씀보다 열 배가 넘는 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

11. 말씀보다 먼저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신 천상 스승의 가르침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라. 이러한 관점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더욱 발전시킬 주제 가운데 하나다.

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덕이 있는 여성이 아무말 없이 자기 주변에 계속 선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을 행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성이 거리를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그를 쳐다보며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덕을 감탄하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그 복된 영혼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심판날에 얼마나 많은 신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날은 감추어져 있던 인류의 많은 은인이 영광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꽃은 떨어지면서 풍성한 씨앗을 남깁니다. 이 덕스러운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남기겠습니까!

[신심과 감추어진 덕성의 매력]

85 세상에 강력한 자로 자처하며 신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갈망하며 깊이 경청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는 이들은 본능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숭고한 진리를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가르침에 겸허하게 다가간다면 자신들도 더 선량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뿐 아니라 목마른 비둘기처럼 매일 아침 미사에 참례하는 경건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본받는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심 깊은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순수했던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평화를 누리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헛된 물질과 수많은 근심 걱정과 망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살다가 고요한 저녁, 잠 못 이루는 밤, 슬프고 고달픈 순간을 만나게 되

면 자신이 강력하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¹² 감추어져 있던 이러한 생각들이 바람처럼 떠밀려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수확하는 사람은 씨를 뿌린 사람을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잘 기억하십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심과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일치시킬 때, 좋은 본보기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는 단지 외적이고 | 요란 86 한 선행, 예를 들어 자선행위 같은 것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섬세한 덕에 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임을 알면서도 결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은 항상 자신에게 돌리면서 다른 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여기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언제나 친절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섬세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갈망을 알아차려 대처하며, 모든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십 번의 방해를 받더라도 그냥 둘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끝까지 말하도록 기다려 주고, 늦게 오는 사람을 인내롭게 기다려줄 줄 알며, 싫증내는 기색 없이 일을 중단했다가 또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비웃고 냉대하며, 매몰차게 거절당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무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섭리에 의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더 퍼뜨려야 할 소명을 받은 듯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덕행들은 마치 여성들만의

1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영원히eternamente’라고 되어있다.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덕들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로잡아¹³ 사람들에게 열(혼)을 주고,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삶에 이처럼 사심 없고 사랑스러운 숨결을 불어넣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교 신심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외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는 덕성이 있습니다. 87 다. | 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가에 감도는 미소의 덕성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극복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내밀한 기쁨입니다. 순박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해주는 순수한 사람의 맑은 눈길, 영혼의 순결을 드러내는 소박하고 절제된 태도, 모욕이나 중상모략 앞에서 보이는 고귀한 침묵, 일방적인 명령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순명, 위대한 이탈을 보여주는 사심 없는 마음이 그러한 덕성입니다. 이런 덕성은 권위를 내세우는 선생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행하는 매일의 설교요, 즐겨 성당에 가지 않는 이들도 들을 수 있는 매일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활동에 자신의 힘과 생명을 바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참된 모범의 사도직을 열린 마음으로 실천합니다. 여성이 어떻게 이 사랑의 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지 다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여성 자선단체로 인해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의 힘]

지난 해 전 세계,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창립자로 알려진 오자남¹⁴을 장엄하게 기념했습니다.

13. 원문은 '정복하다, 정취하다conquistano'.

14. 앙투안느-프레드릭 오자남/오자남(Antoine-Frédéric Ozanam)은 1813년 4월 23일 밀라노에서 의사인 아버지 조반니 안토니오와 리옹 출신의 어머니 마리아 낭타(Nantas) 사이에서 태어났다. 1853년 9월 8일 마르세유에서 선종한 그는

그분은 당시 유명한 문학이나 철학 명제에 대한 토론 모임인 “좋은 연구회buoni studi”에 많은 동료와 함께 활동하며, 그 모임의 명칭을 “역사와 철학 협회Conferenza di storia e di filosofia”로 바꾸었습니다. 60명 이상의 젊은이가 참여한 모임에서 그는 | 그들의 적 88인 이신론자들deisti, 생 시몽주의, 푸리에주의, 유물론자들 앞에서 마치 호교론자처럼 그리스도교 역사와 철학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¹⁵ 그 모임은 진리가 오류와 직면하는 참된 전투장으로, 자주 열띤 논쟁을 벌여 적들을 가톨릭주의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우세한 이론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자남은 이론적인 토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가까이 지내던 친한 동료들과 그와 같은 노력의 헛됨을 한탄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문적인 토론 대신에 사랑에 대한 강연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말보다는 더 많은 실천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갑시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와 함께 겨울을 지내기 위해 마련한 장작을¹⁶ 절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1년 뒤

1997년 8월 22일 파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로 선포되었다.

15. 여러 철학 조류의 추종자들. 이신론(理論, Deismo)은 신성에 대한 이성적인 개념을 강조하여 초자연적 요소와 교의신학적 요소를 이성적으로 입증하려 했다. 생 시몽주의자들은 탐험가와 철학자,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로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기초 위에 완전한 사회를 세우려 했던 클로드 앙리(Claude-Henri), 생 시몽 백작(Comte de Saint-Simon, 1760-1825)의 제자들이다. 푸리에주의자들은 프랑스의 철학가요 경제학자로서, 프랑스, 영국, 미국 정치 모임의 주창자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옹호자였던 샤를르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의 제자들이다. 유물론자들은 현실의 기초가 오직 물질만이라는 철학 개념을 주장하는 구파와 신파가 있다.(역주: 생 시몽은 여성권을 성별 차이의 권리, 곧 모성과 성욕에 대한 권리로 구체화했고, 여성권을 노동권과 더불어 공동체의 기초로 삼았다. 푸리에주의는 푸리에가 주장한 사회개혁철학을 옹호하며, 팔랑주(phalange)라는 자급자족 독립 공동체로서의 사회 전환을 주장했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여성이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만 여성성의 자유로운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6.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lo’로 되어있다.

“자선 협회 *conferenza della carità*” 회원들은 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협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회원수는 오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회원은 십사만 명으로, 매년 천팔백만 리라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위가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성 빈첸시오 회원들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새로 태어나게 하는 가장 막강한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인 확신 때문에 종교를 기피하는 사람이나 교육이 부족
89 하여 종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 많은 가톨릭 신자의 사랑의 정신과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하는 수녀들, 병원, 요양원, 구호소, 노동자 후원회, 사무국을 설립한 사제들 또는 그 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제들의 사랑의 정신을 보며 종교를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자주 선한 마음과 좋은 식견의 논리가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당대의 긍정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이요 프리메이슨, 유대인 유물론자 에밀리오 리트레 *Emilio Littré*의 회개가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가톨릭 신자로서 신심이 두터웠던 그의 아내와 딸은 사랑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동안의 인내가 그를 감동시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덕성이 물질의 결과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의 사상체계는 마치 우상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제3조: 말씀의 사도직

주님의 말씀, 곧 진리는 지성 안에 싹을 틔워 그리스도교적 사

상을 산출하고, 마음속에 싹을 틔워 거룩한 애정¹⁷을 갖게 하며, 활동에 싹을 틔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씨앗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을 회개시켜 그리스도교적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¹⁸ 신앙은 하느님 말씀의 결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효과를 위해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반적 수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¹⁹ 그 어떤 것도 | 복음 말 **90** 씬의 효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제와 선교사는 매주, 매일, 매 시간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제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제가 한계점에 달했을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제 곁에 뛰어난 평신도들을 두셨으며, 특히 여성을 두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신심이 깊은 여성은 하느님 말씀에 대해 남성보다 더 열심합니다. 여성은 종교적 진리를 남성보다 더 빨리 직관합니다. 여성은 드높은 진리보다는 본성적으로 필요한 것에, 마음의 열망에 상응하는 진리에 대해 더 뛰어난 직관을 발휘하고, 남성보다 그것들을 더 잘 기억하여 일상적인 삶에 적용합니다. 여성은 사제가 선

1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효과 *effetti*’라고 되어있다.

18. 로마 10, 8,14 참조.

19. 마태 28,19-20 ; 마르 16,15.

포하는 말씀을 어디에든 전하는 대변인, 전달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열의에 찬 여성은 복됩니다! 성 바오로는 포이베,²⁰ 에우오디아와 신티케Sintiche라는 열의에 찬 여인들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여성은 이처럼 고상한 사도직을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요?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을 살펴봅시다.

91 교정校正을 통해

따뜻한 격려에 힘을 실어, 사랑에서 우러나온 부드러움을 곁들여 제때에 해주는 권고는 영혼을 타락에서, 나쁜 길에서, 파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이들 가운데는 무지와 나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의 말과 격려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친지 사이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 길에서, 성당에서, 대화중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긴 훈화를 통해서, 자주 안 된다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주 관심어린 눈길과 상황에 맞는 표현 또는 침착한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단순한 침묵을 통해서도 교정의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적합한 어떤 규칙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나 때와 장소의 특수한 상황이 스스로 말해줄 것이고, 불타는

20.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Zeba’라고 되어있지만, 이미 「사제적 열의…」 45에서 인용한 포이베(Febe/Feba)에 대한 내용이다. 로마 16,1-2: “우리의 자매이며 캅크레에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에우오디아와 신티케에 대한 내용은 필리 4,2 참조.

열의가 그들을 숙고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에 독창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씨네티Frassinetti신부가 언급한 어느 젊은 여성이 사용한 ‘영특한 꿀벌Ape ingegnosa’이라는 몇 가지 방법을 여기 옮겨봅니다.

그 젊은 여성은 자기 친척 중 한 사람을 교정하고자 했는데, 그가 언짢아할까봐 두려워 그 친척 앞에서 자기 친구에게, 마치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 잘못을 교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잘못을 교정해줄 것을 요청한 92
것입니다. 친구는 그가 바라는 대로²¹ 해주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척은 그 내막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교정을 받아들이는 그의 겸손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후 그 친척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나쁜 교우관계로 인해 잘못 살아가고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는 가장 절친한 친구처럼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먼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인 평판으로 인해 겪고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보게 했고, 그 다음 무엇보다 자기 영혼의 비참한 상태와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젊은 여성도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친구로서 애정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온화하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주 순박한 소녀 주위를 유혹하려는 나쁜 마음으로 맴도는²²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어

21. ‘Giusta’는 라틴어 ‘juxta’에서 유래된 단어로 ‘[그의 소망에] 따라서’라는 의미다.

22. ‘gironzolava’ 대신 사용.

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그 소녀의 친구로 가장하여, 딸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쪽지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은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 젊은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3 그 젊은 여성은 이웃이 분노로 가득 차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웃에게는 이제 막 다섯 살이 된 사랑스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를 불러 일러준 대로 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빠가 화를 내면 아빠 앞에 서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주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가 그러한 악습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빠가 그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물으면, “주님이요”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꼬마는 자기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 아이 아빠는 자기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작은 천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린 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딸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아빠의 감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고해성사를 보았고, 잘못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독창적인 교정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결점을 알려주면 정말 기쁘겠다는 확신을 보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들 입장에서 똑같은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교정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

94

좋은 말은 여성이 자기 열정을 실행하는 데 가장 통상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느님의 섭리,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 마음에 천상적 위로의 향기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받은 모욕, 주변에서 쉽게 주고받게 되는 비방과 뜯소문, 거둬 겪고 있는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용서의 아름다움, 악을 선으로 갚는 것, 희생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 넘치는 활동입니다.

적어도 좋은 말을 하지 않고는 결코 대화를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성은 물질적인 자선을 할 때 좋은 충고를 곁들이곤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신심을 실천하도록 말해주고, 초자연적인 생각으로 영혼을 드높여주며, 선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 느끼게 해주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려고 늘 깨어 있습니다. 저는 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늘 신문을 읽어주던 한 젊은이를 기억합니다. 그는 신문을 읽어준 후 좋은 성찰을 하도록 이끌 줄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면, 그는 “만일 죽음을 준비했다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만일 신문이 영예를 입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하느님의 인정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95 이지요.” 한 시간 정도 동료들과 일하면서 아주 좋은 두 가지 관찰을 할 줄 알던 여성이 생각납니다. 바늘에 찔린 그를 보며 동료가 안쓰러워하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옥에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는 아름다운 자수를 보여주면서 우리 삶이 자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수를 잘못 놓으면 자수 전체를 망치는 것처럼, 나쁜 행동도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어느 신심 깊은 부인이 우연히 어느 가정을 방문했다가 목주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넉넉치 못한 한 여성은 어느 부부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파티를 열어줌으로써 성공했습니다. 어느 미혼 여성은 냉담자 가정을 자주 방문하며 크나큰 겸손과 사랑으로 대한 결과, 어린이들을 교리반에 보내어 첫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많은 말들이 모두, 씨앗이 농부의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고 백 배의 열매를 맺도록 마련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좋은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천사들은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헤아립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96 교리를 통해

여성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장려하는 것은 가장 고상하고 필요하며 사제의 직무에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합니다. 여성은 어린이 교육을 여러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본당의 사제들에게는 유능하고 참된 신심을 지닌 교리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그들의 능력과 학년에 따라 여러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본당에서 행하는

설교와 강의, 교리에 직접 참여하여 듣는 여성, 양서(良書)를 통해 종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여성, 교리서의 많은 주석과 해설을 읽으려 노력하는 여성은 소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신앙의 본질적인 기초 원리를 쉽게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심’이 있는 여성,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열성과 건설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종교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이는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성은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고, 그리스도교 덕성을 실천하며, 기도를 사랑할 때 이러한 것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거나 자유가 없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²³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어린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 어린이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고 다른 자질이 부족함에도 본당신부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럴 자세를 갖춘 여성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젊은 여성을 본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은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아주 무지한 소녀를 알게 되자, 그 소녀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몇 개월 동안 소녀를 그에게 보내도록 부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를 가르쳤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정과 경외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소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맞이할 축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성사생활에 자주 참여하며,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접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한 여성이 이웃이나 친척집의 몇몇 어린이에게 교리를 가르칠

23. ‘Facilmente’.

수 없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성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작은 상을 주면서 그들을 쉽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직 활동은 특히 독신으로 사는 자유로운 여성에게 적합합니다. 때로는 종교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교육에 관해 열의가 있는 여성에게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성은 때때로 어린이, 특히 그중에 친분이 있다든가 아는 98 사이라든가 친척관계 또는 돌봐주어야 할 어린이가 있다면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듣도록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이를 위한 상품, 놀이, 여행, 오락에 사용하도록 주어진 기부금으로 교리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특별한 상황에서 오라토리오(역주: 기도하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교회음악의 한 장르를 말하기도 하고, 공연장의 의미로도 쓰임), 레크리에이션 장소 또는 본당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윤리적, 물질적 도움을 줄²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여성이 생전에 회사나 유산^{遺產}을 통하여 신심단체 설립에 힘쓴 관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²⁵

오늘날 가장 시급한 활동은 오라토리오, 레크리에이션 장소, 본당 주일학교 설립입니다.

교리교육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교황이 허락한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과 집안 식구에게 그리스도교 교의를 가르칠 때마다 100일 대사를 받는다.(교황 바오로 5세, 1607년 10월 6일)

교사들에게: 축일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알리고 그리스도

2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dove’(곳, 장소)라고 되어있다.

25. ‘추천raccomanda’, ‘approva’ 대신 사용.

교 교의를 가르칠 때마다 7년 대사를 받는다.(교황 바오로 5세, 상동)

모든 신자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든 배우기 위해서든 | 30 99 분간 교리 공부를 할 때마다 100일 대사를 받는다.(교황 바오로 5세, 상동)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한 사람이 성당과 오라토리오에서 어린이들이 교리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때마다 7년 대사와 280일(?)대사를 받는다.(클레멘스 12세, 1736년 5월 16일)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한 사람이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한다는 조건 아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든 배우기 위해서든 열심히 교리시간에 참여하면 성탄절과 부활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에 전대사를 받는다.(클레멘스 12세, 상동)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축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학교나 성당에서 모일 때마다 3년 대사를 받는다.(비오 9세, 「대사에 대한 교황청 답서」, 1877년 7월 18일)

성체를 영한다면 7년 대사를 받는다.(비오 9세, 상동)

노 래

오르페오Orfeo²⁶의 유명한 일화에 따르면 음악은 감성이 무딘 마음까지도 끌어당기는 달콤하고 강렬한 매력을 지닙니다. 고대의 한 성인^{聖人} 주교는 신앙의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완고한 대중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 진리를 몇 줄로 요약하여 많은 사람이 지

26.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신과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그가 부르는 비극적인 노래는 나무, 풀, 돌을 움직이고 맹수들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는 아내 에우리디체(Euridice)가 갇혀 있는 저승(하데스)의 문을 열기 위해 케르베로스(Cerberus, 역주: 하데스의 수문장인 상상의 동물)를 노래로 설득시킬 수 있었다.

100 나다니는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 사람들은 강론할 때에는 듣지 않으려 하던 가르침을 노래로 듣자 매료되었습니다. 그 주교님은 더 나아가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일을 맡겼고, 계속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성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종류의 노래를 보급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그 노랫말의 의미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노래든 쉽게 받아들일 것이므로, 여성은 그와 같은 노래를 모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더 잘 부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노래를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과 감정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쁜 생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유행가들이 흥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성, 특히 젊은 여성에게 거룩한 노래와 찬가를 배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래를 수록한 악보와 소책자를 보급하고, 집과 일터에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를 구실로 어린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좋은 신심실천을 가르치고, 성당으로 이끌어 성사생활을 하게 하며, 그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신심 깊은 노래를 보급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1858년, 비오 9세는 거룩한 찬미가가 널리 퍼지도록 촉진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대사를 허락함)

101 제4조: 활동의 사도직

여성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도직 활동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다루려는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긴 장^章을 할애하여 설명한다면 아마 책 한 권을 엮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주제

에 관해 숙고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여성이 할 수 있는 종교-윤리적 활동분야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연약한 피조물이 자신의 지성과 마음과 에너지를 선을 위하여 봉헌할 때 이루지 못할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성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출판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겸비한 여성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이 사도직에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이 사도직을 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게으름²⁷ 때문일까요? 해낼 수 없다는 지나친 겸손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 위대한 선의 수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출판의 놀라운 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읽고 싶은 갈망을 자극하는 것이 곧 출판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이 |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상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비종교적 비윤리적 목적으로 출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려하고, 익명으로 신문에 투고하는 방법을 찾고, 주간지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학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 우편, 전보, 전화 업무에 책임자인 여선생, 여교수, 기발한 창안을 창출해 내는 학식을 지닌 여성, 귀족 계층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변

102

2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neghittosa'라고 되어있다.

에서 일어난 일들을 출판하기 위한 유익한 계획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신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며, 능력 있는 사람의 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줄 아는 겸손한 여성을 칭송해야 합니다. 겸손은 많은 결실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디에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또는 도시에서 발간되는 가톨릭 일간지에 글을 써야 합니다. 모든 인쇄물에는 ‘여성란’이라는 기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거나 교회 유인물에 기고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선전지, 서적, 건전한 소설 등의 집필을 할 수 있습니다.

103 더 나아가 여성은 | 선한 출판물의 보급에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협력할 수 없는 여성은 없습니다. 알려져야 하는 최상의 서적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급이 잘 되지 않아 유지하기 어려운 좋은 일간지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책자, 주간지, 일간지의 정기구독자를 친지, 지인, 동향인 사이에서 찾는 여성은 얼마나 큰 선행을 하는 것이겠습니까!²⁸

28. 아마 알베리오네 신부는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에 의해 창간된 피에몬테 교구의 일간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사실 대회협회의 첫 사업은 공식 기관지인 일간지를 창간하는 일이었는데, 쿠네오에서는 교구위원회와 본당위원회의 주간지 <의무Il dovere>가 탄생했다. 교구위원회와 본당위원회의 기관지 <가젯타 포싸노La gazzetta di Fossano>는 1898년 8월 17일부터 <충실La fedeltà>로 대체되었다. 교구위원회의 기관지 <가젯타 포싸노>와 <도시 신문Il Corriere della diocesi>, <노바라의 목소리La voce di Novara>는 1901년 2월 16일부터 La cronaca novarese로 이어졌다. 알바에서는 <가젯타 알바La gazzetta di Alba>(1882년에 창간)가 ‘교구의 정치-종교 주간지로서 가톨릭 원칙에 대한 정보지’로 정의되었다. 몬도비에서 격주로 발행된 <가톨릭의 각성Il risveglio cattolico>은 종교, 교황청,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이브레아(Ivrea)에서는 <대중의 생각Il pensiero del popolo>이, 아스티에서는 그동안 공로를 쌓은 <깨어남>을 대신하여 1900년에 <가젯타 아스티La gazzetta di Asti>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1903년 아퀴(Acqui)에서는 <달L'ancora>을 창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책이 카페, 호텔, 모임 장소, 미장원에서 읽히도록 한다면 얼마나 큰 선행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의 전략적 스승인 여성이 조금씩 거룩한 사랑의 전략으로 성공한다면, 저속한 신문 대신 좋은 신문, 적어도 중도 성향의 신문으로 대체시킨다면 얼마나 큰 선행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여러 사람, 여러 가정에 정기간행물이나 유익한 낱장 인쇄물의 정기구독을 대신 신청해 주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른 여성은 새로운 구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견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선금의 일부를 선한 출판을 위해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빵을 희사하는 것보다 더 유익할 것입니다.

책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104** 책을 빌려주고, 유익한 책을 선물하고, 나쁜 책을 좋은 책이나 매력 있는 책으로 교체하도록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권유합니

했다. (“1860년부터 1914년까지 피에몬테 교구에서 발행한 사회에 관한 내용이 부각된 가톨릭 정기간행물의 첫 리스트Primo elenco dei periodici cattolici a rilevante contenuto sociale editi nelle diocesi piemontesi dal 1860 al 1914”, a cura Della CONTRI M. e NEGRI V., in <이탈리아 가톨릭 사회운동 역사에 대한 문서보관 공보Bollettino dell'Archivio per la storia del movimento sociale cattolico in Italia>, Milano, a. III [1968], pp.161-192 참조) 다른 ‘좋은’ 신문들로 알바에서는 <새로운 알바Alba Nuova>, 성 스테파노 벨보(Santo Stefano Belbo)에서는 <탑La torre>, 베짜 디 알바(Vezza d'Alba)에서는 <바위La rocca>가 있다. 다른 지역 신문들도 있었다. 알바의 사회주의자들은 한동안 <미래의 태양Il sole dell'avvenire>을 발행했고, 브라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9월 20일Il XX settembre>을 인쇄했고, 몬도비의 사회주의자들은 주먹이 오가는 불꽃 튀는 투쟁을 통해 <새로운 전쟁Lotte nuove>을 손에 넣었다. “세상은 여론에 의해 지배되고, 여론은 저널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당시 예수회 소속 편집자가 썼다. (“저널리즘의 만능L'onnipotenza del giornalismo”, in *Civiltà Cattolica* 4 [1907] 559-574)

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와 타락을 예방하고, 좋은 습관과 종교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거룩한 젊은 여성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어느 가정에 좋은 책을 가져다주고 싶었던 그 여성은 그 집을 방문할 기회에 책을 가져갔다가 그곳에 그 책을 두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 집을 다시 방문하여 책을 찾는 척하면서 혹시 그 책을 읽었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답변을 듣고는 그 책을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책은 그 여성이 바란 것처럼 그 가정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계속 돌려보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신심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 책을 구입하기가 어렵자 다른 것들을 희생하며 매일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가 읽고 싶어 하는 유익한 책을 곧바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105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거룩하다고 할 만한 또 다른 창안이 생각납니다. 위인들의 명언이나 금언이 실린 리플릿을 길에, 광장에, 응접실에, 버스에, 전차에, 기차 객실에 놓아두는 전략입니다. 또는 방문했던 장소마다 좋은 신문과 인쇄물을 두고 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편지봉투나 소포물에 인쇄하거나, 벽이나 공공의 의자 등받이에, 전차 의자 등받이에 좋은 속담이 인쇄된 카드를 붙여놓거나, 자기 집 벽이나 계단 옆에 좋은 경구(警句)를 써놓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큰 공덕을 쌓을 것입니다.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병자와 가난한 이들은 여성의 이러한 열성을 잘 받아들입니다. 봉사와 친절로 가까이 하기가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여주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시켜주는 열성적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영혼은 큰 선을 길어냅니다.

다양한 형태의 약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모든 것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성은 | 그들 **106** 을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도움인 의사, 약, 담요, 음식 등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원에 데려가거나, 그 지역 담당기관과 재량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아 주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들은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잘 보살펴야 하고, 또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형편이 닿는다면 그들을 방문하여 격려해주고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물질적인 도움은 병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열성적인 여성은 방문할 때마다 선한 말을 한마디라도 해줄 것입니다. 만일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된다면 성사를 받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위중한 경우에는²⁹ 더더욱 그렇습니다. 병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기도, 상분, 십자가 등을 준비해줄 수 있습니다.

병자들 중에는 종교가 없거나 악습에 젖은 이와 냉담중인 이가

2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sia gravissimo*로 되어있다. 그러나 저자가 의도한 것은 다음과 같은 표현일 것이다.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non sia gravissimo*’, 다시 말해 ‘비록 죽음의 위험이 없더라도 *anche se non vi è pericolo di morte*’ 일 것이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때에 사제를 부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신자의 의무를 상기시켜줄 수 있다면 이는 큰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의사, 친지, 지인을 불러 그들에게 부탁하거나 사제에게 알려 병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³⁰라고 우리
107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느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과 광장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집집마다 방문하여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빌딩에 살거나 부유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여성은 이들에게 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누어주는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좋은 충고나 적합하고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하며 의탁하도록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교육을 책임진 가난한 과부들과 돌보아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옷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 보육원 아이들과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부유한 여성들, 도시와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시골이라면 과부들 또는 고아들이 농장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목자들의 열의를 따를 것

1. 교황들의 열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30. 마태 26,11; 마르 14,7; 요한 12,8.

윤리를 가르칠 권한뿐 아니라, 시대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³¹ 모든 이의 열성을 이끌어 내야 할 권한도 받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 어떠한 특수 활동이 촉진되어야 할지 결정 108
 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³²는 특히 묵주기도를 가정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도 바치도록 가르쳤고, 교황 비오 10세는 어린이의 영성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황들은 “교황청 전교회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와 “교황청 어린이전교회Opera della Propagazione della Santa Infanzia”, “교황청 베드로 기금회Obolo di san Pietro”³³ 등을 돕도록 각별히 권고했습니다. 열성에 찬 여성은 교황청의 규정을 항상 겸손하게 수용하며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상모략꾼들³⁴에게서 받는 예상치 못한 비난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교황청의 영향권 안에서 규정이 잘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단식과 금육

31.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주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시대의 표지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였다. 그것은 “오늘날의 필요성에 복음의 위대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참조: 「사제적 열의…」 152; 175; 216)

32. 레오 13세(1878-1903)는 묵주기도에 관한 첫 회칙을 반포한 교황이다: *Superiore anno*(1884), 교황 레오 13세의 다른 주제에 관한 회칙은 다음과 같다. *Vi è ben noto*(1887), *Octobri mense*(1891), *Laetitia sanctae*(1892), *lucunde semper*(1894), *Adiutricem populi*(1895), *Fidentem*(1896), *Augustissimae Virginis*(1897), *Diuturni temporis*(1898). 이 목록은 특히 교황 레오 13세가 매일 예수님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공경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에 강조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33. 중세 때 국가와 군주는 교황청에 연간 기금을 기탁했다. 교황청에 내는 기부금을 1534년에 철폐한 영국(8세기), 시칠리아 왕국(1059), 덴마크(1063), 스페인 왕국(1073), 보헤미아(1075), 크로아티아와 달마티아(1076), 포르투갈(1144), 스칸디나비아 왕국은 종교개혁 전에는 교황에게 바치는 특별한 형태의 헌납을 인정했다. 1859년 교황청은 결산 때 80,000스쿠디(역주: 1스쿠도는 5리라다) 적자를 보았다. 교황청 재정을 원조하기 위해 가톨릭 국가들 간의 단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일부는, 어쩌면 몽탈랑베르Montalembert의 견해)를 대두시켰다.

34. ‘Cattivi’.

규정을 알리고 권할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성 베드로 기금회의 모금원, 또는 교황청 전교회의 열렬한 행동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성, 특히 교육받은 여성이 교황청의 지시와 활동을 참견하거나 판단하려 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여성의 사명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스캔들과 해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존경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이것이 여성의 의무입니다.

2. 본당신부들의 열의

본당신부는 그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109입니다. | 관할 지역 내의 사람을 돌보는 일과 사목활동의 기본적인 역할뿐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상황에 협력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그의 의무입니다. 다른 이들, 특히 여성들은 본당신부에게 겸손하게 순응해야 하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협력하며,³⁵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본당신부가 머리라면 여성은 손입니다. 지시에 따라 봉사하는 지체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자기 장상의 결정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본당신부가 신심단체, 친교모임, 자선단체³⁶를 활성화 하고자

35.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l'assecondare umilmente il cooperatore(겸손하게 협력자를 따르며)'.

36. 여기서 말하는 신심단체는 기도나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자들의 모임이므로 법인체로 인가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이 단체의 법률적 존립과 영적 역량은 교구의 단순한 인가를 필요로 했다. 이 단체가 소유하는 재물은 회원들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회원들은 기증자가 제시한 조건이나, 그 재물의 특수 목적을 존중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신심단체들은 트리엔트 공의

한다면 참된 열성을 지닌 여성은 본당신부를 도와야 합니다. 본당신부 편에서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여성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본당신부가 교회를 위해, 병원을 위해, 교리활동을 위해 선한 이들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성은 자기 역량에 따라 그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어느 본당에서 선한 일에 헌신하려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해도, 그러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성과는 항상 미흡할 것입니다. 이때 그 힘을 모으고 인도하며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본당신부입니다. 사목적 지향의 모든 단체, 사람의 구원을 지향하는 모든 창안, | 열성을 지닌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당신부를 책임자로 삼아야 합니다. 110

성사에 자주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성사생활, 특히 성체를 자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기본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성체를 자주 받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하며, 올바른 지향을 지녀야 합니다. 영성체에는 신앙, 사랑, 통회의 행위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이 전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욕정을 억제하고 덕행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힘과 은총의 결실을 가져다주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황 비오 10세는 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의가 있는 모든 여성은 항상 잦은 영성체의 습관을 지녀야 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널리 보급해야 합니다. 그 수단은 매우 많습니다.

회 직후에 생겨났다.

무엇보다 프라씨네티Frassinetti 신부가 ‘영특한 꿀벌Ape ingegnosa’에 대해 쓴 것을 살펴봅시다.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영성체를 아주 열심히 하는 젊은 아가씨들은 세상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고, 주님께 대한 봉사에 자신을 바치고, 때로는 동정성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성체를 자주 받아 모시는 것이 젊은 아가씨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데 열성적으로

111 어린이를 자주 영성체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 그 여성은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살면서 이를 권했습니다. 만일 마지못해서 하는 이들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매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고,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동안 신심실천에 익숙해졌고, 세 가지 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소녀들은 고해신부에게서 잦은 영성체의 허락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죄, 소죄까지도 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2. 깨끗한 양심으로 자주 영성체하면서 정신적 위안을 맛보았으므로 세상의 허영과 쾌락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고, 급기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3. 그들의 가정,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사도들이 되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촉진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아무리 제한이 많다고 해도 지인들과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축일

에, 대피정 때, 영명축일에, 돌아가신 친지를 위한 연도 때, 성모 성월과 예수성심성월에, |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에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촛불을 하나 봉헌하는 것만이 아니라 9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영성체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은 ‘잦은 영성체를 촉진하는 신심 단체, 그러한 신심을 보급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제3회, 어린이들의 영성체를 위한 신심회, 매달 첫 금요일 신심회 등이 있습니다.

열의를 다해 협력자들을 양성할 것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의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시어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고하며, 창의적 활동의 증가와 자신들과 같은 열성적인 사람이 배가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기네 힘의 한계를 느끼며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원하기만 하면, 두 배, 세 배, 백 배까지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의에 참여할 협조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서민층 어린이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는 염원으로 활동과 봉사를 하려 했지만 그들 모두와 직접 관계를 맺기가 힘들었던 신심 깊은 |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가난하지만 아주 착한 미혼 **113**

여성 몇 명을 친구로 사귀어 그들에게 선행에 대한 많은 방법을 가르쳐준 후 봉사하게 함으로써,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지역에 선행에 열정적인 훌륭한 미혼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소책자나 성물을 선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며 친구가 되어달라는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마다 좋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만난 일이 없지만, 그들과 함께 신심 깊은 교류를 유지했고, 열성적으로 권고하고 격려하며, 또 가끔 정성스럽게 작은 선물을 그들에게 보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들을 통해 많은 지역에 매우 유익한 신심을 실천하는 신심단체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전파된 선한 생각은 천사와 같이 파견된 곳에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감미로운 자비의 활동을 실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선을 하고 싶지만 가난하다면, 부유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필요성과 베푸는 이가 받는 공덕을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은 부유한 이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병자를 방문하고, 어린이를 교육하고 싶어 하지만, 가족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거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권면하십시오.”

여성이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말과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성은 이러한 여러 활동에 협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죄인의 회개와 다가가기 힘든 임종자를 방문하여

중요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촉진해야 할 활동을 위해 여성은 신심 깊은 자기 친구들, 소녀들, 지인들에게 영성체, 3일기도, 9일기도, 성당 방문을 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심각한 고질병, 전염병, 불상사, 선교, 이단자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 앞에서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준비된 미사성제, 정성스럽게 바치는 묵주기도, “주님,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0),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requiem)’를 바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말로 행하는 사도직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심 깊은 사람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데 없는 잡담으로 아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릅니까? 자신의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곧 설교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신심단체에 가입하고, 신심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선행과 성인들의 삶과 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으며,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대화 중에 항상 좋은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환자 방문을 제안할 수 있고, 모범과 도움을 통해 본당신부가 바라는 활동을 하게 하고, 나쁜 서적이거나 신문을 좋은 서적과 신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조직을 후원하는 책임을 맡거나 그 조직을 소개하는 활

동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작은 묵주기도 회 Piccoli rosarianti,³⁷ 생생한 묵주기도 Rosario vivente, 푸른 옷회 Abitino ceruleo(역주: 원죄 없이 잉태되신 푸른 옷의 성모께 대한 신심을 표방하는 가에타노가 창립한 테아티니 수도회), 성 베드로 기금회 Obolo di san Pietro, 어린이 전교회 Opera della Santa Infanzia, 어린이의 잦은 영성체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이 있습니다.

116 한 순간에 사도 한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양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특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선행을 베풀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설교와 성사, 전례예식에 초대할 수 있고, 또 스캔들이 되는 서적이나 그림을 집안에서 없애고, 좋은 의견을 건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매나 조카의 마음 속에 신심을 심어주고, 가정에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좋은 독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식구들에게서 시작하여 친구들과 지인들, 특히 소녀들에게 성인들의 삶을 들려주고, 그들을 고해사제에게 인도하며, 성체 안

37. 신학교시절부터 알베리오네 신부의 동료요 협력자인 카노니코 주세페 프리에로(Giuseppe Priero) 덕분에 알바에 자리 잡게 된 연맹. “사제 흡송회 Associazione dei sacerdoti adoratori”는 묵주기도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었고, 프리에로 신부는 신학교 맞은편에 있는 성녀 카타리나 성당에 모여 마르타 살리에티(Marta Saglietti) 양의 지도 아래, 후에는 카노니코 프란치스코 키에사의 지도를 받던 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사제 흡송회”는 성체성사의 사도인 성 피에르 줄리아노 에이마르(san Pier Giuliano Eymard)가 설립한 “성사회 padri Sacramentini”의 지원을 받았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제품을 받은 해인 1907년 11월에 가입했고, 회원번호는 8694다. 가입자는 50,000명 이상이었다. 1937년까지 원하는 바오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초창기 사제들의 이름을 가입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가입자는 매주 한 시간씩 성체조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바오로가족의 고유한 ‘성체 방문’, 성체흡송의 기원을 여기서 볼 수 있다.(MM)

에 계신 예수께 대한 신심,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젊은 여성은 매번 조금씩 사도직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첫 실패에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고, 조언으로써 항상 희망하게 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이 신심이 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다고 해도 열성적인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신, 고유한 적성, 고유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 같은 일 **117**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사도직을, 어떤 이는 모범의 사도직을, 어떤 이는 말을 통한 사도직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르타³⁸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마리아를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 협력자를 양성하면서 능력과 신심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눈여겨보아 선택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성향에 잘 부합하는 일을 주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8. 참조: 루카 10,38-42; 요한 11,20-39; 12,2.

제2장 가정에서의 여성의 열의

여성에게 가정은 ‘가장 고유한’ 활동영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말했지만, 여성 활동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주제를 더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제가 정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수행하는 여성의 사명을 모든 이가 칭송하고, 많은 서적이 이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성직자들도 이를 수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을 어머니, 아내, 자매로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1조: 어머니

도움의 필요성

많이 말하고 있고, 책으로도 출판된 바와 같이, 젊은이의 종교적 윤리적 교육이 사제에게만 달렸다고 하는 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할 권리와 의무는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19 육신의 생명을 준 사람은 | 영혼의 생명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법이나 규정보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은 자녀를 영성체로 이끄는 책임이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그 다음으로 고해신부와 본당신부에게 있다는 교황님의 말씀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영향도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딸의 교육*Formation de la jeune fille*」을 저술한 유명한 저자는 어머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눈길과 손길 그리고 전능하다고 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으로 자기 아이의 영혼을 빚어냅니다. 어머니는 어려움 없이 아이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 취향을 전달합니다.” 자, 그러니 젊은이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가 협력자가 못 된다고 여기는 사제가 이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다고 해도 아주 조금밖에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양성, 곧 윤리적 종교적 교육에서 그 어떠한 성공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곧 젊은이를 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곧 어린이가 첫영성체와 견진성사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 필요하지만, 종교-윤리 **120**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생활화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젊은이가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젊은이들을 위한 교리의 이치가 다른 사상

1. Bolo E., 「그리스도인 소년기*Fanciullezza cristiana*」 [원 제목: *Les jeunes filles*], P. Marcello Castelli B.의 이탈리아어 번역, Napoli, Bandinella & Loffredo 1910 참조.

을 지배할 정도로 탁월하지 않다면, 윤리-종교 교육 내지 양성은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근본적인 포부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참된 의식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전례에도 참례하지 않는다면, 윤리-종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근본원칙입니다. 철학, 윤리, 경험이 이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윤리-수덕을 길들이는 양성은 행동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지는 진정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젊은이 곁에 늘 좋은 천사가 함께 해주어 교리에서 배운 진리를 구체적 상황에 되풀이해서 적용하도록 해주며, 기도와 영성체를 계속하게 하고, 순명, 사랑, 정결을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루만 아니라, 그 젊은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흔쾌히, 곧바로 행할'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를, 열흘, 여러 달, 여러 해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121 아들은 어머니에 못지않게 아버지에게도 속하기에 결국 부모가 다같이 자녀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더 기댁니다. 사실 남자는 집밖의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밭이나 작업실, 연구실, 상점, 공장으로 가야 하기에 그의 정신은 하고 있는 일에 빼앗깁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리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종교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자녀의 마음에 깊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이나 권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언급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이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도움, 특히 어머니의 도움을 활용하여 젊은이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주고 이끌어야 할 의무가 사제에게 있습니다.”

교육 목적

젊은이가 스승의 도움과 조언 없이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어떤 기술 또는 직업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장상 또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수덕과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이 되었을 때 윤리적 종교적으로 잘 교육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악의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니도록 양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면에서 부딪 122 치게 되는 많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종교교육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태도에 쉽게 이끌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분별력을 키워주어야 하고, 천박한 정욕을 거부할 줄 아는 신심, 선량함, 사랑의 정으로 마음을 채우게 해야 합니다. 영혼 전체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이기에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이상’을 확고하게 비추어주는 신앙, ‘감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신심, 항구함을 보장하는 ‘단호한 의지’, 확고하게 이끌어주는 ‘현실적 감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올바른 분별력’, 천국을 염두에 두며 지상의 매력에 현혹되지 않는 ‘초자연적 추진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활기차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강인하게: 커가면서 자주 심술을 부리거나 반항하는 태도에 감

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며 쉽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태도로 참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강인한’ 좋은 습관이 들 때까지 인내로워야 합니다. 자주 보게 되는 일인데, 젊은이가 위기를 맞기 쉬운 시기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면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지금까지 우리는 보편적인 불평불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은 12세 또는 14세까지 사제와 함께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그를 떠나게 됩니다. 종교는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 여겨 | 재능 있는 남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종교교육을 받은 이들이 더 쉽게 나쁜 길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잘못은 그릇된 훈육이나 교육 방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이 ‘실험적 또는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교육의 목표가 젊은이의 미래, 그가 처한 상황, 직업, 맞게 될 위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만을 주목하게 하는 교육, 수도생활에나 어울리는 교육, 주어진 명령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대부분 언젠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고, 세속에서 살 것이며, 또한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아는 어머니는 이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 할 어머니의 의무인 훈육, 본보기, 교정, 주의를 기울임이라는 네 가지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수단1 : 훈육

여기서는 윤리적 종교적 훈육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훈육은 교육의 기초인 동시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훈육이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 잘못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무시하기에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훈육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살아가면서 점차 대두되는 오류의 홍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훈육이 교육의 결실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훈육²은 젊은이에게 적절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농부로 살아갈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자연의 질서를 아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젊은 노동자는 더욱 폭넓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동료, 신문, 나쁜 표양의 공격을 더욱 많이 받겠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은 아주 방대하고 깊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신앙을 적대시하고,³ 종교와 진보가 대립을 이루고, 성직자가 민간단체들의 반대를 받는 상황에서, 신앙의 뛰어난 가르침으로 그릇된 사상에서 받는 영향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서문introduzione’이라고 되어있다.

3. 가톨릭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이같은 논쟁에 대해 당대의 한 논고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와 광장에서, 책과 신문에서 과학은 종교의 적이며 특히 가톨릭 신앙의 적이라고 격양된 어조로 선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주장이나 현대적 현상에 대한 해석은 어떤 면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학이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그들의 머리 속에서 어떤 꼴을 만들고 다듬으려 하면서 과학만이 세상을 통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이 과학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La Civiltà Cattolica 2 [1910] 17-35 참조)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가능한 분야는 어머니가 하고, 다른 것들은 본당 교리, 좋은 서적, 종교수업, 젊은이의 모임,⁴ 축제, 기도모임 등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곧 우리 **125**는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고, 원죄 때문에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경향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은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큰 악이요, 성사는 주님 은총의 운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스승이십니다.⁵ 더 나아가 어머니는 어린이에게 예

4. 1867년 6월 23일 볼로냐의 조반니 아콰데르니(Acquaderni) 공작과 비테르보(Viterbo)의 마리오 파니(Fani)는 “기도, 행동, 희생”을 표방하는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 Società della Gioventù Cattolica Italiana”에 가입했다. 이어서 두 개의 서클이 볼로냐와 비테르보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서클도 생겨나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1874년 베네치아에서 첫 대회가 열릴 때에 72개에 달했다. (이탈리아 가톨릭 청년회 50주년 기념 특별호 『이탈리아 청년 Gioventù Italiana』 n.7-9, 1921년 7월-9월호 참조) 피에몬테주의 첫 번째 서클은 1879년 아퀴(Acqui) 교구에서 발족한 “마란차나 Maranzana”였다. 그 뒤를 이어 1884년에는 “카넬리 Canelli”와 “폰초네 Ponzzone” 서클이, 1886년에는 “몸바루쥬 Mombaruzzo”가 발족되었다. 쿠네오 교구에서는 1889년 보베스(Boves)에서 교구사제 칼란드리(Calandri) 신부에 의해 첫 서클이 발족했고, 두 번째는 “B. 안젤로와 성 안드레아”가 쿠네오에서 1896년 10월 17일에 시작했다. 알바 교구에서는 1896년-1897년 알바, “도리아니 Dogliani”, “코르테밀리아 Cortemilia”, “토레 보르미다 Torre Bormida”와 “코싸노 벨보 Cossano Belbo” 서클이 발족했다. 『피에몬테 19세기 중엽 교회와 사회 Chiesa e Società nella Il metà del XIX secolo in Piemonte』, a cura di Apprendino F. N., Istituto regionale piemontese di pastorale 피에몬테 지역 사목 단체, Edizioni Pietro Marietti 1982, pp.390-393에서 인용된 특별호 『이탈리아 청년』 참조.

5. 알베리오네 신부는 후에 자신의 그리스도론과 사목의 중심으로 제시할 이 ‘신앙 조항’을 부각시키고 있다. 『스승 예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Gesù, il Maestro, ieri, oggi e sempre』, Roma 1996, pp.72-73 참조.

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성 요셉, 수호천사, 연옥 영혼, 사제, 부모, 스승, 형제와 자매, 아랫사람, 고통 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하고 큰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자녀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온갖 그릇된 경향과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하며, 이웃과 공공이익을 위한 표양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점진적으로, 쉽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아기가 아직 알아듣지 못하지만 웅얼거리며 말을 몇 마디씩 배울 때부터 가르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이름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 지능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쉽게: 성물이나 성화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강생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림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모성적인 보호를 알게 해줄 **126** 수 있을 것입니다. 묘지를 바라보면서⁶ 죽음, 심판, 영원한 행복과 불행, 마지막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풍광이 아름다운 장소를 산책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사진 앞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되

6. ‘바라봄 Vista’은 ‘환시 visione’ 또는 ‘방문 visita’ 대신 사용.

면, 오직 저 세상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실현될 정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계명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 말한 후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아이가 매일 기도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사랑할 것인지 설명했다면, 아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어 돈이나 빵을 나누어주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해준 다음에는 나이와 상황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식이란 모든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아이가 지시받은 것의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느님이 마련하신 권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항상 정의롭게 벌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느님이시기에 사람의 모든 행위를 주의 깊게 살피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강요만 할 때 어리석은 사람, 우울한 사람, 삶에서 낙오된 이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효과적인 방식은 원칙을 되풀이하여 자주 적용하며 매일,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아이 안에 기도하는 습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공경하는 습관, 교회에 다니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이웃을 존중하는 습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친구를 식별하는 습관, 모든 일에서 그것이 미치는 결과가 현세적인지 영원한 결과를 내는 것인지 내다볼 줄 아는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에 맞게 주일학교에, 그리고 기도모임에 보내야 합니

다.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들의 가르침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확인시키는 데에 신적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당연히 사제는 자신의 권위와 기도생활, 지식을 통하여 젊은이의 마음에 윤리적 종교적 인식을 확장시키고 더 심오하게 스며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적의 모임이나 주님의 성전에서 거행하는 장엄한 예식에 다른 젊은이와 함께 참여하고, 본당에 파견된 사제를 접하면서 미래에 펼쳐질 삶의 중요성과 현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어 잘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서 얻는 선익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더 성장한 자녀들에게, 곧 성경공부와 본당교육 128 그리고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성 루이지회나 청소년 모임의 강연회에 참여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강연회에 보낼 때, 어머니는 특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연회의 성격에 따라 젊은이들에게 더 적합하고 유익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진로를 정하고 그에 따라 공부를 시작할 때, 어머니는 가능한 한 종교학과가 있는 학교에 보내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젊은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보존할 것이며, 종교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과가 있는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가정이면, 적어도 분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종교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좋은 책을 읽도록 어머니가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큰 집단으로 갈라져 서로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와 프

7. 어린이의 주보성인 성 루이지 곤자가의 이름을 딴 소년소녀들을 위한 본당 서클.

리메이슨의 분열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젊은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때 내일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29 그 누구도 |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관심한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며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던 젊은이들도 어느 한 편에 속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프리메이슨의 목적과 그들이 교묘하게 처놓은 위협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프리메이슨이 처놓은 그물에 걸려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메이슨이 표면상으로는 그럴싸하게 자선, 상호원조, 면학, 문화생활, 조국애를 구실 삼아 설립한 단체와 추진하는 계획, 축제, 조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도를 젊은이들은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프리메이슨이 그들을 이용해서 가장 진귀한 보화, 신앙과 명예를 흠치려는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와 같은 교육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적합하고 타당한 충고를 그에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대다수의 부모들처럼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자녀가 가톨릭 서클과 가톨릭 연맹에 가입하여 강연회에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없다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제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곧 자녀를 위해 좋은 신문을 구독하도록 해야 하고, 프리메이슨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가톨릭 연맹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도 | 자녀가 소위 삶의 신비라고 일컫는 세상의 유혹, 물질서와 위협을 무시해도 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불가항력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녀는 악의 파도에 휩쓸려 미쳐 깨닫기도 전에 나쁜 동료의 제물이 되어 악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악의 조류에 휩쓸리도록 놓아둘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교육함으로써 투쟁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지 않은 학교, 작업실, 동료, 오락, 악습, 쾌락에 기우는 본능적인 경향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하고, 사고事故라든가 신문이나 독서에 대한 죄의 기회를 자녀에게 설명하며, 욕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면서 자녀가 순결을 간직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단은 위험을 피하게 하는 거룩한 무관심과 섬세한 주의력,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신심과 많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처하는 교육을 너무 이른 시기에 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순간은 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길을 잘 보여주고, 그 길의 이로운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진실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전환점의 중대함을 알려주고, 기도와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며, | 지혜롭고 거룩한 고해사제를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충고를 할 수 있지만, 거듭 자신의 뜻대로 명령하고 억압하고 부담을 주는 주장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속에서 살거나 세속을 떠날 자유, 생애의 동반자를 선택할 자유, 어떤 직

130

131

업 또는 예술에 투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결혼하게 되는 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극히 단순하고 순진무구한 관습에 젖어있는 가정 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곧 결혼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종교교육을 받은 신심 깊은 젊은이에게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일로, 결혼을 이익과 신분상승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 어머니만이 짊어져야 할 고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곧 혼인성사에 따른 의무를 잘 설명해야 하고, 건전한 윤리적 종교적 원칙을 지닌 남성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 장기간 진지하게 결혼을 잘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임무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책은 바로 니스탕⁸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들, 행운의 배우자들*Sposi timorati, sposi fortunati*」입니다.

132 교육 수단2 : 좋은 본보기

위에서 자녀에게 선행을 ‘습관화’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는 것입

8. Nysten, J., 「하느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들, 행운의 배우자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과 부부들을 위한 조언*Sposi timorati, sposi fortunati. Consigli ai giovani e ai coniugi cristiani*」, 안젤로 미켈로토(Angelo Michelotto)가 프랑스어에서 번역함.(장 니스탕은 리에지(Liegi) 병원의 원목)

니다.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의식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탁상공론보다는 부모들의 절제와 근면한 종교적 삶의 본보기 일 것입니다.

모방 본능은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노력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본능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아무런 여과 없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성 바실리오는 이것을 초보 화가와 비교합니다. 초보 화가는 모델을 충실하게 베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모델일 때 훌륭한 초상화를 쉽게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모델에 결함이 있다면 못생긴⁹ 초상화가 나올 것입니다. 좋은 표양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린이는 가정교사가 기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른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 자라서 아빠와 엄마처럼 더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133

기도의 본보기: 가정에서 어머니는 성사에 자주 참여하고, 아침 저녁, 하루 중 어느 때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야 합니다.

덕성의 본보기: 어머니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적대자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줄 때, 허영심 없이 모든 유행을 뒤따르지 않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오락을 멀리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가족을 보살피며, 자녀의 영적 윤리적

9. ‘나쁜, 잘못 된*brutta, fatta male*’ 대신 사용.

선의를 독려할 때, 그 때가 바로 교육하는 순간입니다.

말하는 본보기: 어머니가 물질적인 이익, 허영, 명예, 현세의 삶에 비중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영혼, 영원, 구원에 더 관심을 보일 때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본보기는 참되며 거짓이 없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어떤 일을 감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진지하고 근엄한 행동으로 악습과 불신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는 결국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감추어진 것을 꿰뚫어보게 될 때 부모의 잘못과 악습만 아니라, 위선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 134** 어머니는 이러한 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권고를 통해 자녀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남편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수단3 : 깨어 있음

주님은 비유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좋은 밀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셨습니다.¹⁰ 이 비유는 부모의 보살핌, 특히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젊은이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서적과 동료, 오락 등을 접하게 될 때 좋은 말씀과 좋은 모범의 씨앗과 뒤섞인 전혀 다른 씨앗을 덧뿌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보살핌입니까? 보살핌의 방식, 종류, 척도는 교육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충분

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줄 알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윤리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의 깊고 지속적이며,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눈치 채지 않게, 자녀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으며, 자녀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습관을 들이도록 어머니는 사려 깊어야 합니다.

주의 깊어야 함: 이는 물질적인 것들, 곧 발일, 장보기, | 작업실, 135 의복, 방문, 오락 등을 우선하지 않고 가장 유익한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쓸데 없는 일, 무익한 일, 소소한 일로 허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일하러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어려운 요구이겠지만, 가장 유익한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지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된 종교인에게 자녀를 맡겨 보살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함: 모든 장소, 곧 집에서, 학교와 교회에 오고 갈 때, 오락, 일, 기도, 심지어 잠잘 때에도,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에 곧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특히 13세부터 19세까지,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¹¹ 약혼기간에는 더욱 지속적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10. 마태 13,25 이하 참조.

1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계속하는continue’으로 되어있다.

보편적이어야 함: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차원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주 만나는 동료, 그 동료가 좋은 동료든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정부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독서와 잡지를 통해 시야를 넓히면서 부모를 속이려는

136 | **젊은이의 교활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드나드는 극장, 즐기는 게임, 말, 주고받는 편지, 입고 다니는 옷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락과 태만에 대한 경계입니다. 오락은 적절하게 허용해야 하나, 태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오락을 할 때는 열중하도록 하나 오랫동안 게으름을 피우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자녀가 쉬운 일에서 시작하여 점차 노동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악은 막강하여 학교에서도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교사들의 종교적 윤리적 면모를 알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의 신앙이 존중되도록 한다면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집을 떠나 살게 될 때 더욱 섬세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를 일터나 어느 가정에 머물게 할 때에는 좋은 관습을 지키는 가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직장에 보내야 할 때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곳을 찾아야 하며, 고등교육을 위해 더 큰 도시로 보내야 할 때에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하숙집을 구해야 합니다. 아들이 다 컸다고 해서 그를 지켜줘야 하는 어머니의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137 **귀에 이교적인 것을, 속된 이야기나 악습의 영향을 | 늘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와 그리스도교 교육, 좋은 본보기와 신심실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함: 깨어 있기 위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젊은이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간여하지 말고, 때로는 하느님의 눈길보다 자신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채지 못하게, 또는 자녀를 놀라지 않게 하면서 개입하는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마음에 신비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는 두 배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성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의 영혼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수단4 : 교정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 아이를 때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 내는 일이다.”¹² “매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별로 다스린다.”¹³ 아이에게는 |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138** 완고함, 변덕,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 위해서는 명령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억제, 벌, 교정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덕스러운 어머니만이 강하게, 이성적으로 자녀를 잘 교정할 줄 압니다.

강하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과잉보호에

12. 잠언 23,13-14.

13. 잠언 13,24.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꾸짖을 때 어머니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용서해 주고, 칭찬하고 상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알며, 자녀의 선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주, 악담, 험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의무에 대한 깊은 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변덕 때문에 자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자신이 옷을 더럽힌 것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합리적인 사람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139 결론

성 아타나시오¹⁴의 어머니는 “제 아들이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나의 하느님, 모든 것은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성녀 아멜리아의 두 아들인 성 바실리오와 니사^{Nissa}의 성 그레고리오¹⁵는 어머니의

14. 동방교회의 교부이며 박사(295-373)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다. 그는 아리우스 이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다. 성 암브로시오의 친구로서, 봉헌된 동정녀들을 위한 귀중한 글을 직접 썼다.(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15. 니사의 그레고리오(335-394경)는 바실리오의 동생이다. 니사의 주교인 그는

죽음 앞에서 “나의 하느님, 저희에게 거룩한 어머니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많이 존재하는 사회는 복됩니다. 그 사회는 정직하고 근면한 시민으로 넘칠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교회의 행운입니다. 훌륭한 자손을 많이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 매스트르De Maistre는 어머니가 된 자신의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 양성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원칙을 받아들인 영혼에게도 욕정이 눈을 어둡게 하고, 의혹이 지성 안에 잠시 스며들고, 유혹자가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매스트르의 유명한 말 속에 담긴 진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악습이 그리스도인의 인호를 잠시 가릴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아들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을 때, 그 인호가 다시 뚜렷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제2조: 아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법을 만들고, 여자는 관습을 만든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빵을 마련해 주기 위해 수고해야 할 과제가 있고, | 여자는 남편 **140**에게 신앙과 도덕을 길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여성이 남편의 신앙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을 죄로 유인했으나,¹⁶ 성녀 체칠리아가¹⁷ 남편 발레리아노를 개종시켰으

아리우스파에 대하여 삼위일체 교의를 수호했다.

며, 우르바노 교황에게서¹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어린양 eloquente pecorella’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 서간에도 미신자 남편이 신자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¹⁹

삶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종교, 그의 신심 정도와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부족한 젊은이는 이 점에 관해 충분히 거론하거나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랑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성이 그의 신앙을 키워주는 일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회개시키는 일은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은 자연적으로 여성보다 뛰어난 자질과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성은 본성적으로 오만하며, 여성이 자신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쉽게 내려

141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남편을 지배하는 여성보다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의 재치와 명

16. 참조: 창세 3,6-13.

17. 230년경에 순교한 로마 출신의 고결한 여성.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발레리아노의 아내였다. 남편이 죽은 후, 그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8. 우르바노 1세는 222-230년까지 교황으로 재임. 알렉산드로 세베로 황제의 치하에서 비교적 조용한 시기에 교회를 통치한 교황은 발레리아노의 개종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어린양’ 성녀 체칠리아를 도와주었다.(MM)

19. 1코린 7,14 참조.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venne santificato’라고 되어있다.

령, 고집에 굴복하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내 앞에서 온순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여기서 여성이 권위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²⁰ 사랑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균형의 신적 법칙이 입증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며 꾸준한 기도, 자연적 성향, 초자연적인 사고를 지닐 때 부부의 사랑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대사를 치르기 전에(혼인하기 전) 상대방의 덜 긍정적인 면에 대해 살펴보고, (한편으로) 의심적은 면이 있지만 혼인을 진전시키는 것은 정당하고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발을 내디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반자의 좋은 자질에 더 눈길을 두며 교육이나 성격 차이,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고, 서로에게 진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러이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어야 했다는 등 후회를 늘어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이 중요합니다. 각자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기에, 두 사람이 함께할 때마다 그 결점은 더 커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부드럽고 친절하며, 인내롭게 작은 행동으로 애정을 드러 냅니다. 이런 것이 욕심을 예방하며, 기꺼이 상대방의 의견에 **142** 동의하게 하고, 선함을 드러내며 사랑하게 만드는 작은 행위가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고, 실이 엮여 천이 되며,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루듯이 삶은 작은 일로 엮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은 안락함과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하여 선한 행

20.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다시 말해서 cioè’로 되어있다.

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친밀한 애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선이 되어줍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금세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결점을 참아주고, 심각한 잘못이라도 묵묵히 받아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러한 선한 행위를 20년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토양을 준비했다면 이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남편을 악에서 보호할 것]

무엇보다 여성은 ‘남편이 악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방, 극장, 동료, 카드놀이, 유흥, 부적절한 관계, 나쁜 잡지 등 서적은 남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와 같은 것에 매달릴 때 가장 먼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가장 권태로운 시간이 될 것이며, 자기 가족의 고통과 기쁨에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더는 가족에게 선을 가져다 주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낭비하고 술을 좋아하고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그의 마음에서 신앙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기나긴 겨울 저녁에,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143 휴일에 집에 머무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잔소리를 해대거나 무시하거나 이웃집 부인들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가정을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결한 집안, 아버지께 대한 존경과 애정이 넘치는 자녀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태도, 마음이 담긴 정갈한 식탁,

온화한 분위기 등, 이러한 것이 모든 남편을 위협에서 헤어나도록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편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신 남편, 아버지, 형제가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태만과 게으름, 무질서, 단정치 못한 차림 등 … 더 나아가 자신의 안락함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이기주의, 참을성이라고곤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 계속 한숨을 내쉬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태도는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아니면 정돈, 청결은 좋으나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늘 결점을 지적하고 힐난하는 말,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일삼는 것 등등…” 콤베T. Combe는 그의 유명한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이 지니고 있는 단순한 진리Semplici verità alle donne del popolo italiano”는 결혼생활의 보화입니다.

[남편을 선으로 이끌 것]

두 번째로, 여성은 ‘남편을 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남성을 대응할 방법과 냉담 중이거나 믿지 않는 남성을 대하는 방법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인은 자기 영혼이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영혼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남편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 본향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유배의 땅을 함께 가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특히 아내는 저녁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남편을 초대하며, 주일에는 신자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특히 부활대축일과 축일들, 본명축일 등의 기회에 남편을 성사생활로 이끌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남편에게 진정한 애정이 있

는 아내라면 적어도 특별한 기회에 설교를 듣게 하고, 여가 시간에 좋은 책을 읽게 하며, 성지순례나 성당을 방문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느리게 작용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얻지 못하다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못했다고 해도 제때에 병자성사를 받도록 했다면,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교육자로 만들 것]

세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그의 역할과 권위로 자녀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듣습니다. 더구나 모성적인 사랑이 넘치는 **145** 아내가 간곡하게 말한다면 남편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은 아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표양, 말, 명령, 가르침은 자녀의 영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지지가 없을 때 어머니도 자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서로의 관점과 행동에서 일치를 이룬다면 자녀 교육을 훨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러한 면에서 일치하지 못한다면 그들 수고의 결실은 아주 빈약할 것입니다. 자녀는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부모에게도 반항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치를 위한 노력은 아내의 몫²¹입니다.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어머니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합니다. 남편과 자주 상의하여 자녀의 신앙교육과 일반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어머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훈계를 하거나, 중요한 교정을 하거나 잘 살펴야 할 문제는 남편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은 열성을 다하여 남편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146** 것을 자녀가 느끼도록 배려할 뿐 아니라, 남편이 직접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녀가 서로 불목상태의 부모를 화해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자녀의 첫영성체를 통해 냉담했던 아버지가 신앙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더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올바른 길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제3조: 딸

사실 딸의 처지란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이 늘 순종해야 하는 위치 그 이상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딸은 모든 면에서 열의를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딸도 자기 주위에 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외부인에게까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도움: 세상을 잘 아는 사제들은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딸이 형제들을 위해 희생까지 한다는

2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si appartient'로 되어있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합니다. 형제들의 행복한 미래 147
를 위해 자신의 시간, 건강, 젊음을 희생하는 딸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으로 환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숨은 영웅들, 때로 그들은 은혜를 베풀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도 보시는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한 잔의 물을 건네주는 이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눈에 그들의 선행은 영웅적입니다.²²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지는 않지만, 부모를 도와서 섬세하게 형제자매, 특히 동생들을 돌보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모범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에 깊이 집중하고, 학생의 의무와 가사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애쓰며,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성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가르치고 의무를 상기시키며, 얼마나 좋은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집에 돌아오면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고, 본당신부의 공지사항을 가족에게 상기시키며,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의 학교 과제를 제대로 하도록 돕고, 성사생 148
활의 의무를 다하도록 도우며, 나쁜 잡지를 치워버리고,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훌륭한 젊은 여성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형제들은 누이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 그들을 잘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위해 사려 깊은 애정을 기울이며, 가능한 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훌륭한 누이는 친절하고 끈기 있는 설득력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이웃들은 그를 “가정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천사”라고 칭송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 딸은 부모님께 선생이나 윗사람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딸은 겸손하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딸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까지 보상하게 합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자녀의 기도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하느님은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회개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행하도록 그에게 인내와 항구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부모들을 위해 주님께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모님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받았기에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딸은 자신의 나이, 환경, 자질에 따라 많은 방법으로 149
부모님께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또는 교리에서 배운 진리를 적용해보는 의도로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축일 전야제나 당일에 그 축일의 주제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읽은 책의 내용이나 건전한 유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휴식을 취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슬픈 날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다정한 부모라 하더라도, 어두운 구름과 불운이 덮치는 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22. 참조: 마태 10,42; 마르 9,41.

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딸의 사명은 불화를 없애는 ‘윤희유가 되는 것’입니다. 딸은 위로의 천사, 평화의 중개자가 되고, 속죄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형제들에게 양보해야 하고,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할지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 남성의 몫인 것처럼, 이것은 딸의 몫입니다. 딸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딸이 진정으로 겸손하고 항상 부모에게 온순한

150 모습을 보여주며, | 사치스런 옷이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때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예의 바르고,²³ 항상 기뻐하고 단순하며, 감미롭고 애정이 넘친다면, 부모는 그 딸을 귀중한 보물처럼 여길 것이요, 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해줄 것입니다.

집 밖에서도 많은 좋은 씨를 뿌림: 악습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화재에 비유한다면, 거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젊은 남성이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때, 젊은 여성은 그에게 좋은 자극을 주어 절제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눈길, 정숙한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존경과 경외심을 일으키며, 주변에 정결과 덕성의 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반면 정숙하지 못한 여성의 눈길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그의 행동은 악을 유발시키며 죄로 유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젊은이를 원한다면, 딸이 순결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위대한 도덕행위는 세속적이지 않으며, 덕스럽고 정숙한 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

23.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

면서 모범을 통해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표양과 기도, 말, 열성적인 많은 활동으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양을 통해 곧 쾌락을 멀리하는 삶의 표양,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의 모범, 신심과 노동에 헌신하는 삶의 표양.

기도를 통해 곧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대중의 필요와 죄인들을 위한 기도.

말을 통해 곧 기회가 되면 좋은 말씀과 거룩한 권고를 하면서 씨를 뿌리고, 교리 활동에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 곧 딸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게 될 본당 사목지침을 따라 본당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열의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적 차원의 여성의 열의에 대해 다루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3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열성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잊지 않기 위해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느님만이 사회의 불치병을 치유하실 수 있기에, 특히 오늘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인용할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할 것입니다.

제1조: 일반 원칙

20세기 초부터 서너 가지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는 여성주의라는 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여성주의도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와 혁명적이며 무신론적 여성주의로 뚜렷한 구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여성주의는 복음의 위대한 원칙을 오늘
153 니고 살아갑니다. | 곧 여성의 명예, 여성의 신념,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와 사회의 가장 큰 유산인 신앙을 지키고, 약자를 옹호하며, 억압받는 자와 가난한 이를 도울 의무를 지닙니다.

여기에 사회에서 수행할 여성의 참된 사도직이 있습니다. 그 사도직은 자선사업만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을 향상시키되 훨씬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곧 사회의 윤리적 종교적 치

유입니다.

캉브레Cambrai의 부교구장 들라메르Delamaire 대주교는 프랑스의 여성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활동은 많은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애덕은 좋은 일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규모의 사업, 곧 작은 가게의 운영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공제조합, 여성 노동자 기금의 번영에 이바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금전적인 도움보다 여러분 개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십시오. 시대 사조에 관해 분명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은 대중의 윤리와 종교교육에 기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하는 ‘첫 번째요 근본적인’ 사도직 외에 사회 안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사도직이 있는데, 이 사도직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들의 힘이 강화되었고, | 그들의 힘은 조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곧 다
154 른 그리스도인 조직에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적들은 여성의 가치를 인식하여 여성을 조직에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훈련된 가톨릭 여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남성도 고립되면 약해지지만 여성은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사회 사도직을 위해 여성을 조직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의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자질이 없는 여성의 ‘유일한’ 자리는 가정이며, 정치적인 것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이러한 논지는 여성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사명에 헌신할 수 있을지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양을

갖춘 여성은 펜과 설교를 통해 신앙을 수호하고, 평범한 여성은 가톨릭 연맹에 가입하여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모든 군대에는 지휘관이 필요하지만, 먼저 많은 군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활동이 ‘결코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해서 안 되며, 오히려 그 의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머니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인신매매에 빠지지 않을 만큼 종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여성에게서 교

155 육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연극과 영화, 비종교적인 모임, 포르노 잡지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¹ 여성은 가정이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잘 지켜야 하지만 다른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 다른 곳에서의 활동을 요청 받게 될 때 자기 집안만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성은 이 운동에서 책임자나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목자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특히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성을 이교도 가운데에서 구제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그리스도교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성이 교회 밖에서는 육정의 노예로 드러날 뿐입니다. 모든 사회활동의 최종목적은 비록 그것이 노동조합이어도 대중의 종교적 윤리적 선입니다.

1. “오늘날 저널리즘의 타락은 특히 이탈리아에서 대중에 널리 퍼져 있으며 우려되는 부패의 징후로서 얼마나 큰 의구심을 일으키는지! 어리석게도 퇴폐적인 여러 일간지가 서민과 서민이 아닌 계층에서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을 숙고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La Civiltà Cattolica* 4 [1910] 641 이하 참조)

이것은 엄격히 말해 그 자체가 교회에 유보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권위에 맡겨야 합니다. | 이러한 것이 오

156 늘날 모두 독립을 표방하며, 스승으로 자처하여 평신도 자선단체와 조직이 이단의 목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은 관습을 형성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기 위해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것은 유보합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여성도 정치 투표와 행정관리 투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² 가톨릭 여성은 자신의 조국과 종교를 위해 이러한 무기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움까지 별일 영역이 아닙니다. 뢰슬러P. Rösler 신부는 이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훌륭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이 국가의 법률제정에 관해 활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에 무효로 끝날 것입니다. 사실 여성의 활동은 생활습관과 그 관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관습에 권위의 봉인을 하는 직접적인 법률제정 활동은 남성의 몫입니다. 관습을 형성하는 활동은 이미 대중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힘있는 행위가 됩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당의 열띤 싸움이 증대하겠지만, 여성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 여성참 **157**

2. “여성참정권” 운동은 1904년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1914년까지 팽크허스트(E. Pankhurst, 1858–1928)의 인도 아래 활성화되었다. 팽크허스트는 정치와 선거 영역에서도 여성평등 문제에 대해 선봉을 일으켰다. 이탈리아에서는 1945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2월 2일 법령 반포 n.23) 이 법령은 1946년에 헌법 제정회의 의원 선출과 더불어 실시되기 시작했고, 1948년 1월 1일에 공포된 이탈리아 헌법에 채택되었다.

정권론자들은 그들이 얻고자 했던 목적과 반대되는 목적에 다다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³

마지막으로, ‘가장 뛰어난 애덕은 대중이 더는 자선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자선행위입니다.’ 자선을 하나의 굴욕으로 여겨 금하고, 정의의 처방전을 통해 모든 사회악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사회주의자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틀린 것입니다. 곧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을 자선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정의를 자유경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경제화합 옹호자들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린 것입니다. 이들 사이⁴에는 그리스도인 사회학파의 이론이 있습니다. 곧 정의는 경제질서에서 최상의 통제자이고, 자선은 정의로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교황은 말했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도 “사랑의 핵심에는 정의라는 진주가 들어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기를 받아들이기 전에 아기 아버지가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게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병원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보장과 저축예금을 통해 품위있고 편안한 노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헌신적이고 신심 깊은 영혼들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정의의 의무적

158 인 개입이 있다 해도, 자선활동 분야는 넓게 열려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⁵라고

3. 피슬러 신부의 입장은 여성참정권론자들의 무절제한 과격행동에 반대되는 것이고, 역사가 확증하거나 반증하는, 일련의 분명한 이유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부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4. ‘이들 사이’, 다시 말해 두 개의 이념 세력인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확립했다면, 여성이 헌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직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는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활동순위를 정해 따로따로 숙고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곧 모든 가톨릭 활동은 항상 윤리적 종교적 복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일자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저임대 주택, 여성 근로자의 기숙사⁶ 등을 마련해줌으로써 경제상황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물질적 원조라는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와 같은 활동을 가장 숭고한 목적을 통해 가장 높은 품위로 올려놓습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을 냉담, 수치스러움, 범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열악한 거주지가 많은 부도덕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 결여가 고용주의 독재와 억압, 야간작업, 휴일 근무를 허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이 행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얼마나 많은 윤리적 악을 없앨 수 있는지요! 자선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관된 몇 가지 기도문을 보려고 합니다.

5. 참조: 마태 26,11; 마르 14,7; 요한 12,8.

6. 이탈리아에서도 유럽의 다른 국가 못지않게 여성과 남성의 노동문제가 인지되었고, 교회에서는 특히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1891 5월 15일)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어떤 주의 깊은 예수회 회원은 “노동자들의 보호 *La protezione degli operai*”(La *Civiltà Cattolica* 2 [1910] 270-285)라는 글에서 “모든 자본주의자가 모든 노동자에게 부정과 사기를 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썼다.

159 제2조: 조직을 위한 기도

1. 세상의 구원자 예수께 (남성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 성혈의 대가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어리석고 불경한 의도로 교회에 대항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수호하고 확장하려는 살아 있는 신앙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프리메이슨에 이끌려 당신의 벗인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맞서고, 성령에 의해 각 교구에 임명된 주교에 대항하고, 더 나아가 당신의 대리자인 교황을 반대하여 증오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 원수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살아 있는 신앙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그리스도교 문명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그것들을 끌어내리고, 정부를 통제하려 힘을 쏟고, 여성을 통해 가정을 파괴하고, 여성을 파멸로 이끌고자 노리고 있는 적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적들은 아무 근거 없이 농부⁷와 노동자를 자기들과 결속시키고, 순진하여 악을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보십시오. 젊은이를 훌륭하게 교육하고, 적의 계략에서 노동자와 여성을 보호하고, 가톨릭 위정자를 양성하고 지지하기 위해 일하는, 살아

7. 그 역시 시골출신인 알베리오네 신부는 농촌과 농부들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사제적 열의…」 95; 195; 196; 198; 201; 202; 250; 251; 275; 285; 308; 313; 320 참조. 이탈리아에서 토지경작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곧, 직접경작(외부인의 도움 없이), 참여경작(부분 소작, 전체 소작제도), 품삯(농사임대). 대대로 내려오는 소작제도는 경작지의 50퍼센트에 이른다.

있는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적들이 모든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중 상, 이단, 출판, 조직, 욕정의 술책, 무지, 오락, 연설, 이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진리로 중상에 대항하고, 가톨릭 교의로 이단에 맞서고, 선한 출판물로 나쁜 출판물에 맞서고, 그리스도교 조직으로 이단에 대항하고, 희생정신으로 욕정에 맞서고, 교육으로 무지에 대항하고, 건전한 오락으로 외설적 오락에 대항하고, 건전한 강연으로 나쁜 강연에 대항할 수 있는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교회의 창립자요 구원자시여, 당신의 복음적 진리에 목말라하고, 성성에 배고파하고, 신앙과 관습에서 위협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은 참된 스승이십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리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소서. 이 백성을 도와주고 지켜줄,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의 수호천사여,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러한 은총을 얻도록 저와 함께하소서. 아멘.

2. 세상의 구원자 예수께 (여성을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옵 주님, 저희는 엄위하고 선하신 당신 앞에 엎드려, 남성을 특히 물질적 윤리적으로 도와주도록 당신이 창조하신 여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윤리적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와 신앙의 적들은, 본능적으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여성의 지성과 마

음을 파괴하려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을 도우며 지켜줄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은 거룩한 딸들이 가정을 건설하고 본당 전체를 활성화하는 반면, 타락한 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제의 열성적인 노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을 보십니다. 딸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할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은 아내가 남편을 자신이 믿는 신앙과 관습을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줄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훈육과 교육으로 형성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훌륭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시민이 되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신앙을 저버리고 부도덕한 시민이 되게 하는지 아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거룩한 어머니들을 보내주소서. 열성을 가지고 그들을 양성하는 데 헌신할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162 주님, 사회에서 여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과 얼마나 많은 악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훌륭한 여성은 표양, 드러나지 않는 삶, 올바른 말을 통해 건설해 나갑니다. 행실이 나쁜 여성은 염치 없이⁸ 자신을 드러내고, 정숙치 못한 옷차림,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로 주변을 파괴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8. '염치없이 senza pudore.'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경솔하게 imprudente'라고 되어있다.

가정의 훌륭한 딸, 아내, 어머니는 그들의 일터에서 위험한 오락, 나쁜 출판물, 이단의 조직, 비종교적이며 비윤리적 선전, 악마의 수많은 계략 등 아주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교 조직을 촉진하고, 올바른 직업을 마련해주고, 건전한 오락을 선호하고, 종교교육을 준비하고, 선한 출판물을 전하며, 이러한 어머니, 아내, 딸들을 도와줄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 특히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예수님, 당신의 지상생활 동안 당신을 따르던 경건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초대교회에서 당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늘 약하고 무능한 도구를 택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고유성과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당신의 진리와 덕성을 전하고,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자매들이 되어줄 생생한 신앙과 높은 덕망을 갖춘 여성들을 일으켜주소서.

1 당신의 성혈로 구원하신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거룩한 관계로 결속하셨듯이 저희를 원죄 없으신 어머니와 결속시켜 주소서. 열의로 충만하시어 사도들을 조연해 주시는 성모님, 저희의 이 기도를 예수께 전달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도록 강력하게 전구하여 주소서.

3.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Caterina⁹께 바치는 기도

카페첼라트로 추기경¹⁰에 의해 작성된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회를 위한 기도¹¹

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여기서부터 'Catterina'라고 되어있다.

오, 주님께 간택된 동정녀이신 시에나의 카타리나여, 우리의 특별한 보호자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을 알고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전구해 주시도록 열렬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당신은 현명하고 강인하며, 천사처럼 순결하고,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으니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이셨고, 그분 안에서 천상적 사랑으로 교회와 “나의 자애로운 아빠”라고 하셨던 교황과 당신의 조국 이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교황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놀라운 여성 사도직이 탄생했고, 이제 이 사도직은 우리 시대에 아주 필요한 사도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평화, 평화, 평화!를 이탈리아 전국에 부드럽게 외치며 이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다.

164 이제 저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가져오신 평화를 저희에게 주시도록 당신의 전구를 청합니다. | 삶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먼저 우리 자신이 평화 안에 머물고, 나아가 우리의 말과 삶이 모든 이에게 평화를 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 가톨릭 세계에 그리고 특히 이탈

10. 알폰소 카페첼라트로(Alfonso Capocelatro) 추기경은 호교론적 역사가로서 1824년 2월 5일 마르솔리아(Marsoglia)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 프란치스코는 카스텔파가노(Castelpagano)의 벤베누토(benvenuto) 공작으로, 무라트(Murat) 정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페르디난도 1세(부르봉 왕국Borbone)의 보복을 피해 프랑스로 피신했다. 16세 때 알폰소는 나폴리 오라토리오회에 입회했고, 1840년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성 필립보 네리의 오라토리오 회원들과 사제들은 그를 곧바로 참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교황 레오 13세는 그를 1880년 카푸아(Capua)의 대주교로, 1886년에는 추기경으로, 1893년에는 바티칸의 명예 도서관장이자 장관으로 임명했다. 카페첼라트로는 고위성직자였지만 사제로서 철저히 살았다. 교회와 조국에 늘 헌신하며, 단순하고 통합적인 삶을 살았다. 가톨릭 신자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쓴 그는 여러 작품 가운데 현대주의자들을 위한 저서로 유명한 「신적 연구와 예배에 대한 성직자의 새로운 길 *Le vie nuove del clero negli studi e nel culto divino*」(1905)를 저술했다.

11. 이 기도문 외에 「사제적 열의…」 168-171항을 보라.

리아에 평화의 감미로운 숨결이 불어와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사이에,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 사이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영원한 사랑의 빛 속에, 영원한 아름다움의 빛 속에 사시는 카타리나 성녀여,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 영원한 진리요 아름다움이며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한 번씩 바치는 가톨릭 여성은 300일 대사를 얻는다)

1911년 9월 24일

4. 선한 출판의 수호자 성 바오로께 바치는 매일의 기도¹²

165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님, 에페소에서 당신은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저서들을 없애기 위해 혼신을 다 바치셨으니 오늘도 저희를 굽어보소서. 믿음을 저해하는 출판물이 아무런 | 제지도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보배로운 믿음과 순수한 관습을 앗아가기 위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사도님, 당신께 청하오니 글 쓰는 사람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과 죄를 조장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글 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양떼에게 끼치는 악을 혐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저희

12. 사도 19,19 참조. 이 기도문은 정신을 타락시키는 독서에 반대하는 연맹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카노사의 루이지(Luigi di Canossa) 추기경에 의해 장려되었다.(1891년)(MM)

에게 은총을 얻어주시어 언제나 최고 목자¹³의 말씀에 온순히 따르며, 사악한 출판물에 결코 물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교회의 발전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서를 장려하고 전하게 하소서. 아멘.

5. 영성체를 경건하게 자주 하도록 장려하는 기도

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당신은 모든 영혼에게 은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은총이 유지되고 자라도록 매일 그들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 되어주고 그들의 매일의 양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되이 당신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당신 성심을 통하여 모든 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불행하게도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을 회개시켜 잃었던 은총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소서. 당신의 선물을 통하여 이미 이러한 신적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할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의 거룩한 만찬에 열렬히 다가가게 하시고, 매일의 영성체를 통하여 소죄를 용서받고, 당신 은총의 생명을 키워나가며 한층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어 마침내 당신과 더불어 복된 삶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오, 성체성사의 성모님, 그리스도인 백성의 영광, 보편 교회의 기쁨, 세상의 구원이신 동정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모든 신자 안에 미사성체에 대한 신심이 되살아나게 하시어 매일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300일 대사를 얻는다)

-교황 비오 10세, 1906년 12월 9일

13. 교황.

6.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오, 영혼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사제들을 위해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기도로 당신의 무한한 염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제들은 영혼에 대한 당신의 지고한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당신 심장의 박동이요, 사랑이 아납니까?

저희는 거룩한 사제들을 맞아들이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는 | 저희의 어리석음과 악보다 무한히 크옵니다!

오 예수님, 당신께 부르심 받은 이들만 당신 사제직에 오르게 하소서. 사목자들이 지망자를 선택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조언을 하고, 교육자들이 성소자들을 양성할 때 빛을 비추어주소서.

사제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그들이 순결한 천사, 온전히 겸손한 자, 거룩한 사랑의 세라핌, 희생의 영웅, 당신 영광의 사도, 영혼의 구원자,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소서!

빛이 필요한 많은 무지한 이들과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신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수많은 어린이들, 젊은이들, 고통 중에 당신 성심으로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많은 이를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소서! 거룩한 사제들의 직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완덕에 이를 수 있겠나이다!

아! 그러므로 예수님, 굶주리고 목마른 군중을 한 번 더 측은히 여기소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인류를 아! 당신 사제직으로, 당신께로 이끄시어 한 번 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들어 높이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평화 안에 세워주소서.

영원한 사제의 어머니, 원죄 없으신 동정녀시여, 당신 몸소 사제요 제대가 되시며, 예수께 사랑받던 사제 요한을 아들로 삼으셨으며,¹⁴ 다락방¹⁵에서 스승이요 사도의 모후로 자리 잡으시고, 황공하게도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입술에 저희의 겸손한 기도를 올리시어, 당신 아드님의 성심에 올려 퍼지게 하시며, 당신 탄원의 힘으로 예수님의 교회에 새로운 성령강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7년 대사와 280일 대사를 받고, 매달 바칠 때 전대사를 받는다)

-교황 비오 10세, 1907년 10월 27일

제3조: 윤리적 종교적 활동

가톨릭여성협회Unione delle Donne Cattoliche

이 협회는 교황이 직접 설립했고, 모든 여성의 자선활동, 종교활동, 여러 활동 단체가 이 협회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이회는 당연히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운동의 거대한 단체 가운데 하나인 이 협회는 공통된 목적으로, 다른 '협회'와 협력하여 가톨릭 여성운동을 촉진하고 조직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ㄱ) '이탈리아 여성과 연계하여'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의무를 잘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ㄴ) '다양한 가톨릭 여성 단체를 시대의

14. 요한 19,26 참조.

15. 사도 1,14 참조.

필요성에 가장 실천적이고 효과적이며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ㄷ) 다양한 사회계층의 여성이 그리스도교 사명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보다시피 정치활동은 배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경제협회Unione economica¹⁶의 과제이므로, 대중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와 연관될 때는 정치와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는 진정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은 노동단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지역 차원에 한해서였으며, 전체 차원에서 조직하고 한 방향으로 비추려고 이끄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 방식은 '어느 정도의 선'을 가져다줄 수 있었지만 '전체적 국가적' 선을 가져다주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 협회는 각각의 고유한 단체에 필요한 자율권을 허용하면서 활동을 독려하고, 목표를 확장하며, 공동이익을 위해 모든 힘을 통합하고 집중시킵니다.¹⁷

16. 여기서 언급된 사회경제협회(L'Unione economica sociale)는 회칙 *Il fermo proposito*(1905년 6월 11일)와 더불어 시작한,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단체들을 조정하는 참되고 고유한 단체다.('사제적 열의...' 292 참조) 그리스도교 국민활동(Azione popolare cristiana)을 위한 두 번째 그룹의 과제를 이어받았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5조, 곧 '사제적 열의...', 203항 이하를 보라.

17. 「가톨릭 문화」(4 [1909] 32-43, 특히 p.42 이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참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는 곳에는 잠재력도 있으므로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일치를 위해 이 힘을 모으는 것이 좋다. 또한 이탈리아 전역에,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에는 무수한 여성 활동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 활동 분야가 제한되어 있다. 마치 전기회로처럼 더 넓고, 더 풍부하고, 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더 강한 전력으로 함께 결합시켜줄 수 있는 손이 부족한 것이다. [...]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활동과 함께 모든 힘의 통합을 소생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여겨진다.

이 협회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1909년 4월 21일에 시작하여 이탈리아 전역에 위원회를 조직했고, 많은 전문 여성 조직과 남성 조직들까지도 촉진시키고 장려했으며, 가톨릭 여성에게 이탈리아 여성연합회에 대항하도록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학교 내 교리교육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상당수의 교리수업, 보건위생수업, 훌륭한 가정주부를 위한 수업 등을 개설하여 주교단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성대회, 여성 사회주간, 170 여성모임을 개최했으며, 여러 장소에서 | 음란물, 신성모독, 알코올 중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협회와 여러 위원회에 관한 기획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가톨릭여성위원회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해 독특한 활동을 입증했기에, 이 협회를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어머니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가장 거룩한 단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며,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도에는 먼저 반대부터 하는 선입견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작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홍보를 맡은 이들과 강연을 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들의 설득력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 특히 불타는 열정으로 성급하게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인내롭게 해나간다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 종교수업을 반대하는 이탈리아 여성대회의 투표(『사제적 열의...』 32; 136; 154; 188-190; 197에서도 부각된 문제) 사건으로 인해,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상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가톨릭 여성들은 이탈리아 연합회와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 계층의 지위 향상을 지향하더라도 교회에서 영감을 받은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크리스티나 주스티니아니 반디니(Donna Cristina Giustiniani Bandini) 공주는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협회의 설립 의사를 1908년 7월 4일 교황 비오 10세에게 제시했고, 교황은 이 새로운 단체를 축복하며, 회규에 서명하고, 지지해주었다. 교황은 이탈리아 여성이 집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고, 잔 다르크의 귀감에 따라 그리스도인 사회를 재건설하기 위한 폭넓은 활동을 독려했다. 여성협회는 로마에 본거지를 두고 이탈리아 전역의 중심 도시에 세운 지역 위원회를 통해, 가톨릭 활동의 발전과정, 형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회, 노동연맹,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부인회, 마리아의 딸회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표양, 기금, 말씀을 통한 성체조배를 촉진시키고, 국내 또는 해외 주요 성당에 여성 또는 어린이 순례¹⁸를 촉진하고, 사회적 재난과 스캔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가톨릭 여성협회 활동을 통해 종교적 사건을 기념하는 도시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평화¹⁹를 기념하는 도시, 그리고 그리스도교 덕과 인품이 탁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오자남(Ozanam)을 기념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톨릭 여성이 남성 단체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남성의 철야 성체조배를 독려했고, 어떤 도시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쇠퇴해가는 교양 서클에 새로운 활기를 주었으며, 중학생들의 종교수업을 촉진했습니다.

라마르틴²⁰은 “위대한 일의 근원에는 항상 여성이 있음을 그대 171

18. 평온하게 조용히 지내기를 선호하는 농촌지역 사람들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의 지역 위원들은 피에몬테에서 특별히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했다. 곧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순례단을 조직하여 가톨릭 신자들의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신앙을 드높여주며, 인간 존중을 승리로 이끌고, 시대의 필요가 요청하는 활동에 열기를 불어넣어주었다. 이 때문에 각 교구를 방문하는 여행이 계획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순례는 1880년경 토리노에 설립된 피에몬테 지역의 “가톨릭 용기 협회(Unione del coraggio cattolico)” 방문계획이었다. 곧 포싸노(Fossano)에 있는 쿠사니오(Cussanio)의 성모님 순례, 브라의 꽃들의 성모님(Madonna dei Fiori) 순례, 쿠네오의 천사들의 성모님(Madonna degli Angeli) 순례, 그리고 1902년 교황 레오 13세가 반포한 희년 기념의 로마 순례였다.
19. 알베리오네 신부는 신학교의 역사 교사로서 직접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평화(주후 313년) 16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102항 참조.
20. 프랑스의 정치가요 낭만주의 시인이며 저술가인 알폰스-마리-루이스 드 라마르틴(Alphonse-Marie-Louis de Lamartine)은 1790년 10월 10일 마콩(Mâcon)

는 보게 되리라.”고 썼습니다.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현대의 여성 운동이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설득력 있게 확인시켜줍니다. 여성운동은 이탈리아의 각 지방마다 대의원을 두고, 마을이나 도시의 회원들이 종교교육 분야, 사회교육 분야, 활동 분야로 나누어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황²¹의 지향에 따라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성의 힘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활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활동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여성운동의 회보 <가톨릭 여성활동Azione cattolica femminile>을 읽는 사람은 이루어진 큰 선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이루려고 하는 큰 선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윤리를 위하여

‘지나간 시간을 예찬하는 사람들’²²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회색빛으로 물들이면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꿈결같이 지난간) 자기들의 아름다운 젊은 시절이나 중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시기는 그 자체로 선과 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와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날 드러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도덕은 악이 문명의 모든 결과

172 를 이용하고 | 조직화하면서 장악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한탄해

에서 출생하여 1869년 2월 28일 파리에서 사망했다. 그의 교육 밑바탕에는 교양있고 지성적인 종교인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21. 교황 비오 10세.

22. 지나간 시간을 예찬하는 사람들(Lodatori del tempo passato)에 대해 「사제적 의의…」 23의 각주 3을 보라.

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을 위해 현대의 모든 발전²³을 활용하고, 특히 협회의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이 신성모독, 음담패설, 알코올 중독, 노름, 결투, 부도덕한 영화, 연극, 패션, 미인대회 등을 반대하는 연맹을 설립하면서 그들 시대의 실체를 실감했겠습니까? 이 연맹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일부는 지역적 차원, 일부는 국가적 차원, 어떤 것은 국제적 차원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지역적으로 그룹을 조직하면서 일반적인 회규를 수용하는 차원이었는데, 결투 반대 연맹, 알코올 중독을 반대하며 센터를 토리노(Via Maria Vittoria, 42)에 두고 있는 ‘새로운 십자군’이 그랬습니다. 다른 연맹에서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회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이 연맹 자체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른 형태의 부도덕성에 당연히 대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들 연맹이 공휴일을 지키도록 활동하고, 사회주의 강연을 배척하며, 유아 세례

23. 가톨릭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은 1903년 11월에 볼로냐에서 개최된 전국 차원의 대회에서 폭발했다. 두 집단 사이의 합치점을 이루려는 시도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교황 비오 10세는 1904년 7월 30일 “대회협회Oprea dei congressi”를 해산했다. 이 점에 관하여 조반니 스파돌리니(Giovanni Spadolini)는 이렇게 썼다. “가톨릭 운동이 그와 같이 슬픈 시간을 맞은 적은 결코 없었다.” 쿠네오의 본당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회협회 해산은 가톨릭 활동을 무너뜨렸고, 가톨릭 활동의 몰락은 교구 위원회와 본당 위원회도 무너뜨렸다.” 비록 그 후에 “국민 연합Unione popolare”을 설립했으나 회원이 적었다. 1910년 피에몬테 전 지역 가입자는 겨우 19,394명이었다가 1911년에는 18,671명으로 줄었다. (『지렛대La leva』, 3개월마다 발행하는 대중 교양을 위한 작은 잡지, a. II, n.1 [Firenze, 1012년 3월 15일]) 그렇지만 경제적 사회적 조직은 대회 협회 해체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고, 1905년 229개였는데 1909년 467개로 그 수가 증가했다. (『19세기 중엽 피에몬테의 교회와 사회Chiesa e Società nella II metà del XIX secolo in Piemonte』, a cura di Filippo Natale Appendino, Istituto regionale piemontese di pastorale, Edizioni Pietro Marietti 1982, p.388 참조)

와 종교적 장례예식을 촉진시키며, 「당나귀L'Asino」,²⁴ 철야 무도회, 춤, 음란 예술을 반대하여 항의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반대하고, 교황에 대한 모욕 등을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73 또한 '타락한 여성들²⁵과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훌륭한 기부인들과 열성적인 수녀들을 통해 생긴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필요한 치료 외에도 잘못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종교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재활원입니다. 자주 피정을 시키고, 가끔 일거리도 주며, 회복기를 마친 다음에는 미래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여성 작업실, 교도소 내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주간지 「사회주간Settimana sociale」²⁶에는 환자를 방문하고, 교도소를 찾아가 입을 만한 유익한 서적을 넣어주며 수감자들에게 수업을 해준 부인들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경신례와 신앙을 위하여

가난한 교회를 위한 단체: 이 단체는 성사 안에 계신 예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의 결실입니다. 오늘날 성직자가 자주 처하게 되는 물질적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이 단체는 하찮은 것이지만 죄를 짓는 일에, 또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었을 좋은 자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이 단체는 가난한 교회에

24. 귀도 포드레카(Guido Podrecca)가 운영하는 반성직주의요 풍자적인 정기간행물. 로카 다드리아(Rocca D'Adria: Cesare Algranati의 가명)는 「당나귀」에 같은 무기로 대항하기 위해 1907년에 「노새Il Mulo」를 창간했다.

25. '창녀들'.

26. 1908년 1월 19일자로 피렌체에서 발간한 "국민 연합Unione popolare" 주간지.

체대용품, 제의, 성작 등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선의의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는 신심회입니다. 때때로 모금, 기금조성, 기부금을 모아 무상으로 수리하고 청소를 해주는 일터를 운영합니다. 때로 이 두 가지 수단을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개 기부인들과 부유층 부인들이 헌신하는데 이들은 성체성사에 대한 큰 사랑으로 포도주와 제병을 준비합니다.

성 베드로 기금: 교황청의 복된 가난을 지원하는 교황청 구호단체입니다. 열의 있는 여성들은 모금운동을 하여 기금을 본당신부나 주교를 통해 로마로 보냅니다. 어떤 곳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연맹을 조직하고, 매년 정해진 기금을 희사하는 것을 의무로 삼을 뿐 아니라, 고귀한 활동을 친지들과 친구들에게도 열성적으로 전개합니다.

이탈리아의 가난한 수녀들을 위한 단체: 세상이 모르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과 기도의 천사들을 돕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들은 때로 양식이 부족하고 혹독한 추위를 피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숙소 등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부금은 모두 「가톨릭 문화Civiltà Cattolica」 본부(Roma - via Ripetta - 246)로 보낼 수 있습니다.²⁷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Opera della Santa Infanzia²⁸와 교황청 전교회: 이

27.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수녀들을 위한 헌금'을 봉헌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 현재는 'Pro Orantibus'라는 연간모금 단체가 있다.

28. 「사제적 열의...」 39-40; 79; 108; 115; 327 참조. 창설자는 프랑스 낭시(Nancy)의 주교, Ch. De Forbin-Janson 몬시뇰 (1785-1844)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175 | 두 단체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비신자들 사이에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신앙을 갖지 않은 소년소녀를 위해 매달 현금을 어린이들에게서 받습니다. 교황청 전교회는 신앙을 갖지 않은 어른들을 위해 매주 현금을 어른들에게 요청합니다.

선교지의 조건은 종교적 윤리적 물질적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활동일뿐 아니라, 그 나라를 돕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입니다. 많은 수녀뿐 아니라 수녀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위해 자기들의 삶을 봉헌하고, 교리교사 자격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떠납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활동에 열의를 가져 그들의 복지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필요성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년 많은 기금을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관대한 여성들이 낸 현금이고, 더 관대한 여성들이 모금한 것입니다. (이 활동을 위한 기부금은 언제나 주교단에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한 우표 수집 단체: 부자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여성들의 신심 깊은 손길이 모아 불쌍한 이들의 굶주림을 덜어줍니다. 또한 노예해방과 선교지방의 원주민 교리교사 양성, 그리스도인 교우촌 마련에 사용됩니다. 이 단체의 총본부는 벨기에

176 (대사 | 신학교:Liegi)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로 연락하면

한 여행(1842년)에서 돌아온 후 비신자 지역에서 자행되던 유아 살해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1842년 리옹에서 폴린느 자리코(Paolina Jaricot) (『사제적 열의...』 47 참조)와 대화를 나누었고, 매달 기금을 모으도록 초대하면서 유럽 어린이들이 중국 어린이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안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됩니다.(벨기에 기숙사, Via del Quirinale)

성당 내부의 꽃, 세탁, 청소를 위한 단체: 제대 꽃꽂이와 제대용품 세탁, 성당 바닥 청소를 맡은 신심 깊은 사람들의 작은 모임입니다. 성당 안에 늘 싱싱한 꽃이 꽃혀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신심 깊은 여성들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심단체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의 도우미(Domestiche del Ss. Sacramento)’, ‘예수님의 여종(Serve di Gesù)’, ‘주님의 근위대(Guardie nobili del Signore)’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보아 이 조직은 소박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기도 사도직 협회

신심 깊은 여성은 사도직에서도 가장 고귀한 기도의 사도직에 개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도직 협회에 가입할 때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협회는 1846년에 설립되어 교황 비오 9세와 레오 13세의 승인을 받았는데,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확장하여 1900년에는 회원이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협회는 기도를 배가시키고, 고통과 활동을 성화시키며, | 모든 탄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77**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침 기도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봉헌기도를 바치도록 합니다. “거룩한 예수 성심이여, 티 없는 마리아의 성심을 통하여, 오늘 저의 모든 기도와 활동, 기쁨과 고통을 미사의 희생제물과 합쳐 당신께 바칩니다. 특히 이 달 그리고 오늘, 기도의 사도직 협

회가 권고한 지향에 따라 당신께 봉헌합니다.”(협회 본부는 Roma - Via dei Chiavari, 6에 있습니다.) 협회는 매달 상분을 통해 특별 지향을 알려줍니다. 「기도의 사도직에 대한 교리」(사무실에서 판매함)라는 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가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곧 공동체 또는 본당을 통한 단체적인 가입방법과 개인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회원은 열의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예수 성심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들의 협회

목적: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탄스러운 성심께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바쳐,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앞으로 다가올 영혼, 육신, 정신의 모든 고통과 **178** 괴로움을 미리 받아들입니다. | 예수님은 성교회를 높이 들어올리시고, 가톨릭 사제직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성심의 나라를 더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 보속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협력하도록 회원을 파견합니다.

조건: 이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받는 영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명예로운 근위대’(이 협회에 가입한 이에게 부여하는 고유명칭)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2. 고해사제나 영적 지도신부의 허락을 받아 희생제물이신 예수 성심께 자신을 봉헌하고, 그와 같은 희생정신으로 항구하도록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3. 예수성심팔수도회의 모든 성당에 비치된 ‘자신을 희생제물

로 바치는 영혼들의 명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명부는 예수님의 성심과 일치하여 감추어지고 희생된 삶을 상징하기 위해 영원히 제대 위 감실 옆에 두어야 합니다.

영적 혜택: 일반 회원은 많은 대사를 받고, 사제 회원은 특별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이 된 영혼들의) 경건한 협회에 우리 이름을 기꺼이 올렸으며, 모든 신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1909년 1월 21일)라고 하신 교황 비오 10세의 말씀은 아름답고 칭송할 만합니다.

이 단체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두 분의 전기 곧 “예수 성심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들의 협회” 창립자 「마드레 예수의 마리아 *La Madre Maria di Gesù*」²⁹(Libreria Sacro Cuore - Via Garibaldi, 18 - Torino)와 「안드레아 벨트라미 신부 *Don Andrea Beltrami*, T. Barberis (Libreria Salesiana - Corso Regina Margherita 176, Torino)가 매우 유익합니다.

어린이의 영성체를 돕는 경건한 협회

이 협회의 목적은 어린이가 영성체할 수 있는 연령을 철들기 시작하는 시기인 대략 7세로 정하는 교령을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영성체를 한 다음, 어린이가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가능하면 매일 영성체를 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이 단체는 성직자뿐 아니라 부모, 교육자, 교사, 교리교사, 남녀 평신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안의 어린

29. 예수성심팔수도회(1873년) 창립자(Marsiglia 1841-1884).(MM)

이, 자신의 단체나 학교의 어린이, 더 나아가 지인, 친구, 친지의 어린이에 대해서 열의를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0 다만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짧은 준비기도와 감사기도를 바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가 거룩한 성체를 자주 모시도록 돌보아야 하고, | 적어도 축일에 영성체를 하고, 주일학교에 다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이 단체가 특별 대사로 풍요롭게 되기를 위한 교황 비오 10세의 열망에도 동참합니다.

(로마 — 성 클라우디오 수석 성당Primaria chiesa di san Claudio이나 사제 흡송회R.R. Sacerdoti adoratori -Vicolo S. Maria, 3, 토리노-에 문의할 것)

마리아의 딸회Compagnia delle Figlie di Maria와 그리스도인 어머니회compagnia delle Madri cristiane

이 두 단체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저는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들은 하나는 딸들로,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로 구성된 경건한 종교단체로서 사제의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 사제는 대부분의 경우 본당 주임 신부입니다.

딸들의 단체 구성원은 교리교육을 받은 이들로써, 특별 강연과 거룩한 성사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통해,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기를 바라는 젊은 여성들입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에서도 젊은 여성은 자주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젊은 여성은 단체와 결속되어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³⁰

‘그리스도인 어머니회’는 ‘마리아의 딸회’와 같은 목적을 지향하면서, 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 특별 교육(일반적으로 매월 교육), 고해성사와 잦은 영성체, 좋은 표양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³¹ 성녀 안나 등과 같은 거룩한 어머니의 보호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순수하게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훌륭한 딸회와 어머니회는 긴장감 없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딸회 지침서」(성체성사 연맹 인쇄소 Tipografia Lega eucaristica - 밀라노)를 보십시오.

영적 우정

주님은 성경에서 당신에 대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Domine, qui amas animas.’³² 그리고 주님이 영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더 거룩

30. 알베리오네 신부는 결속의 이로운 점을 내다보았다. 연합회, 곧 연합(unione), 본당, 공동체, 회(compagnia), 조합, 저축은행, 그룹, 연맹(leghe), 조직에 대해서, 또 협력, 협조에 대해 언급했다.

31. 엘리사벳(1207-1231)은 헝가리의 왕 안드레아 2세의 딸이며, 제5차 십자군 전쟁에서 전사한 튀링겐의 백작 루드비히 4세의 아내였다. 19세에 과부가 된 엘리사벳은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고행과 자선에 헌신했다. 성녀의 영적 지도신부 마르부르크의 코라도는 그를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는 자’, ‘굶주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자’, ‘복음의 참된 행복을 사는 자’라고 말했다.(MM)

32. 「사제적 열의…」 초판은 괄호 안에 다음 구절을 첨가한다. Sap. II-V-17 참조 : 지혜 11,26(불가타역에 따르면 11,27):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이와 하느님 사랑에 더 많이 응답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³³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 우정’이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많은 거룩한 방식으로 외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우정을 영성가들이 단죄한 ‘특별한’ 우정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우정은
182 | 성향, 본성적 호감, 외적 친절에서 비롯되는 반면, 영적 우정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전자는 욕정과 진흙탕으로 끝나고, 후자는 하늘로 인도하며, 성녀 데레사가 사용한 위대한 선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성녀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서로 도와주고 열성적으로 임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도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는 네 명의 자매와 영적 우정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적 우정 관계를 맺기 위해 정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세 가지 수단을 통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간의 기도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점에 대한 형제적 교정 그리고 세상의 헛됨에 대해 일깨워주고, 신심 깊은 삶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 해주며, 그리스도교 덕을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대화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열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이 악행과 오류를 일삼기 위해 함께 모인다면, 영적 친구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을 함께 강구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훌륭한 독신녀들, 젊은이들, 여성들이 거

33. 집회 4.14.

룩한 지향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창안과 수단을 떠올리고, 이웃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할 자세를 갖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거나 | 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내적 비밀을 결코 누구에게도 나타내지 못하여 많은 재능을 썩히고, 귀한 능력이 무익하게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서로 알게 되어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통된 느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많은 이와 나누며, 결실을 맺기 위해 기회가 필요합니다.
183

이러한 기회는 영적 우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자주 선행으로 도움을 주는지요! 예를 들면, 가난한 가정을 도와주고, 병자를 방문하고, 교리교육과 신심단체를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영적 유대에서 오는 형제적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만날 때 금세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우정은 그러한 유대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벗들이 평범한 여성들일 때 선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우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ㄱ) 무엇보다 먼저 그와 같은 사람들은 가끔 그들끼리 만나 협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휴일이나 평일에 만나는 것입니다. ㄴ) 모두 완전한 사람이 아니므로, 만날 때 서로 형제적 교정을 하며 | 성화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ㄷ) 모임에서 좋은 독서나 영적 대화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불평이나 지나친 개인적인 관계, 너무 일반적인 대화나 다른 이들의 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할 것
184

입니다. ㄹ) 특별히 겸손을 키우고, 각자 자신의 고해신부의 지도를 받고, 지적받은 결점을 단순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ㅁ) 모임의 인원이 다섯 명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인원이 초과되면 별도로 다른 다섯 명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의 표를 얻어 선출된 한 사람이 ‘큰 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임은 주간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특별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자신의 뜻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 것이며,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향하는 모든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프라씨네티 Frassinetti의 소책자 「영적 우정 *Le amicizie spirituali*」(로마, Tipografia Poliglotta Vaticana - L. 0,15)을 읽도록 권고합니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 마리아의 경건한 딸회

이 단체는 영적 우정의 모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목적이 동
185 일합니다. 곧 ‘신심 깊은 미혼여성의 모임을 만들어 | 자신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웃의 구원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우정의 모임보다 더 조직적입니다. 세속인 신분과 수도자 신분 사이에 중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생활을 하고 싶지만, 가난이나 부모의 거역할 수 없는 반대, 또는 건강 등의 문제로 수도생활을 할 수 없는 신심 깊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들 삶의 특별한 상황에서 가능한 대로 자기 성화를 지향합니다. 또한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통해 모든 대죄와 소죄를 피하고, 덕에 나아가며, ‘모든 힘을 기울여 다른 이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지향합니다.

이회는 고유 규칙서가 있을 뿐 아니라, 회원 가운데에서 선출

한 책임자가 있고, 사제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지도 사제는 책임자의 고해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은 적어도 매주 한 번씩 회의 정신을 심화하고, 기도하며, 형제적 교정을 위해 모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수녀들이³⁴ 행하는 바를, 세상에 살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완덕의 통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그들의 규칙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특히 회원에게 열의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이 우리의 관심을 끄니다.

5항: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딸들은 고유한 의무의 범위 안에서, 특히 그 지역의 가난한 병자들을 도와주면서 자선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186

6항: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의를 다해야 하고, 특히 자신의 가정에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넘쳐나게 하고 신심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항: 특히 부모들에게서 방치된 여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주

34. 여기서 크게 부각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오늘날 병설재속회(Istituti aggregati)라고 불리는 재속회들(Istituti Secolari)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그 회원들, 특히 ‘성마리아영모회’와 ‘대천사가브리엘회’의 회원들은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행하는 바를 가능한 한 세상 한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세속에서의 봉헌 삶을 결혼한 부부에게도 확장시켰다. 곧 “성가정회 Istituto Santa Famiglia”를 설립한 것이다. 사실 30년대에 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n.236)의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수도 성소에는 특별한 본질이 있다 ... 기혼자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던 사건을 문서화한 것이다. 「사제적 열의...」을 출판한 지 몇 년 안 되어,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조리노 비고론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로서 서약을 하게 하셨다.”(S. Lamera, “예수사제회와 성가정회 Istituto Gesù Sacerdote e Santa Famiglia”, in “바로로 가족 안에서 평신도와 바로로 가족과 함께하는 평신도 I Laici nella e con la Famiglia Paolina”, 성바오로수도회 총본부, 로마 1989, p.85)

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사에 자주 참여하고,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게 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직접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8항: 청소년들이 거룩한 일을 사랑하고, 신심생활에 힘쓰도록 청소년 정신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9항: 기회가 되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신심 실천을 촉진하는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10항: 친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히려 항상 순명, 인내, 친절을 보여야 하고, 집안의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87 나아가 어려움 중에 서로 도와주고, 궁핍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병들었을 때에는 간호해야 합니다.

이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선의 영향력을 본당 구역과 지역 전체, 아주 먼 곳까지 미치는 중심이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모든 마을에서, 평범한 독신녀는 고해사제의 허락 아래 사제의 활동에 동참하면서 이 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제 프라씨네티가 자신의 소책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마리아의 경건한 딸회 규칙서 *Regola della Pia Unione delle Figlie di santa Maris Immacolata*」(로마 - Tipografia Poliglotta Vaticana - L. 0, 15)에 제시하는 훌륭한 해설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문제를 위한 협회

학교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거의 교회가 세운 것인데,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종교교육

시간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조차 법률, 교령, 모순된 규칙을 통해, 이상한 해석과 이교도적 결정을 통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리교육 시간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럴 듯한 이유로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불합리한 진정한 의미의 박해입니다. 통치자들을 교묘히 이끄는 프리메이슨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한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일어난 하나의 전쟁입니다.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 국민은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고 또 그래서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학교를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온 힘을 기울여 그들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188**

니콜로 토마세오 Nicolò Tommasco: 이는 그리스도인 교사 협회입니다. 학교 교육을 윤리적 물질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가톨릭 원칙을 지킬 것을 선서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미 완전히 무신론적 입장을 표명하며 프리메이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사 Magistral’ 협회에 반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토마세오 Tommasco’ 협회는 급속히 퍼져 이미 많은 교사가 이 협회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교사’ 협회에서 탈퇴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승리를 이루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에 이 협회가 자리 잡게 되었고, 다양한 정기간행물도 발간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잡지는 「현대 이탈리아 학교 *Scuola italiana moderna*」입니다.

학교의 자유를 위한 협회 Unione Pro schola libera: 독재자나 이단자가 아니라면 이 협회를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단체는 교육적인 면에서 이탈리아보다 훨씬 발전된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

되고 있는데, 학교에 정당한 자유를 주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
189 지 않습니다. 이 단체의 회규는 이렇습니다. “본회의 목적은 | 교
 육의 자유를 옹호하려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업무는 국가 교육
 의 전형적인 동력이 되는 이탈리아 왕국이 합법적으로 규정한 자
 유다.” 기관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토
 리노에 있는 본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육 협회 *Associazione didattica italiana*: 앞의 단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는 가족과 부모와
 교사로 구성되는 반면, 이 협회는 ‘가정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모
 집합니다.(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음)

학교를 위한 사무국 *Segretariato Pro schola*: 이 사무국은 국민 연합
*Unione popolare*³⁵의 기획을 통해 설립되었고, 현재 파도바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 단체는 학교가 그리스도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모
 든 활동을 학교가 총 지휘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수단
 을 이용하고 있는데, 강연, 출판, 모금 운동 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맹 *Leghe dei padri di famiglia*: 이 단체는 교리교육 분야에서
 본당신부를 도와야 하고, 종교교육에 관한 법규를 올바르게 해
 석하도록 하며, 학교의 자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35. 「사제적 열의…」 189; 196; 206; 231; 291-292; 328 참조. “대회협회 *Opera dei congressi*” 해체에 뒤이어, 회칙 *Il fermo proposito*(교황 비오 10세, 1906년 6월 11일 반포)의 지침에 따라, 독일의 국민연맹(Volksverein)과 유사한 연합회로, 정치 홍보와 사회조직을 위해, 유일한 가르침의 중심에 모든 가톨릭 신자를 모으기 위해 이탈리아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연합회다.

* * *

그렇다면 이 모든 운동에서 여성-사도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
 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문을 열어주는 단체에 가입합니다. | 예 **190**
 를 들어 여성 교사는 ‘토마세오 Tommaseo’ 협회에 가입하고, 모든
 어머니는 아버지 연맹에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단체를 알리며 강연회, 대회, 모임을 촉
 진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기부금, 논의와 토론, 탄
 원 등을 통해서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이 분야에서 하는 투쟁은 아주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
 님의 말씀과 주교단의 격려에 의해 다급하게 실행해야 할 일이 되
 었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매우 고귀합니다. 1) 각 지역에서 현
 행법으로 주어진 교리에 관한 권리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
 2) 본당 주일학교와 오라토리오(청소년 교육장)에서 종교수업을 최
 대한 살려가도록 마련할 것.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종교적으로 구속받지 않도록 활동을
 촉진할 것.

오라토리오와 본당 교리학교

한편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학교’에 대한 의식이 전국 차원
 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일치해서 활기차게 활동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종교수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에서는 | 교회에서 주일과 다른 기회에 어린이 교리교육을 유지하 **191**
 려는 관행이 거의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지장을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가 확인되었습니다. 교리실이 너무 커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급끼리 서로 방해가 되어 생생한 교리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리에 대한 흥미를³⁶ 잃고, 학교의 다른 과목에 비해 수업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오라토리오, 휴일 레크리에이션 센터, 본당 교리학교를 많이 설립해야 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활동에 여성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진정 하느님의 섭리라 하겠습니까! 부유한 여성은 돈으로 단체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은 이 활동을 지지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단체에 가입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주 적절한 다음과 같은 두 조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리교사 학교: 이러한 시도가 꽃을 피우고 대단히 만

36. 아이들이 교리수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도록 규제하고 있고, 또한 교리교재에 대해 제기된 두 가지 반론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어린이나 초보자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학술적이며, 이해 불가능한 형태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교회는 성경적 사건, 복음의 설화, 예수님의 예화와 비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형태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두고 있다.”(*La Civiltà Cattolica* 1 [1910] 403 이하 참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 서평 *Rassegana nazionale*」(1908년 11월 16일의 논평과 1909년 10월 1일의 논평)에 발표한 갈라라티-스코티(T. Gallarati-Scotti) 백작의 두 편의 글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그는 이렇게 썼다. “교리의 신학적 언어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기 쉬운 형태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젊은이들과 신심 깊은 독신녀들이 함께 모여 사제와 학식 있는 부인과 훌륭한 교사의 지도 아래 교리를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교황 비오 10세는 이 단체를 축복했고, 2백 명 이상의 자원봉사 교리교사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교회의 권위기관이 판단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정식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교리교사 지원자들을 위한 교과과정은 교의, 윤리, 그리고 경신례에 관해서뿐 아니라, 교육학, 교회사, 전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 *Società della dottrina cristiana*: 교황 비오 10세는 “모든 본당에 그리스도교 사상 모임을 교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라고 명했습니다. 본당 교우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조직할 수 있는데, 특히 아버지 그룹과 어머니 그룹으로 나누어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본당신부에게 교리를 위한 윤리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품의 경비 충당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년 20첸테시미(*centesimi*(1centesimo는 100분의 1리라)를 내야 하고, 교리교육을 위해 기도와 봉사활동을 하며, 자녀와 고용자를 교리교육에 보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가르치는 일 자체도 도와야 합니다.

주의 사항: 여기서 자격증을 가진 교리교사나 그리스도교 사상 협회 회원만이 본당신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Solo Si Vuol³⁷ 준비를 갖춘 사람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쉽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si suol’이라고 되어있다.

193 선한 출판물 위하여

인간은 모든 선한 것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인들과 여성 단순 노동자들도 두 가지 목적으로 ‘출판물 위한’ 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은 선한 출판물을 보급하고, 악한 출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제들과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 지도받은 이들은 나쁜 잡지와 서적의 부수를 많이 줄이는 데 성공했고, 많은 전략을 통해 가톨릭 정기간행물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기부, 회사, 복권, 자선 코너를 통해 일간지의 정기구독료 16리라를 12리라나 8리라까지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각 가정마다 종교적 윤리적 내용의 유인물을 받아보도록 했고, 부인들이 집집마다 이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본당에서는 훌륭한 교사의 지도를 받아 직접 지역 회보를 발간했습니다. 다른 본당에서는 패션 잡지, 자수, 재봉에 관한 출판물의 부록과 삽화, 광고의 내용이 정말로 저급했는데, 그 내용을 다른 좋은 것이나 적어도 해롭지 않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194 이동 도서관: 밀라노(Via Speronari-3)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가톨릭 이동 도서관 이탈리아 연합회Federazione italiana | delle biblioteche circolanti cattoliche’는 매일 출간되는 모든 양서에 대한 정보와 확실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는 여성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원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펴낸 ‘사서 지침서’를 읽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처음부터 큰 기

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단체를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그리고 여성의 압도적인 기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4조: 사회적 특징을 띠는 단체

어머니들 교육을 위하여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지 않는 사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지만 오늘날 ‘참된’ 어머니들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매우 심각한 악은 많은 젊은 여성이 도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곳에서, 일터에서,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그들은 요리, 집안 정리, ‘장보기’를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남편의 내조나 자녀를 양육 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는 그들은 인생에서 자기가 꼭 해야 할 의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을 가정에서 보낸다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여성은 더욱 그러합니다. 돈, 자유분방함, 허영심에 빠질 위험이 많은 딸을 오히려 부추겨 집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많은 가톨릭 여성이 ‘가정학, 위생, 자수, 재단, 재봉, 요리, 가사 학원’을 설립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많은 젊은 여성 근로자, 농부, 이주민, 재봉사, 수예가 ... 미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그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의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그들의 신분에 주어지는 의무를 상기하고 사랑하도록 ‘주부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아주 방대하여 위생, 가정학, 지혜로운 집안 살림,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훈육 방식, 남편을 위한 내조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 협회Unione delle madri cristiane’가 있는 몇몇 도시에서는 이 협회 196 회의 여성들이 | 위에 열거한 주제 중에서 더 관심 있는 주제를 대화 방식으로 배우는 가족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어머니들을 위한 강연Educazione - Conferenze per le madri」 - Bettazzi(국민 연합 본부).

교양 서클

이 서클은 종교, 가족, 사회에 관해서, 어떤 때는 예술과 문학에 관한 폭넓은 가르침을 회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곧 각 회원이 고유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부, 교사, 여성 근로자, 교육받은 여성들 중심의 서클이 있고, 젊은 여성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서클도 있습니다.

매일 또는 정기 모임, 강사 초빙, 가능하다면 회원들 자신이 주도하는 강연회, 정해진 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지도, 친근한 좌담회 개최가 이 서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보통 신문과 잡지를 구비한 작은 규모의 도서실에서 열립니다.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클이 잘 운영된다면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배출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이들 안에 심어진 좋은 씨를 잘 틔우게 할 줄 아는 선생님들도 배출될 것입니다. 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낼 여성 근로자들도 바로 여기서 배출될 것입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클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일 197 입니다. 그러므로 서클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킬 사람이 아니라면 가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적은 숫자를 통해 더 풍부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삶의 결정적인 시기를 돕기 위한 [방향제시와 보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시기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전문직을 배우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 시기의 청소년기를 잘 동반하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방치한다면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오늘날까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이점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먼저 느끼고 그 구체책을 내어놓고 적절한 후원을 제공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공업중·고등학교, 사범학교, 인문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남녀 학생을 위하여 ‘중교수업’에 헌신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 보내야 하므로 더 중요한 영적 생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교리 강좌’를 시작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 특히 노동계층 여성들을 위해 ‘축일과 저녁 휴식시간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강좌’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도시에서 ‘젊은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피정’을 실시하고, | 부인들이 198

피정에 참여하도록 음식과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 공장에서도 받게 될 ‘일당’까지 대신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 사업을 통해 여성들, 부인들, 남성들도 피정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에서도 마리아의 딸회 덕분에 제법 나이든 여성들과 신심 깊은 독신녀들이 도움을 받는 일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젊은이들은 학업을 위해 가족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적합한 학교, 여학생기숙사, 좋은 하숙집을 찾아야 하는 중요성, 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토리노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믿을 만한 하숙집이나 기숙사를 찾아주는 ‘가정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수녀들의 도움을 받아 ‘여학생기숙사’를 운영하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은 도시에서 가사도우미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데, 이러한 이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³⁸ 이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쾌락만 좇는 무분별한 젊은이들과 자신의 이득만 찾는 비정한 인신매매 등의 위험은 가정에서, 산업지대에서, 기차역에서, 호텔

38. 이탈리아 내의 이주자들 상황을 보면, 1895년 피에몬테로 3만 명가량이 이주했고, 1896년에는 24,824명이었다. 쿠네오 주에서만도 1891-1895년의 5년간 연평균 15,000명에 달했다. 1905년 쿠네오에서 피오레(Fiore) 몬시뇰은 이주에 관한 사목지침서에서 이러한 현상을 ‘주(州)의 고통스러운 재난’이라 했다. 그리고 스칼라브리니(Scalabrini) 몬시뇰이 1891년 피아첸자에 설립한 성 라파엘 수도회와 살레시오수도회는 부유한 신자들이 운영을 맡았다. 두 수도회 모두 미 대륙으로 이민한 쿠네오인들을 도왔으며, 유럽과 동양의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을 후원하는회는 크레모나의 주교 보노멜리(Bonomelli) 몬시뇰에 의해 추진되었다. (R. Istorto M., “14세기 후반 30년간 쿠네오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 활동 L'azione sociale dei cattolici Cuneesi nell'ultimo trentennio del secolo XIX” in ‘이탈리아 가톨릭 사회 운동의 역사에 대한 문서보관소 회보 Bollettino dell'Archivio per la storia del movimento sociale cattolico in Italia’, Milano, a. III [1968], pp.155-157 참조)

에서, 어디에서든 젊은 여성의 신앙과 순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 보호하기 위해 긴밀한 조직망을 시작한 많은 199
여성의 헌신적인 사랑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세계 모든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젊은 여성의 보호 단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젊은 여성들을 다음과 같이 돌보았습니다. ㄱ) 안전한 여행, ㄴ) 쉼터, ㄷ) 직업 알선, ㄹ) 보증인 역할, ㅁ) 실질적인 교육 과정, ㅂ) 대출, ㅅ) 백인 여성 인신매매 반대 투쟁, ㅇ) 사회 복귀(이탈리아 전국 위원회의 본부: Via consolata, 1 - Torino). 이러한 단체와 연결되어 그 단체의 긴밀한 지도를 받는 ‘기차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항구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항구와 주요 기차역에서 젊은 여성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심 깊은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추천도서: 「젊은 여성의 보호 La protezione della giovane」, Bettazzi, 0,50리라, 국민사회활동 Azione sociale popolare - Torino - Via Legnano, 23)

많은 젊은이에게 적합하고 정당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찾아주는 ‘직업 알선 단체’도 있습니다.

[이주자들을 위한 원조]

또한 젊은 여성들의 보호단체 본부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해외 이탈리아 여성의 보호를 위한 단체’도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앞의 것과 유사합니다. 오히려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 특별히 이탈리아 출신 이 200
민 여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주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피서객 보호, 휴양지 또는 호텔 종사, 벼농사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자취집, 저렴한 가격의 식당, 하숙집’이 있습니다. 수녀들과 정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므로 젊은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위생과 윤리적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회사 책임자들이 직접 수녀들을 초빙하여 그런 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고, 다른 공장에 다니는 여직공들도 머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시작한 다음과 같은 시도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민을 가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이민 대신에 일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기 위해 작업실, 사회 시설, 개인 시설,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추천도서: 「토리노의 여성 가톨릭 사회단체Un'opera cattolica sociale femminile in Torino」; 위로자 성모님의 작업실Laboratorio della Consolata - 0.50리라, 국민 사회 활동Azione sociale popolare - Via Legnano 23, Torino) 이런 시도는 젊은 여성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201 외에도 | 그들은 공부를 하고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 훌륭한 아내가 되는 준비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가 더 좋은 가사도우미나 여성 근로자 자리를 찾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현상과, 외국으로 건너가는 이민 현상을 막는 일은 여성도 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서클, 마리아의 딸회, 전문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 이미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에 빠진 불행한 소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녀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가톨릭 신자로 자처하는 부모들까지 착각에 빠집니다! 도시에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

까, 아니면 외국에서 더 벌 수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일한다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씹씹이도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참금은 없지만, 집안 살림을 잘 할 줄 아는 여성을, 이민을 가서 지참금으로 수천 리라를 가지고 왔지만 집안 살림을 배우지 못한 여성보다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이민을 가서 건강을 잃고, 그리스도인다운 감수성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집안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닙니까?

케랑플레-케르네츠Keranflech-Kernezne 백작 부인³⁹은 이 주제

3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Keranflech-Kernezne’로 되어있다. 1886년경 프랑스에서 “청년 가톨릭 연맹Associazione cattolica della gioventù”이 창설되었다. 그 첫 번째 회보에서 이 단체의 의도를 밝혔는데, 좋은 뜻을 가진 프랑스의 모든 청년이 단합하여, 그리스도교 사회 질서 재확립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법은 오직 세 단어로 요약되었다. ‘신앙, 연구, 행동’. 연맹은 교황 레오 13세의 지침(Carpineto Romano 1810 - 로마 1903년)을 받아들였고, 특히 앙리 바리르(Henri Barire)의 지도와 장 레롤르(Lerolle)의 지도 아래 사회활동 분야에 주력했다. 이러한 대중적 민주적인 방향 제시는 「사제적 열의…」이 출간되기 전까지 중요한 사회적 주제들로 많은 대회에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1891년 대회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지식과 심화를 주제로 삼았으며, 앙제(Angers)에서 개최한 1908년 대회에서는 농업에 대해, 1912년 리옹 대회에서는 남녀 젊은이들의 전문조직을 다루었다. 이런 맥락에서 토리노를 방문한 백작 부인의 강연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시몬느 드 보봐셀(Simone de Boiboissel)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케랑플레-케르네츠 백작 부인은 자신의 강연 원고를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대화Causeries et conseils aux mères de famille」(R. Prud'homme, Saint-Brieuc 1911)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최근에 출간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백작 부인은 이 소책자와 동일한 내용을 1925년에 손질하여 간추린 모음집 「시골 아낙네의 3주일. 교육에 관한 대화Trois semaines rurales féminines. Causeries sur l'éducation」라는 제목으로 같은 프랑스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백작 부인이 주로 다룬 주제는, 1927년 16페이지로 인쇄된 강연 프린트물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관리, 가정 교육학, 사회 위생보조 교육에 대한 것이다”l'enseignement ménager, la pédagogie familiale, l'assistance hygiénique

에 관해 아주 실제적인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전체를 다 옮겨야 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백작 부인은 자수에 레이스를 다는 방법과 특히 합리적인 양계, 채소, 과수 재배를 특별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골이 안성맞춤이므로 시골을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곧 ‘노동조합’이나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다른 제조업이나 상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주를 막기 위해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실질적 위험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더 많은 곳에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가 오히려 조국에서 훨씬 행복한 조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민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불행한 결과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여성들은 도시와 그 중심지에 이민자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이 갈 나라의 언어와 생활환경, 위험, 노동계약, 절약 방법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명단을 가능한 한 “젊은 여성의 보호협회 Società di protezione della giovane”, “해외 여성 보호를 위한 협회 Società per la tutela della donna all'estero”, “보노멜리 활동 Opera Bonomelli”, “스칼라브리니 활동 Opera Scalabrini”⁴⁰ 등에 전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민자는 후견인을 갖게 되어 사악한 투기꾼들

sociale, comme bases de l'instruction de jeunes filles.” 백작 부인은 농사를 지으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골 젊은 여성의 사회적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40. 조반니 바티스타 스칼라브리니(Giovanni Battista Scalabrini)는 1839년 7월 8일 피노 모라스코(Fino Morasco)의 코모 주(Como 州)에서 출생하여 1905년 6월 1일 피아첸차에서 선종했다.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후 신학교에 들어가 그곳에서 동료인 루이지 구아넬라(Luigi Guanello)를 만났다. 1863년 5월 30일 코모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신학교 교수로, 그후 학장으로 1870년까지 신학교에 머물렀다. 로베레(Lovere)의 본당신부였던 제레미아 보노멜리(Geremia Bonomelli) 신부를 피정 강사로 초대했던 그는 후에 보노멜리 신부와 더불어 강력한 사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추천도서들을 보십시오.

1. 「유배 중인 이탈리아인들 *Italiani in esilio*」- Mondini(몬디니 출판사)
2. 「이민 일반론 *Emigrazione in genere*」- Pasteris(파스테리스 출판사)
3. 「이탈리아 여성 근로자 이민 *Emigrazione operaia italiana*」- Pasteris(파스테리스 출판사)

이 책들은 0.5리라이며, “국민 사회 활동 *Azione sociale popolare*”(토리노 - Via Legnano 23)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이탈리아인 이민자 안내서 *Guida dell'emigrante italiano*」(0.25리라, 203 Tipografia del Resegone - Lecco)
5. 「행운의 열쇠 *Chiave della fortuna*」(0.7리라, Libreria Salesiana - Corso Regina Margherita - 토리노)

제5조: 경제적 특징을 띠는 단체

전문직 종사자 연합 *Unioni professionali*⁴¹

이 단체가 수행할 또 하나의 과제는 여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

41. 「사제적 열의…」 40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회주의적 ‘노동자 조합’(「사제적 열의…」 155 참조)에 대해 혐오감을 보였지만, ‘협력’의 중요성, ‘조합원들의 중요성, ‘전문직 종사자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동조했다.(「사제적 열의…」 202-203 참조) 사회주의 성격이 우세한(노동의회, 노동연맹, 전국 토지노동자 연맹) 이탈리아 노동조합 조직의 복합적인 세계는 1906년에 밀라노에서 창설된 노동총연맹(「사제적 열의…」 33에 나오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부정적인 견해 참조)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연합했다. 노동총연맹은 “어떠한 정치적 구분보다 훨씬 상위에, 프롤레타리아 계층, 산업계층과 농민계층 운동의 절대적이고 전체적인 지침”을 합법적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CGL의 주류는 개혁사회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었다.(이들의 총서기는 1907년부터 1918년까지 R, Rigola였다.)

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운영되기에 흔히 생각하듯 투쟁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만 가톨릭 신자들이 하지 않으면 과격분자들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할 것입니다. 여성 전문직이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조직이 생겨날 것입니다.⁴² 곧 ‘전화교환원’, ‘우편집배원’, ‘벼 재배 여성들’, ‘자수 놓는 여성들’, ‘재단사들’, ‘재봉사들’, ‘방직공들’, ‘간호사들’, ‘가사도우미들’, ‘철도직원들’, ‘호텔종사자들’, ‘점원들’ 등. 이 단체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유롭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장하며, 회원들을 윤리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탈리아 방직조합’, ‘편물직공조합’, ‘간호사조합’, ‘재봉사연맹’ 등입니다. 국민연합 본부(파도바)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4 이 단체의 지사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 단체들을 ‘전문학교’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사학원’, ‘요리학원’, ‘양재학원’이 그러할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이 뜻하실 때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항상 힘써야 할 사항은 야간작업 철폐, 주간휴일 보장, 시설물과 공장의 위생관리, 야간 교육과정, 신용조합, 협동조합 등입니다.

다음 서적을 참고하십시오.

「벨기에 중산층의 전문조직 *L'organizzazione professionale della piccola borghesia nel Belgio*」(De Clerc, Azione sociale popolare, 토리노 - Via Legnano, 23)

42. Bolo, 「여성과 성직자 *La donna e il clero*」, 상동, pp.224 이하 참조.

사회 원조

이러한 명분을 지닌 일련의 단체들은 여성 근로자의 존엄성과 계몽으로 절약과 협동을 하도록 여성 교육을 목표로 삼습니다. 대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노령 연금을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 *Cassa nazionale di previdenza per le pensioni d'invalidità e vecchiaia*: 매년 6리라를 지불하며, 최고 237리라부터 최소 74리라까지 받는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기업에 속합니다.

혼수기금 *Casse dotali*: 세쉴루 디 피티비에르 *Sécheroux di Pithiviers*⁴³ 아빠스에 의해 도입된 형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 젊은 여성들은 205 12세부터 가입이 허락되었고, 매년 5리라부터 60리라까지 적립합니다. 받게 될 혼수기금은 적립한 액수에 비례할 뿐 아니라, 젊은 여성 자신들도 포함되는 후원자들의 기부금도 보태집니다. 몇 천 리라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 단체입니다.

43.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Lècheroux di Pithiviers’로 되어있다. 레옹 세쉴루 아빠스(abbé Léon Sécheroux)는 8절지판 31쪽짜리 소책자를 출간했다. 「혼수기금 *Une casse dotale*」, Imprimerie moderne, Pithiviers 1904. 이 글은 1904년 7월 16일자 *Quinzaine*에 발표되었다. 몇 년 뒤(1906년에), 피티비에르(파리 남부에 있는 도시, 화가 보쟁 루뱅 *Baugin Lubin* <1612/13년-1663년>과 수학자 시메옹 드니 푸아송 *Siméon Denis Poisson* <1781년-1840년>의 출생지로 유명함)에서 출생한 이 사제는 내용을 수정하여 이번에는 16절지판으로 Reims(rue de Venise, 48)에서 출판했는데, 사회적 성격의 계간지 「민중 활동 *L'Action populaire*」 104호에 짧은 참고문헌 목록을 게재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혼수기금에 관한 내용을 썼는데 어떤 출판본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구명하기 어렵다. 하여간 당대의 교회 안에서 여성에 관한 그의 작품이 주의 깊게 다루어졌고, 피에몬테 주와 이탈리아의 국경을 넘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 경탄할 만한 일이다.

출산기금Casse di maternità: 여성 노동자들이 산모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장과 가내공장에서 일하는 15세⁴⁴에서 50세 사이의 여성 노동자는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내는 액수(15세부터 20세까지는 1리라씩, 20세부터 50세는 2리라씩)에서 받은 공장이 부담하고, 받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6개월이 지나 출산할 경우, 4주 출산휴가비로 40리라를 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학생들의 상호기금Mutualità scolastica: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호원조와 저축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일부는 공동기금 마련에 사용되는데, 학생이 병에 걸렸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기금은 학생의 개인통장에 적립됩니다.

젊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국립 상호원조와 후원회Società nazionale di patronato e di mutuo soccorso per le giovani operaie: 이 후원회의 목적은 윤리적인 도움과 지지 외에, |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직한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후원 기금과 회원들이 불입하는 상호원조기금입니다. 본부는 단체의 일반 경비를 위해 비축해둔 고유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 단체가 ‘지역 상호원조를 통한 이탈리아 윤리 및 경제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법단체가 문제를 더 어렵게

4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5세’라고 되어있다.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역 모임으로 국한시킨다면 쉽게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지역적인 ‘여성노동자 기금’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활동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여성들이 시도하여 성공을 거둔 몇 가지 기획이 있습니다. ‘저임대주택case popolari’은 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노동자들의 정원과 텃밭giardini e gli orti operai’에서 노동자는 휴식을 취하고 건강에 도움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소비자 연맹Leghe dei consumatori: 한 여성이 처음으로 설립한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구매행위는 단지 경제적인 활동만 아니라, 사회 활동의 실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 아니라, | 현대사회의 **207** ‘광고’⁴⁵에 숨긴 많은 속임수를 밝혀내고, 공정거래를 이루어냅니다. “노동연맹le leghe di lavoro”, “제조협력le cooperative di produzione”,

45. 1800년에서 1900년대 사이에, ‘핑크 필Pillole Pink’(역주: ‘핑크 빛 알약’, 곧 일종의 건강보조제)이 등장하여 광고가 시작되었다. “다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밤샘으로 인해 정신이 지쳐있고, 육신은 생기가 사라진 고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였다. 그러나 이 ‘핑크 필’이 섹스 과용자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미모’에 사용되었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여성인가? 아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은 건강미와 생기가 넘치는 여성이다.” “그 여성은 분명히 강력한 혈액 재생과 신경 강장제인 ‘핑크 필’을 복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선전 문구는 모자를 썼거나 모자 없이 모여 있는 꽃다운 소녀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오른 쪽에는 나이든 신사가 있는데, 아마도 그는 의사이거나, 그 약의 정력 기능을 보여주는 고객일 것이다. 다른 약들도 있는데, ‘동양의 필Pillules Orientales’(“한 병에 9리라 무료 배송. 주문은 Lega italiana, via Fra Domenico 9, 피렌체로 하시오)”과 “여신(女神)의 유방”, “예쁘고 단단한 유방을 ‘이틀’ 안으로 만들어줍니다.”라고 선전하는 ‘Crema Circassa’도 있었다.

“사회화 공장le fabbriche sociali” 등과 서로 연대하여 일합니다.

자선단체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자선단체로 일반 자선단체와 아주 다릅니다. 전자는 가난한 사람 안에서 형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나라, 곧 영혼을 목표로 삼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이교적인 목적을 가진 거짓 자선단체입니다. 빛의 천사 옷을 입은 어둠의 천사이고, 양심을 파는 대신 빵조각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의 적으로 선포된 프리메이슨은 ‘몇 가지’ 자선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드러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매일의 큰 사건에 비하면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두 가지 자선사업 단체가 발표되었습니다. 첫째는 프리메이슨 자선단체였는데, 국내의 모든 고아를 수용할 목적으로 시작한 파리의 프리메이슨 고아원이 50년 동안 319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했다는 것을 특별한 일인 것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208 두 번째는 가톨릭 자선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 나중에 공화국 정부에서 축출된 여러 수도회가 1900년도에 아래와 같은 인원을 수용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 6만 명의 고아들
2. 21만 명의 병자와 노인들
3. 1만2천 명의 비행소녀들
4. 6만 명의 시각장애인들 또는 비행소년들
5. 25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

프랑스에서 같은 활동을 벌이던 프리메이슨이 질투 때문에 그러한 수도회들을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선사업 분야는 세상만큼이나 넓고 방대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불행한 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 중 대다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실천 규칙이 있습니다. ‘도움받는 데 수치심을 느끼는’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길에서 구걸하는 걸인들보다 더 동정을 받아야 하는 아주 궁핍한 상태에 처한 불행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빈곤구조 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자선을 베푸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신심 깊은 사람은 익명으로 사랑의 희사를 하고 있어 좋은 귀감이 되어줍니다. 가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가능한 한 ‘견고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 해체는 사회악이므로 가능한 한 이를 피해야 합니다. | 만일 어머니를 충분히 도와준 **209**다면, 어린이를 입양아로⁴⁶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활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되면 곧바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양식을 주기보다는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년 새로운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46. 유모 역할을 해주는데, 급여와 기간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유아원과 방과 후Asili e Dopo-scuola: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교육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유아원이 '보완해 줘야 합니다.' 유아원은 거의 하루 종일 어린이를 돌보아줍니다. 또한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주의 깊게 돌보아주며 학교 과제물을 도와주고 표양과 조언을 통해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합니다.

보육원(고아원Ospizi orfanotrofi): 이곳은 부모들의 의무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약자 시설Ricoveri dei vecchi e degli inabili: 사람들의 신앙심이 약할수록 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악습을 배가시키고, 악
210 을 증가시킵니다. | 종교적 감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가족의 해체가 더 쉬워집니다. 가족의 해체는 노인들과 일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더욱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병원, 요양원, 휴양소Ospedali, case-salute, sanatori: 이곳들은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피신처입니다. 하느님은 때때로 회개나 성화를 위해 인간을 시험하시고, 가끔 당신 정의의 별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서 여성은 얼마나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작거나 큰 자선활동은 여성에 의해 시작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부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마음과 자유 시

간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방문하여 웃음을 선사하고, 신앙과 희망의 빛을 전하며, 가능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도와줍니다: 보육원에서, 특히 여아를 위한 보육원에서 여성이 실천할 수 없는 선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와 사제의 지고한 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들의 형제요 자매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잃어버린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조언해 주고, 훈육해야 합니다. | 노인 수용자들과 병원 입원 환자들을 돌볼 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사고로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어 나가거나 그곳에서 죽은 후에 나가거나, 반드시 하느님과 화해한 후에 나가야 합니다. 병원은 하나의 연옥이요, 병원은 하느님 자비의 성전입니다. 211

그러므로 '절망적인'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봉사하는 사람이건 운영하는 사람이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항상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야 하고, 온전히 하느님 뜻에 맡기도록 용기를 북돋워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도움이 함께 할 때 영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논리는 이성의 논리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병자들을 위한 주간 및 야간 원조 단체

병자들의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히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조직은 아주 단순합니다. 병자들의 필요를 알고, 각자에게 적절한 봉사를 교대로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 위한 회원들 사이의 우호적인 동의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체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적

212 절한 규칙을 문서화하고, 회장을 선출하고 | (본당신부나 다른 사제를 대신하는 대표자), 공식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과부들, 책임을 맡은 것이 없어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성들, 나이 많은 독신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 상황과 회원의 자질, 회원수에 따라서 가난한 병자들을 금전으로 도와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본당신부에게 종교적 도움을 주도록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가난한 병자와 버림받은 사람이 많지만 병원이거나 자선단체도 없고, 무관심과 악의나 무지로 인해 성사를 받지 못한 채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사람이 많은 마을에 꼭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⁴⁷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이 단체를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인들은 자신을 낮추어 병자들의 상처에 입을 맞추면서 이를 예수

47. 마태 25,40,45.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널리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입니다. 은혜를 입은 가정들은 좋은 기억을 간직할 것이고,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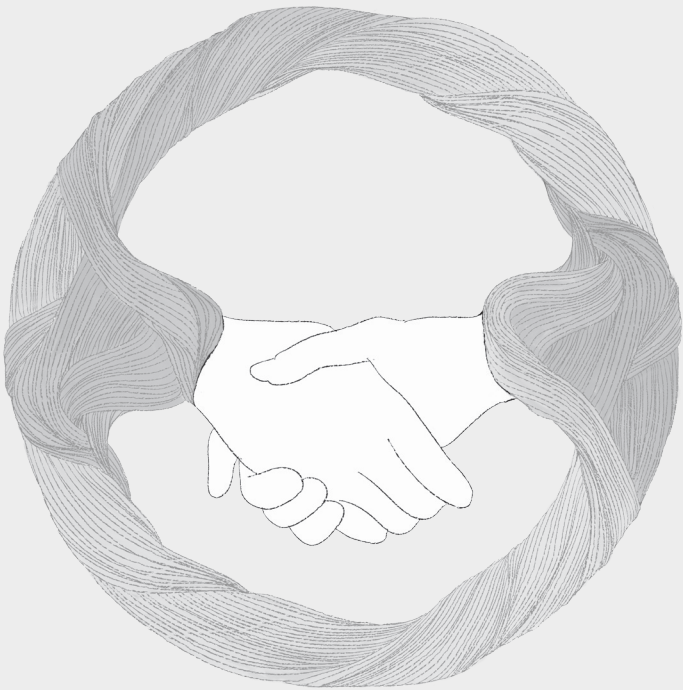
오자남Ozanam이 그의 동료와 함께 시작한 이 단체는 앞에서 말한 자선단체와 매우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곧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병자들의 도움과 간호뿐 아니라,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방문과 도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큰 도시로 퍼져나간 단체는 세 가지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방문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 윤리적 도움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라는 위로를 받게 해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자 자신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곧 인생의 비참한 상황과 현실을 접함으로써, 젊은 시절에 쉽게 겪게 되는 위험한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익한 점은 사회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학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 귀족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를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일이 실현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다릅니다. 회원들이 공동기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 또 자주 희생정신이 요구되고 신앙이 부족한 이들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 수는 **214**

더욱 늘고 있습니다. 1911년 통계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만 단체 수가 420개에 이르고, 사용된 기금은 1600만 리라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많은 선행은 드러나지 않게 실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제는 자신의 사명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도해야 하는가



머리말

이 장후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데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의무 수행을 위해 사제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한 고찰을 먼저 다룰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사제의 의무와 본당신부에게 유보된 의무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곧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성과 열의, 사명과 그 실행을 위한 양성을 다룰 것입니다.

이토록 방대한 주제를 작은 지면에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서적 중 몇 권을 읽도록 권고합니다. | '사목 실천을 위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 안에서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리바롤로Rivarolo, 「본당 운영*Governo della parrocchia*」
 2. 프라씨네티Frassinetti, 「초임 본당신부*Parroco novello*」
 3. 모닝Monnin A. s. j., 「아르스의 본당신부*Il Curato d'Ars*」¹
- 다음 작품들은 모든 시대의 활동에 요청되는 필요성을 다룹니다.
4. 피노Fino, 「자선단체의 실천 지침서*Guida pratica del beneficiato*」
 5. 르세트르Lesêtre, 「본당*La paroisse*」
 6. 데세르Désers, 「사제와 사목 직무*Le prêtre et le ministère paroissial*」
 7. 스보보다Swoboda, 「대도시에서 사람들을 돌봄*La cura d'anime*」

1. 복자 세레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생애, 만나 크리파(E. Manna Crippa) 백작부인 번역, 시복과 기적에 대한 교령의 수정과 교정. 출판허가, 토리노, 1901년 1월 23일 참조.

nelle grandi città」²

8. 레테Retté, 「아르스의 빛 안에서*Nella luce d'Ars*」

9. 이브 르 퀘르데 Yves le Querdec, 「도시 본당신부의 편지*Lettere d'un parroco di città*」

10. 이브 르 퀘르데 Yves le Querdec, 「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편지*Lettere d'un parroco di campagna*」³

이 작품들은 특히 이 시대의 필요성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 이 작품은 「사목신학 개요*Appunti di teologia pastorale*」를 위한 기초 교재 중의 하나이다. 「사제적 열의…」 284 각주 7을 보라.

3. 교황 레오 13세의 이름으로 추기경 람폴라(Rampolla)가 저자에게 보내는 서한을 첨부한, T.F.의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이탈리아 번역본.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작품, 피렌체, Ufficio della Rassegna nazionale, Via della pace 2, 1895, Tipografia minorenni corrigendi, 1894년에 출간되어 프랑스에서 여러 번 재판되었다.

제1장 사건과 원인

사건을 관찰하고,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탁월한 추론 방식입니다. 악에 대해 숙고하고, 구제책을 위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 사회학자, 고행자, 교사 등의 현명한 활동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건은 실제 일어난 것이지만, 다행히 몇 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건은 결코 적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개탄스러운 악은 대부분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의 악한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오늘날 열의를 가진 모든 성직자가 걱정하는 바는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는 일입니다. 사목활동에서 듣기 싫은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잘 하자는 친구의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 이탈리아와 특히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 많은 본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본당신부와 보좌신부들이 신심 깊은 영혼, 피정 지도, 구호소, 병원, 영성이 뛰어난 여성들 몇몇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들은 본당신부를 고해소에 긴 시간 붙잡아두고, 사소한 일과 잡담을 늘어놓기 위한 잦은 방문, 많은 행사를 빙자하여 잘 차린 식탁에 초대하곤 합니다. 그런 것에 심취한 본당신부들은 저녁이 되면 자아도

취에 빠져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 본당에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 휴식시간을 가질 만해!’ 그러나 이런 일들 앞에서 어느 성인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간을 낭비했구나 in nigilo agendo occupatissimi!’¹⁾ 시간을 낭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해소에서 보낸 그 긴 시간도 헛된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 그런 데 많은 사람을 위한 염려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신심 깊은 영혼들은 백 명에 불과하지만, 본당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었으니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본당신부에 대한 찬사가 뜨거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대개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미사 중에 어느 사제는 신경(信經)을 바치고, 다른 사제는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소문을 냈습니다 ... 신경을 바치는 훌륭한 본당신부는 하루에 평균 4시간씩 고해소에서 보낸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마침 제가 그 본당에서 몇 주를 지내게 되었기에 그 소문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본당신부가 고해소에서 4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 4시간 동안 고해자는 겨우 12명이었고, 대개가 독신녀들, 수녀, 노인들 등 아주 신심 깊은 영혼들이었습니다 ...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70여 명 정도였고, 8일마다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본당 신자는 4천 명가량이었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1.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런데 신앙교육 시간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2백 명쯤 참석했습니다. 의무축일에도 영성체하는 이들의 숫자는 변동이 없고, 1천 2백 명 이상의 어른이 부활축일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219 에도 그 본당신부는 1 일 년 동안 분배한 성체를 계산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당신부로 부임한 이래 영성체한 사람의 숫자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보니, 본당 신자의 영적 수준이 향상된 것이 분명합니다.’ … 사실은 매일 미사에서 영성체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연간 합계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부활절 의무를 소홀히 하던 신자가 5백 명에서 1천2백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예: 1만2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 본당이 4개 있고, 본당에는 주임신부, 보좌신부, 상주하는 사제, 형제회 *confraternita*² 담당 사제, 원장(*abati di casa* 역주: 사제 공동체의 원장. 오늘날 우리 교회 실정과는 많이 다름) 등 총 34명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 이렇게 많은 사제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무엇인가 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주 빈약했습니다. 사소한 언쟁, 쓸데없는 잡담, 편협한 경쟁! 알맹이 없는 열의는 2백 명 내지 3백 명의 여성을 ‘붙잡아 두는 것’으로 축소되어버리고, 조잡한 수단을 강구하며, 어리석은 짓거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성당에서 5월 성모성월에 대해 교육이 시작되면, 다른 성당에서는 자신들의 적은 숫자의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훨씬 더 장엄하게 성모성월을 보낼 계획을 찾는 식이었습니다. 이 본당

2. ‘형제회’는 평신도 중심의 협력단체로서, 교회법에 의해 한 명의 원장이 통솔한다. 이 단체는 이웃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선행 또는 신심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삶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제회와 동급의 단체로 신심 통합회(또는 동료회 또는 협회)가 있다.

에서 성체조배를 시작하고, 저 본당에서 선종을 위한 피정을 시작하면, 다른 본당에서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그 옆의 본당에서는 같은 시간에 제3회원들을 위한 예식을 진행합니다 … 그 도시의 본당들을 몇주간 돌아본다면, 1 여러분은 위에서 말

220 한 2백 명 또는 3백 명의 신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 본당에서 저 본당으로 몰려다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간혹 이 ‘특권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누군가가 보태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말하지 마시다. 속죄하는 사람들의 수를 부풀리다니!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 거기에는 2백5십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종교교육을 하는 주일학교도 없었습니다. 방직공과 재봉사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신앙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개의 작은 공장에서 3백 명의 노동자들은 과격파 집단에 가입하고, 악습에 빠지고, 무종교주의자가 되는 상태에 놓입니다 … 이 사제들 중 어떤 이들은 의사와 변호사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익을 찾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수와 관련을 맺는 사제는 문화예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본당신부와 안면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신부는 사람들과 깊이 사귄 필요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 3천 명의 신자를 둔 어느 본당에서 3년 가량 보좌신부로 있었던 젊은 사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생활이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본당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 1 자유롭

221 게 지내지만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못하고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마을 여기 저기에서 교리교육

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로 넘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만일 우리에게 주일 오라토리오가 있었다면! 이곳에 오라토리오를 만들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 유지들도 있습니다. 본당신부가 집전하는 주일 아침 첫 미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지가 되어줄 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사에 참여하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사에 참례하는 그때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미사는 그들에게 부드럽고 강력한 말씀을 들려주고, 성직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미사를 드리고, 본당신부는 신자들 교육을 한다지만 '소수의 신심 깊은 신자들'만을 위한 것으로, 내용도 술집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신앙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것 뿐입니다. 본당신부는 소수의 여성들과 함께 무엇인가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교회의 품위를 해칠 뿐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신심이 깊다는 말을 듣고 싶어 서로가 질투하고 경쟁할 뿐 아니라, 주임신부에게 더 사랑받고 존중 받으려는 끝없는 욕망으로 서로 싸웁니다. 고해소 앞에서는 차례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는 긴 행렬을 보곤 합니다. 몇몇 여성들이

222 | 고해성사를 핑계로 영적 대화를 늘어놓는데 그 때문에 고해소는 자주 지역의 모든 소식을 듣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이런 것들을 염탐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제관은 끝없는 불평과 비난이 쏟아지곤 합니다. 단순한 불평만 아니라, 본당신부에 대한 비열한 중상모략이 여기저기로 퍼져 나갑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역 전체에 알려져 우리가 지나갈 때 젊은이들은 심술궂은 비웃음을 보내곤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본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가 신심실천, 전례예식, 영성체를 하려 하거나

사제를 존경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심각한 악의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사목적 활동에서 '대중'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 현대적 수단의 부족, 성직자들 사이의 불충분한 협력 등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저는 「사목신학 개요」³⁾에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해진 목표에 이르는 몇 가지 요인을 고찰하는 것으로 족하겠사.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인생 여정에 있어 오래 지속된 습관, 경솔함, 자애심, 너무 많은 직책이 오히려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하면서 | 모든 잘못을 사

223 람들의 무관심 또는 적대감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영적 지도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높은 덕성을 갖추도록 인도할 줄 모르고, 그들의 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를 너무 자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의욕을 잃고 사소한 일, 잡담, 감상적인 것들로 자신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는 신심, 일종의 '스포츠'처럼 여겨지는 종교가 신앙의 유산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기를! 그렇지만 주님이 '마주 대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타오르는 등불의 빛, 임종의 순간에 밝혀질 빛으로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중들의 잘못도 꾸

3. Alberione G., 「사목신학 개요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토리노, lit. Viretto, 1912; XIV, 484 p., 25cm. - 타자원고의 초판본은 복사사진으로 인쇄한 (photostatically printed) 것으로 보인다.

짓으시는데 in angelis suis reperit⁴ pravitatem (우리야) 얼마나 더 꾸짖으시겠습니까? “열렬한 신심과 연구로 훌륭한 여성사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제2 장 여성의 영적 지도에 필요한 신심

교황 비오 10세는 1912년 11월 8일, 특별 알현에서 사도좌 연합
Unione | apostolica¹ 사제 대표단을 맞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24
“수많은 걱정거리로 마음이 산만해질 때 완전한 사제생활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전념하는 일이 자신의 성화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을 오류로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²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한 수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는 그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제들이여, 여러분의 직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가 성화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독서, 영감, 표양 등의 수단을 활용하시면서 당신의 소중한 물을 나르는 운하로 사제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영적 돌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 욥기 4,18: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조차 꾸짖으시는데.”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발견reperit’이라고 되어있다.

1. 1862년 오를레앙(Orléans)의 명예 규율수도자(canonico onorario) 르비리에(Lebeurier) 몬시뇰에 의해 프랑스에 설립된 예수성심의 교구사제연합. 1880년부터 이탈리아에도 퍼져나갔다.(MM)

2. “nemo dat quod non habet”, 법률적 격언.

“남성은 지성과 육체의 강인함에서 탁월하고, 여성은 감성과 희생의 강인함에서 탁월합니다.” 사회복지공로상 수상자 선정에서 이 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파도바와 프랑스의 아카데미에서 내놓은 통계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 상이 모두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여되었습니다.

- 225** 1등상: 모리악Mauriac의 병자들의 도움 작은 수녀회Piccole Suore dell'Assistenza degli Ammalati(상금 6,000리라)
 2등상: 로쉐빌라Rochebilarde 양(상금 5,000리라)
 3등상: 가정부 마리아 베르농Bergnon
 4등상: 아르노Arnaud 양
 5등상: 농부 마리아 자퐁Jaffeux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본성상 헌신적이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앞서 나아갑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영성의 길에서 빛을 더 받아야 하고, 영적 체험이 더 풍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³

3.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요 신비적 저술가인 요한 드 예페스(Juan de Yepes)는 1542년 스페인 아빌라 근교, 폰티베로스(Fontiveros)에서 출생하여, 1591년 12월 14일 안달루시아 지방 하엔(Jaén)의 우베다(Ubeda) 수도원에서 선종했다. 가난했던 그는 예수회 학교를 다녔으며, 여전히 생계가 막막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나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1563년 21세가 되던 해 메디나(Medina)의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르멜 수도원에 만연된 수도자들의 나태함에 실망했다. 살라만카(Salamanca)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1567년 가르멜회 학생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듬해 가을에 그보다 27세 더 많은 예수의 테레사와 만났다.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성녀는 그를 자신의 사랑스러운 ‘꼬마 세네카’(역주: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 자신의 ‘절반의 남성’이라고 불렀다. 이 창립자(fundadora, 역주: 테레사 성녀를 일컬음)는 남자 가르멜수도회의 개혁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외소한 이 수사에게서 자신의 용감한 계획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협조자임을 예견했다. 성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 그를 설득했다. 개혁사업은 아빌라의 두루엘로(Duruelo)에서 1568년 11월 28일에 시작되었는데, 요한은 두 달 전부터 이미 그곳에서 지내며, 첫 번째 맨발의 가르멜 회원이 되었다. 1571년 그는 알칼라(Alcalá)에서 개혁 가르멜 회원들의 첫

성녀 테레사, 프라씨네티 신부, 성 알폰소⁴ 그리고 많은 신학자와 영적 스승들은 이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둔한 사람은 이 영적 섬세함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덕에도 크고 작음이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크고 작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것이고, 영혼은 크고 작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영광과 행복은 사제적 열정을 북돋아 주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직도 숙고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프라씨네티 신부는 모든 사제에게 매우 유익한 저서 「초임 본당신부의 실천적 지침서*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제노바 - Tipografia della gioventù - 1,50리라)에서 “여성의 고백을 듣는 것은 하느님의 교역자가 만나게 되는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암초임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해소에서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이러한 주장은 더욱 근거 있는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 신앙심은 현명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위험을 밝
 226
 혀냅니다. 신앙심은 악의 그림자까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더욱 강화되고, 강력한 보호수단이 됩니다.

신학교 학장이 되었다. 곧 ‘수도자와 학생 - 우선적으로 수도자여야 한다.’는 모토로 그가 직접 설립한 바에차(Baeza) 신학교의 학장 직무도 받아들였다.(1579년) 1572년 요한은 예수의 테레사의 소망에 따라 아빌라에 있는 강생 가르멜 수도원의 통상 고해사제가 되었다. 1577년 12월 2일까지 요한은 많은 직무를 수행했다. 그 기간은 신발의 가르멜 회원들(역주: 이른바 완화 가르멜 회원들 또는 보수파)과 맨발의 가르멜 회원들(역주: 이른바 개혁 가르멜 회원들 또는 개혁파) 사이의 가장 힘든 분쟁의 시기였다. 끝내 그는 납치되어 톨레도(Toledo)의 수도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고통을 겪어라. 그런 다음 죽어라.”는 말은 그 여두운 8개월간의 수감생활에서 요한의 모토가 되었다. 1578년 8월 17일 새벽에 그곳에서 탈출했지만 테레사는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

4. 알폰소 데 리구오리(Alfonso de'Liguori)는 변호사, 사제, 구속주회(Padri Redentoristi)의 창립자로서 1696년 9월 27일 나폴리 근교 마리아넬라(Marianella)에서 출생하여, 1787년 8월 1일 살레르노(Salerno) 근교 파가니(Pagani)에서 선종했다.

이 마지막 관점도 유익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제의 일반 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자주 이렇게 자문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히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 섭리에 의해 정해진 질서에 따라 여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는가? 섬세한 양심은 이를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중에, 특히 성무일도를 바칠 때 그리고 성체방문을 할 때 그는 주님께 자기 직무의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부탁드릴 줄 알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그는 위안을 얻을 것이요, 성공했을 때에는 겸손을 유지할 것이며, 일하는 데 항구할 것입니다. 이 직무는 설부른 열정을 자제하고, 자신을 인내로 무장하며, 겸손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바로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의 변덕스러운 마음, 수다스러운 성향, 다정다감한 성격, 순식간에 타오르고 금세 꺼져버리는 쉼불 같은 마음은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여성의 영적 지도에 필요한 면학

227

저는 여기서 일반 학문에 대해 말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훌륭한 사목에 필요한 학문, 특히 여성을 위한 훌륭한 사목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제의 면학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잘 방향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대리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¹가 아닙니까?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학자, 예술가, 정치가, 교수, 사제보다 영혼의 구원자인 사제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귀한 사명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다른 학문들을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뒤따릅니다.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무익한 것, 해로운 것, 방해되는 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고난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스펜서,² 스마일즈Smiles,³ 뫼르스터⁴는 이 진리를 발전시키고 적용하게 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정하면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무익한 것은 한편으로 밀쳐두게

1. 마태 4,19 또는 마르 1,17에 나오는 ‘어부’.
2.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는 영국의 사상가요 저술가로써 윤리와 사회 분야의 대가이다.(MM)
3. 「사제적 열의…」 60의 각주 9에서는 ‘Smilles’로 표기했다.
4. 프리드리히 크리스토프 뫼르스터(Friedrich Christoph Föster, 베를린, 1792-1868)는 역사가요 광고학자로서, 베를린에서 신학과 인류학을 수학한 후 역사를 가르쳤다.

됩니다. 식물과 꽃을 채집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르익은 곡식의 추수를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제가 중요

228 시해야 할 지식 분야는 바로 여성 지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랄 수도 없습니다. 철학을 배울 때 수없이 들은 양식良識의 원칙입니다. 특히 오늘날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사회 안에 여성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을 없애고 선을 촉진하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한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운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은 훨씬 더 잘 심화시키고, 어떤 것은 다시 상기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각 분야에서 최고 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책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윤리적 종교적 양성을 위하여

1. 「젊은 여성의 윤리적 종교적 기초양성 - 상급양성 *Première formation morale et religieuse de jeune fille - Formation supérieure*」, caduno(2권: 1,50리라, 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2. 「동정녀 *La monaca in casa*」, G. Frassinetti⁵⁾(로마 - Desclée - 0,40리라)
3. 「가족과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동정녀 *La vergine cristiana nella*

5. 프라씨네티(제노바 산타 사비나 수도회 원장)의 「동정녀」에는 두 개의 부록이 있다. 1부: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마리아의 딸회(Pia unione delle figlie di santa Maria Immacolata), 2부: 영적 우정: 성녀 테레사의 모방. 여기에 첨부된 사항으로 예수 성심을 위한 미사성제.(토리노, Tipografia della Curia arcivescovile di Giacomo Arneodo, n,5 - Via Torquato Tasso, 190012 참조)

famiglia e nella società」(로마 - Desclée - 2,50리라)

4. 「하느님을 경외하는 부부, 행운의 부부 *Sposi timorati, sposi fortunati*」, Nisten, (Libreria Buona Stampa - Corso Regina Margherita - 176 - 토리노 - 2,50리라; 16세 이상 젊은이들에게 적합함)

5. 「삶을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Sul limitare della vita*」, Erminia **229** Vescovi(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6. 「가정의 천사 *L'angelo in famiglia*」, Crosta (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7. 「기숙사를 나온 후의 삶 *La vita dopo il collegio*」

8. 「휴가 중인 젊은 딸을 위한 책 *Il libro della giovane figlia in vacanza*」

9. 「가정주부를 위한 지식 *La scienza della massaia*」

「황금 밀짚모자 *Pagliette d'oro*」(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아내의 윤리적 종교적 양성을 위하여

1. 「가정과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 아내 *La sposa cristiana nella famiglia e nella società*」(로마 - Desclée - 1,75리라)

2. 「이탈리아 여성을 위한 단순한 진리 *Semplici verità alle donne del popolo italiano*」(피렌체 - Barbera)

(각권 1,00리라)

어머니의 양성을 위하여

1.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과제 *La madre nel problema educativo*」(피렌체 - Libreria Fiorentina)

2. 「농촌에서 보내는 겨울 *Un inverno in campagna*」(어머니들의 의무에

관한 가정교육) (로마 - Desclée)

3. 「자녀교육*Educazione dei figliuoli*」, Carmagnola(Libreria Buona Stampa - 토리노 - 0.50리라).

4. 「그리스도인 모성애의 위대함*Les grandeurs de la maternité chrétienne*」 (로마 - Desclée)

5. 「교육*Educazione*」, Oldrà⁶ (Desclée - 로마)

230 여성의 사회적 양성을 위하여

1. 「여성과 성직자*La donna ed il clero*」, Bolo (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 1.50리라)

2. 「가톨릭 분야의 여성*La donna nel campo cattolico*」 (Desclée - 로마 - 0.40리라)

3. 「여성 사업들*Initiatives féminines*」, Turmann (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 3.50리라)

4. 「토리노 가톨릭 사회활동*Un'opera cattolico-sociale a Torino*」

5. 「그리스도인 여성주의*Femminismo cristiano*」

6. 「여성주의의 법률적 복권과 경제적 회복*Rivendicazioni giuridiche ed economiche del femminismo*」

7. 「여성의 그리스도교적 사회적 사업*Iniziative cristiano-sociali femminili*」

6. Oldrà A. S.J., 「교육*Educazione*」 참조. 토니올로(G. Toniolo) 교수의 서문.(3쇄, 토리노-로마, Pietro Marietti 1921) 이 책은 16회의 강연으로 세분되어 있다. - 교육의 반대자들과 목표 - 교육의 필요성과 효력 - 교육하는 것은 발전시키는 것이다 - 역제의 필요성 - 성격결함과 의지박약 - 상과 처벌 - 신체 교육 - 유년기의 정결 - 정결의 동기 - 정결의 보호 - 학교와 교사 - 교육수단인 사랑 - 본보기 - 종교·교육의 토대 - 큰 걸음- 수도원.

8. 「젊은 여성의 보호*Protezione della giovane*」

문의처: Azione sociale-popolare - Via Legnano 23 - 토리노 - 각 권 0.50리라.

9. 「휴일 오라토리오와 종교수업*Gli oratori festivi e le scuole di religione*」 (Libreria Buona Stampa - Corso Regina Margherita - 토리노)

10. 「가톨릭 활동에 대한 성직자의 과제*Compiti del clero nell'azione cattolica*」(Tipografia Sant'Alessandro - Bergamo - 1,00리라)

주의: 특히 이론 부분은 1-2번에서 볼 수 있고, 실천 부분은 3-10번에서 볼 수 있다.

여성을 지도하는 사제로 적절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몇 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식 저변에 잠재된 좋은 생각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의 여성운동을 231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발견한 새로운 수단을 소홀히 하지 말고, 반대자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전개해 나갈 내용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지역활동, 본당활동, 교구활동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국적인 운동, 더 나아가 국제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제는 여성활동에 대한 많은 정기간행물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정기간행물을 소개하면서, 신문과 인간의 제도는 오늘은 좋은 것이지만 내일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마텔다*Matelda*」 - 미혼 여성을 위한 격주간지(피렌체 - Via Pucci 2 - 2.50리라)

「여성활동*Azione muliebre*」 - 월간 교양지(밀라노 - Via Carlo Farini - 8리라)

「여성과 노동*La donna e il lavoro*」- 그리스도인 여성 노동자를 위한 주간지(비첸차 - Via Carpagnon 13 - 2,50리라)

「사회 주간*La settimana sociale*」- 국민 연합Unione popolare 감수(파도바 - 2,50리라)

「여성생활*Vita femminile*」- 젊은 여성을 위한 주간지(Via Marsala, 8 - 볼로냐)

또한 책만 아니라 경험에서 얻는 공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은 듣고 읽는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아주 **232** 강력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눈은 분명히 외부 대상을 관찰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관찰하고 성찰합시다: 우리 앞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여는 여성에 관하여. 우리 말이 여성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해소에서,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에서 주는 지침의 결과에 관하여.

관찰하고 성찰합시다: 신중함과 선함에서 나온 질문은 겸손한 이들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과 고통, 상처와 열망, 필요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성찰합시다. 그들은 진행중인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까지도 우리에게 말할 것이고, 다른 곳에서 한창 꽃을 피우거나 쇠퇴해가는 활동, 열성적인 형제들이 시작하고 이끄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4 장 열의와 신중함

“신중함이 게으른 자들의 통상적인 변명이 되어버렸고, 경솔한 자들은 열의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의 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 사람은 아직 젊는데 … 그의 열정은 식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솔한 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가늠하거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충분히 검토하기도 전에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하고 기도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그런 다음 결심을 굳히고 온 힘을 기울여, 마치 **233**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중하고, 젊은이는 힘이 넘칩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기적을 일구어 내겠지만 분열하면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고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점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 위험을 두려워할 것: 여성은 영적 과멸을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아담은 뛰어난 지성과 완전함을 부여받

있음에도 하와의 땀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다윗, 삼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해로운 압초에 부딪혀 좌초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레바논의 삼목들이 쓰러지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며, 암브로시오와 예로니모와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신증해야 합니다. 세상은 부패에 빠져든 사제들의 삶에서 늘 이러한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고 또 작가들이 잘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해소에서 필요한 신증함: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고해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하는 동안 고해사제에게 아주 진지하고 거룩한 애정을 드러내며 죄를 고합니다. 처음부터 사제에게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쏟아냅니다. ... 사제는 여느 사람보다 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따라

234 이끌려가도록 놓아둔다면 재앙에 빠집니다! | 주님은 마음 위에 머리를 두셨습니다. 결코 고해소에서 너무 길게 훈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제6계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도 가장 저속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 사제는 수덕에 관한 책과 윤리신학과 사목신학서에서 그러한 고백자의 말을 간추려 듣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가경자 카파소³ 신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론상

1. '대다수(Della maggioranza)'의 사람들.

2. 주세페 카파소(Giuseppe Cafasso)는 1811년 1월 15일 돈 보스코의 고향 카스텔 누오보 다스티(Castelnuovo d'Asti)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에서 엄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 주세페는 골연화증(척추장애)으로 신체가 변형될 정도로 허약한 신체조건을 지녔지만, 그만큼 끈기와 의지력도 강했다. 키

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고해성사를 포기하는 편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유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엄격주의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생활과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증함: 봉사자들, 친척들, 수녀들, 본당신자들 사이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관계는 애덕이라는 베일로 '너무 잦은, 밀접한' 관계와 소통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특정한 활동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것은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작은 선이라 여겨지는 것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사제가 아직 미숙한 사람에게 음악 개인교습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가 지나쳐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엄격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 더 낫습니다. | 비록 아주 작은 잘못 **235**이라도 자신을 성찰할 때 비난받을 위협 요소를 막고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제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는다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곧바로 찾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2. 여성의 영적 지도는 나이 지긋한 사제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함

에리(Chieri) 공립학교(「사제적 열의...」 39의 각주 17)를 나와 같은 도시의 신학교에서 수학, 1833년 9월 22일 토리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는 이상적인 사제상을 열망하였지만 교구 사제에게 공통된 영성 외에, 특별한 영성과 사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교구를 떠나 수도회를 창립하지도 않았다. 학술적 논문이나 수덕신학 작품도 저술하지 않았지만, 사제적 사명을 평범하고 참되고 심오하게 살았다.(역주: 1947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시성되어 1948년 4월 9일 이탈리아 죄수들의 주보성인으로, 1950년 9월 23일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의 귀감으로 선포되었다.)

니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두 번째 예가 떠오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³ 불필요한 이의제기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해소에서 사제는 고백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훌륭한 윤리학자들이 세운 규칙입니다. 젊은 사제들은 그들의 신심을 통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심만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엄격한 규칙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딸회, 그리스도인 어머니회, 젊은 여성들을 위한 노래교실은 우선적으로 나이 많은 보좌신부, 가능하면 주임신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직무를 맡게 되는 누구라도 적절한 시기에 동료 사제 중에서 충고와 교정을 해주는 진실한 친구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친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느님께 기도로 청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친구를 찾아 얻는 사람은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⁵ 다음 사항도 유념해야 합니다. 여성은 질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애하지 말고 신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는 방문을 하지 말고, 세상의 시각으로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해소, 노래교실 등에서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밀함과 신뢰도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여성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성들 앞에서 여성들을 지나치게 칭찬하지 말아야 하고, 직

3. cæteris paribus.

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Ma nessuno, tacierà’라고 되어있다.

5. 집회 6,14 참조. (*역주: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로 많은 질투와 상처를 입는 남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때때로 모든 신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⁶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하신 주님의 당부를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⁷

3. 신심 깊은 이들과 신심을 무시하지 말 것: 신심 깊은 이들에게서 더 많은 결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심 자체는 거룩한 것일지라도 연약한 영혼 안에서 변질될 수 있고, 또 과도할 때 아주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신 주님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편협한 부분은 인내로운 활동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거나 자주 그릇된 신심을 지적하여 설교하는 것은 신심 깊은 영혼들을 괴롭힐 뿐, 회개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237**

사제가 본당에 부임해서 신심이 과장되고 충분히 견고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⁸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지 지혜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신심 강화는 대부분 성공할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신심이 있다면 조금씩 사라지게 하면서, 그 곁에 좋은 영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신심이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심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수다스럽고, 너무 감상적이며, 허

6. 참조: 마태 24,42; 25,13; 26,38; 26,41 병행구절: “Vegliate”.

7. 참조: 마태 26,41; 마르 14,38 ; 13,33: “...et orate, ut non intretis in tentationem.”

8. ‘Distruggerle’.

영심이 강하고, 약간 과장된 결점,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이들 가운데에서 심각한 결점과 악습이 보여도 이를 허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이들에게 있는 아주 가벼운 잘못은 왜 그렇게 견디지 못합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제나 본당이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봉사를 받으니까! 그들이 바로 성가대를 유지하고, 본당 내 단체를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중심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거룩한 영성체를 통해 주님의 마음에서 많은 은총을 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주 우리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주는

238 데, 그 도움이야말로 선한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그들을 소외시키는 대신, 열의가 필요한 활동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최상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관찰하고, 그러한 점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여성은 어떤 상황에 있든 열의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활동 전에 결과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 것: 모든 일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모든 일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에게 노력하고, 재도전하고, 인내롭게 시도해보는 가운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경자 돈 보스코(역주: 1907년 가경자로 선포, 1929년 시복, 1934년 시성), 가경자 코톨렌고(역주: 1934년 시성),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가 먼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조언을 구했고, 생각했습니

다. 그들은 먼저 자기네 힘을 가늠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물⁹을 던지기에 적절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므로 결코 자기 힘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도중에 중단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 고된 시련을 감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사람도 잘못을 범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코넬 O'Connell¹⁰은 영국인들의 비천한 노예였지만 아일랜드를 해방시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지만, 마침내 해방을 실현했습니다! 가끔 승리의 결과를 맛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 그레고리오 7세¹¹에게 일어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 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확신을 늘 지닐 수 있었을 것이며, 후손들은 고통 중에 뿌린 씨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239

9. 루카 5,4-6 참조.

10. 민족주의자로서, 1775년 8월 6일 (아일랜드) 카헨(Carhen)에서 출생하여 1847년 5월 15일 제노바에서 선종했다.(역주: 변호사, 아일랜드 민족운동 지도자)

11. 베네딕토 수도회의 회원인 교황(1073-1085년 재위)은 뛰어난 식별력으로 그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 알았다. 성직매매를 폐지했고, 성직자들의 내연관계와 싸우며, 교황권의 명예를 드높였다. 카노사의 마틸다(역주: 토스카나 가문의 공작부인)가 교황을 카노사로 초대했고, 독일의 하인리히 4세가 항복의 표시로 그곳으로 왔다.(역주: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오 7세는 박해 후에 (역주: 하인리히 4세를 용서하였지만 복수를 당했고, 노르만족을 동원하여 황제의 공격을 막았다는 이유로 로마인들에 의해 교회에서 추방됨) 몬테카시노로 은퇴한 후 살레르노에서 선종했다.

제5장 노동 지침의 원칙

모든 노동이 모두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원칙과 목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노동만이 그러한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고찰함으로써 다른 사항이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여성 지도에 대한 두 가지 목적

여기서 ‘지도’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의 종교적 윤리적 물리적 도움을 위해 사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포함합니다. 고해성사와 강론뿐 아니라, 교회 밖 일상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인격적인 고상함과 동시에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곧 ‘여성을 사도로 양성하기 위해 먼저 덕을 갖춘 여성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의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이 두 가지 목적에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 토마스는 ‘열성은 사랑의 산물이요 결실입니다.’라고 했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 안에 있

는 선을 기뻐하는 데 있고 | 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열망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더 크게 드러나는 영광 외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의인들의 성화, 죄인들의 회개, 연옥영혼들의 하늘나라 입성으로 촉진됩니다. 이 영광을 위해 성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 계속 활동합니다.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설교와 훈화와 조언이 더욱 효과가 있도록 단식과 기도와 편태를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남성과 여성이 실천한 이러한 예로 충만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의 두 가지 빛이 아니라, 그 불꽃 자체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닌 여성은 가정의 좋은 어머니, 애정이 넘치는 아내, 본당에 속한 모범적인 신자로 누구보다도 선을 촉진합니다. 성화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서, 여성 사도가 된 듯이 처신하는 것은 기름 없이 등불을 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열정은 가능하겠지만, 허영과 호기심, 본성적 욕심으로 부추겨진 것일 겁니다.

이렇게 약한 기초는 건물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 불붙었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쁘불과 같은 것입니다. | 거룩해질수록 열의가 더 커지는 것처럼 완수해야 할 일이 중대할 때 일꾼의 덕성도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사제는 이 같은 진리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때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하느님 편에 서지 않는 윤리 옹호자들 (자유주의자들)도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신 있게 건넵니다. “선

1 루카 14,28 참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는 기쁨 때문에 선을 행하고, 도움을 가져다주는 감미로움 때문에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²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원칙의 결실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초라한지 드러날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느님,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³을 떠난 인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⁴ 가난한 이는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더 큰 위로의 상급까지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⁵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칙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곧 여성의 성성에 대한 특이한 자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정신과 겸손의 정신: 미혼 여성을 위한 잡지의 열렬한 독자인 어느 여교사는 이 잡지가 현대 여성을 잘 드러낸다고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영혼을 감미로운 그리스도인 감성으로 이끌어주는 신비적인 내용을 신고 있는 이 잡지야말로 |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도 감미롭게 해줍니다. 저는 꼭 제대 앞에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성체를 바라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역주: 당시의 이단적인 기도) 봉쇄수도의 단조로움, 중세기풍의 정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버리라는 abneget semetipsum⁶ 고리타분한 연설을 그

2. 마태 12,33.

3. 마태 6,4,6,18 참조.

4. 사도 20,35에서 성 바오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표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5. 참조:마르 10,21; 루카 6,35.

만 두고, 희생정신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성 안에서 성장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여성에게 부족한 ‘남성적인 힘’입니다. 시적 황홀경, 아련한 꿈, 목적이 없는 기도, 지나친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상상은 자주 고갈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현실에 눈뜨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느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비적인 내용을 내게 말해보시오. 그것이 그대를 들어 높여 주고, 그대를 위로하고, 그대를 향상시켜주기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대 안에 다만 감성적인 부분만 발전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의 미적 감각을 발전시키거나 그대의 고유함을 강화시키고, 필요할 때 관대한 결정을 내리게 하며, 그대 안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를 일으켜주고, 그대의 ‘자아’를 일깨워 줍니까? 그대의 의무에 관해 빛을 비추어주고 그것을 용기 있게 완수하기 위한 덕성을 부여합니까? 신비적인 것이 그대를 숨 쉬게 하거나 기도하게 만들습니까? 달콤한 눈물을 흘리며 울게 하거나, 또는 강인하게 행동하게 만듭니까?” 이런 말로써 감정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주의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랑의 피조물인 여성에게는 더 풍부하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영성생활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견고하고 깊은 종교심은 신 243 비의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독을 만들 것입니다.”⁷ 이 강에 그대의 감미로운 애정이 수로를 만들고, 목표를 향해 강하고 고요하며 위풍당당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들에게 운명으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들의 향로로 넘치는 덕성과 그리스도

6. 마태 16,24 참조: ‘자신을 버리고’.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bnege’라고 되어 있다.

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formeranno’라고 되어 있다.(역주: 차이점은 단수와 복수형태)

인의 열정을 실어 보내주십니다. 하느님이 그대 마음을 축복하시어 신비주의가 사라지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시⁸는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모든 덕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 내면까지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더 적합합니다. 딸이든, 아내든, 어머니든, 모든 여성의 위치는 항상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위치에 서 있음으로써 사랑받고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열정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극심한 배은망덕,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 감추어진 희생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성이 희생과 겸손의 정신 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본성적인 경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자신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꾸준히 열의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244 사람의 건강상태는 맥박을 측정해 아는 것처럼 여성의 신심과 정신은 특히 겸손⁹과 희생정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해보십시오⁹. 그것은 사제에게 제공된 훌륭한 증명 수단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훈련시키십시오. 이는 훌륭한 양성 수단이기도 합니다. 좋은 수덕신학 서적도 모두 읽도록 하십시오. 교회의 가르침을 통달하도록 하고, 훌륭한 스승 세 분이 가르치신, ‘신심의 현대정신’¹⁰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곧 성 필립

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pietà’라고 되어있다.

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mettetele’라고 되어있다.(역주: 차이점은 명령법 단수와 복수형태)

10. ‘devotio moderna’는 14세기 말엽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의 저변에 깔려있는 종교개혁운동으로, 게르트 그루테(Geert Groote)가 설립한 수도 공동체(Deventer의 공동생활 자매단과 공동생활 형제단으로, 처음에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서에 충실했다. 1387년에는 Windesheim 수도원을

보 네리,¹¹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입니다. 이 진리는 항상 확인될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저는 다른 원칙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덕성에 관해 가장 심오하고, 실천적이며, 유익한 내용을 담은 작품은 「겸손을 위한 양성 *la formazione a l'umiltà*」(Libreria Sacro cuore - 토리노 - 1.70리라)입니다.¹¹

신심은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도 ‘환상에 빠지거나 슬픈 신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주 엄격하게 신심 깊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어떤 작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참을성과 인내심이 없으며, 모든 일에 화를 내고 늘 불평합니다. 그는 테이블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안락의자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몸을 길게 눕힌 후 가까이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에만 만족해 합니다.”

이는 악의에 찬 표현이긴 합니다만, 일부 ‘나이 많은 독신녀’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수덕신학, 특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성 필립보의 수덕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슬퍼하는 성인은 슬픈 성인입니다.”라고 했고, 성 필립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 우울은 내 집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 어떤 | 교회박사도 하 245

설립했다. 그 후 1400년부터는 독립 수도회로 조직되었다)에 의해 추진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준주성법」(1441년)이고, 그 저자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규율수도자(canonico regolare) 토마스 아 캠퍼스로 전해진다.

11. 필리보 네리(Filippo Neri, 1515-1595)는 피렌체 출신으로 로마에 오라토리오를 설립했다. 신비체험에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능력을 일치시켰다. 80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상자 속에 보관했던 자신의 원고들을 불태웠다. 24세 때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책을(성경과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은 예외) 시장에 팔아 얻은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오직 하느님만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

느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시무룩한 표정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하거나,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입을 삐죽 내미는 것’을 결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 누가 더 만족해 보입니까? 자기 의무를 다 완수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까, 미움 받는 사람입니까? 가장 큰 내적 평화를 누리는 선한 영혼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말은 사실입니다. 경건한 영혼은 하늘나라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덕은 자주 감추어져야 하지만, 악습의 힘으로 장악되는 이 세상은 권태로울 뿐입니다. 함정에 빠진 무고한 사람의 눈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 그러나 이 고통은 늘 감수해야 하는 것이요, 희망에 의해 비추임 받고, 십자가로 위로받으며, 하늘에 대한 희망으로 위안받는 값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음의 규정에 의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왜 여성의 신심은 기쁜 것입니까?

모든 성공의 비결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여성에 대해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본성은 쾌활하며, 여성의 말씨는 품위 있고 유쾌하며, 주변을 즐겁게 합니다. 동정녀 아셀리¹²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엄격하고 진지하지만, 동시에 쾌활하고 명랑하며, 위엄이 넘치는 동정녀의 사랑스러움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친절하

12. 아셀리(Aselly) 또는 아셀라(Asella). 성 예로니모가 마르첼라(Marcella)에게 보낸 편지에서 극찬한 로마의 동정녀.(MM)

고 부지런한 동정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사에 기꺼이 내어놓았으며, | 그를 귀찮게 하거나 계획을 방해 **246**
하는 이에게도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온화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의 자비로움과 관용은 어떤 이웃도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며, 험담이 시작되려 할 때면 좋은 말로 그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성녀 데레사도 그 자리에 없는 이의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녀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자리에 없는 이들을 불평의 화살에서 보호해 주는 안전지대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취향, 뜻, 견해를 공손히 따랐습니다. 이웃의 덕성에 대해 재치있게 말하고, 그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주역이 되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들려주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 인내롭고 온화한 얼굴로 대했고, 얼굴을 붉히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시덤불 사이에 핀 백합이었으나, 아무리 가시가 찢러도 백합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부드럽고 호의로 넘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¹³ 감미롭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성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항상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맛보고 경험하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¹⁴ 바올라Paola와 에우스토키오Eustochio¹⁵는 마르첼라Marcella¹⁶에게

13. 참조: 마태 11,29; 21,5; 야고 3,17.

14. 마태 11,30 참조.

247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호의로 받아주십시오. | 아, 선하고 사랑스러운 마르첼라여, 당신은 우리에게 지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의 상냥함이 우리가 당신 길을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부드러운 방식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쓰셨습니다. 페이버¹⁷는 “선은 이웃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라고 했는데, 여성에게서 이 말은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논리적 추론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본성적으로 명령의 능력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부드러움 속에서 모든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본성상 사랑스러운 존재요, 예술의 아름다움을 갖춘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교적 부드

15.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에우스타키오(Eustachio)라고 되어있다.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인 바올라는 과부가 되었을 때 딸 에우스토키오와 함께 마르첼라의 수녀를 따랐다.

16. 마르첼라(marcella)는 로마의 귀족 과부로서, 아벤티노(Aventino)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에 은둔지를 만들었다. 다양한 귀족계급의 여성들이 그와 합류했고, 넓은 의미의 첫 수도원이 형성되었다. 성 에로니모는 마르첼라의 수도 공동체 체노비오(cenobio)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MM)

17.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Frederick William Faber)는 영국 오라토리오회 소속(역주: 1847년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이 1847년 영국에 창립한 수도회, 옥스퍼드 운동의 주역이던 뉴먼 신부는 1845년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며, 레오 13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고, 2010년 9월 1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시복됨) 신학자로서, 1814년 6월 28일 캘벌리(Calverley) 요크셔(Yorkshire)에서 출생하여 1863년 9월 26일 런던에서 선종했다.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젊은 시절부터 시인이었던 그는 뉴먼의 열렬한 제자로 오라토리오회의 회원이 되었다. 1839년 영국 성공회 사제로 서품되었고, 1841년에 기나긴 유럽여행을 시작했으며 여행기를 냈다. 조국으로 돌아온 후 엘튼(Elton : 헌팅던셔Huntingdonshire, 영국)의 학장이 된 그는 1842년 로마를 방문하여 악톤(Acton) 추기경의 주선으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를 알현했다. 교황은 그를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초대했는데, 뉴먼의 개종(1845년 10월 9일)이 결정적으로 그를 개종으로 이끌어, 1845년 11월 27일 페이버도 노스햄튼(Northampton)의 주교에 의해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졌다.

러움이 첨가될 때 그는 본성적, 예술적 그리고 덕성이라는 세 가지 힘이 함께함으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선은 열의나 달변, 혼욕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죄인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선의 힘이 깃들지 않는다면 아무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페이버 신부) 덕성은 선의 참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때, 특히 여성의 모습에서 관대하게 베푼 봉사를 통해 무상적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단순한 미소 속에 영웅적인 행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심을 배척하는 가정이나 환경에서 살고 있어 여성의 부드러운 덕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공로는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자신의 의무를 더욱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

248

지 않다면 사악한 이들이 그를 바라보며 신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화나 옷차림, 삶의 모습에서 엄격주의로 비칠 만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많은 선을 행할 때에도 감추도록 하고, 신심을 드러내는 책과 성물도 숨기면서 신앙과 신심 때문에 맺는 특별한 관계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양심이 허용하는 한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¹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여기서 땅이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존재: 에티엔느 라미Etienne Lamy¹⁹는 “하느님의 섭리는

18. 마태 5,5 ; 참조: 시편 37,11.

19.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Lamy’라고 되어있다. 스테파노 마리아 비토리오 라미(Stefano Maria Vittorio Lamy, 1845-1919)는 시즈(Cize) 출신의 프랑스 정치가요, 프랑스 학술원 회원이었다. 라코르데르(Lacordaire)의 제자가 되어 그의

우리를 시간의 주인이 되게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곧 시대,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 됩니다. 섭리는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해 주셨고, 그 수단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 사업에 협력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이 모두 무너져버린 세상에 대해 흘릴 눈물조차 메마른 철기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섭리는 우리를 당산 사업에 협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거슬러 저항하고, 이 모든 불행을 비난하며, 많은 덕성과 사회활동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불의한 자들의 대열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꾼들마저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체념한 사람들과 합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우리는 과학의 발전과 서민교육을 통해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 시절!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라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놓아둡시다.

우리 시대는 20세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세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기에 속한 존재여야 합니다.²⁰ 다시 말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걸맞는 기질, 문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1912년, 「현대의 젊은 여성 *Jeune fille contemporaine*」에 연구 발표된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조직이 중요하

그리스도인 열정을 본받았고, 동시에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사도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생생한 감각을 갖추게 되었다.

20. 이것이 바로 알베리오네 신부가, 세기가 바뀌는 1900-1901년 밤에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닌 생각이었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n.15 참조)

므로 우리는 선을 조직하고 그 조직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독서열풍이 확산되고 있으니 좋은 읽을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이가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준비하여 우리 또한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중’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대중의 이름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유일한 통행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대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참된 윤리적 종교적 선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언제나 종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우리 시대에 속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에게, 오늘날 대중이 진리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빵을 주기보다 선한 출판이 더 가치 있는 자선임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강력한 조직을 갖춘 원수들은 가정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이혼을 부추기며, 교리교육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가정만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250

자선활동보다 더 앞서야 하는 사회활동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사랑의 천사가 되어주는 여성은 민감한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성은 비참함의 원인을 보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체를 봅니다. 여성은 그 병의 원인을 보기보다 결핵환자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과 결핵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적인 분석, 추리, 종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

어 결핵은 주거환경, 식습관, 노동환경, 약습 ... 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환자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의 여성을 양성하는 데 성직자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사제양성이 필요해지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사제적 열의에 협력할 수 있다: 순박한 소녀나 농사꾼일지라도, 모든 여성은 항상 열의를 지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251**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 어떻게 것처럼 나약한 존재인 여성이, 사제와 함께 영혼 구원의 협력이라는 그토록 위대한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면 모르는데, 봉쇄수도자,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사는 사람, 가난하고 무지한 농사꾼, 이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장애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모든 여성이 세상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열성적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열거한 여러 가지 설명을 다시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신문에 글을 쓸 수 없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 없으며, 자선사업에 기부금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무력하다고 해도 묵주기도를 바칠 수 없겠습니까? 죄인의 회개를 위해 꼭 필요한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겠습니까? 여성은 열의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묵주기도 바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고, 본

당주보를 나누어줄 수 있고, 성당 바닥청소와 빨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모든 여성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선행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은 악의 세계로 흘러갈 것입니다. | 그럴 때 나무에서 다 분출되지 못한 수액이 종양처럼 돌출되어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악한 현실을 보면서도 울 줄 모르면서 소설이나 연극 무대를 바라보며 무익한 감상주의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과 육신이 자비로운 활동에 사용되지 못할 때 쓸모없는 사소한 일에 다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활동 목표를 다른 영혼의 선에 두지 않는다면, 선한 사람에게서 쉽게 드러나는 일종의 착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덕행과 자선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쉽게 헛된 불안이나 지나친 완고함, 필요 없는 경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께서 여성의 마음속에 선사하신 소중한 재능을 균형 있게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6장¹ 여성을 돌보는 열의 있는 본당신부

모든 사람은 사제들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사제 직은 인간 전체를 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는 자기 직무에 온 정신, 마음, 시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본당신부는 이러한 일반 의무만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그 어떠한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제는 종들 중의 종입니다. 그는 지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양떼 주변을 굽주린 채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리떼²를 대항하는 전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활습관에 진리와 성성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의 야심, 그의 관심, 그의 기쁨, 그의 괴로움은 모두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당신부인 그는 거룩한 서품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정의 때문에도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입니다.

“사목활동이라는 가장 섬세한 분야는 그의 담당분야입니다. 여러 일꾼이 잘 협력하도록 불러 모으고, 협력자들을 확고하게 이끄는 것도 그의 의무입니다.” 여성을 돌보는 일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초판본에는 6장의 제목을 이탤릭체 소문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책의 마지막 색인에는 장(章) 형태로 인용한다. 이것은 연이은 두 장(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리떼와 맞서는 싸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마태 7,15; 10,16; 루카 10,3; 요한 10,12; 사도 20,29.

가장 섬세한 분야는 본당신부에게: 본당신부는 사목적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양성된 사람입니다만 헛된 열광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체험을 통해서 그는 현명한 사목자가 되어갑니다.

여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사제의 중요한 직무이지만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본당의 종교적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심이 되는 지렛대입니다. 여성은 사제의 오른팔로서 자기 주변에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임신부가 본당의 종교적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의 권위는 자신의 오랜 체험에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 권위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활력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빛과 직무의 은총을 받습니다. 원로라는 칭호는 그를 존경받게 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섬세한 조언을 공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강연은 일반적으로 주임신부의 몫입니다. 특히 위험한 오락, 유행, 인간관계, 인생의³ 진로, 순결, 관습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주임신부만이 어머니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 모든 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책은 오직 주임신부만이 결실을 맺을 희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호소, 병원, 여성 오라토리오를 운영하는 수녀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통상적인 일도 주임신부의 몫입니다.

한 여성 단체를 보좌신부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어

3. 「사제적 열의…」 초판본에는 ‘alta’라고 되어있다.

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한 단체의 정신과 방향이 위협에 처했을 때 주임신부는 직접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본당신부는 사목활동의 중심이어야 한다: 오늘날은 본당의 어떤 직무를 ‘전적’으로 한 사제에게만 맡기는 기존방식이 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사집행, 병자사목, 여성 신심단체의 동반 등에 대해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나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적절하게 간여해야 합니다. 약간의 자유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책임을 느끼고, 자기 에

255 너지를 쏟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면서도 깊이⁴ 간여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여러 협력자를 정해진 목표, 유일한 목표로 잘 이끌어야 합니다. 선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그 본당은 모두가 씨를 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다른 이들의 수확을 망치거나 방해하는 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리교사, 유치원과 요양원, 여성 문화 동아리, 이동도서관과 여학생을 위한 종교수업, 여공들의 기숙사, 그리스도인 어머니회와 마리아의 딸회, 이 모두가 본당신부의 탁월한 지도, 권위, 격려, 아버지다운 충고를 적절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법의 정신입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본당은 중요한 연합체로서 본당활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당신부의 큰 임무는 협력자들을 자기의 활동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이

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ltra’라고 되어있다.

다: 여기서 저는 보좌신부와 본당 사제들만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한 평신도들, 교사들, 수녀들, 교리교사들, 열의 있는 여성들, 가정의 어머니들과 그들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이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며, 부드럽게 그들을 독려하는 것이 본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 | 모든 사목활동은 본당신부 중 **256** 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을 지닌 모든 단체는 본당신부의 관할에 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본당신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한 대중을 위해 얼마나 큰 이익이 주어지겠습니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보좌신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제와 함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의견을 구하며, 그들이 더 편안하게 활동하도록 초대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경과 감사를 더 많이 드러냄으로써 가능합니다. 강한 사제는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사제는 존경을 받지만, 선한 사제는 사랑을 받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절대자처럼 명령하고, 항상 스승인 양 행동하고, 모든 이가 자신의 지시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 거칠고 강한 성격은 주변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지배하려고 우쭐대지 않을 때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사목 협의회’에 관해 다룰 적합⁵한 때가 왔습니다. 이 협의회는 한 본당의 성직자들 사이에 또는 보좌신부들 사이에서 각자의 관점과 경험을 교환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데 일치할 도모

5. ‘In proposito’.

하려는 목적의 모임입니다. 밀라노, 비엔나, 에센 지역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본당신부나 지구장 신부(감목대리 vicario foraneo)가 매년 필요할 때마다 소집합니다. |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려면, 이론만 무성한 학회를 지양하고, 쓸데없는 잡담도 한편으로 제쳐놓고, 자신을 과시하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본당신부는 보좌신부에게 자신의 목표, 두려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도 자신들이 받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본당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용기있게 자신의 재능을 내놓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양인이, 저명 인사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비판하며 싸우는지요! 그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상호간의 좋은 관계를 맺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자주 춤추러 가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공동 지침서를 만들어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공들의 윤리적 종교적 경제적 불행의 원인을 조사하여 가장 좋은 구체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 각자의 능력과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활동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번의 공의회를 통해 그때마다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많은 이의 조언과 경험은 한 사람의 학식과 경험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발전은 끊임없는 일련의 대회, 모임, 연수, 의회, 평의회 등을 통해 성취됩니다.

258 신심 깊은 사람들, 수녀들, 많은 여교사는 본당신부에게 협력

하는 것에 매우 만족할 것인데, 그들은 먼저 본당신부에게 그들 자신의 신심 깊고 열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영혼을 결속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본당신부가 어느 정도의 교육과 특별한 권고를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담해줄 때 그들은 곧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거룩한 동기로 봉사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고, 선의의 경쟁심으로 온 힘을 기울여 일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감성을 지닌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협의회는 이 어머니들을 더 깊이 깨우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신부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어머니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설명해준다면, 어머니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부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날 공립학교의 세속적 교육에 물든 일부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본당신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톨릭 신자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보람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 여교사는 하루 중 적당한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 신앙의 진리와 좋은 관습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오류와 악습이 전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아무 교사라도 괜찮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교과목 가운데 교리가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믿지 않는 교사도 괜찮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교리가 철폐되었더라도 가톨릭 교사가 종교적인 정신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본당신부가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일 때 그가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과 친분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호의를 느끼는 사이라면 그들이 양심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교사들을 임명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여교사들과 진심어린 관계를 맺는 것은 본당신부의 재량에 달린 것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수단을 통해 그들과 결속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들의 결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린 양떼를 헤치는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설교대에서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 위엄에 찬 진지하고, 차분한 어조로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을 낸다든가 흔히 말하는 ‘공격적’이며 격앙된 표현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직접적인 지적보다 간접적인 방법이 더 효력이 있기에 ‘개인적으로 in Camera Charitatis’⁶ 충고해야 하며, 존경받는 사람이나 기관장 sindaco이 충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녀가 직장을 그만 두도록 종용하고, 학부형이 개입하여 항의하도록 슬기롭게 조정하고, (비록 오늘날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 교사가 전근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점차적인 방법으로 곧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야간 학교를 열어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이 복습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학생들의 보건수업을 부탁하면서, 교리시상식에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은 여교사들을 명예스럽게 하면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6.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종교교육에서 영적 지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현대적 표현.

어떤 사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열의를 일깨워주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결책은 | 참으로 탁월한 가치를 지닌 사목 규정입니다. 자 여기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261

젊은이들을 통하여 본당 신자들을 움직일 것

젊은이들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을 인내롭게 돌보는 이를 감탄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거룩한 주교는 젊은 사제를 반종교적인 지역으로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가시오, 무엇인가 선행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어린이 교육은 서로 반목하는 부부를 화해시키는 좋은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사제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오게 하고, 결속시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돌봐주는 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귀여워하는 이들을 아낌없이⁷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사회의 지도층들도 종교에서 비롯되는 평화, 도덕성, 질서와 복지 사회의 이익 앞에서는 흠족해합니다. 종교에 적대적인 분파주의자들만이 이러한 것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 자신도 이를 기뻐하며, 삶의 첫 걸음을 떼도록 방향을 제시해준 모든 사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젊은이를 위한 휴일 오라토리오와 젊은이 야간 학교, 젊은이들 동아

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prodigano’라고 되어있다.

262 리에서는 비교적 쉽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 트리 준비, 교리경시대회, 어린이 축제가 열릴 때 사람들은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에 관한 것이라면 계층, 정당, 사상의 구별 없이 모임에, 공연에, 학술대회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마음 쓰도록 초대하고, 젊은이를 위한 활동을 제안하고, 어린이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본당신부는 기부금까지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라면 불신이 생기지 않고, 파벌을 일으키지 않으며, 비난, 증오, 분쟁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돈독한 유대 관계를 이루어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민감하고 고결한 마음을 지닌 여성을 자신의 사목방침에 동참하게 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곧 '본당신부는 교회정신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본당은 모두의 아버지인 본당신부에게 순종하면서 모두가 한 형제로서 본당을 구성하는 신자들의 신심단체로 이루어집니다. 각자가 필요한 것, 기쁨, 다른 이의 필요를 느끼는 긴밀한 애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당, 본당축일, 본당 행사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263 은 필요한 일입니다. | 자신을 고갈시키는 쓸데 없는 일로 선행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목자의 말이 모든 이에게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식, 활동, 창안에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용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본당신부는 설교 중에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지닌 책임감을 언급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신자들이 순종

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무 대축일을 성대하게 거행하도록 준비하고, 성당을 품위 있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영성체 같은 축일이 본당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본당신부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의 기쁨과 고통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일이라면 공적으로 다루고, 사적인 일이라면 사적으로 다루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본당신부의 온화한 태도와 행위에 관해 많은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정신의 결핍이 사목관리 분야에서 심각한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정신을 위해 힘쓰는 것은 위대한 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정신이 확보되었을 때, 이미 시작했거나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활동에, 특히 여성들의 열의에 불이 붙게 됩니다.

264 제7장¹ 여성을 돌보는 열의 있는 사제

본당신부와 일치하여 해야 할 일이 있고, 본당신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교회 안에 제정된 중요한 연합체는 본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당신부는 직무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제들, 곧 학교나 병원 부속성당의 담당사제들(cappellani), 구호소와 병원의 영적 지도신부들, 교육담당신부들 등 그리고 특히 보좌신부들은 본당신부를 직접 도와주는 협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본당신부의 양팔 역할을 합니다. 본당신부를 도울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능한 한 본당신부를 돕기 위해, 여성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대해 본당신부의 계획과 지침을 연구해야 합니다.’

본당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본당신부는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사목에서도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데 장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본당신부에게 공통된 목표요, 자명한 원칙이므로 그 누구도 이 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단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본당신부가 선택하는 복합적인 사목수단’입니다. 목표는 고유하고 구체적

1. 제6장의 각주 1을 보라.

이며, 실천적이고, 영혼의 탁월한 목자의 열의와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항상 | 독창적이며, 특별한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협조자들은 그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65

저는 협조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당신부가 협조자들의 제안과 유의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의도를 좀더 쉽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협조자들에게 맡겨진 특수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유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당신부에게는 때때로 존경과 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목활동의 중심에 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침, 악의에 찬 불화, 공개적인 싸움은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아래 사람이 더 나은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겸손하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동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일치는 가장 나쁜 악입니다.

[강론대와 고해소에서]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본당신부의 활동에 물질적 도움, 더 나아가 윤리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곧바로 신자 전체의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활동에서 인간적인 야심, 이기적인 생각, 영적 동기가 배제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활동이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더 266

많은 시기, 질투,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분열된 성직자들의 동조를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각자는 고유한 талан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본당신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대나 고해소에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맡음으로써 또는 일시적인 필요에 도움을 줌으로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талан트를 잘 활용한다면 하느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본당신부가 아닌 일반사제는 뒷짐을 지고 지켜보거나, 본당신부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단순한 방관자로 처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본당의 주임신부를 돕는 일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해소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자주 성사생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자신이 사목하기에 적합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열의야말로 신심과 덕성에 있어서 첫 번째 토대입니다. 사제는 깊은 신앙의 감수성으로 신자들의 영혼을 간파해야 하고, 참된 덕성으로 의지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활동은 무엇이든 그리고 본당신부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할 자세를 지닐 것입니다. 만일 본당신부가 어떤 조직을 추진하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67 조언을 하고, 중요한 의무에 관한 양심성찰을 하게 하고, 특히 겸손과 온유함을 강조함으로써 덕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고해소에서 여성을 열의로, 아주 폭넓은 열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성은 '외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을 요청하는 활동에서는 제외됩니다.' 고해사제는 여성을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여성으로서, 아내, 어머니, 딸, 자매로서 그들이 지닌 선의 특성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해사제의 말은 힘과 특별한 권위를 지니므로, 그 은총을 받아들일 자세를 제대로 갖추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은 그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사제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합니다. 영혼을 위한 일은 내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제는 조언을 통해서뿐 아니라, 중요한 양심성찰을 자주 상기 시킴으로써 열정을 지니도록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 자기 자신 앞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 깊이 참회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해성사와 친밀하게 해주는 중요한 양성 수단입니다. 모든 이가 이 수단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사제라면 본당신부든 아니든, 그가 여성들을 지도하든 하지 않든 | 여성이 가정에 열의를 **268** 다하도록 일깨워주고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는 여성에게 더 열심히 살 것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활동의 첫째 목적, 여성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당신부는 더 많은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직무를 처음 맡는 본당신부나 본당신부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주 사제라도 시급한 일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젊은이들을 예의 바르게 양성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도록 양성하고, 어머니들이 바른 양심을 지니도록 양성하고, 모든 이가 가정의 윤리적 종교적 선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배우자,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

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집인 가정에서 먼저 열의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의에 대한 양성은 그 어떤 다른 덕성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가장 쉬운 일부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까지 단계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성 활동에 관한 우리의 정기간행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두가 그 중요성을 알아차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69** 우리는 본성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성을 강화하고 도와주며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업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일합니다.

인간 본성, 하느님의 업적인 가정은 오늘날 불경한 자들과 프리메이슨, 사회주의에 의해 그 기초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민법을 따른 결혼은 쉽게 이혼으로 몰아가 가정의 기초를 파괴하려 하고, 아내까지 가정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²하고 가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합니다.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제가 정말 필요한데, 이제야말로 시대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적인 활동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활동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도록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딸, 아내,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 가정에 머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딸, 아내,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 가정의 평화와 성화에 자부심을 갖는 딸, 아내,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의 활동이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의무를 수행하고, 가정의 활동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완성해야 합니다. 가톨릭 여성운동의 많은 단체가 자선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집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저해하고, 가족 구성원을 갈라놓고, 사랑이 결여되고, 가정교육에 무심해지고 인위적인 교육을 **270** 을 강요하게 됩니다.

고해성사에 대해 두 가지 점을 거론하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은 ‘양심의 가책과 소심증’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 지도자는 영혼을 돌보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인정하며, 여성을 열성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진지하고 중대한 활동을 하도록 인내롭게 인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병자 방문, 어린이의 영적 돌봄과 물질적 돌봄, 여성의 사회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덕성을 신장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기도와 가족의 돌봄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효과는 그만큼 큼니다.

고해사제는 심판자일 뿐 아니라, 의사, 스승, 아버지다: 저는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될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윤리신학은 고해사제를 훌륭한 ‘심판자’로 만들지만 영혼의 스승, 아버지, 의사가 되도록 가르치는 면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심판자’로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비교적 빈번하지 않지만 적절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교적 덕성의 원칙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은 고해사제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며, 지속적인 임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제가 윤리신학에 대한 연구에 머물지 말아야 함을 **271** 보게 됩니다. 사제는 폭넓은 수덕신학 교육, 현대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현대의 필요성과 사목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

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frustrare’라고 되어있다.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안차³ 참사위원은 ‘현대의 무기력’에 관한 훌륭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곧 윤리적 원칙과 실천 심리학의 원칙에 관해, 영적 지도와 사목활동을 위해 정확하고 확실한 규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여성이 신경과민, 신경쇠약, 히스테리 현상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결과적으로 그전보다 얼마나 더 무기력한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제가 이미 지나간 어제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보아, 하느님의 심판에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에 큰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오 하느님, 비판은 덜하고, 실천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제가 심리학이라는 수단을 더 깊이 통찰하여 윤리신학에 활용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심리학은 하느님이 원하신 위대한 발견이기에 우리가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연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한 가지 오류만 언급하겠습니다. 어떠한 덕성에 관해 자주 설교하게 될 때 경청하는 신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할 열망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감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뜻을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곧 토양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리가 약하거나 아픈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뛰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272 우수한 실천 심리학서 몇 권을 소개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제든 시골 사제든,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적어도 한 권이라도 읽을 때 필요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3. 엔리코 브리안차(Enrico Brianza) 박사는 피렌체 봄비오(Bobbio) 주교좌성당의 명예 참사위원이었다.(MM)

1. 「자기 자신을 다스림*Governo di sé stesso*」, Eymieu⁴ (Libreria Pustet, 로마, 3.25리라)
2. 「의지의 양성*Formation de la volonté*」, Guibert (Libreria Pustet)
3. 「인격*Il carattere*」, Guibert⁵ (Libreria Pustet, 로마, 0.75리라)
4. 「현대의 무기력*L'abulia moderna*」, Brianza (Libreria Ghirlanda, Via Unione N.20 - 밀라노 - 2.50리라)
5. 「인성 교육*L'educazione del carattere*」⁶ (2.00리라)
6. 「마음 교육*L'educazione del cuore*」⁷ (2.50리라)
7. 「양심 교육*L'educazione della coscienza*」(2.50리라)
8. 「그리스도인 성인 교육*L'educazione della virilità cristiana*」,⁸ del P. Gillet

4. Eymieu A.,(1933년 10월 사망), *Governo di sé stesso*(실천 심리학 논평) 참조. 저자는 프랑스어 21쇄, 로마, Desclée & C에 기초한 번역서를 유일하게 인정함. 저서에서 세 가지 원칙이 발전되었다. 1)사고(思考)를 통한 행동의 지배. 사고(思考)는 행동을 이끈다. 2) 행동을 통해 감정을 지배한다. 성공의 조건. 3) 감정을 통해 사고(思考)와 행동을 다스릴 것. 이상상의 선택. 결론: 자신을 다스림에서 맛보는 해방.
5. Guibert J.,(파리 가톨릭 대학 신학원 원장), *Il carattere* 참조. 정의, 중요성, 이상상, 기원, 분류, 양성. 살레시오회 사제 도미니코 달오소(Domenico dall'Osso) 교수의 자유로운 해석방식. 3판의 교정과 수정. 토리노-로마, Marietti 1928.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다. “주프roi(Jouffroy)는 이미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나 게으르게,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위대한 인격 모델로 삼아 따르려는 자세를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참으로 심혈을 기울인다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6. Gillet P., *L'educazione del carattere* . 프랑스어 재판의 이탈리아어 번역 (5,000부), 로마, Desclée & C. 1911년 참조. 이 작품은 도미니코회 회원인 저자가 책의 서론에서 “원칙적인 서식(書式)”으로 결론짓는다. 곧 “우리는 인격상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는가? 정직한 사람으로 존재함으로써 시작하자.”(p.160)
7. Gillet P., *L'educazione del cuore*, 재판, 로마, Desclée & C. Editori - Ditta G. B. Paravia & Comp. 1914년 참조.
8. Gillet P., *L'educazione della virilità cristiana*. 프랑스어 3판의 번역, 로마 Desclée & C. 1913년 참조. 저자는 1908년 9월 루벵에서 이렇게 썼다. “자, 여기에 초자연적 심리학을 다룬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첨부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정직한 인간의 이상상을 실현해야

(Libreria Desclée, 로마, 2,75리라)

9. 「신경과민 환자와 세심증이 있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Guida dei nervosi e degli scrupolosi*」, Raymond⁹ (Libreria Desclée, 로마 - 3,50리라)

고해소가 수덕신학에 관한 대화의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여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고대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는 짧고 단호해야 한다.”¹⁰ 고해성사를 단지 심판으로 축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해사제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는 통회하는 이를 가르치고, 교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는 읽어야 할 책을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73 러나 | 모든 사람이 책을 읽기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언제나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통회하는 이의 능력과 필요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책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책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다 해도, 자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일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¹¹ 방향을 정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여성과 이미 길이 정해진 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9. Raymond V., O.P., . 고통 받는 모든 이와 고통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모든 이의 안내서. 마스퀼(Masquin) 박사의 소개 글과 본아이메(Bonnaymé) 박사와 뒤봐(Dubois) 박사의 편지. 9판은 “신경과민 환자의 치유”에 관한 장(章)을 덧붙였다. 프랑스어 3판의 툴리아 키오리니(Tullia Chiorrini) 번역, 로마, Desclée & C. 1912년 참조 (15,000부).

10. “cum mulieribus sermo brevis et durus.” Aberione G., 「사목신학 개요」, 토리노 1912, p.229 참조. 고해소에서 여성에게 간략하게 말해야 한다는 이러한 권고는 피에몬테 지역의 대중적 ‘지혜’ 자체로 그 지역에 뿌리내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Pavese C., 「살기 위한 일 *Il mestiere di vivere*」, 1937 참조)

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수효는 아주 적다고 봅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저자를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저는 ‘덕성에 대한 양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다음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1.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의 단계적 적용 *Pratica progressiva della confessione e della direzione spirituale*」¹² (2권, Libreria Sacro Cuore, 토리노, 3리라)

2.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 *La confessione e direzione*」, Boccardo¹³ (1권, 상동, 3리라)

11. “Nemo esse iudex in sua causa potest”는 Publio Siro(라틴계 시인, 기원 후 1세기)의 표현, *Sentenze*, 545. “Nemo iudex in propria causa.”

12.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의 단계적 적용」,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의 방법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정신에 따른 방법. 첫권: 「냉담에서 열정으로 *Dalla tiepidezza al fervore*」, A.I.F.P의 감수를 통한 번역.(이 첫째 권은 둘째 권에서 독립되어 있음), 파리. 둘째 권: 파리, P. Lethielleux, Librario Editore, 10, Rue Cassette 10p.(313) 참조.

13. Boccardo L.,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 영적 자녀 *Confessione e direzione. Il figlio spirituale*」, Depositi: 토리노, Libreria Tappi, Buona Stampa, Libreria del Sacro Cuore; 로마, Pustet, Desclée, 1913년, III-XXIX, 464 참조. 1913년 6월 29일, 토리노의 하느님 섭리의 작은 집(Piccola Casa della Divina Provvidenza) 거주 사제 프란치스코 팔레아리(Francesco Paleari) 출판허가.

제8장¹ 여성을 덕으로 이끄는 양성

여성 안에서 항상 어머니를 바라보라: 이는 세상에서 여성 활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여성의 본성이고 통상적인 274 일입니다. 자발적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은 | 그 수가 얼마가 되든 늘 예외이고 대개는 ‘영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수녀들의 수가 증가했으며, 프랑스에서 만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모성적인 그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노인과 병자의 시중을 드는 것, 고아들을 양육하는 것,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는 것, 모든 고통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성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정녀들, 비참한 사람을 보살피는 어머니들이 모두 수도생활을 하지 않고, 모두가 수도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가 불행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모두 버림받은 사람, 불운과 불행²의 희생 제물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동정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원의 평화와 혼인의 기쁨을 느꼈지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형제와 자매를 돌보기 위해, 고

아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젊음, 자유, 미래 등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가 되도록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영성적 교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젊은 여성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자녀를 현대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정도 교리지식을 갖추면 충분하고, | 평범한 농사꾼으로서 신앙을 지녔으므로 좋은 관습을 275 간직하며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희생의 삶과 선한 생활을 꾸려갈 자질을 갖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훈육: 이미 위에서 어머니에 대해 말한 것처럼, 훈육의 중요성과 수단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 그것은 바로 사제 직무의 본질적 부분이요, 사도에게 최대의 기쁨과 위안을 주는 직무요, 오늘날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리수업을 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지방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교교육에 대한 투표를 할 때 종교수업 시행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학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활동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사제는 자기 양심을 지키는 이런 일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제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³

1. 제6장 각주 1을 보라.

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행복으로 되어있다.

3. 마태 28,19 참조: “Docete omnes gentes.”

본당 주일 학교와 오라토리오: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듯이 성당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 교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서로 방해가 되기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오라토리오가 고유한 공간을 확보하고 목적에 걸맞게 세워져야 합니다. 276 | 교리교사를 위한 강령이 마련되고, 적합한 인원과 유쾌한 놀이까지 갖춰진 오라토리오가 이상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비현실적인 ‘선협주의’를 따르지 않고, 단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아주 조금씩 나아가면 ... 한 반년에 1회에 불과할지라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

오라토리오에 이어 여학생을 위한 종교수업이 뒤를 이을 것이고, 모든 어린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리교육, 모든 이를 위한 종교강연회와 윤리적인 훈화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학교와 작업실에 널리 퍼진 오류에서 젊은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종교교육에 호교론과 교회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걸작을 읽어보십시오. 「휴일 오라토리오와 종교수업-제 5차 대회의 반향*Gli oratori festivi e le scuole di religione - Eco del V Congresso*」 (Libreria Buona Stampa - Corso Regina Margherita, 176 - 토리노)

이어서 젊은 여성의 훈육을 완성하기 위해 봉제학교, 가정경제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교육: 여성이 진지하고, 어른답고, ⁴virilità, 사랑스러운 여성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4. '성숙함, 강인함' 대신으로 사용했다. 좀 더 앞에 나올 「사제적 열의...」 279-280을 보라.

진지함- 여성은 본성적으로 가벼운 존재이므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신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 「젊은 여성의 종교와 윤리교육*Formation religieuse et morale de la jeune fille*」의 저자가 들려주는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진지함의 첫째 조건은 성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란 우리 곁에 살고 있고, 늘 우리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준비가 되어있는 훌륭한 조언자들과 같습니다. 성찰은 그들과 나누는 대화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성찰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관건, 특히 여성교육의 관건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열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곧 동기, 이로인 점, 기쁨을 분명히 설명함으로써 참된 열망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끔 이를 행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하고 단순한 통상적인 일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활동의 씨앗이 되는 생각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마음과 감정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활동의 일시적인 결과와 영원한 결과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듣는 것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사제는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제에게는 언제나 큰 결실을 볼 수 있는 설교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청중의 경청에 호소할 것이고, 영혼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도록 압박할 것이고, 청중의 감정, 습관, 생각, 관습, 유행, 덕성과 결점을 분석하고 표현할 것입니다.

사제에게는 고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차례 범하게 되거나 또는 적어도 매일 한 번 저지르는 고해자의 근본적인

잘못에 관해 특별 양심성찰을 하도록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잘못만이 아니라, 그 잘못의 원인, 혹시 그가 소홀히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행과 영적 활동과 일상적인 노력과 의지의 힘에 관해 양심성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도, 잦은 고해성사는 진지함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

그에게는 묵상과 영적 독서가 있습니다. 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유익합니다. 적어도 진지한 책과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대화와 지나치게 경박한 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흔히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감상주의적 신심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신심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종교는 신심실천이 아니고 '삶'입니다. 만일 신앙을 살지 않고, 신앙으로 활동하지 않고, 신앙에 따라 느끼지 않는다면, 신심 깊은 삶이 아닙니다. 신심의 결실은 대신덕과 사후덕이어야 하고 온유, 겸손, 인내 등으로 나타나는 윤리덕이어야 합니다.

진지함에는 또한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279** 속고를 길게 하고,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심화됩니다. | 여기서는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각도 포함됩니다. '예수를 위한 예술', '선을 위한 선'이라는 공식은 그 자체로 거짓된 것일 뿐 아니라,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의 영혼에 이러한 지도 원리가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참된 의미에서 삶은 영원을 향한 여정이요, 시험입니다. 쾌락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각자는 해야 할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완수해야 할 하나의 사

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음은 신체적 지성적 윤리적 종교적 생명의 기초입니다. 각자는 몸에 밴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은 행동의 첫째요 근본적인 안내자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의 발 앞에 굴복하는 비굴한 태도를 취하고,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쁘게 헤쳐야 할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옷차림, 성격과 신앙에 있어 진지한 여성은 행운아입니다. 그의 생각과 성찰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른다운- 이 단어는 더 많은 힘을 요하는 종합적인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인생에서 언제나 자주 희생을 요구할 때, 진취적 창안에 착수할 때, 용기를 가지고 강인하게 행동해야 할 때, 항구하게 해주는 확고부동함이 필요할 때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침착과 슬기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희생은 남성에게보다 여성의 삶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 모성 **280**의 모든 역할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내, 딸, 자매라는 신분은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복종하는 위치입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섬세하지 못하기에 여성의 열망을 짓밟고 많은 상처를 줍니다. 여성은 침묵해야 하고, 자발적이든 마지못해서든 독재를 견여내야 합니다. 희생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여성은 아주 약한 줄기를 가진 나무에 불과하여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젊은 나이에는 삶 전체를 기쁨으로 색칠하기가 아주 쉽고, 결코 거부하는 일 없이 수용해줄 줄 아는 교육자를 찾기가 아주 쉽고, 일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습니다! 사제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강인한 영혼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그 일에 대해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취적 정신 - 여성은 정해진 길을 걷기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지만 선과 악의 싸움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결정에 앞서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이 시키는 대로 자신을 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장상이 있고, 슬기로운 조언자가 있고, 고해사제가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조언자와 교사로서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악의 근원을 찾는 것, | 구제책을 찾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책임자에게 허락을 청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올바른 정신입니다.

용기 - 진취적 정신이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은 힘을 필요로 하고, 질투를 일으키며, 반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수줍음, 불안정, 취향에 대해 작은 승리를 거둬 하면서 얻어지는 용기는 신앙의 확신을 지켜야 할 때, 좋은 관습이 흔들릴 때, 신심실천을 지속해야 할 때 잘 견디게 해줍니다.

침착하고 슬기로운 인내 - 때때로 주변상황이 양보나 적어도 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옹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거룩한 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한 기회를 선택하는 것,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 필요한 슬기와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질, 이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성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 * *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가정 밖에서 하는 교육이 더 낫습니까?...' 세속 정신 또는 단순하게 무종교적⁵으로 경영하는 모든 기숙사, 작업실, 하숙집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곳은 | 젊은이의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은 윤리적 삶의 진정한 토대입니다. 세속적 교육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위험성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실 세속 정신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욕정을 너무 이르게 풀어놓게 하여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학교, 작업실, 하숙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딸을 외부 교육에 맡기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물어봅시다. 그 답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반적으로 가정교육은 다른 어느 교육보다 낫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 조건 아래 있습니다(ceteris paribus, 오늘날 가정 밖에서의 교육이 거의 일반화 되는 것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더 잘 볼 줄 알고, 귀한 덕담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적절한 기회를 포착할 줄 알며, 함께 견디어내고,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 줄 줄 압니다. 어머니들보다 더 유능한 교육자가 있음을 알지만, 저는 '모든 것

282

5.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confessionale'라고 되어있다.

은 똑같은 조건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교육은 소녀들을 ‘참된’ 삶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작은 세계의 필요성에 더 잘 맞춰주고, 소녀들의 사회적 위치에도 잘 부응합니다. 가정교육의 폭은 훨씬 더 넓습니다.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아는 훌륭한 주부, 자녀의 모든 필요성에 부응할 줄 아는 어머니,

283 니, | 함께 견디어 내고, 고통을 겪으며, 위로할 줄 아는, 결혼생활에 대해 진일보한 의식을 갖는, 애정이 넘치는 아내로 더 잘 준비시킬 수 있는 다른 교육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부 때문에, 불운한 가정환경이 소녀들을 기숙사, 숙박소, 하숙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 사제는 그곳에서 받는 교육이 가능한 한 가정교육과 비슷한 교육이 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소녀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기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종교계 교육기관에서 배운 젊은 여성들이 세상에 나오면 다른 여성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에는 과장된 면도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니 교육자들은 엄중한 경중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설득’보다는 자주 ‘강요하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기의 ‘실제적인’ 위협에 대비한 ‘준비시키는’ 교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 교육합니다. 공동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의 자유, 윤리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적 원칙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

284 지만, 언젠가 그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 다음과 같은 격

언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측된 화살이 상처를 덜 낸다.”⁶

사회교육은 두 개의 큰 도시로 나누어진 세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장을 한 도시끼리 서로 대항합니다. 곧 하느님의 도시와 악마의 도시입니다. 분리는 한층 더 뚜렷해집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훌륭한 예의교육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만일 종교계열 교육기관에서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고, 특정한 일에 대한 능력도 갖춘 젊은 여성이 품위 있게 처신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음식도 할 줄 모르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면 얼마나 가여운 일입니까!

이러한 교육단체에 사제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연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고해소에서, 가끔 교육기관의 장상들과 함께 응접실에서 대화할 때 ‘언제나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가족적인 대화를 통해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기관의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더 큰 일을, 아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 하는 특별 강론! 스보보다Swoboda 박사는 자신의 저명한 저서 「대도시에서 영혼을 돌봄*La cura d'anime nelle grandi città*」⁷에서 청중

6. “jacula praevisa minus feriunt.”

7. Swoboda E., (교황청 명예 고위성직자, 교황청 평의원이자, 비엔나 대학교의 사목신학 교수), 「대도시에서 영혼을 돌봄」, 사목신학 연구원, 참사위원 바르톨로메오 카타네오(Bartolomeo Cattaneo) 박사의 독일어 2판의 이탈리아어 번역, 로마, Libreria F. Pustet 1912 참조.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초기 그리

을 여러 계층으로 구분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길게 말했습니다. 285 그의 논문은 특히 대도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경험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중소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에 대한 구분은 훨씬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유익한 점을 봅니다. 적절한 피정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사순시기에 매일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하는, 곧 성삼일 동안 여성을 위한, 어머니를 위한, 젊은 여성을 위한 특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본당에서 특별 강연회를 기획하면서 특별한 주제를 다루기 원한다면 교육 받은 여성, 조산사, 의사가 강연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탄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예⁸는 여러 장소에서 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피정’입니다. 주부들만을 위한 피정, 여학생들을 위한 피정,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피정 등입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이들이 세속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지내도록 합니다. 그 대신 자기 집 안에 머물면서 침묵 중에 일과를 신심행위에 집중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피정 기간은 대개 일주일 정도이며, 어떤 경우에는 3일만 하기도 합니다. 교육단체에서뿐 아니라 본당에서도 여성을 위한 ‘월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을 통해 ‘찾은 영성체’에 대해 길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286 영성체는 교황 비오 10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쉽게 행하도록 가르쳐 온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숙고하는 사람은 성체성사의 효과에 대해 말하는 요한복음서

스도인 삶에 대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재고하고, 나아가 현대 대도시가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윤리적 영향력과 지적 영향력을 숙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 이 대도시에서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해 더 필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Degnissimo di essere segnalato nell'ammirazione e come esempio로 되어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런 문장 구조일 것이다. 'Esempio degnissimo di essere segnalato all'ammirazione...'

(6장)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성체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매일 영성체하는 신심 깊은 사람, 동정녀, 수도자, 선교사의 삶과, 성체와 성혈을 멀리하는 이들의 삶을 대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잦은 영성체를 한 성인들과 사도들이 느끼던 뜨거운 풍요로움 앞에서, 안센니즘⁹(giansenismo/jansenism⁹)의 얼음장 같은 황폐함은 빛 앞에서 눈을 감지 않으려는 이에게는 아주 분명한 증거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무들이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림^{造林}이 필요합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낡은 우리 사회가 생기를 회복하고 쇠신되도록, 영성체에 관한 교령을 선포했습니다. 신자들은 성찬례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어린양의 피가 섞인 피, 순수하고도 관대한 피가 흐르는 자신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이를 확신할 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9. ‘안센니즘은 잔센니오 코르넬리오(Giansenio Cornelio, 1585–1638)에 의해 발전된 이단으로 원죄 이후 인간은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켈레 바이오(Michele Baio)의 노선을 따랐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성체를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 이단은 이탈리아에 널리 퍼져나가 윤리적 종교적 감상주의의 강한 흔적을 남겼다. 교황 비오 6세는 1794년 칙서 *Auctorem fidei*를 통해 안센니즘을 단죄했다.(MM)

제9장 완전한 절제, 독신, 결혼

완전한 절제

저는 프라씨네티의 글에서 몇 문장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사제는 가장 해로운 악습인 부정직함에 대항하여 열의를 가지고 자주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인 동정과 완전한 절제의 덕을 찬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덕을 사랑하고 실천하여 많은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덕은 아주 심각한 선입견으로 인해 그 진가와 공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곧 이 덕은 유지하기 어려운 덕이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없이는 그 누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오로지 사제, 수사, 수녀의 고유한 덕이라는 선입견입니다. … 세속인의 힘을 초월하는 것이라 믿으며 … 신비신학과 신적인 신비스런 통교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² 프라씨네티는

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드러내다 rivelare’라고 되어있다.
 2. Frassinetti G., 「초임 본당신부의 실천 안내서 *Manuale pratico del parroco novello*」, 성직자들, 특히 고해사제와 설교가에게 유익한 작품, 제노바, Tipografia della gioventù, 1902 참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말함. 1) 본당신부의 의무에 대해, 2) 성사에 대해, 3) 본당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의 실천. 이 주제는 「사제적 열의…」에 요약되어 있고 프라씨네티의 저서 206쪽과 207쪽에서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선입견은 성경, 특히 성 바오로의 가르침,³ 교부들의 가르침, 교회의 관행에도 반대된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 그와 같은 선입견의 불합리성을 증명합니다. “12-14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는 관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인류의 반이 그와 같은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12에서 14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이 결혼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이 덕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비록 아름다운 덕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⁵ 자발적인지 강압적인지 경계가 모호하지만 독신자의 수는 매일 증가합니다. 과부도 증가하고, 독신녀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제 이러한 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실로 그 누구도 이 덕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대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 아래,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 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없이는 준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덕이 오로지 사제, 수사, 수녀들만의 고유한 덕일까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겨우 지킬 수 있는 덕이라면 대죄를 지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모든 이에게 요구될 수 있겠습니까? …”

사제가 완전한 절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얻는 효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이를 지킵니다. 이 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사제, 선교사, 수도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의 영예를 위

3. 참조: 1코린 7,9.25.34-38; 2코린 11,2.
 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i’라고 되어있다.
 5. 「사제적 열의…」 초판의 모호한 표현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아름다운 덕에 대한 사랑의 부족 때문에 per mancanza appunto di amore alla bella virtù.” 그렇지만 무시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해 열의를 다하는 신심 깊은 많은 여성,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적 재화를 교회의 선익을 위해 봉헌하는 여성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 “지난세기에는 몰랐던 참된 사도직, 거의 사제직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 섭리에 의해 부르심받은 독신녀들 사이에 완전한 절제에 대한 사랑이 퍼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도처로 퍼져가는 수녀들의 사도직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그들 덕의 향기가 발산되고, 사제를 위해 참된 도움과 힘이 되어주는 많은 독신녀들의 사도직입니다.

고해소는 설교대에서보다 더 자상하게 세부사항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고해소야말로 더욱 내밀한 면과 영적 빛에 둘러싸여 있는 덕 중에서 더욱 아름다운 덕, 완전한 절제에 대한 사랑에 잠기도록 하는 이 덕을 알리는 데 적합합니다. 고해사제는 신중하게 매력적인 표현으로 이 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덕을 위한 예방책이나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고, 위험에 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 사제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보이고 위엄 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참회자가 지녀야 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각자의 삶의 특별한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 더 적절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신과 결혼

자발적이든 특별한 상황과 개인적 결정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인의 독신은 덕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는 |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기 위해 선택한 독신입니다. 그것은 사람

들에게 크나큰 악이요, 엄청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퍼져있는, 몰염치한 사상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쾌락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욕구에 따라 증대되었습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⁶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⁷ 그래서 젊은 여성이 더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절제의 덕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시급한 것은 얼마 전부터 남성들 사이에 퍼졌던 사상이 연약한 여성 사이에도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아름다운 덕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여성은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⁸라는 성 바오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세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독신을 권고할 수 있습니까? 윤리신학과 사목신학 저자들이 말하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생계수단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을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덕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 허락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살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삶으로 본당신부의 십자가가 됩니까! 고해

6. 1코린 7,9 참조: “Melius est nubere quam uri?”

7. 1코린 2,14 참조: “Animalis homo non percipit quae sunt spiritus Dei!”

8. 위의 각주 6을 보라.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intimarla’라고 되어있다.

사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위행위에 빠지는 것입니다!

2. 그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항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특히 여성인 경우,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노인이 되거나,⁹ 병에 걸렸을 때 조카나 형제 자매에게 신세를 지면서 병원¹⁰을 드나들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친지들에게 재산을 남겨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만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장 여성 안에 있는 열의에 대한 양성

파스퀴넬리 교수는 '사회 주간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에 테르니Terni에서 ‘국민일치운동Unione popolare’ 사무국에 100리라 송금환과 함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엽서에는 오늘날 필요하고 요구되는 선^善에 부응하는 참된 그리스도교 개념을 말해주는 |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르니의 형제들이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국민일치운동에 봉헌합니다.’ 어느 가난한 여성도 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루르드에서 돌아오면서 제게 남아 있는 2리라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신심 깊으며 복음적 가르침을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여성에게서는 열의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여성운동과는 아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운동에 혐오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292

9. 'diventate' 대신에 사용.

10. 'All'ospizio'(구호소/요양원).

1. Archimede Pasquinelli(제시 1874 - 로마 1918),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 교구 위원회의 청소년 분과 첫 의장, 주세페 토니올로(트레비소 1845 - 피사 1918; 유명한 경제학자요 사회학자)와 로몰로 무리(Romolo Murri, 몬토네 산피에트란젤리 1870 - 로마 1944; 사제요 그리스도교 민주주의의 이론가)의 친구였다. 열렬한 '교황주의자'로 국립학교 교사직을 사임한 후, 전적으로 정치와 사회 저널리즘에 헌신했다. 1903년부터 2년 전 무리(Murri)에 의해 로마에서 창간된 정치신문 <이탈리아의 내일Il domani d'Italia>에 협력했지만, 모더니즘의 창립자라는 단죄를 받은 후 베르가모(Bergamo)로 이사했다. 계속 자신의 고향에서 <현재L'ora presente>에 협력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신문의 부고란에 파스퀴넬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활발한 조직가, 행동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파업 조정자, 민중 투쟁의 병사.”

다! 그래서 활동이나 금전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악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고, 두 가지 구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리스도교 ‘모든’ 가르침에 대한 교육 부족, ‘모든’ 교황청 문헌에 대한 교육 부족, 하느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 ‘모든’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성인들의 모범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영성체의 유익함, 묵주기도회의 유익함, 성전건립의 유익함을 잘 알고 있지만, 회칙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Rerum novarum*, *Graves de communi*, *Il fermo proposito*).² ‘가톨릭여성연합 *Unione delle donne cattoliche*’의 설립과 전파를 위한 교황님의 지대한 관심에도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해냈다는 확신 아래, 거룩한 축제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주님께 대한 찬미와 신성모독을 혼동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교회에서 멀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부 ‘신심 깊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계층이라고 믿으면서 | 개선하려는 생각 없이 시대, 소식, 사람들에게 대한 한탄으로만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 그리고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떠오른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면서 곧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은 교육의 결핍뿐 아니라, 열의에 대한 교육 부족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훈육과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사태」(1891)는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문제에 관한 회칙이고, *Graves de communi*(1901)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으로 「새로운 사태」와 결부된다.(역주: 그리스도교 민주주의에 관한 회칙) 교황 비오 10세의 회칙 *Il fermo proposito*(1905)는 교황의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 해체(1904)에 이은 이탈리아 가톨릭 평신도 재조직을 위한 것이다.

여성의 책임, 여성 사명의 고귀함과 그 용이성에 관하여: 주의사항, 모범, 훈화와 강연을 통해 이 세 가지 진리를 깊이 알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내와 항구함을 가지고 자녀, 여성, 아내, 어머니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책임감: 품행에 대한 양성은 여성의 사명과 능력과 함께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 본적도 없고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여성이라도 이러한 책임감을 깊이 통찰하고 승고한 마음으로 책임을 질 줄 압니다. 하느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여성에게 필요한 열의에 관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사제는 이 과제가 쉬운 문제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통 자녀를 위해 삽니다. 단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짝지어주신 동반자에게 애정을 쏟는 아내는 남편의 모든 관심사를 자신의 것으로 느낍니다. | 부모와 형제의 선이나 악에 무감각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딸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이 과제를 집 밖에서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직화되어 있다 해도 특히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이라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신심 깊은 여성은 온순합니다. 조직화는 일치의 힘을 중요시해야 하고 탐구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경제조직은 악을 근원적으로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속되고 경솔한 사람, 피상적인 사람은 결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활동에서 여성은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불림 받지 않았기에 성직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온순하기에, 제시된 사항을 잘 실행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이러한 면에서도 훌륭한 스승입니다. 더 나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직된 지성도 설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있는데, 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곧 ‘귀납적 추론을 통해, 사실을 통해, 예화를 통해 많은 성녀의 행적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연약한 여성임에도 교회와 사회의 선을 위해 놀라운 활동을 완수한 훌륭한 어머니, 아내, 여성의 삶

295 을 들려주며 읽게 해야 합니다. 특히 | 오늘날 널리 퍼져나가 많은 선행을 펼치고 있는 여성운동을 알려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인용한 「마텔다 *Matelda*」³, 「여성활동 *Azione muliebre*」, 「여성과 노동 *La donna ed il lavoro*」, 「여성생활 *Vita femminile*」 등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내용의 긴 담화나 차원 높은

3. 피렌체에서 창간되었으며, 일정 기간 성바로팔수도회가 맡았던, 젊은 여성을 위한 이 격주간지에 관해서 「가톨릭 문화 *La Civiltà Cattolica*」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책 *quaderno*」 1458, 1911년 3월 18일 참조) “우리는 선택된 목초지인 젊은 여성들을 위해, 피렌체에서 금년에 탄생한 이 정기간행물의 창간호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꽃 중의 꽃’이라는 상징적인 표어로, 단테식 표현 중 가장 친절한 영웅적인 여성의 이름을 추천하면서 그 내용을 잘 소개했습니다 … 잘 정돈된 자료와 예술적 작품에서 따온 빛나는 내용을 통해, 주제의 유쾌한 다양성을 통해, 그리고 매혹적인 호기심을 주는 게임을 통해, 비록 소박한 소설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잘 만들어진 유명한 잡지임을 보여줍니다 … 이탈리아 가정에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로 이 잡지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또한 1914년 「가톨릭 문화」에 실은, 연이은 서평에서는 이 잡지가 마리안나 베타치 본디(Marianna Bettazzi Bondi)에 의해 운영되며, 지휘 관리부가 토리노로 옮겼다는 정보를 주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증거가 있다. “[성바로]팔수도회는 *Matelda* 잡지의 구성, 원고 교정과 기사 쓰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기사가 「선한출판 협력자회 *Unione Cooperatori Buoni Stampa*」 회지 1923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약 1년), 이 기간 동안 수도회성에 제출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맡았던 막중한 책임을 증언한다. “딸들은 … 남성 분야에서 성바로수도회가 하는 일을 여성 분야에서 해냈다.”(문헌 18, 가타리나 A. 마르티니 「성바로팔수도회 역사 *Le Figlie di San Paolo. Note per una storia*(1915-1984)」, 612쪽)

강연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특히 방문 선교 중에 말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방문선교 때 책을 사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앙의 내용이 담긴 상본이나 작은 책자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꼭 맞는 훨씬 효과적이고 ‘생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비참한 삶의 양상에 대한 사회여론조사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는 강연과 가정방문을 통해 가난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느 옥탑방에 들어가 빈곤한 사람, 때로는 극히 가난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직접 목격하고, 그 가족의 질병, 기막힌 사연, 가정의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⁴ 일입니다. 삶의 현실에 맞갖은 이상을 심어주고, 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편 위로와 신앙에 관한 말을 해주면서 무언가 더 주어야 할 필요까지 느낍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든 함께든, 여성을 이러한 방문에 나서게 했고, 병자에게 다가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른바 ‘사회여론조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휴일과 휴식에 **296** 관해 조사하고, 교리에 참석하는 어린이의 참여도, 거주지와 공장 위생과 윤리성, 가사노동의 조건, 고용자의 숙소, 여성 농부 등에 관해 조사합니다. 여성이 무관심하게 버려진 상태로 있지 않도록 감추어진 것은 드러내고, 비밀은 폭로하고, 비참한 상황은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 스스로 기획을 제

4.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scancellano’라고 되어있다.

안하는 것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과 사회의식의 양성을 위한 이러한 조사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다음 작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의식과 교육 *Il senso sociale e la sua educazione*』, Leroy (Edito Dall'Azione sociale popolare - Via Legnano 23 - 토리노 - 0.5리라).

벨기에 출신인 유명한 튀탕 신부⁵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느끼고, 구제하기 위해 한동안 도미니코회 수도복을 벗고, 탄광으로 내려가 광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 그들이 열망하는 것을 직접 그들의 말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윤리적 종교적 삶과 가정 생활을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그는 사회조직과 사회 재건의 위대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노동자들의 느낌을 생생하게 반영했고, 그의 활동은 그들의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297 저명한 르 플라이⁶ Le Play와 그의 뒤를 이은 제자들은, 두 세계

5. Celas Marie Rutten은 1875년 벨기에 테르몽드(Terremonde)에서 태어났으며, 아주 젊은 시절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루뱅에서 상급 과정을 공부했다. 신학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 <우리 탄광 광부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활동 *Nos grèves bouillères et l'action socialiste*>(1900)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정치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자 밴더벨트(Vanderveld)에 의해 국회에 서까지 인용되었다. 더 생생한 논문을 위해, 튀탕은 탄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광부들의 비참한 삶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1901)

6.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Le Play'라고 되어있다. 프레데릭 르 플라이(Frédéric Le Play)는 1806년 4월에 출생하여 1882년 4월 5일 파리에서 선종했다. 1830년의 혁명 때부터 사회문제의 중대성을 느껴 노동자의 삶, 특히 노동자의 가정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다. 1829년부터 1853년까지 300여 가정을 중심으로 표본 조사를 했다. (*Les ouvriers européens*, 1855) 그는 프랑스 혁명을 세 가지 오류를 들어 비난했다. ㄱ) 인간이 원래 가진 완전함에 대한 믿음, ㄴ) 개인이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 ㄷ) 절대적인 동등이다. 이에 대한 그의 구제책 또한 세 가지였다. ㄱ) 하느님과 종교에 대한 존경심, 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존중인 순명, ㄷ) 여성에 대한 존중인 윤리적 정결. 그의 올바른 사회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의 노동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사회과학을 더 잘 배웠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려고 열망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곧 '선형적 방법, 편협한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할뿐 아니라, 근심과 실의에 빠진 자신들의 한숨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길이나 광장에서 목격 한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단순함을 지니고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사람,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뒤 라 신부⁷ P. Du Lac⁷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봉제 노동조합'의 젊은 여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매님, 울었습니까?” “아니요, 신부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눈이 그렇습니까?” “끓는 물 때문입니다.” “저런! 끓는 물로 눈을 씻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근이 길어지면 바늘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때 뜨거운 물을 눈에 대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 이것은 일부 젊은 여성이 감수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희생의 실화입니다. 조사를 해야 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애정이 넘치는 가운데 분별력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열의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권위의 개혁에 대한 사상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의 위험요소는 온정주의(paternalism, 부성주의, 가족주의)였다.

7. 스타니슬라스 뒤 라 드 퓨제르(Stanislas Du Lac de Fugère)라고 보는데 그는 예수회 회원으로, 1835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출생했다. 궁정 참사위원인 그는 벨기에의 브뤼젤레트(Brugelette) 예수회 교육기관에서 공부했고, 1853년 예수회에 입회했다.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고 1909년 8월 30일 선종했다. 영어에서 번역한 서간과 번역서들이 남아 있다.

298 ‘그러나 여성의 지성보다 여성의 마음을 알아주고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이 지성을 통해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와 감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여성에게는 아마도 확신의 3분의 2가량이 마음에서 지시한 것일 겁니다. 버림받은 여자 아이, 유혹에 빠진 젊은이, 악습에 젖은 세대, 멸시받는 노년의 비참함이 여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행을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 성인들의 모범, 큰 상급이 여성의 마음을 들어 높입니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지니지 않은 어머니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제는 결국 여성의 마음에 호소하여 가족, 사회, 교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명의 고귀함: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모세의 조각상⁸을 마쳤을 때 자기 작품에 취해 ‘그대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 ... 라고 말했지만 침묵만 흘렸습니다. 그는 물질을 가지고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영혼의 예술가입니다! ...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캔버스와 차가운 대리석의 작품을 만든 작가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살아있고 민감한 영혼을 형성(교육)하는 여성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교육자, 열의를 지닌 여성들

299 이야말로 인류의 드러나지 않는 참된 은인들입니다. 한편 | 영국 국회에서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논의되었을 때 어느 국회의원이 아름다운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

서도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남성보다 법 제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성이 관습을 만들고 물길을 터주었을 때, 모든 법은 대중의 정신에 더욱 부합하고, 올바른 가능성을 주고, 더 요긴한 길이 됩니다.”

우리는 남성의 강한 힘과 재능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 아기는 여성의 품에 안겨 여성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청소년 때 여성이 그의 정신을 형성시키고, 성인이 되면 그는 자신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는 여성에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노인이 되면, 그 곁에는 여성이 지켜주고, 위로하고,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의 눈을 감겨주는 천사가 됩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여성의 사명이 최상의 수준에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협력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상을 위해, 현세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성소를 통해 사제직에 협력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지상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에 견줄 만한 일이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⁹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결속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직무가 진정 최상의 것이 아닙니까? ...

여성은 |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는 것을 알 때 더 큰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 앞에서 열등하다는 의식 때문에 자주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높이 올려주어야 하고,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넘치는 사랑의 섭리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를 교만하게도, 비굴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8.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 장식을 위해 만든 유명한 조각상으로, 로마의 성 베드로 빈콜리(San Pietro in Vincoli)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

9. 요한 10,10 참조: “Veni ut vitam habeant.”

사명의 용이성: 자신들의 사명과 고귀함을 잘 아는 여성들조차도¹⁰ 묻습니다. 이 황폐한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의제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곧 여성은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작은 부분을 담당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 다. 주님은 세상에서 여성 개개인에게 자신의 위치, 노동의 역할, 영향력의 범위를 지정해 주셨고, 그에 걸맞는 힘과 자질을 주셨습니 다. 여성은 받은 만큼만 보여줄 수 있으므로 각기 맡겨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조직 안에서 자기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과 국가, 세계는 각기 고유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은 모든 일에 기여하지만,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노동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여성 근로자는 301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 조직이 일반적인 성격을 띠다면, 그 회원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¹¹ 작은 몫이 할당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체에서는 여성 자신이 노동을 통해 빛을 받고, 위안을 받으며, 자극받고, 지탱될 것입니다.

여성에게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쉽고 얇은 책들을 잘 전시하고, 회칙과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모든 이를 일률적으로 납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우리를 지지하리라는 착각도 금물입니다.

10.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nche quante donne comprendono…」로 되어있다.

11. ‘secondo’ 대신에 사용.

드러낸 생각은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낱알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추수하기까지는 수개월이 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제자들이 겪을 반대와 비난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사제 직무에 필요한 겸손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시련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교육: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육한다는 것은 길들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학, 곧 육체적 정신적 교육에 대한 모든 지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글자, 음절, 단어를 올바르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잘 봅니다. 철학자는 신속하게 추리하도록 지성을 길들입니다. 군인은 | 총 302 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여러 번의 훈련으로 길들입니다. 연주자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물 흐르듯이 움직이도록 길들입니다. … 어린이는 알파벳에 대한 딱딱한 설명만으로는 글을 잘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는 지성의 훈련 없이는 삼단논법의 구조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군사학교에 간혀 총의 구조, 국가의 지형도, 전략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만 몇 년을 보낸 사람을 누가 훌륭한 장교라고 하겠습니까? 의무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훌륭한 전문가라고 하겠습니까? 훈련, 수습기간, 실험, 체험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오류의 교정을 통해 기술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윤리적 삶과 사회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덕은 길들임입니다. 덕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열의도 길들임이고, 사회의식도 길들임입니다. 이것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열정에 찬 교육이고, 사회적 감각의 교육

입니다.

우리는 해박한 내용의 강연에 감탄합니다. 우리는 도서, 신문, 잡지를 많이 보도록 권유합니다. 개별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방문선교의 탁월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실이 빈약할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작곡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모든 악기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훌륭한 음악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어떤 여성은

303 무지한 여자 아이에게 | 교리를 가르치며 영성체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어떤 여성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영웅적인 자선행위를 하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어떤 여성은 이주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의 보호협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일에는 노동자 후원 단체의 여자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가톨릭여성협회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고, 더 실천적인 열의를 지니도록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 없이는 결코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본당에는 제의실 옆에 사회-종교적 내용의 다섯 냥, 두 냥, 한 냥짜리 문고판을 취급하는 작은 판매소가 있습니다. 본당신부는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구입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진리를 희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은 가난했지만, 선행을 베풀려는 열망으로 불탔습니다. 1년 동안 그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작은 지갑에 모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양서를 몇 권 구입하여 50여 명의 소녀들이 서로 돌려보게 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방법입니까! 이것은 그를 열의로 이끌려는 고해사제가 추천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제는 자신의 본당 확장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먼

저 많은 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자선활동은 오늘날 새로운 길이 많이 열렸으며 | 오늘날에 **304**는 현대적인 유증^{legati}이 필요합니다. 한 백작부인은 저에게 오라토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의 친구인 연로한 부인은 교리교사 상품수여에 필요한 연간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본당주보를 위한 기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긴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초대하여 먼저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본당활동을 하도록 이끈 다음에는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단체 등을 결성¹²했습니다.”

시작부터 자만하지도 서두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두 가지 실천적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를 때 여성 협력자를 잘 양성할 수 있고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적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고유한 성향에 따라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교사들은 가장 능력 있는 교리교사들¹³입니다. 본당신부는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여, 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전략을 세우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참사위원들과 도청 참사위원들의 아내, 어머니, 딸들의 영향력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족 신분의 모범, 언행은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 시대에

1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costitui’라고 되어있다.

13.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catechistiche’라고 되어있다.

305 도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당주보를 | 가정마다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 기증^{legati moderni}’을 통해 선한 출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강연에 초대받는 것을 명예로 여길 것이며, 겸손하고 신심 깊은 다른 여성은 신심과 종교단체를 널리 알리는 일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

일은 점진적이어야 합니다¹⁴: 한 번도 책임을 맡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교양 서클이나 경제단체에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함께 일할 줄 모르기에 당연히 실패하게 될 것이고, 사제에게서도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첫 걸음은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작성된 통상 기도문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¹⁵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지상에 오직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을 위한 특별기도, 사제를 위한 특별기도, 교황을 위한 특별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차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들의 단체와 기도의 사도직을 행하는 단체를 조직하기까지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열의를 가지고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친밀하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많은 길이 쉽게 열릴 것입니다. 사제는 자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는 사람, 무익한 노력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려고 털어놓는 사람, 작은 성공을

14. 점진적인 걸음이 필요한 교육학적 원칙에 대해 알베리오네 신부는 특별히 강조했다.

15. 참조: 마태 6,11과 루카 11,3.

털어놓는 사람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 외적 조직이 필요할 때 **306** 첫 단계는 순수한 신심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곧 가르멜의 성모님, 살아있는 목주기도회 등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교적 목적에 물질적 목적을 합친 조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부인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탁아소를 위한 후원단체 등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입니다. 하숙집, 기차역 노동자 단체, 문화 동아리입니다. 네 번째는 주로 물질적 목적을 우선하는 단계로 혼수기금, 학교 상호조합, 여성 노동자 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 가운데, ‘순수 자선’ 활동이 항상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이 활동을 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종교적 사회적 분야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여성 강사 양성 **307**을 위해 이 세 단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모임에서 적합한 책의 한 구절을 읽게 하고, 짧은 글을 쓰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 내용을 읽는 것에 머물겠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낭송하게 하다가 ‘상황에 맞는 짧은 연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연설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는 한편, 지적 윤리적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후자가 전자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제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 활동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성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사제는 여성을 열의로 이끌기 위한 더 쉬운 수단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유능한 협력자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하고 근면한

이들에게 항구함과 완덕의 여정을 가르쳐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딸 동료회에는 훌륭한 가정주부를 양성하는 학원을 맡기고, 수녀나 교사에게는 자수학원을 맡기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학생이 모일 때 종교수업이 섭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많다면, 취업 사무실이나 노동자 후원 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민이 사회에서 보편화 된다면 사회복지 단체와 함께 이민을 막도록 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통해 불행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젊은 남성들보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이동도서관이 더 쉽게 성공할 것이고, 국민 연금 가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 노동자 기금, 혼수기금 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8 이러한 활동으로 젊은 여성들을 결속시키면서, 사제는 그들의 필요에 상응하는 강연과 훈화, 종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치야말로 | 악과 맞서는 튼튼한 울타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 사목은 사제가 대중과 결속할 수 있는 소중한 강력 한 고리입니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으로 남을 것인가?

저는 「사회주간 *Settimana sociale*」(1912년 N.11)에서 다음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저는 실현 가능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 대중에게 드러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해봅시다.’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만 암시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몹시 열망하고 꿈꾸는 이 단체는 ‘여성사회경제학

교’입니다.

1. 이 학교는 적어도 16세 이상의 소녀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심활동과 자선활동에 관심이 있는 젊은 과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ㄱ)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수공예

ㄴ) 가정경제(훌륭한 가정주부를 위한 학교)

ㄷ) 병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기술(간호사를 위한 학교)

309

ㄹ) 그리스도교 교리교육

ㅁ) 여성사회 전파를 위한 일반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강연이나 좋은 내용의 독서 등에 관한 것

3. 과정을 마친 후에는 단기 또는 장기의 가능한 시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이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지역에,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수녀들이 없는 곳에, 또는 수녀들이 추방된 고통의 시기¹⁶를 겪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ㄱ) 교리를 가르친다.

ㄴ) 나이 든 소녀들을 모아 좋은 독서, 가사¹⁷ 노동, 가정경제를 가르친다.

ㄷ) 병자를 간호하고, 필요할 때 병자성사를 준비시킨다.

ㄹ) 자신들의 거주지역에서 활발한 전파자 역할로서 가톨릭 여성중앙위원회나 다른 유사한 연합회의 연결고리가 된다.

16. ‘ 좋지 않은, 사악한(Cattiveria, malvagità)’ 역주: 반그리스도교 사상을 가진 이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맡으면서 그곳에서 수녀들을 추방한 시기를 말한다.)

17. ‘Femminili’.

ㄹ) 마리아의 딸회와 같은 연맹이나 지역 신심단체를 이끈다.

310 위에 나열한 것은 가능한 한 기숙사를 겸비해야 하는 ‘여성경제학교’의 주요 노선입니다. 학교 환경이 좋아야 하고, 소박¹⁸하지만 풍부한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 혼자서 또는 동료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에 외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직에 부르심 받은 것이므로 지나친 엄격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는 그들 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양성은 진지하며 종교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어떠한 겉꾸밈도 없어야 하며, 수도자의 흥내를 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자비^{自費} 또는 은인의 도움으로 숙박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본당신부와 부유한 사람들은 훌륭한 소녀들이 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배출된 이들은 비록 그들이 도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도움에 대해 작은 보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꿈으로 남을 것인가?’ 로마에서 투르톤(Turton) 양이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수녀가 이 코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회학교(Scuola sociale)’는 비슷한 계획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확대된 계획입니다.”

제 11 장 실천으로 옮기는 열의

이제 우리는 아주 민감한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내용이 ‘특별히’ 본당신부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교회 단체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방금 언급 **311** 했듯이,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조직은 본당이고 또 본당이어서야 하며, 본당신부는 모든 사목활동의 중심이고 또 중심이어야 합니다. 좀 더 분명해지도록 내용을 여러 사항으로 세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긍정적인 방법]

모든 사목활동과 사목조직은 ‘긍정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본당에 부임하기 전에, 또는 이제 막 그 본당에 부임한 직후에는 ‘명확하고 상세한’ 계획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전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선협주의’를 수반할 수 있지만, 후자는 본당신부의 사명 자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본당에 부임할 때, 활동 목록을 작성하여 곧바로 착수하려고 밀어붙이는 사제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용이해 보이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어떤 본당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이라도 다른 본당에

1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sforzo’라고 되어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과 금전을 희생하고도 결국 길을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게 됩니까? …

일반적인 계획은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획은 여성에게 그리고 여성을 위해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을 행하려는 아주 굳건한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312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할 수 없다면 본당신부의 의무에 대한 참된 개념이 부족하거나 본당신부로서의 성소가 없는 것입니다. 본당신부로 선별된 이는, “이제까지 많은 수고를 한 보상으로 편안히 쉬러 왔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느 성인 본당신부의 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이지만, 아주 감미롭습니다! 저는 더는 지상에서 평화를 누리질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일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 계획 안에서 본당신부는 다른 거주 사제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그들보다 더 많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수행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해소에서 하는 일과 외적 지역적 조직과는 별도로 해야 하는 다른 일들도 이미 자기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적 단체를 중요시하는 본당활동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과연 본당신부는 어떤 기준으로 단체를 선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가) 무엇보다 먼저 자기 본당이 필요로 하는 사목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상호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어떤 곳에서는 협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학생들이 있고, 저기에는 여공들이

있습니다. 과격한 정당이 지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이 팽배한 곳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고유한 사고방식, 고유한 관습, 고유한 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주민은 까다롭고, 어떤 주민은 무관심하고, 어떤 주민은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 어떤 본당에는 때때로 아주 심각한 악이 퍼져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골 본당신부의 일기」에서 저자는 600여 명의 신자들을 사목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미지근해 보이는 신자들과 본당신부 사이의 분열을 곧바로 파악했습니다. 곧 방문, 대화, 우정 어린 관계를 통해 그들의 가난, 동물학대, 생산물 판매의 어려움, 보건 의료 부족이라는 네 가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그 문제에 근거해서 마을금고,¹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보험협회, 협력단체, 야간학교를 움직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본당신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당신부는 신자들의 참된 아버지요 조언자가 되었고, 거의 모든 신자가 부활절 의무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 피에몬테와 이탈리아의 다른 지방에서도 농업에 관련한 문제가 첫 자리를 차지했다. 농민들은 주거와 교육과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이 필요했다. 볼렘보르그(Wollemborg) 조직(1896년 4월 14일 쿠네오에서 개최되었던 한 모임에서 키우사노(Chiusano)의 카이쑈터 백작은 “자유 프리메이슨 단체는 악마적 도구”라고 정의 내렸다)에 따라 여기저기에 마을금고를 세우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라이파이젠(Reiffesen)이라는 고유한 마을금고를 태동시키기 시작했다. 쿠네오 주의 초기 마을금고는 알바 교구의 체사레 알그라나티(Cesare Algranati)와 베로나를 방문했던 이탈리아 마을금고 회장 루이지 체루티 신부(don Luigi Cerutti)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략 10년 동안 마을금고는 랑가(Langa)와 몬페라토(Monferrato)의 거의 전 지역에 퍼질 정도로 번창했다. 몬페라토 지역은 마을금고 연맹의 본부를 알바(Alba)에, 다른 본부를 카소르초(Casorzo)에 설치했다. 몬페라토 마을금고의 사도는 알타빌라 몬페라토(Altavilla Monferrato)의 본당신부이자, 바소 피에몬테(Basso Piemonte)의 체루티 신부(don Cerutti)라고 불리던 카롤리 신부(don Carogli)로 여긴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윤리적 악에 대한 치유도 이와 비슷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신자들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부임한 본당신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일 년 동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곳 상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첫째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314 단지 |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통보만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놀랄지 모르지만, 잠시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무익한 방문, 해로운 방문이 있지만 영적이고 유익한 방문도 있습니다. 무익한 방문은 단지 인간적인 동기뿐이어서 아무런 이득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방문입니다. 해로운 방문은 어떤 가정만을 편애하여 불미스러운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대신 영적 방문은 사람들을 알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영적 선 또는 물질적 선익을 베푸는 방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고,² 죄인들과 함께하셨으며,³ 자캐오의 집에 식사초대를 받으셨습니다.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알지 못하고,⁵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르며, 양들이 먹는 목초와 썬물의 질을 모를 때 어떻게 좋은 길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해소에서는 어떤 부분만 알 수 있는데, 들은 것에만 국한시키는 사제는 판단에 있어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영국, 이제는 프랑스와 일부 이탈리아에서도 사제의 업무 가운데 ‘가정방문’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곳은 15일

2. 루카 15,4이하 참조.

3. 루카 5,30 참조.

4. 루카 19,2이하 참조.

5. 요한 10,3이하 참조.

마다 방문하고, 어떤 곳은 한 달, 다른 곳은 두 달,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 체계적인 방 **315** 법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속하고 성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독일에는 기록된 방문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서에는 가족 구성원, 교회에 가는 횟수, 특히 어린이들이 교리반에 참여하는 횟수, 구독 신문, 가입한 단체, 특별히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이나 경찰관처럼 하지 않으면서도 능력껏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 가운데 여성에 관한 질문은 특히 중요합니다.

방문 외에 ‘대화’를 건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본당신부는 사제관에 있기보다 자주 외출하면서 그때마다 신자들과 사귀는 기회를 갖곤 합니다. 친절하게 신자들을 대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숨김없이 마음을 여는 영적 자녀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결코 당사자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가장 예민한 상처에 대한 질문도 할 줄 아는 본당신부는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동기로 조사합니다. 곧 축일의 휴식 문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노동법 준수, 여공과 여학생, 이민자들이 기거하는 하숙집의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당신부는 가정방문과 대화와 설문조사를 통해 본당에 필요 **316** 한 모든 활동과 악의 뿌리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남녀 협력자들의 역량을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나) 남녀 협력자들의 적성을 연구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우선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세하고 종교적으로 삶이 더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적합한 훈육, 영혼에 대한 사랑, 유익한 존재가 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당신부는 ‘말만 듣지 말고 솔기롭게 삶을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에는 잘못된 일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관찰한다는 것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겸손, 희생, 선함의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은 어떤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구하게 선행을 하는지 보는 것이며, 여성 협력자들의 신앙심, 진지함, 신중함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인원, 아주 소수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너무 빨리 인원을 늘리려고 하지 말
317 아야 합니다. | 초기 여성 협력자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인도했을 때 참된 여성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여성이 몇 사람씩 가입하여 그 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올 때 초기 회원을 압도해버리고, 단체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⁶ 그 단체에 안정성을 주고자 한다면, ‘후임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단체도 있지만, 설립자 사후에도 지속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단체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주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모든 결점이나 위험요소, 계획에 대비하도록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6.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puoi’라고 되어있다.

이 모든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키케로Cicerone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삶의 스승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창립자들, 수도회들, 신심 단체들, 자선단체들에 대해 들려줍니다. 모든 단체가 후임자들을 잘 양성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않은 단체가 활동을 잘 시작한 다음 서서히 업무와 책임과 직책에서 벗어나 다른 이에게 그 일을 넘겨주고, 감독관이나 아주 단순한 방관자 역할로 축소됩니다.

2. [두 가지 주의사항]

본당신부가 행할 사목의 필요성과 역량에 이어 이제 본당신부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미 있는 것을 가능한 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
318 를 들어 이동도서관 설립을 원한다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선별된 몇 권의 책을 오라토리오에서 좀 더 나이든 아이들에게 대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책을 집으로 가져간다면 어머니, 자매, 아버지, 형제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책을 빌려보고 싶을 것이고, 쉽게 대여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 오라토리오에서 다른 이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도록 신심 깊고 진지한 젊은 여성을 선별하여 마리아의 딸회 또는 봉제학원, 가정경제학원, 자원 교리교사학원의 기초를 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열의에 넘치는 어느 본당신부가, “오늘의 필요에 따라 구^舊연맹의 목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렇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향해, 출판, 군사전략 등의 분야에서 과거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종교, 교의,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 본질상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교회의 방식은 늘 발전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완전무결하며, 복음 말씀은 결코 한 자 한 획도 바뀌지 않지만, 교회와 복음은 시대와 사람들에게 아주 놀랄 만큼 쉽게 적응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 1 단체, 연맹, 수도회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 본당신부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재속회는 반교회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선한 출판물을 보급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을 것이며, 많은 도움을 통하여 오라토리오 등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방식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유익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활동하는 사람에게 허영심을 키우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불평을 조장하는 정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제품을 만들고, 경쟁을 조장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무기력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의’ 협력자들이 그들의 열의를 펼칠 새로운 분야를 가지게 되고, ‘오늘의’ 협력자들이 자기네 열의가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지성, 의지,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득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기에,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시련을 극복한 후 기초가 다져지고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노동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지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원칙입니다. 곧 교회의 고위성직자뿐 아니라, 본당업무의 책임자인 사제의 근본 역할입니다.

각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인격의 존엄성과 친교의 기초를 이루는 자기애(自己愛)로 표현되는 소중한 힘을 잘 활용하여 그들이 굳건해져 다른 이들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신 하느님이 인간적 수단을 충분히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320**

본당신부는 복음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찾을 때 한 말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⁷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야⁸ 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신심활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선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성 사회활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미혼 여성보다 기혼자와 혼자 된 여성이 훨씬 섬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교사가 농촌 여성보다 교리반 소녀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민 여성보다 귀족 부인을 훨씬 더 잘 따르고, 시장市長 부인은 일반 여성이 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덕이 부족한 사람보다 ‘피해 입은 사람들’ 더 잘 이해합니다.

7. 마태 20,6 참조: “Quid hic statis tota die otiosi?”

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abbiamo’라고 되어있다.

다. ...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321 게으른 사람은 본당신부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그를 반대할 것입니다. 본당신부는 사목활동 노선을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고, 게으른 사람도 동참시켜 자신의 목표로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풍부한 인적 자원입니다.

3. [한 가지 반론]

이 시점에서 몇몇 사람은 '본당신부의 지도에 그렇듯 온순한 여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반론은 이미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곧 여성이 겸손과 희생정신으로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직자를 위한 사목적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제는 여성의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현명하면서도 온화하게 대할 뿐 아니라, 특히 고해소에서 그를 자신에게 결속시켜야 합니다.' 그가 사제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사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신부의 가장 온순한 도구가 되어 사제의 조언을 자신을 위한 명령처럼 받아들입니다. 본당신부는 그에게 합당한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고해소에서 훨씬 더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해야 합니다. 사제는 고해소에서 아버지다운 온화함으로 모든 이를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는 자기 사목적 계획을 다른 고해사제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들이 이 성무집행에

322 협력자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 본당신부와 그

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합니다.

4. [우선사항]

사목에는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활동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까?' '네 가지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곧 '가장 긴급한 활동을 선택할 것, 확실한 종교 활동을 선택할 것,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활동을 선택할 것, 가장 소홀했던 활동을 선택할 것' 등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거실 천장에 프레스코화를 그리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배가 너무 많은 화물 때문에 침몰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물건들, 예술품, 편의도구나 유익한 물건뿐 아니라 남은 빵까지도 모두 바다에 던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종교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목적이 종교적이어야 하고, 사제가 하는 모든 활동도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목적으로 생산 협력업체를 세울 때에도 그 협력업체를 통해 사람들을 도울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종교 활동, '본질상 고유한 종교적'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영성체를 위한 협회, 기도의 사도직회, 자신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수기금, 여성노동자 기금, 양로원 등의 '목적상' 고유한 종교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 본당신부의 계획에 직접 해당되고, 두 번째 **323**

활동은 윤리적 종교적 목적에 부합하거나 유익한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첫걸음을 내딛을 때 길을 이탈하거나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전개될 모든 사목활동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홀했던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활동일 때 모두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관해 프라씨네티 신부는 자신의 저서 「영적 창안*Industriae spirituali*」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더 이해받고, 더 알려지고, 자애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욱 호감을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소홀히 한 다른 활동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 큰 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계속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나, 두 번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주겠기 때문입니다.”

* * *

저는 여기서 어느 초임 본당신부가 윤리적 종교적 물질적 상황에 관해, 원인과 구제책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의 한 부분 **324**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로지」 남성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목적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략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당 현황

1. 교리를 가르쳐야 할 대상이 남자 아이 4백 명과 여자 아이 450명이 있습니다. 본당신부, 보좌신부 2명과 미혼 여성 4명이 교리를 가르쳤는데, 평균적으로 남자 아이 백 명과 여자 아이 180명이 교리반에 나오는 정도로 그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방학 기간에는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2. 12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 여성을 위한 단체로 [마리아의] 팔회가 있는데, 이 본당에서 6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본당행사와 장례식이 있을 때 봉사합니다. 젊은 여성 중 20여 명이 영성체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일하며, 그들 중 몇 명은 인근 지역에서 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경박스럽고, 몇 명은 정말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3. 성녀 안나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경건한 신심단체가 있는데 어머니들 중 3분의 1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대다수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4. 많은 남성이 술과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에 참여하지만, 아주 소수만 본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합니다.

교회에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무관심합니다. 임종시에도 신앙에 **325**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5. 특별히 신심 깊은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독신*celibi*⁹ 여성, 여교사, 관대한 미혼 여성, 음악 애호가

가 있습니다.

6. 중학생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 남녀 30여 명이 대부분 독일로 이민을 갑니다.

원 인

1. 오라토리오뿐 아니라, 모든 교리교사 조직이 부족합니다.¹⁰ 어린이들이 사제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교리교육 성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관심하고, 교리교사들은 의기소침합니다. 영성체를 소홀히 합니다.

2. 젊은이에게 맞는 신앙교육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젊은 여성에게¹¹ 심각한 위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친 도락(道樂), 독서, 젊은 남성들과 함께 드나들게 되어있는 공장 출입구.

결혼을 위해 물질적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오는 여성들은 일반 하숙집에 머물습니다.

9. 'nubili' 대신 사용.(역주: 'celibe'는 독신 남성, 'nubile'는 독신녀를 말함. 따라서 본문은 'cebili'가 아니라 'nubili'여야 한다)

10. 이러한 조직은 당시 이탈리아 교회 내에 흥미 있는 주제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교구장으로 취임한 지 두달 만에, 스칼라브리니 몬시뇰(mons. Scalabrini)은 1876년 4월 23일자로 '교리교육'에 관한 자신의 첫 번째 사목 서한을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보냈다. "우리 시대에 이 국가 또는 저 국가의 헌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헌법은 교리입니다."

스칼라브리니 몬시뇰은 「가톨릭 교리교사 *Il catechista cattolico*」(1876년 7월부터)라는 첫 번째 이탈리아 교리잡지를 창간하기도 했다. 알바의 주교좌성당에서는 "그리스도교 사상협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소년은 출석을 표시하는 인지가 붙어있는 '개인 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 주수와 점수를 기재한 월 성적표가 들어 있었다.

11.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per essi'라고 되어있지만 언급하는 내용은 젊은 여성에 관한 것이고, 「사제적 열의…」 327항에 되풀이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건물 출입에 있어서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조직이 부족합니다.

자기 의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종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부족합니다.

4. 조직이 부족합니다.¹²

326

아내들은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로움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실천해야 할 의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5. 특별 신심이 많지만, 신심 깊은 사람 중 거의 아무도 이웃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6.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가는 학생들이 머물 기숙사에 대한 안내도 없고, 이민자들을 위한 여행과 직업에 대한 어떤 보호책도 없습니다.

구제책 계획

1. 설교, 주의사항, 훈화,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 교리교사, 어린이에게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본당신부와 여교사들이 운영하는 자원봉사, 교리교사 학교,

명확한 규칙, 성대한 시상(施賞), 영화 상영을 통한 실천적 교육 조직 ... 오라토리오, 어린이의 영성체를 위한 단체 설립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 딸들을 위한 특별 강좌와 피정.

종교적 목적의 여성 교양 동아리뿐 아니라, 사회 동아리(건전한

12. 조직의 부족은 3항(아마도 오류?)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미 1항에서 언급되었으며, 5항의 끝부분에서도 분명하게 강조된다.

327 오락, 노래, 훌륭한 가정주부를 위한 학교, 혼수기금)와 종교 동아리(혼준비를 위한 특별 교육, 특별 강좌). | 이민자를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기숙사, 공장의 남성용 출입구와 여성용 출입구를 분리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3. 윤리적 종교적 목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자기네 의무에 관한 교육과 강연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가족과 사회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4. 특별 교육 (짚막한 복음 해설이나 미사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을 포함한) 여성을 위한 피정과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고, 남편도 성사를 보도록 준비시킬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물질적 윤리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가난한 병자를 도와주고,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을 본당신부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Opera di assistenza agli infermi poveri입니다.

5. 기도의 사도직회Apostolato della preghiera는 본당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회입니다.

특히 교리교육을 후원하고, 오라토리오 설립을 위해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후원 단체입니다.

6. 독일에 이주한 이들을 위한 활동과 학생들을 위한 가정사무국과 서신왕래를 위해 여교사 또는 교육받은 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황청 전교회Opere della Propagazione della fede,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Santa Infanzia, 성 베드로 기금회Oblio di san Pietro를 위한 여성 모금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328 | 차츰 이러한 그리스도교 여성 활동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여성들로 결성된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

연합Unione delle donne cattoliche d'Italia의 지역 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단체를 활성화시킬 때, 단체 안에서 그 구성원을 위해 창안이 나오고, 또 다른 모든 일이 본당신부의 인도 아래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¹³ 지역활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국내 활동과 국제 활동의 시급성'을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일반 관심사가 특별 관심사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시사항이 분명하지 않는 한 많은 지역 활동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운영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종교를 갖지 않은 교사들을 파견한다면 어떻게 젊은이를 위한 활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출판물이 널리 퍼지고, 우리의 청중이 매일 오류가 담긴 출판물을 읽게 된다면 설교가 어떻게 좋은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국내 차원의 활동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운동에 결속해야 하는 시급성이 생겨납니다.

가톨릭 활동¹⁴의 총 본부는 국민연합Unione popolare, 선거연합,¹⁵ 가톨릭 청년회Gioventù cattolica, 가톨릭 여성연합Unione delle donne cattoliche 등 여러 계열의 대표로 이루어지고, | 전원 일치에 가결로 가장 중 329

13.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5라고 되어있다.

14. 이탈리아 가톨릭 활동(L'Azione cattolica italiana=ACI)은 교회의 교계제도를 통해 특별하고 직접적인 협력이 주어지는 가톨릭 평신도의 국내 조직이다. 19세기 중엽 ACI가 출범했을 때, 이탈리아의 가톨릭 상황은 특히 어려웠다.

15. 이탈리아 가톨릭 선거연합(L'Unione elettorale cattolica italiana)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초대된 선거 경쟁에서 이탈리아 가톨릭의 힘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가려는 목적으로, 대회협회(Opera dei congressi) 해체 이후 교황 비오 10세의 회칙 Il fermo proposito와 「정치참여금령non expedit」을 바탕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요한 문제를 다루고, 모든 이가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결정사항을 많은 출판물에 게재하여 지지자들에게 알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유일하고 확실하게 빛을 받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열, 무질서, 개인의 이기주의는 항상 실패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제도 중요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¹⁶ 다룬 여러 연합회의 출판물을 읽지 않는다면, 매일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8.¹⁷단체의 수는 적지만 잘 꾸려 나갑니다. “불안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때, 좋은 열망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소진되어 효과를 얻기 위해 정작 힘이 필요할 때 쓸 힘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들, 아주 훌륭한 노동자들조차도 불품없는 초안만 남길 뿐이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거나 또는 착수한 일을 중단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수많은 일에 파묻히고 짓눌려 버릴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걱정, 대화, 관계, 서신왕래, 방문 등을 수반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개인이 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힘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을 분배하겠습니다.’ ... 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는 최상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330 본당신부는 사목활동¹⁸을 통합해야 하므로 |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는 자신의 몸을 소모시키는 열병에 걸려 몸부림치다가 자신의 지적 영적 재산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제

16.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la’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정관사가 언급하는 내용은 아마 조금 앞에 나오는 “grandi questioni”(큰 문제들)일 것이다.(역주: ‘le’는 여성 복수이고, ‘la’는 여성 단수)

17.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6’으로 되어있다.

18.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lavorio’라고 되어있다.

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신심을 키우기 위해 넉넉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는 과거의 사람, 속 좁은 사람이 될 것이고, 더는 성숙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에서 발산되는 아름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활동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영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는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제가 지니는 신심의 향기를 풍기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잘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인들의 격언일뿐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의 금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이자 최고의 사제 양성자요, 부지런한 노동자였던 가경자 카파소Cafasso 신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효과적이고 결실이 풍부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사제의 삶은 활동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녀들

아주 방대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중요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녀들은 초세기 여성부제들을 계승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실천적 규범과 공동의 수련으로 규제되고, | 그들의 목적이 오늘날의 필요에 따라 확대된다 **331**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제적 열성의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녀들이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와 유치원, 구치소와 보호시설, 젊은이들의 구호소와 노인들의 양로원, 교정원과 교도소, 오라토리오와 병원, 작업실과 기숙사, 요양원, 일반

지역과 선교 지역 그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사제 곁에 수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한 대로 실제적인 문제점 또는 부각되는 사항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소¹⁹: 여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여성에게 수녀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생활은 위기에 빠지기 쉬운 길이고, 수도원에도 암초가 존재한다.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필요하고, 본당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이들은 성소자의 부족을 걱정하면서, 수도자 신분의 고상함과 유익함에 대해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잘못 이해한 열성에 북바쳐서 수도복을 입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문제를 다룬 잡지 「종교와 문명 *Religione e civiltà*」에 게재된 내용을 상기

332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성직자가 많은 것이 좋거나 적은 것이 더 낫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소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성소가 있는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소가 있다면 그 성소를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성소가 없거나 또는 잃어버렸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은 너무 많은 성소자를 주시거나 아주 부족하게 일꾼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만큼 성소자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부적합한 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부르심 받은 이들이 밖에 남아 있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는 수도자 신분은 완덕의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녀들의 활동을 도우미 또는 평신도 여교사들과 고용인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혁명가들(역주: 반그리스도적 사상을 가진 이들)도 수도자들을 존중합니다. 수녀들의 희생정신은 그들을 참된 천사들이 되게 했고, 그들을 불붙게 만드는 열의는 수녀들을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수녀들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을 당신 교회에 보내주실 때 그분께 찬미를 드립니다.

한편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도회에 보내거나 또는 수도회에 받아들이면서 수도회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함, 불만족, 규율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소로 축복받지 못한 젊은 여성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탈골된 뼈처럼 고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끔 수도자들의 완전한 삶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 훈화나 | 막연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여성이 성소의 경향을 드러낼 때 마리아의 딸회에 데려가서 수녀들에게 하는 강연, 고해성사, 착복식이나 수도서원식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 성녀들의 생애 또는 선교사들의 삶이나 수도회의 회보를 읽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수녀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333

그러나 사제가 어떠한 열망이든 이를 곧바로 성소의 표지로 인정할 경우, 잘못을 범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심 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좋은 뜻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

19. '수녀들에 관한 맥락에서 저자는 특히 1959년에 창립될 성소사목 분야에 온전히 전념할 수도회의 창립을 암시하는 수녀들의 성소를 부각시키고 있다. 곧 '사도의모후수녀회 Istituto Regina degli Apostoli per le vocazioni'(성소를 위한 사도들의 모후 수도회 Suore Apostoline).

다. ‘내부 법정foro interno’(역주: 교회법에 나오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수도회 내부 회의를 말하는 뜻함) 절차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험기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해주면서, 최종 책임을 가진 수도회 장상들에게 일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보다 수도회의 정신과 필요한 자질을 더 잘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추천도서: 『용단 Il gran passo』 - 살레시안 서원 - 0.50리라).

334 수녀들의 지도: 여러 수도단체의 정신과 장상들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것은 너무 방대한 분야이고, 또 이미 다른 이들이 탁월하게 연구하고 발전시켰기에 저는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거의 모든 본당마다 수녀들이 있고, 그 들에게서 여러 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완덕의 길로 나아가고자 더 나은 지도를 받기 위해 이 신분을 택 했는데 영적 지도신부도 없고, 신뢰할 만한 고해신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해신부도 없습니다!” 교황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교령의 지침은 이러한 자유가 정당하고 소중하며,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이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자비의 성사가 사람을 몹시 괴롭히는 도구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만 지침을 준 것이 아니라 박식한 이들, 성인들, 경험이 풍부한 이들도 아주 유익한 글을 썼으므로 이들의 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 질투, 그릇된 열의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녀들의 고해신부 선택에 있어 조심성을 가지고 까다롭게 하려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심성은 정결의 덕을 위해서뿐 아니라, 영적 지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수도자에게 있어 자기 수도회의 규칙에 대한 충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규칙과 구체적 실천사항에서 거의 모두 면제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또 수녀들을 ‘단순하게 신심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바꾸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재앙을 일으킬 오류입니다! 세속인의 눈에 는 사소한 것이고, 또는 우스꽝스러운 일로 보이는 규칙들이지만 이를 수도자들이 소홀히 할 때, 수도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열망했던 선을 더는 행할 수 없게 되고, 신심 깊은 평범한 독신녀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수도회를 특징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자의 영적 자원을 형성해주는 것은 | 소홀히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한 명의 수녀가 수도서원을 통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335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혜, 사랑, 영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성들을 비춤 받기 위하여, 수녀들을 인도하는 규칙서를 읽고, 그들의 영성 안에서 그 규칙을 숙고하고, 몇 권의 해설서를 참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에 관한 다른 사항은 수덕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녀 데레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알폰소의 작품 외에 다음과 같은 작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빠스 모쿠랑Ab. Maucourant의 「겸손에 대한 수도자의 증거 *Prova religiosa sopra l'umiltà*」, 「순명에 대한 수도자의 증거 *Prova religiosa sopra l'obbedienza*」,²⁰ 「정결에 대한 수도자의 증거 *Prova religiosa sopra la castità*」,²¹

20. 느베르(Nevers) 교구 사제, Maucourant F., 「순명에 대하여. 성찰과 실천

「청빈에 대한 수도자의 증거 *Prova religiosa sopra la povertà*」, (Tipografia Marietti - Via Legnano 23, 토리노, 권당 0,60리라).

열성에 관하여: 열성에 관해서는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 연합회 의장 크리스티나 주스티니아니 반디니 ²² Cristina Giustiniani Bandini 공주가 모든 수도회에 보낸 편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교황 비오 10세의 칭찬교령을 통하여, 그녀는 여성 수도회 공동체가 전체 가톨릭 여성운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336** 은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 수도 공동체가 참으로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느 정도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모두가 한 수뇌부에 의해 인도되는 경우, 절대적으로 반드시 한 몸처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알 것입니다. 곧 각 수도단체가 고유한 정신과 고유한 활동 범위에 따라 공동의 목적에 공헌하겠지만, 공동 관심사에 있어서는 개별 수도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힘을 구축하게 됩니다. 종교 단체가 반그리스도교 단체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도단체가 모든 힘을 기울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여자수도회의 힘은 막강합니다. 만일 그들

Dell'ubbidienza. Riflessioni e pratica」. 새 이탈리아 판본은 사제 D. M. A.가 번역, 토리노, 국제출판협회(Società Editrice Internazionale, Corso Regina Margherita), 1924, pp.174, 194 참조.

21. '같은 저자, 「정결에 대한 수도자의 증거 *Prova religiosa sopra la castità*」, 토리노, Tipografia pontificia Marietti, 1905, 대략 p.210 참조.

22. '「사제적 열의…」 초판에는 'Giustiniani-Baudini'라고 되어있다. 1906년 6월 11일자에 반포된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Il fermo proposito*에 이어 1906년의 개혁 후 곧바로 여성 가톨릭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되었다. 크리스티나 주스티니아니 반디니 공주는 교황에게 자신의 계획안을 제출하여 1908년 4월 21일자로 승인받아 가톨릭 여성연합회가 탄생했다.(MM)

이 서로 일치한다면 더욱 용감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들이 단일한 지도체제를 통하여 '외부 활동'을 전개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10만 명 중 8만 명이 수도회 교육기관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메리 델 발 ²³ 추기경의

23. 라파엘 메리 델 발(Rafael Merry del Val) 추기경은 스페인 출신으로, 1865년 10월 10일 런던에서 출생하여 1930년 2월 26일 로마에서 갑자기 선종했다. 초기 교육을 영국과 벨기에에서 받았고, 18세에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영국 우샤우(Ushaw) 신학교에 입학했으며 1885년 로마의 교황청 스코틀랜드 신학교로 옮겼다.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교황청 귀족 성직자 아카데미에 들어가 1888년 12월 30일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가 사제서품 이전 차부제로 있을 때, 교황은 그에게 몬시뇰 칭호를 부여하여 런던 궁정, 베를린과 비엔나 궁정의 여러 가지 특별 사명을 맡겼다. 1892년 1월 1일, 교황 레오 13세는 그를 다시 교황청 재무관 비밀 참석자로 임명하여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고, 32세에, 아직 주교가 되지 않은 그를 캐나다에 특별 교황대사로 파견했다. 메리 델 발은 교황 비오 10세 때 국무원장이 되었고, 교황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전달하는 이로 알려졌다. 그는 모든 오류의 총합이라고 여긴 모더니즘과 자유주의에 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강한 추진력으로 가톨릭 활동을 이끌었고, 평신도 사도직도 적극 장려했으며, 교황청 기구의 개혁을 단행했다. 25년 이상 중단 없이 오후 시간을 트라스테베레(Trastevere)에서 가톨릭 청소년 협회를 위해 일했다.(역주: 라파엘 메리 델 발 추기경은 소위 <겸손을 구하는 기도>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너무도 아름다운 기도문이라 여기에 인용한다.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사랑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칭찬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찬양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다른 이보다 우선권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상담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인정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경멸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역경 중에 고통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비난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조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의심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 받기 바라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존경 받기 바라는 은총

다음과 같은 말을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교황님이 이미 다른 기회에 표현했지만 노선과 활동이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교황님의 염원입니다. 곧 가톨릭 여성조직은 유일하게 이탈리아 가톨릭 여성연합회에 속합니다.” 이 연합회에서 출간하는 책자를 읽는다면 이러한 일치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37 이밖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수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임 받은 지역의 환경, 위험요소, 가능하고 적합한 활동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고위 장상에게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소통하기 힘들 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임종 준비를 잘 시키고, 성사에 참여하게 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잘 맞이하게 가르쳐야 하며, 만일 그들이 회복되어 퇴원하게 될 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순명하고 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고, 성사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야 하고, 어린이를 통하여 어떻게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수녀들의 열성이 실천적이 되도록 본당신부가 줄 수 있는 모든 충고, 주의사항, 제안을 열거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평판이 저보다 더 좋고 저는 낮아지기 바라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다른 사람이 선택 받고 저는 외면당하기 바라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다른 사람이 칭찬 받고 저는 눈에 띄지 않기 바라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 다른 사람이 모든 일에서 저보다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다른 사람을 저보다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도 가능한 한 더욱 거룩하게 해주소서. 주, 예수여, 이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소서.”(J. Veltri, comp. *Orientalions*, Volume 1, p.108)

지역적 상황, 그들이 맡고 있는 직무, 그들 각자의 적성 등이 많은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그들의 좋은 의지로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흔히 여성 수도회에는 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덕성과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할 일 없이 놓아두는 것보다 일거리를 주면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 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안다면, 언제나 올바른 교정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338**

환상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수단들을 통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최상을 추구하는 것은 선의적입니다. 완전한 방법과 완전한 일꾼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환상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활동은 깊은 신심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은 사심 없는 마음을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모든 능력을 지닌 수녀들은 없습니다.

환상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가장 연약한²⁴ 도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겸손을 본받아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24. “하느님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 또는 조건으로서 ‘연약함’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를 참조하라. 판관 6,15이하; 시편 72,13; 유딧 9,11; 16,11; 1코린 1,18-31; 4,10; 12,5,9-19; 13,3-4,9; 15,43; 히브 11,34. 그렇지만 마니피캣(루카 1,46-56; 1사무 2,1-10 참조)처럼 찬가의 메시지도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약함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어린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하느님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도로 삼기 위하여 당신처럼 단순한 사람들과 작은 수단을 선택하셨다.

마지막 권고

출판 사도직과 말씀 사도직은 '선을 행하는' 똑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을 기꺼이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감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려 합니다.

이 책을 다 읽은 다음,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결실'을 가져다주지 못 한 채 마치 씻고 난 물을 버리듯 책이 한 구석에 던져지고
339 말까봐 두렵습니다. | 이 생각은 저를 큰 실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독자가 책을 내려놓기 전에, 양심성찰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을 간청합니다.

1. “여성을 위한 영적 활동에 있어, 과연 나의 모든 의무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참된 덕행의 실천을 위하여 그들을 양성하고 있는가? 몇 년간 활동한 다음에 어떤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

2. “원칙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윤리적 도움도 준다. 나는 여성을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참된 사명으로 이끌었는가?”

우리의 판단을 심판하실 하느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롭고 위대한 사명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열의를 다해 봉사했는지 물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회 앞에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답합시다. 우리는 세상, 악마, 육신, 주변상

황, 적, 거짓 친구들이 조장한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125편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들,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¹

1. 불가타 역 시편 125,6 (현재 126,6) 참조: “Euntes ibant et flebant portantes semina sua; venientes autem venient in exultatione portantes manipulos suos.”

발행일 | 2017년 4월 4일
옮긴이 | 이창욱
펴낸곳 | 바오로딸